

제3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 학술대회

일시 : 2013년 7월 19일(금요일)

장소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103호, 2층 국제회의실

주제 : 남북한 언어 통합

주최 : 한말연구학회 . 경기북부지역 통일교육센터

후원 : 대진대학교

일 시		발표 및 내용	비 고
제1부 (주제발표) 10:00~ 12:30	10:00~ 10:30	등록 및 접수 개회사: 정동환(한말연구학회 회장) 축 사: 이근영(대진대학교 총장)	사회자 : 김용경(경동대) [제1발표장]
	10:30~ 11:10	제1부 주제 발표 주제 : 남북한 언어 정책과 통합 방안 연구 발표: 최용기(국립국어원) 토론: 이중희, 조희원(통일교육위원)	
	11:10~ 11:50	주제 : 남북의 규범어와 표기법 통일 방안 일고 발표: 한용운(겨레말큰사전위원회) 토론: 이경순, 이상철 (통일교육위원)	
	11:50~ 12:30	주제 : 남북한 언어 이질화 경향과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 화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표: 김혜정(경북대) 토론: 차동균, 이영미 (통일교육위원)	
<점심 시간> 12:30~13:40			
(주제특강)	13:40~ 14:30	<특강> 주제 : 남북한 언어의 통합적인 연구 발표: 홍윤표(전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장)	특강 사회자 : 허재영(단국대) [제1발표장]
<휴식> 14:30~14:40			
제2부 (국어학) 14:40~ 16:10	14:40~ 15:10	제2부 분과 발표 [제1분과] 주제: 접미사 '-바리'의 설정에 관하여 발표: 김양진(경희대) 토론 : 이현희(안양대)	2부 [제1분과] 사회자 : 허원욱(건국대) [제1발표장]
	15:10~ 15:40	주제: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와 일관성 발표: 김남길·나원경(남가주대) 토론: 김용경(경동대)	
	15:40~ 16:10	주제: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발표: 황화상(서강대) 토론: 박동근(건국대)	
14:40~ 16:10	14:40~ 15:10	제2부 분과 발표 [제2분과] 주제: 지식영 "아학편"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 -이분과의 비교를 통하여- 발표: 이준환(창원대) 토론: 배영환(서원대)	2부 [제2분과] 사회자 : 최홍열(강원대) [제2발표장]
	15:10~ 15:40	주제: 한국어 음운 단어를 운율 단위인가 발표: 안병섭(고려대) 토론: 김연희(대진대)	
	15:40~ 16:10	주제: 정선방언 비음절화와 성조의 변동 발표: 최영미(경동대) 토론: 김남미(서강대)	
<휴식> 16:10~16:20			
제3부 (국어교육, 한 국어교육) 16:20~ 17:20	16:20~ 16:50	제3부 분과 발표 [제3분과] 주제: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 교육에서의 교재 구성 발표: 서정미(안양대) 토론: 서유석(한라대)	3부 [제3분과] 사회자 : 조일규(평택대) [제1발표장]
	16:50~ 17:20	주제: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및 방향 발표: 김진희(한국교원대) 토론: 신희철(경기대)	
	16:20~ 16:50	제3부 분과 발표 [제4분과] 주제: 한국어 교사의 메타말 사용과 인식에 관한 소고 발표 : 정대현(협성대) 토론: 심혜령(배재대)	
16:50~ 17:20	주제: 국외 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발표: 고경민(안동대) 토론: 김주희(경기대)	3부 [제4분과] 사회자 : 박석준(배재대) [제2발표장]	
폐회 및 총회			

<차 례>

[주제 발표]

최용기(국립국어원), ‘남북한 언어 정책과 통합 방안 연구’	1
이중희(통일교육위원), 토론	15
조희원(통일교육위원), 토론2	16
한용운(겨레말큰사전위원회), ‘남북의 규범어와 표기법 통일 방안 일고’	18
이상철(통일교육위원), 토론	30
이경순(통일교육위원), 토론	별지
김혜정(경북대), ‘남북한 언어 이질화 경향과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32
이영미(통일교육위원), 토론	45
차동균(통일교육위원), 토론	별지

[특 강]

홍윤표(전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장), ‘남북한 언어의 통합적인 연구’	49
--	----

[제1분과]

김양진(경희대), ‘접미사 ‘-바르-’, ‘-바리’의 설정에 대하여’	71
이현희(안양대), 토론	80
김남길·나원경(남가주대),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와 일관성’	81
김용경(경동대), 토론	93
황화상(서강대),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94
박동근(건국대), 토론	108

[제2분과]

이준환(창원대), ‘池錫永 『兒學篇』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	112
배영환(서원대), 토론	129
안병섭(고려대), ‘한국어 음운 단어는 운율 단위인가?’	130
김연희(대진대), 토론	별지
최영미(경동대), ‘정선방언 비음절화와 성조의 변동’	138
김남미(서강대), 토론	160

[제3분과]

서정미(안양대),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 교육에서의 교재 구성'..... 163
서유석(한라대), 토론..... 171
김진희(한국교원대),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및 방향'..... 173
신호철(경기대), 토론..... 183

[제4분과]

정대현(협성대), '한국어 교사의 메타말 사용과 인식에 관한 소고'..... 186
심혜령(배재대), 토론..... 197
고경민(안동대), '국외 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99
김주희(경기대), 토론..... 221

【 주제 발표 】

남북한 언어 정책과 통합 방안 연구

최용기(국립국어원)

<차례>

1. 서론
 2. 남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
 3. 남북한 언어 정책 현황
 4. 남북 언어 통합 방안
 5. 맺음말
- 참고문헌

1. 서론

남북한이 분단된 지 60년이 지났다.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꿈이요, 희망이다. 남북통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민족문화를 잇는, 중요한 요소인 우리의 말과 글일 것이다. 언어는 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남북한 동포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수많은 전란과 역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은 말과 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없어 서로 힘을 합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우리가 비록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도 문화적으로는 민족문화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 글은 남북한의 언어 정책 현황과 언어 통합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남북한 언어 정책 현황은 남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 남북한의 어문 규범과 어휘 차이를 중심으로 그동안 남북한이 추진해 온 언어 정책 현황을 정리한 것이고, 언어 통합 방안은 우리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2. 남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

2.1. 남한의 언어 정책 기관

광복 이후 설립된 남한의 언어 정책 기관은 1954년 문교부 소속의 학술원을 두고 국내외 학자들을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처음일 것이다. 그 이후 문교부는 1964년에 ‘국어심의회’를 설치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지만 이들은 언어 정책 기관이라 하기 어렵고 정부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부터 언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어조사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국어 순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1976년 문교부 주관으로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조직되고, 민간 조직으로 ‘국어순화추진회’가 설립되어 국어 순화 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언어 정책을 추진한 정부 조직은 1984년에 설립된 ‘국어연구소’이다. 국어연구소는 비록 비공식 기구이지만 문교부의 어문 정책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하는 조직이었고 학술원에서 관장해 오던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개정 시안을 인수받아 본격적인 심의를 하였다. 1988년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국어연구소에서 초안을 마련한 것이고 국어심의회가 심의를 마친 내용이다.

공식적인 정부 기구는 1990년 문화부가 설립되면서 정부 안에 어문출판국(현, 문화정책국)과 어문과(현, 국어정책과)를 신설한 것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핵심을 말과 글에 있다고 생각한 문화부는 1991년에 국립 기관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을 개원하였다. 본격적인 언어 정책 추진은 이 무렵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1991년에 설립되었다. 국민의 언어생활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합리적인 어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계도하려고 출발한 ‘국어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어문 규범 정비, 남북한 언어 통합, 국어 순화, 국어문화학교 운영,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원 양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연구 보고서도 국어 순화 자료집, 외래어 표기 용례집, 한국어 교재 분석, 방송 언어 연구, 신어의 조사 등 수십 종에 이르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청사(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를 2000년에 마련하였고, 21세기 국어 정책의 본산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과 2000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은 주목할 만한 일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 정책의 장기 계획인 ‘21세기 세종 계획’과 ‘한국어의 세계화 계획’, ‘개방형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우리말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연구원은 이전 5년 만에 기관 명칭을 ‘국립국어원’으로 바꾸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정책을 넘겨받기도 하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국어 정책의 상당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넘겼다. 현재 국립국어원은 1과 3부(1실1단1부)의 체제로 정원 45명, 연간 예산 1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의 ‘국어기본법’과 7월의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국어 진흥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 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

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은 1947년 김일성대학 안에 ‘조선어문연구회’가 설립된 것이 최초이며 조선어와 조선 문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곳에서는 조선어의 규범화와 정화 방안, 한자 폐지 방안, 과학적 철자법 개정 등을 연구 과제로 삼았다. 첫 번째 결실이 바로 ‘조선어 신철자법’이다. 1949년에는 교육성 직속의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혼란에 빠진 학술 용어를 통일하고 문맹 퇴치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북한의 국어 연구는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이 창설됨에 따라 ‘조선어문연구회’는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로 개편되었다.

그 이후 1960년대에 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은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1966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원회가 내각의 직속이 된 것을 보면 언어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언어 정책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은 이 위원회는 언어 연구와 선전, 선동 사업에 힘을 쏟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1966년에 ‘조선말규범집’을 발간하였는데 이 규범집은 북한 철자법의 근간이 되었다. 또 이 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말다듬기 사업’인데 언어학연구소의 18개 전문 용어 분과 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일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1964년 2월 17일 내각 결정 제11호에 기대어 과학원 기구를 개편하였다. 과학원 산하 사회과학위원회를 분리하여 사회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언어문학연구소’를 ‘언어학연구소’와 ‘문학연구소’로 분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언어학자들은 ‘조선언어학회’를 결성하였다. 북한 과학원의 업적은 규범 문법 편찬과 함께 ‘조선어소사전’을 편찬하고 1962년에 ‘조선말사전’을 완간(6권)하였다.

북한은 1968년 계간지 ‘문화어학습’을 창간하면서 문화어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문화어학습’은 각 호마다 첫머리에 김일성 주체 언어 이론과 관련된 글이 나오고 문화어 지식, 생활과 언어, 물음과 대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이후에 1969년 ‘현대조선말사전’, 1973년 ‘조선문화어사전’을 발간하였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은 문화어 운동이 정착되면서 전문성을 띤 서적과 개인 저서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 당의 언어정책’(1976), ‘언어학론문집’(1979), ‘주체의 언어이론 연구’(1982) 등 사상성과 관련된 책들이 나타나고, 국어사정위원회의 ‘외국어적기법’, 최정후의 ‘조선어학개론’, 한영순의 ‘어음 및 글자론’ 등은 언어 사실에 관련된 저서들이다. 이 시기에 문법 이론서와 전공 교재들도 편찬되었다. 또한, 사전류 등도 발간이 되는데, ‘현대조선말사전’(1981), ‘방언사전’(1980), ‘다듬은말 묶음’(1977), ‘조선속담’(1984) 등이 나왔다. 1980년대 이후에 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은 별 다른 변화가 없고, 언어 정책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장 큰 특징은 ‘조선말규범집’의 대폭 수정이다. 또한, 1992년 ‘조선말대사전’(2권, 33만 어휘)의 편찬하였고, 2000년도에는 ‘띄어쓰기 규정’을 개정하였다.

결국 북한의 언어 정책 기관은 사회과학원 소속의 ‘언어학연구소’와 내각 직속의 ‘국어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남한의 언어 정책 기관과 비교한다면 ‘국어사정위원회’는 ‘국어심의회’,

‘언어학연구소’는 ‘국립국어원’과 대비가 될 것이다.

3. 남북한 언어 정책 현황

3.1. 남북한의 언어관

남한의 언어 정책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자유방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언어 정책은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꾼 용어 중에는 약간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국어 순화 운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전문가와 관계 인사들이 성의를 다하여 심의 결정한 것이므로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를 아껴 활용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문교부, 국어 순화 자료 1집, 1977)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번엔 내보내는 다듬은 말을 집필활동과 교육사업, 국가문건들과 언어생활에 반드시 받아들여 쓰도록 할 것이다.”(국어사정위원회, ‘다듬은말’, 1986)

남한의 언어 정책을 대체로 개방적이고 자유방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언어 교육을 기능 교육과 태도 교육으로 나누고 학교 교과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즉,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의미 전달의 도구로 생각하는 언어 도구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언어 정책은 당 중심의 언어 정책으로, 계획적이고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민족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는 규범을 세워야 사회의 언어 규범이 될 수 있으며 언어의 사회적 기능도 높일 수 있고 사회주의적 민족어 건설에 언어 규범이 올바르게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1.1. 한글 맞춤법과 조선어 철자법

훈민정음이 반포(1446년)된 뒤에 한글은 표음주의 표기법 쪽으로 기울어졌다. 1912년에 마련된 최초의 표기법인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이나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 1930년의 ‘언문 철자법’이 모두 이러한 경향의 철자법이었다. 그런데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이들과는 달리 형태주의 표기법이었다. 이 ‘통일안’은 남북이 분단된 뒤에도 남북한에서 다 같이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1954년 북한에서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남북한의 표기법이 달라졌다.

북한은 그 이후 1966년에 철자법을 다시 개정하였고 1987년에 재개정을 단행하였다. 1966년의 맞춤법에서는 중간 ‘ㅎ’을 배척하고 사이표(사이시옷 표기 부호)를 삭제하였다. 1987년의 맞춤법은 말다듬기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을 뿐이고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1988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개정하였는데 현행 ‘한글 맞춤법’의 특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미비한 규정 보완, 지켜지지 않는 규정의 개정과 현실화, 개정의 폭 극대화’ 등이라고 하였지만 대폭 수정을 하였다.

3.1.2. 표준어와 문화어의 도입

우리말은 하나의 말(한국어)이지만 지역 방언(혹은 지역어)과 사회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방언은 동북 방언(함경도, 양강도), 서북 방언(평안도, 자강도), 중부 방언(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호남 방언(전라도), 영남 방언(경상도), 제주 방언으로 나누고, 사회 방언은 남한의 표준어, 북한의 문화어, 재외동포

의 조선말(또는 고려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의 형성은 지역이나 사회 체제 사이의 언어 접촉이 잦지 못함으로써 각기 다른 발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인위적으로 정한 말이 규범 언어이다. 이 규범 언어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심지에서 사용되는 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서울말을 바탕으로 한 규범 언어를 ‘표준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바탕으로 한 규범 언어를 ‘문화어’라고 한다.

남한의 ‘표준어’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어로 함.”이라고 한 이래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한 데서 비롯한다. 그 이후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표준어 모음집인데, 이 모음집은 1988년의 ‘표준어 규정’이 나올 때까지 50여 년 동안 표준어의 기준이 되었다.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 뒤에 1990년 9월에는 국어연구소가 조사하여 사정한 ‘표준어 모음’을 문화부가 추가로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50만 어휘 수록)을 발간함으로써 표준어의 영역을 더 확대하였다.

북한의 문화어는 정치 사회적인 이념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다. 그 운동의 출발은 김일성의 1964년과 1966년에 발표된 교시에서 비롯된다. 특히 1966년 교시에서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고, “표준어는 서울말을 표준 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화어’라는 이름으로 고쳐 쓰는 것이 낫다.”라고 지시하였다.

‘문화어’에 대하여 ‘조선말대사전’(1992)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이다. 우리의 문화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당의 올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 민족어의 본보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준어’와 ‘문화어’는 기준으로 삼은 지역과 사회적 체제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표준어는 지역적으로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회 체계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말’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어는 지역적으로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체계에서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게 가꾸어진 언어’라고 볼 수 있다.

3.1.3.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

모든 언어는 다른 민족과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외래어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이들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고 표음주의를 취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 뒤 1940년 조선어학회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남한에서는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이 1948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렵다고 하여 1958년에 다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 발표되었다. 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한글 정자법(正字法)에 따른 현용 24 자모만을 쓰고 외래어는 원칙적으로 1 음운 1 기호로 표기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 1986년에 다시 개정되어 오늘날의 ‘외래어 표기법’이 되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1956년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면서 어음 구성이 유사한 외래어는 가급적 현대 로씨야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의거 표기하기로 한다.’(제4항)라고 하여 러시아어에 의한 표기를 우선하였다. 또한 제14항에서는 ‘k, t, p’와 같은 무성파열음을 ‘ㅍ, ㅌ, ㅍ’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1958년에는 이 외래어 표기법이 남한과 다름을 인식했음인지 수정한 ‘외래어 표기법’을 내어 놓았다. 이 규범은 1984년의 ‘고친 외래어 표기’에서 다시 원음을 중시하는 표기법으로 바뀌었다. 이는 김정일의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의 말인가를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어 위주의 표기에서 원음주의로 바뀔 때 따라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는 전에 비해 서로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1969년에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기 위해 ‘외국말 적기법’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이는 다시 수정되어 1985년 ‘외국말 적기법’으로 정착되었다.

3.1.4. 남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한글의 로마자 표기는 서구인들에 의해 그 방안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방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1930년대의 매쿰-라이샤워 안(McCune-Reischauer System)이다. 조선어학회에서는 1941년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부록으로 '조선어음 로마자 표기법'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1948년 첫 번째 정부안의 결정을 보았는데 이것이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이다. 여기서는 파열음 'ㄱ, ㅋ, ㆁ'의 경우 'k, kh, gg'로 표기하고 유성음은 'g', 받침은 초성과 마찬가지로 적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1959년에 결정된 문교부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g, k, gg'의 체계를 따른 것이었다. 그 뒤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1984년에 제정 고시되었다. 그러나 이 표기법도 특수 부호(반달표, 어긋점) 때문에 불편하다는 행정 개혁위원회의 지적과 유·무성음의 구분이 어렵다는 건의 때문에 2000년에 새로운 표기법을 개정 고시되었다. 이 표기법의 특징은 모음에서 '어, 의'를 'eo, eu'로 하였고, 자음에서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적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ㄷ, ㅌ, ㅍ, ㅊ'를 'k, t, p, ch'로, 'ㄱ, ㅋ, ㆁ, ㅈ, ㅉ'를 'kk, tt, pp, ss, jj'로 적도록 하였다.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은 1956년에 간행된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에 들어 있다. 곧 '외국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이 그것이다. 이는 표음주의적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남한의 1984년에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비슷한 것이다. 이 표기법은 남한에서 고시한 1984년의 표기법과 유사하지만 2000년의 표기법과는 차이가 있다. 빗금 앞의 표기가 북한의 것이고 뒤의 표기가 남한의 것이다.

ㅈ ts / j , ㅊ tsh / ch, ㅉ tss / jj, ㅛ oi / oe, ㅟ ai / ae, ㅠ yai / yae

이와는 별도로 국제표준기구(ISO)의 '한글의 로마자 전자법 제정'을 위한 남북한의 통일안 마련 회의도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에는 별 다른 견해가 없다.

3.2. 남북한의 어휘

남북한의 어휘가 다른 까닭은 여러 원인이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지역과 사회 체제를 중심으로 표준말을 정하였다. 즉,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에서는 서북 방언에 불과하던 많은 어휘들이,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에서는 규범 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둘째, 남한에서는 일본어투나 서구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 순화를 하였고, 북한에서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되도록 쓰지 않기 위해 말다듬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셋째,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이 다르다 보니 달라진 어휘가 생겨났다. 넷째, 다른 사회 체제 때문에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3.2.1. 형태가 다르고 뜻이 같은 말

(1) 북한의 문화어가 된 지역 방언 어휘

북한의 문화어 가운데에는 북한 지역의 방언에 해당되던 어휘 중에 적지 않은 수가 현재의 문화어에 포함됨으로써 남한의 표준어와 다른 어휘 부류를 형성했다. 이것은 북한이 고유어를 살려 쓰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동북 방언, 서북 방언)에서 쓰이던 방언들 중에서 많은 어휘를 문화어로 올렸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0여 개의 어휘들이 북부 방언에서 문화어가 되었다. (*괄호 안의 낱말이 남한의 표준어이거나 남한의 표현임.)

가시아버지(장인), 가잡다(가깝다), 강구다(기울이다), 강보리밥(공보리밥), 계사니(거위), 그쫌하다(잘 갖추어져 있다), 남새(채소), 내굴(연기), 녹다(값이 싸다), 닭알(달걀), 되우 (몹시), 똑쟁이(무뚝뚝한 사람), 마사지다(부서지다), 망돌(맷돌), 망탕(마구), 무리(우박), 바라다니다(마구 돌아다니다), 바재이다(마음 졸이다), 방치돌(다듬잇돌), 번지다(거르다), 부루(상추), 상기(아직), 소래(대야), 숙보다(깎보다), 아츠럽다(거북하다), 여가리(가장자리), 여직(여태), 인차(곧), 자래우다(기르다), 정지(부엌), 터지다(대단히

많다), 하냥(줄곧)

(2) 독음(讀音)과 음운 차이

남북한의 맞춤법의 차이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한자어는 같고 단순히 한자어의 독음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였다. 심지어 남한의 국어사전에서도 북한식 독음을 그대로 표제어(올림말)로 올린 것도 있다. (*북한의 문화어 - 남한의 표준어)

개준-개전(改悛), 각담-객담(喀痰), 거출-각출(釀出), 발취-발취(拔萃), 사촉-사주(使曷),
오유-오류(誤謬), 외곡-왜곡(歪曲), 준첩-준설(浚濶), 표식-표지(標識), 홍문-항문(肛門)

남북한의 음운적 차이로 달라진 어휘도 있다. 여기에는 '1' 모음 역행과 순행 동화로 변음된 것, 모음이 교체된 것, 된소리와 예사소리로 변한 것, 음절이 축약된 것, 전설 모음화가 일어난 것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괄호 안의 낱말이 남한의 표준어임.)

거마리(거머리), 도드라기(두드러기), 무대기(무더기), 웅덩이(웅덩이), 지푸래기(지푸라기), 헤엄(헤엄),
논둑(논둑), 원쑤(원수), 색갈(색갈), 손벽(손뻑), 잠간(잠깐), 드디어(드디어)

(3) 국어 순화와 말다듬기에 의한 어휘

국어 순화는 남한에서 추진한 국어 정화 운동으로 고운 말, 바른말, 쉬운 말을 가려 쓰자는 것이며, 국어 순화의 대상은 일본어투, 외국어나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다. 말다듬기는 북한에서 문화어 운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한자어로 된 공통 어휘였던 것이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많다. (*괄호 안의 낱말이 순화 대상 용어임.)

<국어 순화에 의한 차이>

개최지 이점(홈 어드밴티지, home advantage), 거리팔기(가두판매, 街頭販賣), 길잡이
(가이드, guide), 고치다(改造하다), 깔개(매트, mat), 다시맵시(각선미, 腳線美), 막팔기
(덤핑, dumping), 상여금(보너스, bonus), 싣다(揭載하다), 실수(에러, error), 안내서
(가이드북, guidebook), 안전요원(라이프가드, life guard), 에누리(디스카운트, discount),
웃돈(가전, 價錢), 잦다(頻繁하다), 일정표(스케줄, schedule), 지도력(리더십, leadership),
탈놀이(가면무도회, 假面舞蹈會), 테두리(아웃라인, outline), 갓길(노견, 路肩)

<말다듬기에 의한 차이>

가까운바다(근해, 近海), 가락지빵(도넛), 가루소젓(분유, 粉乳), 가슴띠(브래지어),
가짜죽음(가사, 假死), 고루깍기(평삭), 교예(서커스), 기다림칸(대합실), 기름과자(캐러멜),
껴울림(공명, 共鳴), 꽃대기(리본), 꽃 피는 때(개화기), 끝신(슬리퍼), 나넌옷(투피스),
단졸임(잼), 달린옷(원피스), 동강치마(미니스커트), 마른물고기(건어), 무리등(상들리에),
바깥힘(외력), 불견딜성(내화성), 설기과자(카스테라), 손기척(노크), 썩음막이약(방부제),

그런데 위와 같이 남한에서 순화한 말과 북한에서 다듬은 말 중에는 다른 것도 많지만 같은 말도 상당히 많다. 2002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에 따르면 남한 순화 용어 22,655 항목과 북한 다듬은 말 자료 38,307 항목을 비교한 결과 705 항목이 서로 같다고 하였다. 남한과 북한에서 같은 말로 고친 것은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의 낱말이 순화 대상 용어임.)

가는붓(세필), 감추다(은닉하다), 값다(상환하다), 검은숯(흑탄), 겉모양(외양), 겨를(여가),
겨울잠(동면), 구름무늬(괴운문), 그림자(음영), 기름(유지), 꼬리등(미등), 끝다(견인하다),
살다(서식하다), 살찌우기(비육), 소가죽(우피), 싣다(적재하다), 씨앗(종자), 알뿌리(구근),
어린모(유묘), 어미돼지(모돈), 여러해살이(다년생), 옮겨 심다(이식하다), 잔모래(세사),

홀눈(단안), 막팔기(덤핑), 사진첩(앨범), 속임동작(페인트모션), 찾아보기(색인)

(4) 남북한의 어문 규정으로 달라진 어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남북한의 어문 규정의 차이로 달라진 말들도 상당히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음 법칙에 의한 차이이다.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진 것들이다. 남한의 ‘한글 맞춤법’은 두음 법칙에 따라 적도록 한 반면에, 북한의 ‘조선말 규정집’은 한자말은 음절마다 한자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낙원, 노동, 내일, 양심, 요소, 여성’으로 쓰고 발음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락원, 로동, 래일, 량심, 뇨소, 녀성’으로 적고 발음한다.

또한, 사이시옷에 의한 차이도 심각하다. 남한의 ‘한글 맞춤법’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고유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앞말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에서 ‘나무가지, 바닷가, 아랫방, 아랫니, 예삿일’로 적는 어휘들을 북한에서는 ‘나무가지, 바다가, 아래방, 아래니, 예사일’로 적는다. 그러나 이들은 적는 법만 다를 뿐 발음은 남북한이 동일하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어간의 모음이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에는 어미를 ‘여, 였’으로 적도록 하여 남한의 한글 맞춤법과 다르다. 그래서 기본형이 ‘기다, 개다, 베다, 되다, 희다, 하다’인 경우는 북한어에서 ‘기여, 기였다’, ‘개여, 개였다’, ‘베여, 베였다’, ‘되여, 되였다’, ‘희여, 희였다’, ‘하여, 하였다’가 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하다’만을 불규칙 용언으로 보아 ‘하여, 하였다’와 같이 적고 나머지는 ‘기어, 기었다’, ‘개어, 개었다’처럼 적는다.

외래어를 적는 방법도 남북한이 서로 달라 표기와 발음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에는 1940년대에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따라 썼다. 그러나 남북한이 각각 다른 정부를 세운 뒤에는 언어 정책이 달라지고 주로 접하는 외국어도 달라져 외래어 표기법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되도록 외래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고유 명사를 포함하여 일부 외래어는 쓰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조사해 볼 결과 북한에서도 많은 외래어를 쓰고 있다. (*괄호 안의 낱말이 남한의 외래어임.)

그루빠(그룹), 까히라(카이로), 깜빠니야(캠페인), 네델란드(네덜란드), 도마도(토마토), 두나이강(다뉴브강), 딸라(달리), 땅크(탱크), 트랙포르(트랙터), 라지오(라디오), 로씨야(러시아), 마자르(헝가리), 메히꼬(멕시코), 미누스(마이너스), 벨지끄(벨기에), 폴스까(폴란드), 스케트(스케이트), 슬로벤스꼬(슬로바키아), 썬빠울로(상파울루), 아빠트(아파트), 에네르기(에너지), 와르샤와(바르샤바), 우라니움(우라늄), 에집트(이집트), 월남(베트남),

외래어 표기법의 가장 큰 차이는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ㄱ, ㄷ, ㅃ, ㅆ, ㅈ’ 등 된소리를 파열음 표기에 쓰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된소리를 쓴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남한에서는 주로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에서는 러시아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서로 다른 외래어가 생겨났다. 또 지명과 인명을 비롯한 고유 명사를 적을 때도 남한은 ‘이집트, 베트남’처럼 원음보다는 그 말을 전해준 언어의 소리나 관용을 중시하는데, 북한은 ‘에집트, 월남’처럼 원음에 가깝게 적도록 하거나 받침에 ‘ㅍ, ㅌ’ 등을 표기하는 것도 남한의 외래어 표기와 다른 점이다.

(5) 북한의 관용 표현

남한에서 쓰지 않는 관용 표현들을 북한어에는 많이 있다. 아래 내용은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용 표현들이다.(*괄호 안의 관용 표현이 남한의 것임.)

가리산을 못하다(갈팡질팡하다): 어떻게 된 셈인지 가리산을 못하다가…….
돈키가 높다(값이 비싸다, 빛이 많다): 돈키가 높아서 우리 손에 넣기는 힘들다.
면목이 서다(체면이 이루어지다): 그것을 5·1절까지 만들어 놓아야 면목이 선다.
바람을 쬐다(배를 차게 하여 배를 앓다): 바람을 쬐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은을 내다(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 오다): 석탄 생산에서 은을 내는 새로운 발파법.

잔밥에 빠지다(어린아이 잔시중을 들다): 잔밥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다.
죽탕을 치다(볼품없이 만듦): 무자비하게 죽탕을 쳐버리다.

새 말을 만들어 내는 방법(‘조어법’이라고 함)의 차이 때문에 낯설게 보이는 말들도 있다. 조어법의 경우 북한에서는 이미 있던 접사들의 기능이 확대되어 사용되거나 특히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던 것들이 용언 파생의 새로운 어미처럼 사용되어 새로운 낱말을 많이 생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지다, -차다, -싸다’라는 접미사들이 매우 생산적이어서 ‘차례지다, 자랑차다, 사내싸다’와 같은 말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동사의 사역형이나 피동형을 만드는 방법도 달라서 남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우-가 북한에서는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놀라게 하다’의 뜻으로 ‘놀래우다’, ‘자라게 하다’의 뜻으로 ‘자래우다’, ‘빛내다’의 뜻으로 ‘빛내우다’, ‘가려지다’의 뜻으로 ‘가리우다’가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 남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 ‘저주롭다, 고르롭다, 명랑스럽다, 우연스럽다, 자랑겹다’처럼 ‘-스롭, -롭-, -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도 있다.

용어가 아예 다른 경우도 있다. 남한에서는 ‘양로원,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양생원, 위생실’이라고 부르고, 또한 ‘서로’라는 뜻의 한자어를 남한에서는 ‘상호(相互)’, 북한에서는 ‘호상’이라고 다르게 부른다.

3.2.2. 형태는 같고 뜻이 다른 말

남북한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말이다. 형태가 다르거나 서로가 모르는 어휘일 경우에는 주의하여 그 단어의 뜻을 알려고 하겠지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1) 남북한에서 다른 뜻을 가진 어휘

같은 단어인데도 남북한에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담배’라는 말의 뜻은 남한에서는 ‘날담배’와 같은 말로 담뱃갑을 뜯어 날개로 피는 담배를 가리키는데, 북한에서는 종이로 만 담배(꺄련)를 가리킨다. ‘빨치산’도 남한에서는 ‘게릴라’를 의미하나, 북한에서는 ‘혁명적 영웅’을 뜻한다. 또 ‘노작’(북한에서는 ‘로작’으로 표기)이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힘들여 만든 작품을 뜻하는 말인데, 북한에서는 주로 김일성의 저작을 이룰 때에 쓰는 말이 되었다. 이 밖에 ‘담보’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돈을 빌릴 때 맡기는 물건’인데, 북한에서는 ‘어떤 목적의 실현을 어김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감투’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벼슬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나 북한에서는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책임이나 누명을 비겨 이르는 말’이 되었다.

(2) 남북한에서 어감이 다른 어휘

기본적인 뜻은 같으나 남북한에서 어감(말의 느낌)이 다른 말들도 있다. 이런 말들은 남북한이 전혀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한에서 좋은 뜻이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남한에서 좋지 않은 뜻이 북한에서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가령 남한에서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나, 북한에서는 ‘착취와 협잡으로 굶어모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진탕 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여 안 좋은 뜻으로 쓰인다. ‘신사’도 남한에서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 있으며 예의바른 남자’를 가리키나, 북한에서는 ‘말썹한 차림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자’라고 하여 안 좋은 뜻으로 쓰인다. 반면에 ‘소행’이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좋지 않은 행위에 쓰이나(소행이 괘씸하다), 북한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다(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다). ‘보채다’는 남한에서는 ‘성가시게 조른다.’는 뜻인데,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극한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또한, ‘방조하다’는 남한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도와주다’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3) 남북한에서 새로 뜻이 더해진 어휘

남북한 모두 기본적인 뜻은 같으나 특히 북한에서 새로운 뜻이 더해져서 차이가 나는 말들이 있다. ‘바쁘다’라는 말은 남한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것’만 가리키는 데, 북한에서는 ‘무엇을 하기 때

우 어렵거나 딱하다는 뜻'이 더 있다. '번거롭다'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일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다'는 뜻만 있지만, 북한에서는 '생각이 어수선하다'는 뜻이 더 있다(차츰 머리가 번거로와지는……). 또한 북한에서는 '총질'은 '눈총을 쏘는 것', '종자'(種子)는 '문예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 '해살'(남한의 표기는 '햇살'임)은 '인민에게 비추어 주는 희망과 행복의 빛살', '세포'는 '당원을 교양하고 단련하여 지도하는 기본 조직', '아저씨'는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형부)이라는 뜻이 덧붙여졌다.

3.2.3. 남북한에서 새로 생겨난 어휘

남북한은 현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사회 체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념(이데올로기)에 관계되는 말들은 당연히 서로 다르거나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남한의 표준어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가령 '부동산 중개인, 주말 농장, 재테크, 맛벌이'와 같은 말은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 남북 분단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말이 엉뚱하게 변질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친한 벗을 가리키는 말인 '동무'나 뜻이 서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동지'는 이전에는 널리 쓰던 말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는 말로 널리 쓰이자 남한에서는 이를 사회주의 언어라고 하여 이를 회피하고 그 대신 한자어인 '친구'를 널리 쓰게 되겠다. 남한에서 광복 이후 생겨난 신어와 외래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다이어트: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제한하는 일.
- 데이트: 이성 간에 교제를 위하여 만나는 일 또는 그 약속.
- 러시아워: 통근, 통학 등으로 교통이 몹시 혼잡한 시간.
- 레크리에이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을 북돋우기 위하여 오락이나 여가를 즐기는 일.
- 재수생: 입학시험에 실패한 뒤 다음해를 대비하여 다시 공부하는 학생.
- 효도 관광: 자녀들이 비용을 대어 부모님께 여행을 시켜 드리는 것.

반면에 북한의 문화어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생활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

- 가두녀성: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
- 가을빼꾸기소리: 믿을 수 없는 헛소문.
- 광포쟁이: 허풍이 많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 닭공장: 닭을 공업적 방법으로 많이 키우는 기업소. 또는 그 건물.
- 뜨개부부: 사실혼 부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어울려 사는 남녀.
- 밥공장: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물들을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 평양속도: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건설하는 데서 창조된 사회주의 건설의 매우 빠른 속도.

한편, 중국의 조선말 어휘도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생소한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복무원(식당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 소저(여자 종업원), 안배(적당히 나눔), 일없다(괜찮다)' 등이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낱말들은 북한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므로 별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4. 남북 언어 통합 방안

남북 언어의 통합은 정부 부처, 연구 기관, 학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남북통일 이전과 남북통일 이후의 언어 통합 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쓴 글이므로 이대로 실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 문제는 남한 내의 통합, 북한 내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 여러 가지의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 기본 원칙과 고려 사항, 통합 방

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4.1. 기본 원칙과 고려 사항

남북한 언어 통합의 사업으로 남북한 어문 규범의 통일, 국어 연구 자료의 교환, 통일 국어 대사전 편찬, 국어 순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은 구체적으로 국어학계 인사의 우대 시책과 고용 창출, 국어학계 인력 육성, 민족어 발전을 위한 ‘남북언어공동위원회’ 구성 등 신뢰와 통합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어문 규범 차이의 조사와 통일 협약 체결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남북언어통합기구’를 국무총리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별도 기구(가칭 ‘남북언어통합위원회’)로 신설하거나 부서 조직(가칭 ‘남북언어통합실’)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민간 조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남북한 언어 통합 업무를 전담할 단체(가칭 “한국어통합연구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어문 단체 중 하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남북언어통합위원회’는 남북 언어 통합 업무 정책을 총괄하고, ‘한국어통합연구원’은 이를 전담하고 집행한다. 아울러 ‘남북언어통합위원회’는 부문별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어통합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전자는 남북한 당국과 행정 기관의 통폐합 사무를 맡고, 후자는 남북한의 기존 사회 단체의 통폐합 사무를 맡는다.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기존의 문예진흥기금과 남북협력 기금, 관광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통일 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통일 기금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목적세 신설이나, 통일문화복권 발행이나, 사적복제 부과금 도입이나, 특별 소비세 도입, 북한 관광 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다. 남북한 간의 결코 사소하지 않은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할 문화적 갈등의 심각성은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 남북통일 이후 남북한 교류 증대와 함께 이러한 갈등은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해와 협조 차원에서 적극적인 언어문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준비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언어 통합 방향의 장기적인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4.2. 남북 언어 통합(예시)

4.2.1. 남북언어통합위원회와 한국어통합연구원 발족

초기에는 ‘남북언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점차 ‘한국어통합연구원법’을 제정하여 점차 기관의 법률적 성격과 기능, 재산 및 회계 관계 등을 확대한다. 한국어통합연구원의 조직 구조와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통합연구원 정원의 규모는 임원 3인에 기획국, 통합국, 연구국의 3국 체제로 갖추는 것이 적당하며 총 인원은 100명 내외로 한다. 통합국은 사업부, 지원부, 복지부로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부는 북한 언어 통합 업무, 북한 어문 규범 업무, 언어 통합 프로그램 보급을 담당하고 지원부는 언어 통합 분야의 모든 지원 사업을 관장하고 복지부는 언어학자와 어문 단체들의 복지 후생 사업을 담당한다.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재정 확보 방법은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독일 통일 조약에서 문화적 과제의 이행과 재정의 보장,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선언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 기금을 문화, 예술 및 예술가 후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양한 문예 분야에 투입할 것을 법적 명령으로 적시하며, 지원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명시하였다. 문화 통합 비용의 재원 조달 가능성으로는 첫째,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이나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문화통합기금을 설치하는 방법, 둘째 정부 차원에서 채권 발행이나 외자 도입이나 통일세를 신설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언어문화 통합 사업의 비용으로 일정 지분을 요구하는 방법, 셋째 국고 즉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예술 부문 예산을 활용하면서 기업이나 국민 등 민간 부분의 도움을 받으며 언어 통합 사업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소요되는 사업에 적정한 재원 규모를 조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일문화기금의 신설을 사전에 검토해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화기금은 첫째,

남북협력기금 중 일정액 출연, 둘째 통일 문화 복권 발행, 셋째 북한 관광 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해서 그 중 일부를 통일문화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4.2.2. 남북 어문 규범 통일

남북한이 통일해야 할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남한 기준) 등 4대 어문 규범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어두 ㄹ이나 ㄴ의 표기, 사이시옷 표기, 모음 동화, 띄어쓰기, 문장 부호, 한글 자모 배열순서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통일 당시에는 복수 표기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표기로 조정한다. 표준어 규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표준어와 문화어, 다듬은 말, 순화 용어의 선택 등이 될 것이다. 통일 당시에는 표준어와 문화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통합된 복수 표준어를 정리하여 단일 표준어로 조정한다. 외래어 표기에서는 영어식 발음을 표기하는 것과 러시아어식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남북한 모두 원지음 표기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은 통일이 되어 있으므로, 통일 당시에는 외래어 복수 표기를 인정하고 통합된 복수 외래어를 정리하여 단일 외래어로 조정한다. 중국 동포들의 한자음 표기는 남북한의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로마자 표기에서는 남북 모두 전자법과 전사법의 표기가 공존하는데 전자법에서는 자음의 경우 어두의 무성음과 유성음 표기가 다르고, 모음의 경우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여섯 글자의 표기가 다르다. 전사법의 경우는 발음대로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므로 통일 당시에는 복수 표기를 인정하고 점차 단일 표준어로 조정한다. 어문 규범의 통일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남북언어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유기적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언어통합위원회는 한국어통합연구원과 협력함으로써, ‘작은 정부’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양의 언어 통합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4.2.3. 국어 연구 자료의 교환

학문 연구에서 자료 교환과 이론 연구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실천이라는 앞바퀴가 있어야 한다. 국어 연구 자료 교환과 이론 연구는 어느 한쪽이 더 크거나 작으면 학문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말 것이다. 특히 이론 연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지만 자료 교환은 변화하지 않는 영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국어 연구 자료 교환은 이론적 연구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국어 연구 논저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의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의 연구 업적을 알기 쉽지 않다. 최근에 거래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에 북측 편찬위원회가 제공한 목록들이 있으나 그 자료가 구체적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남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해 놓은 기사 색인을 통해 국어 연구 논저 목록을 검색할 수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도 ‘국어 연구 논저 목록’을 제작하여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북한 학자들이 각각의 연구 업적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의 자료 교환은 이른바 말뭉치(코퍼스)의 교환일 것이다. 남한에서는 ‘21세기 세종 계획’이라는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구축된 말뭉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말뭉치 구축 현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뭉치 구축을 남북한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2.4. 통일 국어 대사전 편찬

통일 국어 대사전 편찬은 장차 남북 언어 통합이라는 과제를 완성하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남북의 국어 학자와 문인, 사전 편찬자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편찬 작업은 남과 북이 따로 할 수 있을지라도 편찬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래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남북 관계 등으로 중단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의 성격이 ‘통일’ 국어 대사전이

아니고 남과 북의 ‘통합’ 국어 대사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겨레말큰사전’은 당초 2005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남북의 여러 사정으로 2년을 연장했고, 다시 5년을 연장하여 2019년에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전은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각각 이들 사전이 수정판을 준비하거나 수정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시각의 국어 대사전 편찬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국어 대사전은 표준어와 문화어의 ‘통합’ 사전이 아닌 전문 용어의 표준 용어까지 아우르는 ‘통일’ 사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4.2.5. 국어 순화(말 다듬기)의 방안

남북한은 우리말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어 순화(말다듬기) 운동을 펼쳐 왔다. 남한은 광복 이후 국어 정화 운동의 하나로 고운 말, 바른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국어 순화 운동을 펼쳐 왔고, 북한은 문화어 사용 운동의 하나로 말다듬기 운동을 펼쳐 왔다. 국어 순화와 말다듬기의 대상은 일본 어투 용어, 서구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 등이며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현재도 남북한 모두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며, 국어 순화와 말다듬기에 의한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언어 통합에 대비하여 국어 순화(말다듬기)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순화어와 다듬은 말은 남북한 국어사전에 등재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언어란 언중이 사용해야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통일 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언중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자연적으로 도태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순화어와 말다듬기 어휘 중 우리의 문헌에 나오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람, 미르, 미리내’ 등을 다시 사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사용은 자제하되, 적당한 용어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인 학술 용어나 대체하기 곤란한 외래어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순화어 사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고유어를 지나치게 고집하여 한자어의 뜻풀이 식 구(句) 형태의 순화어는 곤란하다.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순화 어휘나 다듬은 말이 너무 길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어가 생명력을 얻어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어로 인정하여 국어사전에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언어의 부정적인 요소 즉, 남한에서는 외국어와 외래어 남용 통제를, 북한의 경우 지나친 말다듬기 작업을 줄여야 할 것이다. 언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감과 민족적 동질성을 다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남북한 언어의 문제 중에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언어에 대한 태도이다. 남한은 언어 속에 민족성이 깃들어 있다는 훔볼트(W. von. Humboldt)의 세계관 이론을 적용하여 언어가 문화를 창조하거나 언어가 사람을 결속시킨다는 것을 국어 정책과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언어가 인간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언어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남북한 언어를 통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규범을 통합할 수 있는 남북한 범민족 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 기구는 남북한 어문 규범 통합을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갖도록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맞춤법은 형태 음소적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두음 법칙 적용 여부와 사이시옷 표기는 조금씩 양보를 하면 될 일이다.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는 복수 표준어로 두고 천천히 바꿔 가면 될 일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원지음 표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조금씩 보완을 하면 될 일이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다 같이 표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견 접근이 꽤 이루어진 부분이다.

둘째, 우리말(국어) 순화 운동을 범민족적으로 벌여야 한다.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이나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어느 국가나 외국과 접촉이 잦으면 외래 문물이 들어오고 동시에 이를 가리키는 말도 따라 들어오게 마련이다. 그럴 경우 그 나라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외국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많이 쓰이다가 광복 후에는 남한은 영어가, 북한은 러시아어가 들어와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남한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일상 회화에서까지 영어를 섞어

쓰는 일이 늘어만 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문화어 운동을 계기로 하여 많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었다. 남한도 197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사이에 달라진 어휘도 많이 있지만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려는 정신은 서로 같다.

셋째, 언어 통일의 지름길은 우리말(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언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성이 깃들여 있다고 하듯이, 우리가 한 민족임을 확인하는 것은 남북한이 우리말 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북한은 동기야 어떻든 우리말을 충실하게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말이 발전된 언어라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영어 사용 권장과 초등학교 영어 조기 교육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물론 영어가 국제 공용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모국어를 충실하게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서 더 시급한 일이다. 또한, 남북한 언어 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도서출판 길벗.
(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언어 정책』. (주)정문사문화
(2000). 『21세기의 국어 정책』. 학술 발표 요지.
국어학회(1993). 『세계의 언어 정책』. 태학사.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1989). 『북한의 국어 연구』. 일조각.
(1989).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도서출판 녹진.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언어』. 태학사.
(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남성우(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문화관광부(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최용기(2001). <남북한 어문 정책 변천 연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제1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한국어 정책의 이해』. 한국문화사.
최호철(2000).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학술 발표 요지.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선일인쇄사.
허만길(1993). 『한국 현대 국어 정책 연구』. 홍익대 박사 학위 논문.
홍윤표(2005). 남북한 언어 통합 방안.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백서.

“남북한 언어 정책과 통합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1

이중희(통일교육위원)

남북합의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다. "통일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서로 각기 표기방식으로 쓴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으로 슬며시 파고든 중복스러운 단면은 이름이나 명칭을 북한식 그대로 따르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김정은 체재의 초기 실세였던 이영호 총참모장을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식대로 리영호라고 쓰는 식이다. 이런 방식을 고집한다면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에도 "남한의 아버지 이상만씨가 북에 두고온 딸 리정자씨를 만났다"는 식으로 부녀의 성씨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함경북도 나진. 선봉지역도 굳이 "라진"으로 쓰는 등 지명 표기도 문제다. "통일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서로 각기 표기방식을 쓴다."는 남북간의 합의에도 어긋난다.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북한 표기 따라하기가 번져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원전에 충실하겠다는 뜻은 좋으나 인용구가 아닌곳에서도 굳이 "노동신문"을 "로동신문"으로 써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북한은 자기식 표현을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만 북한의 표현식을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다.

김일성이 6.25때 전사한 절친했던 혁명동지 김책 전선사령관의 이름을 따 개칭한 김책시(본래이름은 성진시)처럼 곳곳에 널린 우상화 지명의 표기도 문제다. 전문가들도 옛 이름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언론단체나 북한학계, 어문학계가 나서서 북한의 지명과 인명을 올바르게 표기 할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남.북한 언어를 비교 해 보자. (남/북)

도시락. -- 곽밥.	되는대로. ----마구탕탕.
운동화. --- 천신.	매우가깝다---살밭다.
오두막.---- 마가리.	배웅하다---넌내다.
간섭.----- 간참.	바쁘다---어렵다.
거짓말.-- 꺽포.	빈정거리는---투비양청.
날씨. -- 날거리.	살금살금---발면발면.
소시지. ----칼파스.	창피하다----열스럽다.
미소. ----볼웃음.	각선미-----다리매.
들창코.----발딱코.	간통-----부화.
위기. -----고스락.	건달-----날총각.
합병증----따라난병.	가난에 찌든 삶---애옥살이.
피병.-----건성.	의식주----식의주.
교대하자.----대거리하자.	모락모락---몰몰.
계모.-----후어머니.	헬리콥터-----직승비행기.
덜렁거리다. ----건승맞다.	거스름돈-----각전.
	토라지다----시뚝하다.

“남북한 언어 정책과 통합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2

조희원(경기도 통일교육위원, 경희대)

우리의 한반도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다. 분단된 지 6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155 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서로 대치한 채 간헐적인 도발행위를 겪으면서도 남북통일을 위해 대화와 교류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꿈이고 희망인 통일을 위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의 민족문화를 이어주는 말과 글인 언어일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만약 언어가 통일성을 잃고 차이가 생기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도 훼손되기 마련이다. 남북한 간의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에서 비롯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은 향후 다가올 통일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남과 북의 언어는 표준어와 문화어로 나뉜다. 즉 표준어는 지역적으로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회 체계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말’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어는 지역적으로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체계에서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게 가꾸어진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의 언어관은 언어를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반면 북한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조선문화어건설리론>)’로 본다. 특히 남북언어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동무’와 같은 단어는 북한에서 인위적으로 사상과 이념을 반영하면서 의미에 차이가 생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예) 동무

남한: ①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②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 <표준국어대사전>

북한: ①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을 이룩하기 위해 혁명 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②같이 어울리어 사귀는 사람. ③일반적으로 남을 무관하게 부를 때 쓰는 말. - <조선말대사전>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는 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차이가 체제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없이 통일이 될 경우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히 언어 규범을 통합할 수 있는 남북한 범민족기구나 우리말 순화운동, 우리말 교육 강화와 같은 노력을 통해 남북 간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자는 대안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언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용기선생님의 주장 중 다소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용기선생님께서 “4장 남북언어 통합 방안”에서 남북 언어 통합은 정부 부처, 연구 기관, 학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남북통일 이전과 남북통일 이후의 언어통합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남북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언어통합 방안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통일국어대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겨레말큰사전>은 ‘통일’ 국어 대사전이 아니고 남과 북의 ‘통합’ 국어 대사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 마무리 예정이었던 <겨레말큰사전>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으로 인해 2019년에 편찬하기로 미루어졌는데, 편찬 가능 여부에 대한 최용기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최용기선생님께서 “언어란 언중이 사용해야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통일 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언중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자연적으로 도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뜻하는 의미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최근 일상 언어에 외국어, 특히 영어를 섞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의 규범어와 표기법 통일 방안 일고1)

한용운(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차례>

1. 서론
 2. 남북의 규범어 차이 현황과 표기법 차이
 3. 남북의 규범어와 표기법 통일 방안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처럼 규범어와 그 표기법을 성문화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드물다.²⁾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어가 규범으로 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 표준어를 폐지하고 일본처럼 ‘공통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 비교적 규범어 및 그 표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남측 상황만 고려한다면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규범어는 여전히 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통일 이후 규범어를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남북의 규범은 그대로 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어 및 그 표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어문 규범이 국가 규정이나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언어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현재의 남북 규범어와 그 표기법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차이를 극복하여 언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규범어와 표기법이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문 규범 폐지 논의는 통일 이후 새로운 규범어와 표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남북 사전을 비교·검토하여 남북의 어휘 차이 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남북 규범어와 표기법의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의 어휘 차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 대상으로 삼은 사전은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측의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이다⁴⁾

2. 남북의 규범어 차이 현황과 표기법 차이

- 1) 이 글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 공동의 ‘형태·표기 위원회’가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발표자의 견해일 뿐이라는 점을 밝힌다.
- 2) 한재영(2011)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규범어 또는 공용어 정책을 검토하였는데, 우리와 같은 방식의 표준어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영어가 ‘공식어(official language)로조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어 표준화를 위한 공식적인 기관은 없고, 다만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교사, 미디어, 문법책, 사전 등이 영어 표준화 담당자의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3) 2011년에 국어학회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국어정책 연속 토론회’가 있었고, 또한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이라는 주제로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2011))’ 특집호가 발간되기도 하는 등 표준어와 관련된 여러 토론회와 학술대회가 있었다.
- 4) 이 두 사전은 남과 북의 국가 기관에서 편찬한 사전이고, 표제어 수 또한 최대로 수록된 사전이어서 남북 어휘 차이의 현황을 밝히는 데 적합하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표제어 수는 509,076개(주표제어 440,594개, 부표제어는 68,482개)이고,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의 표제어 수는 352,326개(주표제어 313,187개)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표대》로,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은 《조대》로 줄여 일컫기로 한다.

2.1. 남북의 규범어 차이 현황

현재 남측의 규범어는 ‘표준어’이고, 북측의 규범어는 ‘문화어’이다. ‘표준어’와 ‘문화어’에 대한 정의를 남과 북의 사전에서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어(標準語)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표대>>)

(2) 문화어(文化語)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언어. 평양문화어는 지역별 언어적 차이를 초월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언어이며 … 민족어의 온갖 우수한 요소를 집대성한 훌륭한 언어이다.(<<조대>>)⁵⁾

남측의 ‘표준어’ 개념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표준말’ 개념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칙에서 기술한 ‘표준말’을 ‘표준어’로 수정하고, ‘현재 중류 사회’ 대신 ‘교양 있는’으로 표현을 수정하였을 뿐, 그 본래의 개념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준말’ 대신 ‘문화어’로 용어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도 상당히 수정하였다. 즉 규범어 설정 지역을 ‘서울’에서 ‘평양 중심 지역’으로 수정하였고, 규범어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현재 중류 사회’에서 ‘로동계급’으로 수정한 것이다.

문화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어규범변천사>>(2005:102-114)에 기술된 ‘새로운 글말규범을 제정하는데서 견지한 원칙’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3) <새로운 글말규범을 제정하는데서 견지한 원칙>

- 가. 평양말(평양 문화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말과 글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에서 언어 규범화 사업을 진행한다.
- 다. 민족어를 주체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에 맞게 맞춤법을 비롯한 글말 규범을 제정하는 원칙을 지킨다.
- 라. 형태주의적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3)의 원칙이 북측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면서 남북의 규범어는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겼다. 즉, 이 원칙에 의해 ‘규범어 설정 지역이 서울에서 평양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념적인 어휘나 뜻이 생겼으며’, 또한 ‘기존의 외래어나 한자어가 인위적인 고유어’로 바뀌었고,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게 된 것’이다.

남북의 어휘 차이를 <<표대>>와 <<조대>>에서 찾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남북 어휘 차이 현황⁶⁾

<<표대>>	공통 표제어 ⁷⁾	<<조대>>증보판
표제어: 437,013개 (북한어 72,063개 제외)		표제어: 352,326개
<<표대>>에만 ⁸⁾ : 225,089개	총 211,924개	<<조대>>에만 ¹¹⁾ : 140,402개

5) 1992년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의 ‘문화어’ 풀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풀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으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이다. 우리의 문화어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민족어의 본보기이다.”

6) 이 글에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표대>>와 <<조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자료는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차는 논의의 전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대>>의 일러두기에는 표제어 수가 약 40만 개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4)에서 제시한 수치가 좀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준어: 198,240개 비표준어: 26,849개 ⁹⁾	① 표기 동일: 196,922개 ① 남북 처리 동일: 194,614개 ② 남북 처리 차이: 2308개 ㉠ 표대 규범어-조대 지역어: 32개 ㉡ 표대 규범어-조대 비규범어: 645개 ㉢ 표대 지역어-조대 규범어: 481개 ㉣ 표대 비규범어-조대 규범어: 1,150개 ② 표기 차이: 15,002개 ¹⁰⁾ ① 다음 법칙 표기: 6713개 ② 사이시옷 표기: 1635개 ③ 외래어 표기: 2091개 ④ 기타 표기: 4330개 ⑤ 사이시옷+ 기타 표기: 128개 ⑥ 다음 법칙+ 외래어 표기: 34개 ⑦ 다음 법칙+ 기타 표기: 46개 ⑧ 다음법칙+사이시옷 표기: 22개 ⑨ 기타 + 외래어 표기: 3개	문화어: 130,340개 비문화어: 10,062개 ¹²⁾
--	--	---

(4)의 표를 보면, 북한어를 제외한 《표대》의 표제어 수는 437,013개이고, 《조대》의 표제어 수는 352,356개이다. 이 두 사전을 비교했을 때, ‘《표대》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총 225,089개이다. 이 가운데 표준어(신세대, 실수요, 편의점 등)는 198,240개이고, 비표준어(이마뺀구<경북>, 짝곰, 깡소주 등)는 26,849개이다. 198,240개의 표준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6,224개가 전문용어(가격혁명<역사>, 초거대도시<지리> 등)이다.

이에 비해 ‘《조대》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140,402개이고, 이 가운데 문화어(군조석, 군중가요, 직통생 등)는 130,340개이고, 비문화어(나박찌<평남>, 기문<평북>, 허루레일, 절가락)는 10,062개이다. 130,340개의 문화어 가운데 42,013개가 전문용어(가격체계<경제>, 가극무용<무용>, 가래검사<의학>, 끄는항법<해양> 등)이다. 전문어 판단 기준의 차이¹³⁾에 의해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남측에 비해 북측의 전문어 수가 적은 편이다.

한편, 남북이 공통으로 수록한 표제어는 211,924개이다. 이 가운데 표제어 표기가 동일한 표제어는 196,922개이고, 표기에 차이가 있는 표제어는 15,002개이다. 표기가 동일한 표제어는 다시 ‘규범어와 비규범어 선정’에서 서로 동일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어-문화어(형, 학교, 밥 등)’, ‘비표준어-비문화어(찰조(차조), 귀에지(귀지) 등)’처럼 남북이 동일하게 처리한 표제어는 총 194,614개이고, 처리에 차이 나는 표제어는 2,308개이다. 남북에서 처리에 차이가 나는 표제어 현황을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남북에서 처리에 차이가 나는 표제어

분류	예
㉠ 표대 규범어 -	거짓부렁-<경기>, 노른자-<전남>, 마빡-<전라> ...

7) 《표대》와 《조대》의 두 사전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표제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 ‘여자/녀자’, ‘나룻배/나루배’처럼 표기법 차이로 어느 한쪽 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공통 표제어로 보았다.

8) 《조대》에는 수록되지 않고, 오로지 《표대》에만 수록된 표제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 ‘여자/녀자’, ‘나룻배/나루배’처럼 표기법 차이로 어느 한쪽 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공통 표제어’로 보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9) 《표대》의 ‘비표준어’는 ‘~의 잘못’, 으로 풀이된 것과, ‘~의 방언’으로 풀이된 유형을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 ‘속되게 이르는 말’, ‘낮잡아 이르는 말’ 등은 비표준어로 분류하지 않았다.

10) ‘표기 차이’는 ‘공통 표제어’에 해당하는 어휘에서만 추출한 것인데, ‘《표대》나 《조대》에만 있는 표제어’를 포함할 경우 개별 항목의 표기 차이 개수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11) 《표대》에는 수록되지 않고, 오로지 《조대》에만 수록된 표제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 ‘노인/로인’, ‘나룻배/나루배’처럼 표기법 차이로 어느 한쪽 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공통 표제어’로 보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12) 《조대》의 ‘비문화어’는 ‘→’로 표시된 것과 ‘《방언》’ 표시된 것을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 ‘(말체), (글체), (낱)’ 등은 비문화어로 분류하지 않았다.

13) 예를 들어 《조대》에서 ‘정치 용어’, ‘동식물 용어’ 등은 대부분 일반어로 분류하고 있다.

조대 지역어	
㉠ 표대 규범어 - 조대 비규범어	옥수수(→강냉이), 아이스크림(→에스키모), 한의사(→고려의사), 개고기(→단고기) …
㉡ 표대 지역어 - 조대 규범어	게사니<강원, 경기, 함경>(거위), 박죽<강원>(밥주걱), 수리개<함경>(술개), 빼람<평안, 황해>(서랍) …
㉢ 표대 비규범어 - 조대 규범어	벗어제끼다(벗어젓히다), 벌거지(벌레), 새짐승(날짐승), 애저녁(애초), 찬땀(식은땀) …

다음으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남북의 두 사전에 공통으로 수록된 표제어이면서 표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15,002개가 있다. ‘두음 법칙 표기’와 ‘사이시옷 표기’에 의해 남북 차이가 나는 표제어 수는 ‘8,348’개로, ‘표기 차이’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외래어 표기’에 차이를 보이는 예로는 ‘비어(beer)/비루, 시멘트(cement)/세멘트’처럼 원어는 일치하면서 표기에 차이가 나는 예와 ‘트랙터(tractor)/뜨락토르(трактор), 듀엣(duet)/두에토(duetto)’처럼 표기와 원어 모두 불일치하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기타 표기 차이’는 ‘ㅣ’모음 역행동화 표기 차이(가자미/가재미, 놉팡이/놉팡이 등), 된소리 차이(논둑/논뚝, 조각/쪼각 등), 한자음 차이(각출/거출, 향문/홍문 등) 등에서처럼 단어 일부의 자모음 표기에서만 차이가 나는 유형을 묶은 것이다. 이러한 형식에 속하는 것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 ‘어미’와 ‘접사’의 표기 차이를 들 수 있다. 특히 어미 ‘-아/-어’의 경우, 남측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 이외의 모음일 경우 뒤 어미로 ‘-어’를 적고 있으나, 북측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ㅣ, ㅑ, ㅓ, ㅕ, ㅗ, ㅛ’일 경우 뒤 어미로 ‘-여’를 적고 있다(미여지다/미어지다, 헤여지다/헤어지다, 휘여지다/휘어지다 등). 또한 ‘-꾼/군, -깔/갈’ 등처럼 남북 접사 표기에도 차이가 적지 않은데, 남측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반면, 북측에서는 된소리로 소리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표기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 외 ‘사이시옷+기타 표기’ 차이의 예로는 ‘머릿니/머리이’, ‘못국/무우국’ 등, ‘두음 법칙+외래어 표기’ 차이의 예로는 ‘녹음테이프/록음테프’, ‘인산칼슘/린산칼슘’ 등, ‘두음 법칙+기타 표기’ 차이의 예로는 ‘노페물/로페물’, ‘내왕꾼/래왕군’ 등, ‘두음법칙+사이시옷 표기’ 차이의 예로는 ‘낙숫물/락수물’, ‘양요릿집/양료리집’ 등, ‘기타 표기+외래어 표기’ 차이의 예로는 ‘페열보일러/페열보이라’, ‘페디스토마/페지스토마’ 등이 있다.

2.2. 남북의 표기법 차이¹⁴⁾

남북의 현행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1988)과 《조선말규범집》(1987)에 명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1988)에는 ‘자모 명칭과 배열 순서’,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부록)’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 《조선말규범집》(1987)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문화어발음법’이 별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남측의 《한글 맞춤법》(1988)은 ‘6장 57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측의 ‘맞춤법’은 ‘7장 27항’으로, ‘띄어쓰기’는 ‘5장 2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말 표기법을 규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민이 남북의 표기법 규정에 각기 잘 드러나 있다.

(6)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규범집》 ‘맞춤법’의 총칙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선말규범집》 맞춤법 총칙: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14) 이 글에서는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위의 총칙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표현이 앞서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 이에 비해 《조선말규범집》의 ‘맞춤법’에는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이 앞서고,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 즉 남북 맞춤법 총칙의 차이는 결국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과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 중에 어디에 초점이 놓였는가에 있다. 남측에서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음소주의) 표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북측은 형태주의 표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남과 북의 총칙에서 ‘표음주의 표기법’과 ‘형태주의 표기법’을 함께 적용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총칙에 대한 남북의 견해는 남북에서 각각 발행한 규범해설집에 잘 드러나 있다.

(7) 국어연구소(남): 《한글 맞춤법 해설》(1988, pp. 5~6)

…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맞춤법이란 주로 음소 문자(音素文字)에 의한 표기 방식을 이른다. 한글은 표음 문자(表音文字)이며 음소 문자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化)’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예컨대 ‘국어(國語)<나라+말>, 남아(男兒)<남자+아이>’처럼, 결합한 글자가 각기 독립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각 글자의 음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

(8) 국어사정위원회(북): 《조선말규범집 해설》(1971, pp. 2~4)

… 우리 말의 맞춤법에서 형태주의원칙을 기본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좋은 점과 특성들을 가진다.

첫째로,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부분을 언제나 똑같은 모양으로 밝혀적기 때문에 글을 보면서 그 뜻을 동시에 알 수 있게 한다. 예: 여기가 저기보다는 지대가 낮고 토질도 낮다. …

둘째로, 써놓은 단어를 보고 동음이의어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한다. 예: ① 빛(해빛) 빛(머리빛) …

셋째로, 지방에 따라 단어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약속된 규정대로 적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이 하나의 규범에 의하여 빨리 통일되고 보급될 수 있다.

… 우리 말의 맞춤법이 형태주의원칙에 의거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맞춤법에서 다른 원칙들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보기 쉽고 쓰기 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큼 형태론적원칙이 이 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다른 원칙도 쓴다.

① 어음론적원칙에 따르는 경우

어음론적원칙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실지로 발음되는 어음 그대로 글자로 적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삽(불+삽)>은 형태론적원칙에 따라 같은 뜻의 부분을 언제나 똑같이 적는다면 <불꽃, 불씨, 등불>에서와 같이 <불삽>으로 적고 발음만은 실제대로 <부삽>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되며 보기 험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소리나는대로 적는 어음론적원칙을 좇아서 <부삽>으로 적는다. … 이와 같이 우리 말 맞춤법에는 합성어에서 보태여지거나 빠진 소리는 각각 소리나는대로 적는 경우, 그리고 일부 접미사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련의 경우에 어음론적 원칙을 적용한 것도 있다.

② 역사주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

예: 짓밟다-이 단어에서 <짓>과 같은 소리를 적는 데는 형태론적원칙으로 보면 받침 <ㅅ, ㅈ, ㅊ, ㄷ, ㅌ, ㅍ> 가운데서 그 어느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

곧 이런 것은 형태론적원칙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때는 역사적으로 <ㅅ>받침을 하던 관습에 따라서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남측은 표음주의 표기법을 기본으로 삼고, 표음주의 표기법으로 표기할 경우 독해력이 저하될 수 있는

형식에 한해 형태주의 표기법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형태주의 표기법을 근본으로 삼고, 형태주의 표기법으로 표기할 경우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어에 한해 표음주의 표기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총칙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 남북 표기법 조항 및 어휘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남북 표기법 ‘총칙’ 차이에 따른 조항 차이

현황		남북 규정	예	표기방식	남북차이 ¹⁵⁾	
세부조항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된소리	남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소쩍새, 어깨, 오빠, 산뜻하다, 잔뜩, 살짝	표음	일치
		남	예외)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깎두기, 몹시	형태	
		북	제4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혀옆소리가 아닌 한에서 받침에서 적지 않는다.	겨누다, 기쁘다, 오빠	표음	
			제6항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 예외)토에서는 <ㄹ>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말씀, 벌써, 훨씬 ~ㄹ가, ~ㄹ수록	표음 형태	
	구개음화	남	제5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만이, 해돋이, 견히다	형태	일치
		북		만이, 해돋이, 견히다	형태	
	‘ㄷ’ 소리 받침	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돛자리, 무릇	형태	일치
		북	제3항 받침 <ㄷ, ㅌ, ㅅ, ㅆ, ㅈ, ㅊ>가 운데서 어느 하나로 적어야 할 까닭이 없는것은 관습대로 <ㅅ>으로 적는다.	무릇, 빗나가다	형태	
	모음 ¹⁶⁾	남	제8항 ‘계, 레, 메, 페, 헤’의 ‘꺠’는 ‘꺠’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꺠’로 적는다.	계수(桂樹), 사례(謝禮)	형태	일치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의의(意義), 무늬[紋], 널리리		
		북	제26항 한자말에서 모음 <꺠>가 들어 있는 소리마디로는 <계>, <레>, <헤>, <예>만을 인정한다.	계산, 실레, 혜택	형태/표음	
	제27항 한자말에서 모음 <니>가 들어 있는 소리마디로는 <회>, <의>만을 인정한다.		회의, 의의	형태		
두음법칙	남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女子), 연세(年歲)	표음	불일치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나,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년(年)	형태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형태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공염불(空念佛)남존여비(男尊女卑)	표음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표음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良心), 역사(歷史)	표음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리(理)	형태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사례(謝禮)	형태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치열(齒列), 규율(規律), 비율(比率)	표음	
		[붙임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림(申稔), 채륜(蔡倫)	표음	
		[붙임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표음	
		[붙임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해외여행(海外旅行)	표음	
		[붙임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표음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례,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낙원(樂園), 내일(來日), 노인(老人)	표음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거래(去來), 가정란(家庭欄)	형태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비논리적(非論理的)	표음	
	북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여자, 로동,	형태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자말은 변한 소리대로 적는다.	나사, 나팔, 시월, 요기	표음	일치
접쳐나는	남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딱딱, 씹씹, 연연	표음	일치

	소리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북		딱딱, 씹씹, 런던 불망, 류류상종	형태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체언과 조사	남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형태	일치	
		북	제8항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이, 집을	형태		
	어간과 어미	남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형태	일치	
		북	제8항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다, 같으니	형태		
	접미사가 붙어서 된말	남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길이, 웃음, 같이, 익히,	형태	일치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목거리(목병), 노름(도박)	표음		
		북	제19항 자음으로 시작한 뒤불이가 말뿌리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항 말뿌리와 뒤불이가 어울리어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것은 그 말뿌리와 뒤불이를 밝혀적지 않는다.	날치, 덮개 거두다, 부치다	형태 표음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말	남	제5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국말이, 꽃잎	형태	일치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ㅁ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마소(말-소)	표음	일치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나룻배, 아랫니, 뒷일, 뱃병, 예삿일. cf)곳간(庫間), 셋방(貰房) 등	표음	불일치	
		북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멤쌀(메ㅂ쌀), 수컷(수ㅎ컷)	표음	일치	
			제18항 앞불이와 말뿌리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덧신, 만누이	형태	일치	
			제16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빠진 소리는 빠진대로 적는다.	다달이, 마소	표음	일치	
				제15항 [붙임]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셋별-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비바람(비	표음	일치

			제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환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어 나는 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와 바람)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살코기, 수캐	표음	일치
	준말	남	제7항 형태부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대로 적되 본래형태를 잘 파악할수 있도록 받침을 바로잡아 적는다.	엇저녁, 갓고	형태	일치
		북	제7항 형태부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대로 적되 본래형태를 잘 파악할수 있도록 받침을 바로잡아 적는다.	엇저녁, 갓고	형태	

위 표는 남측의 《한글 맞춤법》에서 표기법과 관련된 제3장과 제4장의 조항에 맞추어 남북 규정을 비교한 것이다. 남북 모두 ‘표음주의 표기법’과 ‘형태주의 표기법’을 절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표음주의 표기법과 형태주의 표기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북 표기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두음법칙 표기’와 ‘사이시옷 표기’인데, 남측은 ‘소리 나는 대로’에 중점을 두었고, 북측은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3. 남북의 규범어와 표기법 통일 방안

통일 규범어와 표기법은 남북 어느 한쪽의 규범과 표기법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남북 양측의 국민 모두가 새로 익혀야 할 불편한 규범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 모두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¹⁷⁾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남과 북의 규범어와 표기법은 각각 그 나름대로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양측의 규범을 하나로 통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양측 국민들에게 ‘불편’을 덜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 규범어와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규범어와 표기법은 현행 남북의 어문 규범을 최대한 수렴하여, 남북 언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의 규범어 설정에 차이가 있는 말(즉, (4)의 ‘남북 처리 차이’에 해당하는 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수 규범어로 설정하고¹⁸⁾, 통일 이후 언종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강냉이’ 중 어느 한쪽 말이 비규범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복수 규범어로 설정하고, 이후 언종이 이들 중 하나를 규범어로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어느 한쪽에서만 규범어로 존재하는 어휘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념적인 어휘가 아니라면 모두 규범어로 설정하고, 뜻에 차이가 있는 어휘의 경우 그 뜻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념적인 뜻이 아닐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의 표기법도 동일한 것은 최대한 그대로 수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한해 단일화하면 될 것이다.

15) 남북의 차이는 ‘일치’와 ‘불일치’로 구분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일치’는 ‘조항’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며, 세부 조항의 구성 면이나 개별 어휘에서는 남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6) 남북 한자어에서 모음 ‘꺀’ 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계실(憩室)/계실’, ‘휴계소(休憩所)/휴계소’, ‘소계(小憩)/소계’와 ‘퇴폐주의(頹廢主義)/퇴폐주의’, ‘폐결핵(肺結核)/폐결핵’, ‘화폐(貨幣)/화폐’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자 ‘憩’나 ‘廢’ 등의 음을 ‘꺀’로 보는지, ‘꺀’로 보는지에 따른 차이이다. 이외에도 남북 한자어 표기에 차이가 있는 어휘로는 ‘꺀연/꺀연’, ‘표지판/표식판’, ‘항문/홍문’, ‘꺀출/꺀출’, ‘꺀장/꺀장’ 등이 있다.

17) 이와 관련하여 개성 공단의 한 의류 업체에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 차이가 있는 남북 용어 143개를 통일한 것이 있어 흥미롭다. 남측의 옷 공장에서는 주로 일본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북측 노동자들이 그 용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과 합의하여 일본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가다’, ‘시다’, ‘한소데’ 등과 같은 일본말을 각각 ‘어깨’, ‘보조(원)’, ‘반소매’ 등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을 새로 익혀야 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남북이 합의한 용어로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처럼 시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남북 거래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 규범 제정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규범을 정비하고, 또한 무분별하게 써 왔던 외국어 어휘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8) 규범어를 복수로 수용하자는 견해는 고영근(1994), 김민수(2003), 박갑수(2002)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둘째, 규범은 간명하고 익히기 쉽게 규정되어야 한다. 간명하고 익히기 쉬운 규범이 되려면 무엇보다 규범 내에서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한다. 남측의 경우를 예를 들면 ‘두겹, 쇠두겹, 연필두겹, 인두겹’ 등은 ‘두겹’을 표준어로 하면서 ‘붓두겹’은 ‘붓두겹’의 옛말로 처리한다든지, ‘아웅다웅/아웅다웅’, ‘오손도손/오손도손’은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깡총깡총’은 ‘깡총깡총’의 비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관성 없게 표준어를 규정할 경우 국민들은 이들 어휘 하나하나를 외워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표기법도 ‘총칙’의 원칙이 세부 조항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단서 조항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단서 조항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외워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말 표기법은 ‘형태주의 표기법’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 총칙에서 형태주의 표기법 채택의 당위성

가. 표기법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¹⁹⁾이 아닌, ‘의미 파악이 용이하도록 표기하는 것’에 원칙을 두어야 한다. ‘말’과 ‘글’의 존재 이유는 ‘정보(의사) 전달’에 있다. ‘글’의 경우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따라서 ‘표기법’을 제정할 때,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교착어인 국어의 경우, ‘체언+조사’, ‘용언어간+어미’와 같은 통사 구성에서 각각의 통사 단위들이 변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두사+어근’, ‘어근+접미사’와 같은 파생어나, ‘구성 성분의 의미에 변화가 거의 없는 합성어’에서도 각각의 형태소가 쉽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²⁰⁾

다. 우리말은 ‘종성 겹받침’이 많고, 또한 음운 변동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는 언어이다.²¹⁾

라. 형태주의 표기법은 표음주의 표기법에 비해 표기법 조항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예외적인 조항도 줄일 수 있다. 형태주의 표기법을 총칙으로 할 경우, 남측 《한글 맞춤법》의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7항, 제30항’의 조항들을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여러 세부 조항과 ‘다만’으로 기술된 여러 예외 조항들을 간략하게 줄일 수 있다. 특히, 형태주의 표기법을 기본 원칙으로 할 경우 현재 남북 표기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알려져 있는 ‘두음 법칙 표기’와 ‘사이시옷 표기’, 그리고 띄어쓰기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

두음법칙 표기의 경우, 남북의 언중이 단어 첫머리에 있는 유음을 발음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외래어나 고유어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자어에만 두음 법칙 표기를 적용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측의 두음법칙 관련 표기법은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익히기에 쉽지 않다. 예를 들어 ‘2013년도’와 ‘졸업 연도’의 ‘년도(年度)’는 왜 표기가 다른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女’는 두음이 아닌데 왜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지, ‘列’, ‘律’, ‘率’은 어떤 경우에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지, 이름의 경우 ‘채륜(蔡倫)’과 ‘채운’ 가운데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등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다. 남측 표기법에서 두음 법칙 관련 규정은 ‘제10항, 제11항, 제12항’의 세 조항과, [붙임] 항목 10개, 단서 조항(‘다만’으로 기술된 것)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 조항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 표기법의 한자 표기는 한자 원음을 밝혀 표기하도록 하고, 발음은 남북 양쪽 모두의 발음을 허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²²⁾

‘사이시옷 표기’는 남측의 경우 표기법을 익히는 데 부담이 되더라도 발음을 쉽게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고, 북측의 경우 발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표기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

19) 현존하는 언어 중에 표음주의 표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언어는 없다. 표음주의 표기법이 철저히 지켜지려면, 일자일음(一字一音)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상적인 표기법일 뿐이다. 표음주의 표기법으로 적는 영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apple’, ‘apartment’, ‘name’에서 ‘a’는 각각 ‘æ’, ‘ə’, ‘ei’로 소리가 나지만 모두 ‘a’로 표기되며, ‘know’, ‘knife’, ‘knight’에서 ‘k’는 묵음으로, 표기에는 드러나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일자일음(一字一音)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언어는 찾기 어렵다.

20) 예를 들어 ‘옷+이/도/만’은 각각 ‘오시’, ‘옷또’, ‘온만’으로, ‘떡+다/는/으면’은 각각 ‘떡따’, ‘멍는’, ‘머그면’으로, ‘막+국수/소주/말’은 각각 ‘막꼭쑈’, ‘막쏘주’, ‘망말’로 소리 나는데,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경우 의미 파악이 힘들게 된다.

21) 申昌淳(1992, pp.15~17)에서는 한글맞춤법이 형태주의적인 원칙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국어가 ‘자음의 중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연음화’ 등의 음운 변동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2) 이러한 방안은 ‘고영근(1999)’, ‘기세관·최호철(1994)’, ‘고창운(2000)’, ‘전수태(2001)’, ‘이봉원(2003)’ 등에서 제안된 바 있다. 고영근(1999)는 같은 음을 가진 한자음을 형태주의 원리에 따라 같은 모습으로 적는 것은 한글 전용에서 생기는 수많은 동음이의어를 극소화시킬 수 있고, 컴퓨터 한자 자판에는 ‘女’, ‘柳’와 같이 원래 ‘ㄴ’, ‘ㄹ’을 가진 한자가 ‘여/녀’, ‘유/류’와 같이 이중으로 배치되는 폐단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어두에 ‘ㄴ’, ‘ㄹ’을 기피하여 왔고, 남측에서는 이런 발음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기는 ‘ㄴ’, ‘ㄹ’로 적되 발음만은 두음법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측의 규정처럼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모든 복합어에 사이시옷을 붙일 경우 5,700여 개의 복합어에 사이시옷 표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복합어의 앞 형식은 ‘장맛비’, ‘판잣집’, ‘등곶길’처럼 원형의 모습과 달라지게 된다. 또한 ‘머릿말’, ‘인삿말’과 같은 형식의 경우, 이 구성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또는 ‘한자어와 순 우리말이 결합된 합성어’라는 점을 언중이 파악하고 있더라도 그 발음이 각각 [머리말], [인사말]인지 아니면 [머린말], [인산말]인지를 알기 쉽지 않다. 서울 경기 지역 사람이라 하더라도 발음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음법칙 표기에 못지않게 사이시옷 표기법도 조항이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언중이 익히기에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이시옷 표기도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음은 현실 발음을 인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²³⁾

한편, 띄어쓰기의 경우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의미 파악이 ‘간명하고 쉽게’ 되도록 하려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측 규범에 따르면 ‘걸어가고있는분’, ‘종고나쁜것’, ‘나의것’, ‘어느분’ 등을 모두 붙여 쓰게 되는데, 가독성(可讀性)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법 교육이나 말뭉치 구축 등 언어 자료 기계화를 위해서라도 남측의 규범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표음주의 표기법을 근간으로 할 경우 소리 변화에 따른 표기법 개정 요인이 잦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규범의 총칙은 ‘형태소나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되, 예외적인 형식²⁴⁾에 한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남북 규범어와 표기법 차이 현황을 제시하고, 그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남북에서 차이가 있는 규범어는 복수 규범어로 규정하고, 복수 규범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통일 이후에 언중에게 맡기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표기법 규정은 언중이 익히기에 쉬워야 하고, 간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통일 규범에서 표기법은 ‘형태주의 표기법’을 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통일 규범의 총칙은 ‘형태소나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되, 예외적인 형식에 한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일 이후 어문 규범이 힘의 논리에 의해 남북의 어느 한쪽 규범만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한쪽은 상실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정신과 문화를 아우르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데에 어문 규범이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이 공동으로 언어 통합과 어문 규범 통일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정한 통일 규범은 남북 겨레가 새로 익혀야 하는 부담은 있겠지만, 개성 공단의 경우처럼 그동안 깊고 고치지 못했던 남북의 규범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23)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한 논의로는 기세관·최호철(1994), 홍종선·최호철(1998), 전수태(2001) 등이 있다.

24) ‘구성 성분의 뜻이 달라진 복합어’(쓰러지다, 사라지다 등)나 ‘소리가 달라진 복합어’(화살, 따님 등),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처럼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오히려 ‘의미 파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형식을 가리킨다.

▶ 참고 논저

- 고영근(1994), 《통일 시대의 어문 문제》, 도서출판 길벗.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2001), 남북 규범문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제11권 제1호, 국립국어원.
- 고창운(2000), 남북한 통일 어문규정 시안 마련을 위한 모색,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 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 국립국어원(2011), 《새국어생활》 제21권 제4호.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기세관·최호철(1994), 남북한 통일 맞춤법을 위하여, 언어학 16호, 한국언어학회.
- 김계곤(2000), '남북한 한글 맞춤법', 《교육 한글 13호》, 한글학회, pp.23-41.
- 김민수(1985/1997), 《北韓의 國語研究》, 일조각.
- 김민수(2003), '남북의 언어통합과 공용어', 《남북한 어문 규범과 그 통일방안》, 국학자료원, pp. 5-21.
-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pp.7-12. 국립국어원.
- 문영호(2006),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에서 제기되는 우리 글자표기의 북남차이와 단일화 문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5차 회의 자료집.
- 박갑수(1999),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그 통일 정책', 《선정어문 27》, 서울대사범대 국어교육과, pp.413-436.
- 박셋별(2011), 남북 언어 통합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학우서방.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문화어건설이론》, 조선어학전서 2.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로동당언어정책사》, 조선어학전서 3.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변천사》, 조선어학전서 46.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리론》, 조선어학전서 47.
- 申昌淳(1992), 《國語正書法研究》, 집문당.
- 이봉원(2003), 남북 표준 발음의 통일 방안, 《남북한 어문 규범과 그 통일 방안》, 국학자료원.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전수태(2001),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제11권 제1호, 국립국어원.
-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조규태(1999), '두음법칙 표기에 대하여', 《배달말25》.
- 조남호(2009), '북한 언어 자료의 구축',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pp.3-14. 국립국어원.
- 차재은(2009),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pp.27-52. 국립국어원.
- 최용기(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10, pp.199-228.
- 한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 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 한재영(2011), 외국의 표준어 정책, 《새국어생활》 제21권 제4호, 국립국어원. pp.37-58.
- 홍운표(2005), 남북 언어의 통합 방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백서.
- 홍중선(2002), '남북 표준어의 통일화',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pp. 33-54.
- 홍중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 사전류 》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정형화된 표현의 분석 단위와 정형성의 요인

“남북의 규범어와 표기법 통일 방안 일고”에 대한 토론문

이상철(통일교육위원)

“남북의 규범어와 표기법 통일 방안 일고”란 주제로 한용운 발표자께서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한의 규범어와 표기법에 관한 정밀한 분석자료와 함께 규범어와 표기법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주었다. 특히,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기본원칙, 차이점, 표기법의 차이점과 그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상세하게 지적하여 주고, 향후 규범어 및 표기법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복수규범어의 설정방안, 형태주의 표기법의 채택 등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었다. 이하에서는 규범어의 통일방안으로서 복수규범어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토론자로서의 견해와 아울러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의 규범어 통일방안에 대하여 발표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수규범어를 설정하고 통일 이후 언중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진정한 통일을 염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규범은 간명하고 익히기 쉽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규범내에서 일관성이 지켜져야 하는 점 등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한다. 다만, 복수규범어를 설정할 경우, 단일규범어를 설정하는 경우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성 있는 비교검토작업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수규범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남북한간에 상호존중 정신을 발휘하여 각각 상대의 기존 규범어에 대한 손상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남북한간에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본다.

그런데, 남한의 표준어가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함에 비하여 북한의 규범어인 문화어는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언어의 통합,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역요인이 표면화되지 않은 채 잠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이후 수도는 서울, 평양, 또는 제3지역 중 어느 한 곳으로 결정 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여 볼 수 있다. 현행 남북한 모두 수도가 되는 지역의 언어가 표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규범어는 다인종, 다언어사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나라의 수도의 언어를 표준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통일 이후 규범어 설정시 제기될 수 있는 표준지역 설정문제로서 서울과 평양이라는 과거 분단시대의 두 지역을 복수표준지역으로 결정, 사용할지, 또는 서울과 평양 중 어느 하나의 지역을 표준지역으로 결정할지, 또는 제3의 다른 방안으로 결정할지 여부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통일이후 복수규범어를 설정하고 언중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언어사용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언어사용의 자연스런 추세에 따라 어느 하나의 최종규범어로 귀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국민들의 언어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어의 자연스런 진화과정을 존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언어통합과정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자원인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장기간의 언어통합과정이 국가발전속도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할지, 언어통합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치열한 경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무대에서 과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언어의 수는 과학기술 문명이나 문화발달 수준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북간에 이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남한의 언어의 양(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509,076개)이 북한(조선말대사전 표제어 353,326)의 경우보다 월등 많다는 점, 특정 전문분야에서 남북한의 각 규범어인 복수규범어를 함께 쓸 경우 전문용어의 개념상 혼란이 크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된다. 아울러 최대한 언어통합과정을 단축하여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발표자는 어떤 견해인지 묻고자 한다.

둘째, 발표자의 규범어 통일방안 중 “남북 어느 한쪽에서만 규범어로 존재하는 어휘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념적인 어휘가 아니라면 모두 규범어로 설정하고, 뜻에 차이가 있는 어휘의 경우 그 뜻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념적인 뜻이 아닐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념적인 어휘”의 경우 규범어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남북한 통일이후 시대

에는 이념적인 대립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역사적인 의미를 찾거나 학문적인 연구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서 특정한 견해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 가능한 언어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들 이념적인 어휘를 규범어의 범주에서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는 어떤 견해인지 듣고 싶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와 같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불안 요인과 주변4강 등 한반도 및 주변정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발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신속하게 북한지역을 관리하여 북한 내 유혈사태방지와 주민안전 등 치안확보, 주민의 식생활보장과 복지대책 추진, 전염병 등 질병관리대책 등 북한지역의 안정화와 남북한의 통일, 통합노력을 신속히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도 클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 전개로 부득이하게 남북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식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주변4강을 비롯한 외교, 안보분야는 물론 북한주민의 복지, 치안, 경제, 사회, 문화등 정부의 관련정책 전분야에 걸쳐 협력적이고 신속한 정책추진, 정책간 조화와 균형 등도 중요한 판단과제로 제기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복수규범어의 설정과 언중에 의한 단일규범어의 자연스런 선택을 골자로 하는 규범어 통일방안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 경향과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 화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

김혜정(경북대)

<차례>

- I. 머리말
- II. 남북한 언어의 화용적 분석을 통한 이질화 경향
 - 1. 광고 표현
 - 2. 뉴스 담화 표현
- III. 언어 동질화를 위한 교육 방안

1. 머리말

휴전 60년이 지난 현재, 남북은 전후 2세대 혹은 3세대가 각기 사회를 주도하는 시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북 문화 간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어느덧 이러한 이질화 현상을 당연시 하거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를 제외한, 문화적 상호 교류만 가능하더라도 남북의 언어 이질화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나마도 북한은 남한과의 언어 문화적 교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고, 남한 역시 북한의 사회 문화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중에서도 특히 언어 이질화 문제는 통일이 되더라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알다시피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를 통해 사고 및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볼 때¹⁾, 북한은 남한과의 언어 문화적 교류를 한국의 자유사상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점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지정했고, 남한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규정한 상태이다. 평양과 서울은 제주도와 서울에 비해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심정적으로는 훨씬 더 먼 것 같다. 그만큼 서로 다른 정치 사회 체제는 물리적 거리 이상의 거리감을 낳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언어 이질화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쉽게 간주해버린다. 북한의 인위적이고 획일적이며 예외 없는 언어 정책 때문에 이러한 이질화가 가속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남한의 최근 언어 사용 경향을 보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외국어와 임의적으로 만들어져서 금새 사라지는 비문법적인 신조어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외래어의 개수도 4만4000개를 훨씬 넘을 만큼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던 고유어마저 한자어로 대체된 경우가 허다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적어도 북한이 느끼기에 언어 이질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닐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신조어는 과학 기술 사회의 변화 속도만큼이나 그 생명력도 짧다는 것이다. 특히 비문법적인 신조어들은 마치 은어처럼 은밀히 생겼다가 전체 언중에 의해 빠르게 전파되듯이 보이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리거나 잘 쓰이지 않는 어휘가 되기 일쑤다. 예를 들어, 접사처럼 마구 결합되는 ‘급당황’, ‘급칭찬’, 외국어와 우리말의 결합 및 축약에서 오는 ‘멘봉’, 특정 사회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당근’, ‘된장녀’, ‘초식남’ 등은 벌써 드물게 사용되고 있으며, 반면 특정 대사로부터 따온 ‘살아있네’ 등은 마스크를 통해 최신 유행어가 되었다.

이러한 신조어들의 활발한 생성과 단명(短命) 현상으로 혼잡하고 정신없어 보이는 남한말을 북한이 본다면

1)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는 하이데거가 그의 저서 <언어와 세계>에서 쓴 말이지만, 대개는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인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 수단에 불과한 듯 보이지만, 좀더 생각하면, 언어가 인간의 사유를 길들이고 조작하여 인간을 복속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이 언어의 은직한 기능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 존재 본연의 자연성(본성)을 잊고 언어로 장식되는 마스크와 환경의 부름을 당하기 쉬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어 이질화는 각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 속에서 각자 폐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 틀을 그 언어에 맞게끔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질화를 더 크게 느낄 것은 분명하다. 물론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실제 외국어의 일상어 침투, 미디어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의 남용이 언어 이질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조어는 의사소통 맥락에 따라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급조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이나 규칙성이나 하는 것들을 따를 책임이 적다. 게다가 그 사용 방법이 모어 화자의 감각적 직관적 표현 방식에 의존하는 바가 많아, 문법적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신조어로서 유효행되는 말들은 부지불식간에 학습되기 때문에 그 사회 언중에게는 별반 낯설지 않더라도 외국인이나 상당기간 그 사회를 떠나있던 재외 국민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언어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언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표상하지 못하고 매우 고답적인 형식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정치·군사적인 언어 표현이 일상어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 우리 남한에게는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경향은 어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져 있다. 통사적 차이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지만, 각기 다른 언어 정책 및 언어 사용 경향들은 각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변화들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적 측면, 즉 어휘적 차이가 아닌 화용적 측면의 다른 특색들을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또한 남북 언어 이질화를 보다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거나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통일을 대비한 언어 교육을 고려한다면, 남북 언어 이질화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먼저 이질화 경향 중에 특히 화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남북한 언어의 화용적 분석을 통한 이질화 경향

이 장에서는 담화의 화용론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 언어 사용의 이질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고’와 ‘뉴스 담화’ 장르를 선정하여 그 표현상의 화용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²⁾. 분석을 하기 전에 화용론적 분석의 방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화용론이란 알다시피, C. Morris(1955)에 의해 기호학의 3개 하위 구분 중 하나로 분류되고 명명되었다. 그는 화용론은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언어의 사회적 사용과 기능에 관한 규칙을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화용론적 분석이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언어 사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화자의 의도와 발화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특성과 과정을 분석한다는 것은 화자, 청자, 시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맥락 속에서 언어가 사용됨으로써 본래 문법적이고 표면적인 의미가 어떤 사용적 의미 혹은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화용론의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화행론(speech act theory)에서는 발화(utterance)를 발화 행위(locutionary act)와 발화수반적 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발화효과적 행위(perlocutionary act)로 나눈다. 이때 ‘행위’는 의미론적으로는 발화의 표면적인(locutionary) 의미가 실행될 것인지, 혹은 발화가 말해짐과 동시에 간접적이거나 이면적인(illocutionary) 의미가 실행되는 것인지에 따라 각각의 의미론적 효력(the semantic forc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발화 행위와 발화수반적 행위가 필연적으로 생기는 힘이라면, 발화효과적 행위는 경우에 따라 수의적으로 발생되기는 하나, 발화의 결과로서 청자에게 미치는(perlocutionary) 영향력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화행의 구분은 발화수반적 행위를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한 시도로서, 화행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발화수반적 의미는 발화가 행해지는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언어의 실제적 의미가 결정되며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지식과,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상황에 대한 앎(지식)을 총동원하여, 발화에 드러난 언어적 단서를 해석해야 하

2) 북한의 뉴스나 기타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볼 수 있는 채널은 없다. 북한 방송은 남한의 보도 기사를 통해 적절하게 ‘인용’ 또는 ‘해석’된 것이다. 즉 북한 ‘관련’ 기사나 북한 관련 텔레비전 방송이 대부분이다. 본고도 인터넷 상에 올라 있는 북한 광고 동영상과 KBS 1TV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의 보도 자료에서 수합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unity/\(http://news.kbs.co.kr/news/UserCategory.do?SEARCH_SECTION=XXXX&SEARCH_CATEGORY=NC0031&SEARCH_BROAD_CODE=0031\)](http://www.imbc.com/broad/tv/culture/unity/(http://news.kbs.co.kr/news/UserCategory.do?SEARCH_SECTION=XXXX&SEARCH_CATEGORY=NC0031&SEARCH_BROAD_CODE=0031))

<http://www.imbc.com/broad/tv/culture/unity/>

며, 그것도 발화와 동시에 거의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도의 추론 과정이다. 이러한 발화수반적 의미는 발화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함축이며 은유(metaphor)라고 할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러한 발화수반적 행위를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다음의 예를 보며 적용해 보자.

- a. (나는 너에게) 내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 b. 조용하도록 요청한다.
- c. 조용히 해라.
- d. 조용히 해 주겠니?
- e. 말이 좀 많지 않니?³⁾
- f.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⁴⁾

이들 발화는 모두 ‘요청’이라는 언표내적 화행을 실현하고 있다. a와 b는 ‘요청한다’는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를 직접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목적을 확실히 드러낸다. 반면 c는 수행동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명령문’이라는 언어의 문법적 형식을 빌어 발화되었기 때문에 요청이나 명령의 행위를 직접 수행하며, d는 ‘의문문’ 형식을 빌어 발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인 ‘조용히 해주-’를 포함한 발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화행이 이루어졌지만 요청의 발화수반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e와 f는 좀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용론적 분석의 핵심은 언어가 특정 상황 맥락에서 어떤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화맥을 통해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와 f는 조용히 하라는 ‘요청(명령)’이거나 맥락에 따라서는 ‘비난’이나 ‘힐책’의 의미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데, e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f는 속담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속담이 수행하는 고정적 함축(Grice, 1964)의 효과를 의도한 고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와 f의 경우에는 이것이 ‘말’ 혹은 ‘말이 많다’라는 언어적 단서가 발화수반적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데, 이를 화행에서는 ‘지별소(識別素, distinguisher)’라고 한다. 즉 ‘말이 많다’는 한국어 맥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말 많음’을 발화함으로써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표현(expression)임을 인지하도록 하는데, 이는 청자가 자신이 처한 또는 행한 사태를 화자가 요구하는 긍정적 상태로 변화시키도록 요청한다. a~f는 모두 ‘요청’의 발화수반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서는 수행 동사(‘요청한다’)를 직접 노출하거나 명제 내용(‘조용히 해-’)을 포함하여 발화하는 a~d보다, 의미론적 표지(semantic marker)가 드러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에둘러 표현한, e와 f가 보다 더 강력한 발화 효과적 행위를 수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e~f 같은 발화는 조용히 하게 되는 행위의 변화도 초래하겠지만, 이와 함께(혹은 조용히 하지 않더라도) 청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발화효과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글을 살펴보자.

1. 광고 표현

(1) 광고의 장르적 형식

언어의 목적이 설득에 있다고 보는 일부 의사소통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고는 의사소통 전략의 가장 발달된 형식을 보여준다. 또한 당대 말하기의 방식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양한 매체 기호(음성, 문자, 동영상, 음악 등)를 통해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광고를 통해 당대의 언어 문화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북한 출입이 자유로운 외신 기자들이 가끔 인터뷰를 하거나 대남 보도용 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담화가 종종 선보이기는 하나, 북한의 말하기 표현 방식이나 수사기법 등을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본고는 몇 편에 불과하지만 북한 광고를 통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담화의 화용적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화자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자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화자가 확신할 때이다.

4) 원래 속담은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이나 여기서는 ‘없다’로 바꿔 씀으로써 발화수반적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e와 마찬가지로, 청자는 속담의 내포된 함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화자가 확신할 때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광고를 북한은 2009년 7월 2일부터 <조선중앙방송>에 내보였다. 그 첫 상품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동강 맥주’인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광고 자료는 ‘대동강 맥주(2009.7.)’, ‘옥류관 메추리 요리(2009.8.)’, ‘휘파람 자동차(2009.8.)’, ‘개성 인삼(2009.8)’ 등의 4편이다⁵⁾.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맥주 광고만 살펴보고자 한다(<http://blog.naver.com/kisseunok/105718328>).



북한에서 광고를 처음 방송할 때 남한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다⁶⁾. ‘광고’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임을 아는 북한에서는 광고를 금지해왔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발달한 음악과 특수영상까지 사용해 뛰어난 맥주 맛과 우수한 생산 기술까지 자랑하는 TV 광고는 북한에서는 맥주 못지않게 광고 자체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9.7.3.). 그 광고 카피를 전사하면 다음과 같다⁷⁾.

- S1 “평양의 자랑 대동강 맥주” (자막+음성)
- S2 나라의 최대 음료 생산기지 대동강 맥주 공장 (자막)
- S3 첨단 기술을 도입한 “흰쌀 맥주” 개발 (자막+음성)
- S4 발효도가 높고 연하고 깨끗하고 상쾌한 맛 (자막)
- S5 그 맛의 깨끗함과 특이한 향미 (자막)
- S6 고유한 품격으로 아낌없는 찬사와 호평!! (자막)
- S7 순결하고 아름다운 대동강의 흐름을 연상 (자막)
- S8 어 시원하다! (대사 음성)
- S9 정련한 품질 관리 체계 수립 (자막)
- S10 국제 규격화 기구 (ISO 9001)의 품질 인증 획득 (자막)
- S11 국제 규격화 기구 (ISO 9001)의 품질 인증 획득 (자막 반복)
- S12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정성 철저히 담보 (자막)
- S13 영양성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2 광물질 조화롭게 풍부하게 균형있게 (자막)
- S14 기호성을 가진다 약리작용 : 스트레스 해소 리노작용 (자막)
- S15 인민들의 건강 장수에 기여!! (자막)
- S16 수도에 생겨난 새로운 풍경 (자막)
- S17 나날이 발전하는 대동강 맥주 (자막)
- S18 “우리의 자랑 대동강 맥주” (음성)
- S19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자막+음성)

남한의 광고가 일반적으로 15초에서 30초 사이이고, 길면 1분임을 감안한다면, 2분 42초 가량의 이 맥주 광고는 제법 길다고 할 수 있다. 총 19개의 동영상 장면(Scene number 표시로 #을 생략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면마다 각기 다른 자막을 넣고, 이 자막에 딱맞는 적절한 동영상이 제시되기 때문에 마치 페이지처럼 장면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다. 예컨대 S3과 S12에서는 공장의 내부, 자동화 시설을 동영상으로

5) 이 외에 보석 가공 공장을 방문한 김정일의 지시로 상품이 개발된 ‘코스모스 머리비침(핀)’도 텔레비전 광고로 만들어졌다고 하나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6) 북한 TV는 화장품, 사탕, 등 일부 생활품을 정지화면 형태로 간단히 광고하거나 제품의 생산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한 적이 있지만 동영상 광고는 이것이 처음이다. 평양에 첫 상업 광고판이 등장한 것은 2004년 1월 평화 자동차의 ‘휘파람’ 승용차를 선전하는 광고판 총 5개이다. 북한은 1998년에는 자본주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나진-선봉 경제 특구에 세워진 외국 회사들의 입간판을 모두 철거했는데, 그만큼 광고에 대해 철저한 배격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광고의 TV 등장은 이례적이다.
 7) 반복을 통해 에코(울림 효과)를 내는 경우는 큰따옴표(“ ”)로 처리함.

보여주고, S7에서는 대동강변에 서있는 공장의 외관을 보여주며, S16에서는 넥타이를 매거나 양복을 입은 화이트칼라들이 밤에 흥겹게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막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고 구조		자막	특징
도입부 <제품 소개>		S1 “평양의 자랑 대동강 맥주”	
본문	생산처	S2 나라의 최대 음료 생산기지 대동강 맥주 공장 S3 첨단 기술을 도입한 “흰쌀 맥주” 개발	S3 ‘흰쌀 맥주’를 음성 반복하는데, 이는 ‘북한에 쌀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
	맛	S4 발효도가 높고 연하고 깨끗하고 상쾌한 맛 S5 그 맛의 깨끗함과 특이한 향미 S6 고유한 품격으로 아낌없는 찬사와 호평!! S7 순결하고 아름다운 대동강의 흐름을 연상 S8 어 시원하다! (대사 음성)	S8은 유일하게 연설조가 아닌, 일상적 발화처럼 자연스럽게 대사를 한다.
	기술력	S9 정련한 품질 관리 체계 수립 S10 국제 규격화 기구 (ISO 9001)의 품질 인증 획득 S11 국제 규격화 기구 (ISO 9001)의 품질 인증 획득 S12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정성 철저히 담보	
	성분	S13 영양성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2 광물질 조화롭게 풍부하게 균형있게	
	효능·효과	S14 기호성을 가진다 약리작용 : 스트레스 해소 리노작용 S15 인민들의 건강 장수에 기여!! S16 수도에 생겨난 새로운 풍경	
정리부 <찬양>		S17 나날이 발전하는 대동강 맥주 S18 “우리의 자랑 대동강 맥주” S19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대동강 맥주의 몇 가지 표면적 형식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대동강 맥주 광고의 ‘구조’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 이름을 소개하는 첫 부분과 상품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 반복하여 제시하는 마지막 부분,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가운데 부분으로 나뉜다. 본문은 다시 ‘생산 장소, 맛, 기술력, 성분, 효능과 의의’ 등을 소개하는데 그 정보량이 상당히 많고 자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강 맥주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설명하려는 듯 광고 제작자의 의욕이 과잉되어 보인다.

둘째, 이로 인해 수사법적 표현으로 과장과 영탄이 빈번하다. 실제 북한 주민들 중에 ‘국제 규격화 기구, ISO 9001’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중요한 정보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S15에서는 맥주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노 작용을 하며 나아가 건강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셋째, 문장 형식의 특징으로는 명사구로 끝나는 문장 형태를 취함으로써 간결하고 압축적인 정보 제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S7이나 S12, S15 등은 평서문 형식에 어미를 탈락시킨 부자연스러운 표현도 간혹 있다. 전체적으로 명사 상당어구의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맞춘 것 같다. 그러나 맨 마지막 장면 S19는 미래 시제 서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막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남녀 성우가 각각 이 문장을 반복하여 낭송함으로써 마치 ‘예언’의 화행을 수행하듯이 산문조, 연설조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을 S19를 마지막으로 광고가 끝남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광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글 혹은 논설문과 같은 설명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광고의 수준이 상징이나 비유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수용자보다는 광고 생산자(혹은 제품 생산자)의 측면에서 정보를 홍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광고 제작의 기술이나 표현 수준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1960년대 남한을 연상시키는 매우 촌스럽고 단조로운 광고지만 북한 사회의 수준과 여건을 고려할 때 2009년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그래픽 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광고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임을 짐작

하는 보도가 있다.

(2) 설득 전략

이 광고에 쓰인 설득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막 중심의 설명식 전달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면의 구분은 자막 전환을 기준으로 한다. 자막은 상품에 대한 정보와 상품의 의의나 가치를 주로 설명적 문체를 사용하여 명사구(일명 개조식)로 표현했는데, 자막의 정보 내용을 시청자가 반드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면 전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광고는 ‘읽기용(for reading)’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에게 의도적으로 읽을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맥주 광고는 자막이 항상 화면의 중앙에 화면을 다 덮을 정도로 크게 차지한다. 따라서 동영상 배경이 될 수밖에 없고, 자막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 남한의 광고는 우선 자막이 많지 않다. 혹 있다고 해도 광고에서 자막이 주로 화면 아래에 배치되거나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영상 속의 이미지 전달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광고를 읽는 다든지 해석한다든지 할 시간이 없고, 사진을 찍듯이 봐야한다. 그래서 남한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보기용(for viewing)’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면 전환 속도가 빨라 시청자가 광고 내용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광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광고의 이미지가 강한 여운으로 남아 있도록 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이미지의 각인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북한은 제품의 생산 방식부터 제품의 특징은 물론 그 제품의 사회적 가치까지 설명함으로써 한 번에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이를 본 북한 주민들이라면 대동강 맥주의 우수성에 대한 한 편의 설교나 강연을 들은 느낌이 들게 분명하다.

둘째는 동영상은 특정 상징이나 함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자막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또한 장면 전환이 분명한데, 동영상이 나오는 각 장면은 자막의 배경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면의 동영상이 보여주는 현장의 음향 효과를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묵음 처리한 뒤, 다른 배경 음악, 일명 반주만 있는 경음악을 일관되게 깔았다. 그래서 대동강 맥주 광고는 함축이나 상징의 기법이 아닌, 단순 전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 중에서도 다소 색다른 특기할 만한 장면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수도에 생겨난 새로운 풍경(S16)’이라는 자막 뒤에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맥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다.



축제처럼 흥겨운 술자리가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듯 낭만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 평양의 광경이라기보다는 연출된 모습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고 다소 빠른 장면 흐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인다. 게다가 남성 여성과 남성이 자연스럽게 광고 모델로 등장하고 있어 다소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광고의 자막 문구 이상의 설득력을 지니며, 어쩌면 폐쇄적인 북한 주민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만하다는 점에서 기호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전히 상품 광고를 대(對) 인민 담화처럼 생각하여 설득적 연설조의 목소리를 취하고 있다. 자막이 내레이터의 음성보다 먼저, 천천히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레이터가 그 자막을 따라 읽는다. 이는 상품 정보의 전달과 설득 효과가 보다 확실히 달성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광고 4편에 등장하는 성우들의 목소리는 대남 담화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우렁차고 결의에 차 있는 듯 하면서도 강세와 억양이 강하게 표현되는 연설식 어조이다. 남자가 주로 자막을 읽으면 여자는 그대로 혹은 그 중의 일부만을 반복, 낭송하는데, 이것이 매우 인위적으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대동강 맥주의 경우, S1, S3, S18, S19에서, 남성의 자막 읽기가 끝나면, 굼직한 여성 내레이터가 곧이어 반복함으로써 약간의 에코 효과를 보여준다.

요컨대, 북한의 광고는 자막을 중심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며, 연설적인 어조의 내레이터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강력하고 직설적이며 분명한 표현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명료하고 단순하여 기억이 잘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청자가 상품에 대해 한 번 인지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광고에 대한 매력이나 호기심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이미 전달되어야 할 정보가 한꺼번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3) 화용적 분석을 통한 이질화 경향

우리가 북한 방송을 보고 낯설게 느꼈다면, 혹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면 이론적으로는 남북의 언어는 조금이라도 이질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은 방송에 불과하니 실생활의 언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당국이 방송을 대하는 태도를 일면 고려하고, 위의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등을 보면, 북한의 언어 사용에 대한 규율성과 모범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엄숙성 등이 잘 보인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언어 표현이 광고 자막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미시적인 차원에서 문장 표현을 살펴보자. 자료가 제한적이긴 하나, 위의 자막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다.

- S7 순결하고 아름다운 대동강의 흐름을 련상 (자막)
- S13 조화롭게 풍부하게 균형있게 (자막)
- S14 기호성을 가진다 약리작용 : 스트레스 해소 리노작용 (자막)
- S15 인민들의 건강 장수에 기여!! (자막)
- S16 수도에 생겨난 새로운 풍경 (자막)
- S19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자막+음성)

이는 단어의 생소함, 혹은 단어 결합의 생소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강’을 아무리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일상어에 가까운 광고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S7)’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하나의 취향이나 문화적 향유를 의미하는 ‘기호성(S14)’이란 단어나 ‘약리 작용’, ‘조화롭게(S13)’ 등은 잘 쓰이지 않으며, ‘인민들의 건강 장수(S15)’나 ‘수도에 생겨난 풍경(S16)’에서 ‘인민’이나 ‘수도’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느낀다. 뿐만 아니라, ‘(맥주가) 인민 생활에 이바지 하고 친숙해질 것이다(S19)’는 비록 ‘맥주가’가 주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바지하고 친숙하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어휘가 남북한에서 모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방식에서 이질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단어나 문장이 사용되는 문맥이나 상황이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질성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고의 표현 방식, 즉 수사적 전략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말하기 전략은 광고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 S2 나라의 최대 음료 생산기지 대동강 맥주 공장 (자막)

- S6 고유한 품격으로 아낌없는 찬사와 호평!! (자막)
- S12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정성 철저히 담보 (자막)
- S19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자막+음성)

남한은 ‘음료(S2)’를 생산 기지에 비유하지도 않지만, 하필이면 술 생산 공장을 ‘기지’에 비유하여 선전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S6부터 S19까지는 문어적 문체를 그대로 자막 문구에 넣음으로써 고답적이고 직설적인 인상을 주며, 마치 소설의 직접 서술과 같이, 자막이나 내레이터가 제품에 대해 메타적으로 가치 부여를 하는 방식이다. 즉 시청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깨달도록 하기보다는 상품의 가치마저도 ‘직접 설명’을 통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광고의 직설적이고 연설적인 문어체 표현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오랜 동안의 정치적 선전 선동 구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언어생활에 영향을 이러한 미쳤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광고의 설득 전략은 의사소통의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광고는 표면적 정보 전달 뒤에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설득’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광고가 지니는 공통적인 발화수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광고는 제품의 이미지에 대한 선호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구매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심리적 변화의 계기를 이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광고는 제품의 구매 설득 외에, 북한 당국이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심어 주기 위해 맥주 광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맥주가 없어서 못 마시거나 살만한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마시는 것이지, 굳이 맥주 광고를 해야 맥주가 팔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부가 자금줄로 알려진 대동강 맥주의 판매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의 최상위에 위치한 생산 의도는 일종의 북한 당국이 주민을 상대로 퍼는 심리전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생산 의도를 추측컨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동떨어진 광고 생산이나 표현 방식 등은 어휘의 이질화뿐만 아니라, 정서의 이질화를 확인하게 만든다. 아직까지는 문법의 이질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의사소통 방식의 작은 어색함이 이질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만하다.

2. 뉴스 표현

다음은 조선 중앙 TV의 담화문 3편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들 언어 사용의 화용적 규칙들을 분석해 보겠다.

(T1)

보다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자탄의 사용 특성 결과 폭발 위력 등 모든 측정 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중화 된 우리 애국 저력의 우수한 성능이 논리적으로 과시되었다.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 국가 건설에 한 사람 같이 돌출나선 우리 군비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보무 주동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다. (2013.2.12.)

(T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 입장을 내외에 밝힌다.

일. 세계와 연계를 이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격화시켜 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임을 다시금 세상에 똑똑히 공표한다.

이. 조선 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 우리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이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그

누가 인정해 주든 말든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될 것이다.

삼. 조선반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8)·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한다. 조미 당국 사이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고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회담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다. 모든 사태 발전은 지금까지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켜온 미국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미국은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그만두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해야 한다. (2013.6.13.)

(T3)

4월 30일로 끝난 모험적인 키리졸브 독수리합동 전쟁연습의 화약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5월 10일 경에는 우리를 반대하는 새로운 해상합동훈련을 구실로 핵탄을 적재한 니미츠호 항공모함 가격 집단이 현 괴뢰 당국자의 요구에 따라 부산항에 들어닥친다고 하며, 우리를 겨냥하여 8월에 강행될 보다 확대된 을지 프리덤 가건 합동 연습도 벌써부터 본격적인 진입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개성 공업 지구를 완전 폐쇄 위기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겉으로는 정상 운영설을 내들리며 실제 취하고 있는 대결과 전쟁 소동의 반영이다.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명명백백하다. 남조선 괴뢰들은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진정으로 걱정되고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 관계가 오늘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처럼 두렵다면 마땅히 초래된 사태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다. (2013.6.5.)

위의 담화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수형동사를 사용하여 주장이나 요구와 같은 화행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표현이고, '밑줄과 진하게'를 동시에 한 곳은 일상어, 구어체를 사용하여 감정을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이들 텔레비전 뉴스 보도의 형태 중에 하나인 대남 담화문들은 그동안 남한의 TV보도를 통해 자주 소개된 문체이자 말하기 방식이다. 위의 담화문과 같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담화의 문체와 말하기 방식, 일명 화술에 대해서는 조오현 외(2002:220)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리상벽(1975)의 <조선말화술(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화술의 규범성이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리상벽은 북한 화술에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하였는데, '똑똑히 발음할 것, 쉬운 말을 쓸 것, 입말투를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조오현 외, 2002:222, 재인용) 있는데, 위의 담화문에 그대로 교시처럼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동물 방송 화술의 '문체적 특성'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정론 화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논리적 감정이 지배하는 사논설과 달리, 논리적 감정과 심리적 감정이 예술적으로 배합된 종합적인 선동 화술이다. 혁명적 열정, 기백, 투지가 정론의 전반을 일관하고 있다. 찬양할 때는 격조 높게 자랑하고, 미워할 때는 주먹을 떨며 이를 가는 증오감으로 형성한다(위의 책, 232쪽 재인용)'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과 같이 전달상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동 방송 화술'에 적고 있는데, '선동 방송 화술은 다른 화술에 비하여 높고 센 목소리로 형성하며 발음의 탄력과 절도가 있다(위의 책, 232쪽 재인용)'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담화문은 정론 화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휘론적 특성으로, 쉬운 말, 입말체를 사용하고

8) '조미'에서 '조'는 북한을 지칭한다.

있으며, 문체적 특성으로 공식적인 대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표현 외에도 감정적 표현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열정이나 투지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달 면에 있어서도 발음 속도가 다소 늦추어 발음을 분명히 하고, 높은 톤의 힘이 들어가 있는 쉐 목소리로 어휘마다 강약을 조절하며 읽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담화문을 읽는다고보다는 사상과 감정을 말소리에 실어 전달하려는 듯한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연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외에도 만연체와 같이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긴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상황의 설명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설명을 앞부분에 말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어구를 피수식어구의 앞에 위치시켜 피수식어에 대한 발화자의 감정적인 표현과 가치 판단을 첨가함으로써 훨씬 감정적인 표현이 강조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선전 방송 화술의 대표적인 말하기 방식인 ‘혁명적 사상 감정을 반영한 심리적 전달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화술 규칙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 문장에서 괄호 친 부분은 생략되어도 무방하거나 다른 문장에서 상세화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태에 대한 상황 설명을 자세히 앞에 붙임으로써 감정적 호소가 강력해지고 심리적 전달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수식어 앞에 붙어 있다.

T3 ‘남조선 괴뢰들은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진정으로 걱정되고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 관계가 (오늘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처럼 두렵다면 (마땅히 초래된 사태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어느 나라든지 정치 담화의 장르적 형식은 매우 단조롭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의 담화는 북한 내 주민에 대한 뉴스 보도 형태를 띠면서도 ‘대남(對南)’ 방송 목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자는 남한 정부나 남한 국민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강력한 설득적 표현 기제를 사용하여 사실상 거의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단언(assertion)의 발화수반적 화행을 행한다. 직접적인 수행동사의 사용을 통해 자신들의 화행적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발화가 발생시킬 말의 힘, 즉 발화의 효과를 최대한 계산하여 감정적이고 수사론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한 당국을 ‘설득’하려는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대남 방송이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청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꾸짖는 어투나 단호한 어조, 강렬한 발성과 강세, 감정적인 어휘의 사용 등은 최종적으로는 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심을 높이고, 북한이 결코 정치적으로 열세에 처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으로 남한에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체제 안정과 대남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또한 심리전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방식과 생산 의도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이질감을 낳는다.

Ⅲ. 언어 동질화를 위한 교육 방안

1. ‘얼음보숭이’에 대해 ‘아이스크림’이 갖는 편견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사업을 통하여 세계 공통적인 어휘로 간주되는 일명 ‘눌러두고 쓸 어휘’를 말다듬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의 분류를 수정하기도 했다⁹⁾. 예를 들면, ‘얼음보숭이’와 ‘단물’ 등은 <다듬은 말(1986)>에서 지정되었다가 <조선말 대사전(1992)>에서는 제외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북한말에 대해 ‘얼음보숭이’만을 고집하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못 알아먹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비록 북한이 고유어를 중심으로 외래어와 한자어들을 철저히 배격해 온 다소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말다듬기 정책을 써왔다고는 하지만, 이를 민족 주체성을 살리고 다소 일관된 정책 기초를 가진 덕택에 그나마 고유어가 많이 남아 있고, 언어 사용의 혼선이 적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

9) 북한은 1980년대까지 약 5만여 개의 어휘를 다듬었으나 <다듬은 말(1986)>에서는 이전의 다듬은 말 중에서 절반 정도를 폐기하고 2만5천개만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어휘들은 다시 <조선말 대사전(1992)>에서 제외되었다(조오현 외, 2002:161).

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머리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전혀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분단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이질화를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이질화와는 다른, 정치색을 입혀서 보기 때문에 더 심각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방언에 대해 표준어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는 정치력으로 부여된 것일 뿐, 거기엔 어떤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평양말-문화어에 대해 가지는 서울말-표준어의 우월감으로 북한말을 이질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감지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어휘의 이질화일 것이다. 그러나 어휘 이질화는 방언과 표준어 사이의 차이 정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에 비하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어휘 지표가 아니라 문법 지표인데, 통사 구조가 달라지면 그 언어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통사적 문법 구조의 이질화는 감지되지 않고, 단어 또한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북한어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의 이질화는 표현의 이질화를 낳고, 이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낳아,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언어 분화를 결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 이질화의 책임을 북한의 정치 체제에 따른 획일적 언어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마치 방언에 대해 표준어가 가지는 엘리트 의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화 교류 차원에서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에 주문해야 할 바를 분명히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또한 북한어에 대해 성급하고 불필요한 정서적 이질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이질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을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나 은어에 가까운 신조어 난립 등이 세대간, 계층간 의사소통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성¹⁰⁾을 깨닫고 언어 순화에 스스로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외래어 사용만 봐도 언어 이질화가 남북의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립국어원의 새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구(2006)에 따르면, 새터민이 한국어에 적응하는 기간은 최소 12개월 평균 36개월이 걸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외래어 학습이라는 것이다. 설문 어휘 702개 중에 낱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된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어휘들의 80%가 외래어이다. 뿐만 아니라 외래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오히려 남한어를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북한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문 결과도 보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와 다른 반응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완전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자신이 무시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반해, 북한 새터민들은 언어능력으로 인한 우려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다 내국인의 외국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이들 외국어 사용이 결과적으로 계층상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는 매우 폐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내국인이라고 해서 외래어를 무조건 다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실제 외래어의 남용은 극히 일부 지역과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다. 이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외래어의 사용은 계층간의 위화감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¹¹⁾.

(2) 다소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차이 교육 실시

최근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남북한 언어에 대한 이해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방안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1개 성취기준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적용될 2011년 개정 교육과

10) 언어의 이해 속도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인식 정도는 국내인과 다를 것이다. 단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알기 쉬운 상용 외래어(박춘근 저, 2006)’라는 책자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기관에서 홍보차원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중국 동포 노동자가 한국 내 체류와 취업의 길을 여는 필수적인 가이드북 용도로 국내 외국인을 위해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다. 저자는 ‘한국어 문법을 다 알고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한국 내의 ‘상용’ 외래어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문)’며 상용 외래어 1100개를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외국어를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가? 실제 언중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바라보기에 ‘상용’ 외래어로 정리할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언어 사용 실태와 의식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다.

11) 이는 외래어의 화용적 기능 중에 화행적 기능(perlocutionary force)이라고 할 수 있다.

정에서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성취기준은 사라지고, ‘어문 규정이나 국어의 변천’을 학습하는 중에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정도로 축소되었다.

교육과정 소재	성취기준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
2007개정 8학년 [문법]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태 파악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찾기
2007 개정 고등학교 [문법]	(나) 국어의 미래 ① 통일 시대의 국어 ②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다.	<p>이 내용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언어가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고 차이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설정하였다.</p> <p>일상 언어와 학술 언어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휘 이질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해하도록 하되, 북한 교과서, 북한 사전, 신문 잡지, 방송 자료를 직접 보고 분석하면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p> <p>탈북 동포들이 체제, 이념,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 와 정착해 살면서 부딪히는 언어상의 문제를 경제, 정치, 문화, 학문 등의 분야별로 찾아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봄으로써 남북한 언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p> <p>남북한 언어 자료를 비교하면서 띄어쓰기, 자모 명칭, 표제어의 사전 배열 방식, 관용어 사용 측면에서 남북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방송 자료의 경우는 발화의 억양, 어조, 강조 표현, 출연자의 태도 등에 대해 주목하여 비교 지도할 수 있다.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조사하여 탐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여 지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자연스러운 통일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p>
2009개정 고등학교 심화 [독서와 문법 II]	(28)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남북 분단의 시대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 통일에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국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언어가 표기법, 어휘, 문장, 담화 차원에서 차이 나는 것을 탐구하면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2011개정 중1-3학년군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아울러 남북의 한글 맞춤법에서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2011개정 고등학교 선택 [국어 II]	(11)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국어의 미래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언어 동질화 문제를 다루고 국어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탐구하여 본다.

본고는 교육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의 내용으로, 남북한 언어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정과 원인에 대해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한 어휘가 정책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뿐 근원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에 우리의 언어 정책 목적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선은 우리말과 북한어를 동등한 관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두 언어(어휘) 간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우리말에 대한 순화와 바른말 사용이 함께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조오현 · 김용경 · 박동근(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역락.

고영근(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홍아영(1997), 남북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극복 방안, 건국대 석사논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

뉴스 담화록 녹취 (조선중앙T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0457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1482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90070.html

광고

대동강 맥주

<http://blog.naver.com/kisseunok/105718328>

휘파람 자동차

<http://cafe.naver.com/jeonjubusul5130/45>

휘파람 자동차 - 신차발표 광고

<http://cafe.naver.com/lkoyvse/23110>

옥류관 메추리요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64165>

고려인삼광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810104>

기타 컬러 광고

<http://blog.daum.net/241-7660/14885899>

보석머리핀 광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64>

“남북한 언어 이질화 경향과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화용적 측면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영미 (통일교육위원)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비전공자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에서 부족하나마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용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본 토론자가 비전공자이기에 매우 우매하고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의 낮은 지식을 깨우쳐주신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화용’이라 함은 ‘화법’을 연구하지만, 그 응용하는 ‘상호작용’의 의미 역시 포함하여 연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제 지식을 지배하였었는데, 이 초반부의 설명 내용을 읽고 보니 실제로는, 표현하는, 즉 발화자의 표현과 그 함축적 의도에 이론적 논리가 집중되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을 문학 문화 분야에서 텍스트의 해석에 관련된 문학비평의 관점과 연관지어보면, 상호작용 속에서 작가, 즉 발화자가 의도하는 발화‘내용’보다는 이제 수용자의 ‘수용’ 어쩌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오독’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이해’를 더 중요한 상호작용성의 변곡 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요. 이 수용자에게 수용된 발화자의 내용, 그 ‘변곡 내지 변주’를 더 중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사회성’이라는 기본적인 문화관점, 인간 사이의 갈등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능력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치적인 속성이 지극히 강한 북한 사회에서 권력층의 전달 언어, 즉 그 언어 표현만을 분석하는 화용론이 해당 사회에 관한 해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연구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 먼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가장 궁금합니다. 나아가, 수용자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의미론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이 또한 현재 국어교육학에서 언어학의 학제적 분리, 그 용역이 아직 깨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혹은 상호작용성에 대한 외면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는 위계적,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화용론의 사용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분석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면, 화용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정치적으로 권력층의 은밀한 ‘인민 길들이기’의 역사적 학정을 옹호하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연구를 위한 연구의 측면에 귀속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더욱 심하다 할 수 있겠지요. 오히려 의미론적인 내용, 그들의 침묵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두면서 그 상호작용성에 귀기울여야 진정한 의미의 내부적 갈등 극복의 토대가 제공되고, 이것이 보다 진전되면 남북한 이질화 해소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용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연구가 상호적으로 진행되어 본 적이 없는 화용론으로 북한의 정치적 수사를 강화하는 연구 논리가, 어떻게 그 유일체로서의 사회 내에 균열을 만들며 그 사회의 인권적 탄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방법론으로서 먼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우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 이질화의 경향들, 위계적 시각을 노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방송을 보고 낯설게 느꼈다면, 혹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면 이론적으로는 남북의 언어는 조금이라도 이질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피상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이는 단어의 생소함, 혹은 단어 결합의 생소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해당 사회 문제를 직시하는 데 대한, 즉 정치적 배제를 위한 급격한 연구 초점의 축소에 “북한의 광고는 제품의 구매 설득 외에, 북한 당국이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심어 주기 위해 맥주 광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맥주가 없어서 못 마시거나 살만한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마시는 것이지, 굳이 맥주 광고를 해야 맥주가 팔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라는 위계적 시각까지 동원하시고 계십니다.

“어휘론적 특성으로, 쉬운 말,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체적 특성으로 공식적인 대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표현 외에도 감정적 표현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열정이나 투지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달 면에 있어서도 발음 속도가 다소 늦추어 발음을 분명히 하고,

높은 톤의 힘이 들어가 있는 센 목소리로 어휘마다 강약을 조절하며 읽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담화문을 읽는다고보다는 사상과 감정을 말소리에 실어 전달하려는 듯한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연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개인적 감정적 주관성을 논문에서 표현하시고,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담화의 문체와 말하기 방식, 일명 화술에 대해서는 조오현 외(2002:220)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리상벽(1975)의 <조선말화술(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화술의 규범성이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화법이 굳건히 지켜지는 데 냉소를 보냄으로써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북한의 화법적 규범의 지속성에 반감을 갖도록 추동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발표자 선생님 역시 같은 논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북한말에 대해 ‘얼음보숭이’만을 고집하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못 알아먹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밑줄:토론자)라며 논문에 어울리지 않는 ‘구어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과 비슷한 화법을 구사하시고 계시기에 이런 것들을 굳이 북한의 문제라 지적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언어 이질화의 책임을 북한의 정치 체제에 따른 획일적 언어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마치 방언에 대해 표준어가 가지는 엘리트 의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밑줄:토론자)라고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는 결국 엘리트 의식의 범주 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셋째, 결론 부분에서 선생님께서는 “본고는 교육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의 내용으로, 남북한 언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정과 원인에 대해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한 어휘가 정책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뿐 근원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에 우리의 언어 정책 목적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회의 해석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토론자 역시 동의하지만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에 아쉬운 마음으로,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 강 】

남북한 언어의 통합적인 연구

홍윤표(전 거래말큰사전 편집위원장)

<차례>

1. 머리말
 2. 한국어의 범위
 3. 북한어의 개념
 4.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그 배경
 5. 북한어 연구의 문제점
 6. 북한의 국어 연구
 7. 북한어 연구 방법의 개선
 8. 남북한 언어의 통합적인 연구
 9. 마무리
- 참고문헌

1. 머리말

국어학자는 공간적, 시간적, 위상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국어를 연구한다. 시간적으로 분화된 국어를 연구하는 분야가 국어사이다. 계층어 연구나 직업어 연구, 은어 연구 등이 위상적으로 분화된 국어를 연구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분화된 국어를 연구하는 분야가 방언학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지역적 분화가 이루어진 국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지역적 분포를 가지게 된 국어는 방언학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 사용자가 전 세계에 분포하면서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어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그 지역의 국어는 방언 연구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영어의 방언이 아닌 것처럼.

국어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주민 이외에 전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는 동포들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전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분포와 사용자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해외동포 통계자료는 재외동포재단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다. 단위는 '명'이다).

한반도	남한		49,773,000		73,823,000
	북한		24,050,000		
외국	아주 지역	일본	904,806	4,063,220	7,268,771
		중국	2,704,994		
		기타	453,420		
	미주 지역	미국	2,176,998	2,521,470	
		캐나다	231,492		
		중남미	112,980		
	구주 지역	독립국가연합	535,679	656,707	
		유럽	121,028		
	중동 지역		9,440	9,440	
	아프리카 지역		11,072	11,072	
				81,091,771	

이중에서 국어 사용자수가 많은 곳은 ① 남한지역 ② 북한 지역 ③ 중국 지역 ④ 미주 지역 ⑤ 일본 지역 ⑥ 중앙아시아 지역(독립국가연합 지역)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런데 남한의 국어학자들이 연구하는 국어는 주로 남한어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부지역어(서울 지역어)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결국 국어의 일부를 연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어’를 연구한다고 말한다.

2. 한국어의 범위

최근에 남한어만 연구하지 말고 전세계의 국어를 연구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생겨나면서 ‘민족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고영근, 제이앤씨, 2008)의 ‘민족어’는 국어, 한국어, 조선어, 문화어, 고려어 등 관점에 따라 달리 불리는 우리말을 포괄하는 뜻으로 쓴 것이다.

민족어라는 말은 현재 남한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우리말을 지칭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용어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한국어’(문자 명칭은 ‘한글’), 북한에서는 ‘조선어’(문자 명칭은 ‘조선글’),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말’(문자명칭은 ‘고려글’)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어’는 남한어를, ‘조선어’는 북한어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언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를 통일하려고 해도 그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자, 이를 총괄하는 명칭으로 ‘민족어’라고 지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족어’란 용어는 우리 민족 내부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명칭이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고 있는 ‘영어’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듯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영어’이지 ‘미국어’가 아니듯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은 ‘한국어’일 뿐이다. 그래서 ‘남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북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등일 뿐이다.

국어(國語, national language)는 원래 국가어(國家語)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용어(公用語)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어는 ‘한국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어’와 ‘한국어’가 공존하고 있는데, ‘국어’란 말은 ‘한국어’를 우리의 처지에서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약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三韓國’의 약자이다. 따라서 ‘한국’이란 단어는 중국의 史書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던 단어다. 예컨대 陳壽(233-297)가 편찬한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韓國’이란 단어가 여러 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노인들이 세상에 전하기를 스스로 “옛날에 진역을 피하여 도망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대방)군으로부터 倭에 이르기까지는 海岸을 따라 물길로 가서 韓國을 거치고, 남쪽으로 갔다가 또 동쪽으로 가면 狗邪韓國의 북안에 이르는 데 걸가 7천여리이다.) (狗邪韓國 : 지금의 김해 지역으로 해석됨)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말은 그 공동 명칭이 ‘한국어’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자명도 ‘한글’이어야 한다. ‘한글’이 ‘한국의 글’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회피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어 연구는 한국어 연구다. 따라서 국어 연구의 범위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를 포괄하여야 한다.

3. 북한어의 개념

‘남한어, 북한어’라는 이름은 방언이나 지역어의 범주에서 벗어난 명칭이다. 방언이나 지역어는 한 언어가 지역적으로 분화된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남한어’나 ‘북한어’는 지역적으로 분화된 국어를 지칭하지만, 방언이나 지역어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이름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널리 쓰이고 있다. 한 언어의 분화이면서도 그 분화의 요인이 ‘국가나 민족의 분단’이라는, 언어학적으로 전혀 정의되지 않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나 국가가 분단 또는 분열되면서 분단 또는 분열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름을 붙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분단된 지역의 이름을 붙여 ‘남한어, 북한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남한어, 북한어’란 말은 남과 북이 분단된 뒤에 생겨난 용어이어서 그 사용의 역사는 짧다. 그래서 ‘남한어, 북한어’는 단순히 ‘남한 지역에서 쓰이는 말,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어’란 말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남과 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말은 ‘북한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북한어’는 ‘분단된 뒤의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말’로 쓰이는 것 같지만, 엄밀히 검토해 보면 또 그렇지 않다. ‘반딧불’(벌레 이름)을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양강도) ‘에디벌레’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고 ‘수수’를 ‘가내수끼’(함북)라고 한다고 해서, ‘에디벌레’와 ‘가내수끼’를 ‘북한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들은 ‘북한 방언’이라고 할 뿐이다. 대신에 북한에서 ‘도넛’은 ‘가락지빵’이라고 하고, ‘전업주부’를 ‘가두녀성’, ‘양배추’를 ‘가두배추’라고 하는데, 이 말들은 ‘북한 방언’이라고 하지는 않고, ‘북한어’라고 한다. ‘가락지빵, 가두녀성, 가두배추’는 분단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어’는 ‘분단 뒤에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말’로 인식하기 쉽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 쓰이는 말 중에 남한의 말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도 ‘북한어’라고 하기도 한다. 예컨대 북한에서 ‘일 없다’는 ‘초연하다, 관찮다’란 의미를 가지고 쓰이거나, ‘바쁘다’가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북한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북한어는 ①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말 ② 분단 후에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말 ③ 분단 후에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낸 말 ④ 남한의 말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북한어’까지도 수록범위에 넣은 국립국어원 편찬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북한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전에서 ‘북한어’란 올림말은 찾을 수가 없다. ‘일려두기’의 ‘수록 범위’에 분명히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올렸다”고 하였는데, ‘북한어’란 단어는 사전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전들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어’란 단어를 올린 국어사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개정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북한어’를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휴전선 북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간단히 풀이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국토 분단 이후 북한에서 쓰는 말’이란 뜻풀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남한어’ 항목에는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휴전선 남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란 뜻풀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려두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북한어’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북한어는 <조선말 대사전>(1992)에 수록된 단어 가운데 남한에서 쓰임이 확인되지 않은 단어와 어문규정의 차이로 달리 표기하는 단어를 편찬원칙에 따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남한에서 쓰는 단어라도 북한에서만 쓰는 용법이 있다면 북한어 뜻풀이를 덧붙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북한어’란 ①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 ② 어문규정의 차이로 남한과 달리 표기하는 말 ③ 남한과 뜻이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북한어’의 개념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암시하고 있는 ‘북한어’의 개념을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① 북한 지역에서만 쓰이고 남한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
- ② 남북 분단 후에 북한 지역에서 새로 형성되거나 만들어낸 말
- ③ 남한의 단어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뜻을 달리하여 쓰이는 말
- ④ 어문규정의 차이로 남한과 달리 표기되는 말

그런데 일반인들은 ‘북한어’가 모두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일부 단어의 뜻풀이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단어만을 북한어라고 한다면 북한어 어휘수는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남한어에도 그러한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발표자에게 ‘남북한 통합적인 언어 연구’란 제목이 부여된 것도 ‘남북한어’의 ‘남한어’와 ‘북한어’란 개념을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달리 쓰는 국어로 생각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발표자는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족과 국가는 통일의 대상이지만, 언어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표자가 생각하는 ‘남한어’와 ‘북한어’의 개념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지닌 용어로 쓰고자 한다. 즉 남한어와 북한어란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 쓰이는 국어를 말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남한 지역어와 북한 지역어도 각각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한 언어의 방언형인 것이며, 그래서 남북한의 언어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4.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그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이질화되었다고 계속 주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국어학자들은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의 국어는 방언의 관점에서 분류·기술·설명하여 왔다. 그렇다고 국어의 방언을 남한 방언과 북한 방언으로 크게 구분하지는 않았었다. 단지 도별로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등으로 구분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남과 북의 언어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은 분단 이후, 한참 이후의 일이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1970년대에 남북이 접촉하면서(7.4 공동성명 발표 및 남북 적십자회담 등), 회담장에서 시종들던 북한 여성에게 ‘아가씨’라는 호칭을 썼더니, ‘접대부’라고 불러 달라고 하는 말이 전래되면서, 남북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크게 나돌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6.25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도 그 이전에는 흔히 사용하여 왔던 ‘동무, 인민’ 등의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다. 만약에 이러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당국에 신고할 대상이 되었다. 즉 간첩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남과 북의 언어 차이는 과장되어 갔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언어, 즉 북한어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1970년도 초기에 간행된 북한어와 연관된 책은 모두 정보 관련 연구소나 기관에서 간행된 것이다. 1971년에 나온 『북한 용어 해설집』은 ‘북한문제연구소’에서, 1973년에 간행된 『북한 언어 정책 자료집』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나왔고, 『북한 말다듬기 자료집』도 1973년에 중앙정보부에서 출판하였으며, 『북한 용어 대백과』도 1976년에 ‘국민방첩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남과 북의 언어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한 언어 안에서 두 지역의 언어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① 언어학적으로는 언어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음운체계, 문법체계, 어휘체계 등에 차이가 있을 때 두 지역어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특히 지금까지 중부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등의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언어체계가 달라졌을 때에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일반인들이 두 지역어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언어체계를 검토한 적이 없으면서도 말이 다르다고도 하는 것이다.

② 그 지역어의 억양 등의 특색이 다를 때 그 말이 다르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 출신의 말을 듣고 북한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말씨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양이나 말씨가 다르다고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③ 그 지역어의 어휘가 서로 다를 때, 그 지역어가 다른 지역어와 다르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표준어와 다른 어휘를 사투리라고 하여 ‘사투리가 심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는 것은 주로 어휘다. 그래서 어휘가 다르거나, 그 어휘의 의미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두 지역어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

남북 언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대개 이 세 번째의 경우이다. 그래서 남한어, 북한어란 말은 주로 그 어휘가 남한에서 쓰이는 것인가 북한에서 쓰이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어휘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 문제는 남한어와 북한어의 어휘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어느 어휘가 형성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① 어휘가 생성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어휘가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어느 한 개인이 쓰기 시작했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 아래 한 언어의 어휘로 정착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어휘들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형태소들을 결합하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서양에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기

존에 있었던 사물의 명칭에 ‘양(洋)’이나 ‘서양(西洋)’이라는 접두사를 붙여 만든 어휘들이 널리 통용되어 ‘양복, 양말, 양재기, 양철, 양초, 생철(서양철)’ 등처럼 국어 어휘로 정착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양’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② 인위적으로 어휘를 만드는 경우이다. 이것은 대체로 관련 단체나 국가기관(예컨대 ‘국립국어원’ 등)이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갯길, 말뭉치, 말모듬, 먹거리’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③ 외국어에서 어휘를 차용하여 쓰는 경우이다. 대부분이 외국어를 음차하여 들여온다. 어느 것은 국어로 정착하기도 하고 어느 것은 외국어로 남아 유행어처럼 쓰이다가 사라지곤 한다. ‘딴따라, 컴퓨터, 와인’ 등이 정착된 예들이다.

④ 어휘를 순화하여 또는 다듬어서 만드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쓰이는 것을 우리 고유어로 바꾸어 대치시키는 것인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순화시킨 경우와 최근에 영어로 들어온 말들에 대한 표준화 내지는 순화 차원에서 다듬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이라고 다듬어서 성공하였고, 북한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를 ‘계단 승강기’라고 하여 대치시켜 성공하고 있다.

⑤ 어휘의 형태는 그대로 있되,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북한에서 ‘동무’가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란 뜻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란 뜻으로 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어휘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어휘가 만들어지는 일정한 규칙, 즉 조어법이 적용되고 또 검증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휘들은 그것이 지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어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컨대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깍두기’를 ‘뚝딱지’라고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를 ‘깍둑깍둑’ 썰었다는 의미와 연관시켜 ‘뚝딱뚝딱’ 썰었다는 의미를 연상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짚지, 오이지, 싱건지, 단무지’ 등의 ‘지’에 유추되어 쉽게 이해함으로써 국어 어휘로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들은 남한과 북한에 각각 존재한다고 해도 남과 북이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 주어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어휘들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의사소통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어휘들을 남한어나 북한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

남과 북의 어휘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주로 어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와 외래어 차용과 다듬어 쓰는 경우, 그리고 어휘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의 대부분은 학술용어나 전문용어인데, 남과 북의 학술적 발달이 주로 광복 이후에 이루어졌고 또 남북의 학문 발달의 배경이 다르며 남북이 상의하지 않은 채로 학술용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북의 학술용어 차이는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물론 남한 내의 학술용어 차이는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학술용어는 과학적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일성과 규범성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의 발전·보급·응용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이의 통일이나 표준화는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에서 어휘를 차용하여 쓰는 경우에는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휘이면서도 다른 어휘로 인식될 만큼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베트남’을 ‘웬남’, ‘헝가리’를 ‘웡그리아’로 표기함으로써 두 개가 전혀 관계없는 어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들어온 외래어들을 순화시키거나 다듬어 왔다. 남한에서는 ‘우리말 도로 찾기’를 시작한 8.15 광복 직후(194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어 순화운동을 벌여 왔다. 1947년에 ‘국어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말을 도로 찾는 운동으로 주로 일본어투 심의를 하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각종 용어를 계속해서 순화하여 왔다. 국립국어원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순화한 어휘수만도 약 20,000개가 넘을 정도였다. 민간단체에서 순화한 단어는 더 많은 편이다.

북한에서도 이 작업은 1946년부터 약 3.4년간 문명퇴치운동을 벌이고, 1949년에 한자 폐지를 단행한 후, 계속하여 말다듬기 운동을 하여 왔다. 지난 10여년간에 약 5만여 단어를 다듬었다.

남북한의 국어 어휘 순화, 또는 말다듬기 작업은 서로 상의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남한의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협력하여 남북한에서 순화한 자료를 통합해 검토한 결과 순화한 내용은 거의 80 퍼센트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의미가 달라진 어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대개 기본적인 개념의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포의 의미가 바뀐 것이 많은 편이어서, 광의의 변화로 본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수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언어는 광복 이후에 새로 만든 어휘들이나 차용한 어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언어차이가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남북한의 언어차이라고 하기 어렵다. 언어변화로 인한 결과이어서 그것은 세대간의 언어 차이로 인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남한에서 세대간의 언어차이로 인해 부자간이나 모자간, 부녀간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북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비한다면 남북한 언어 차이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한어의 차이는 ① 방언적 차이 ② 새로 만든 말(학술용어 등) ③ 새로 차용한 말 ④ 다듬은 말(순화한 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언어의 기본이 되는 기초어휘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에서 남과 북의 기초 어휘 10,000개를 비교하여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많다는데, 왜 이 사전 검색 프로그램에는 왜 차이가 없느냐고 하면서, 차이가 나는 단어 3,000개를 골라 '남북한 이질화된 언어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여, 그것을 만드느라고 연구진들이 애를 먹었던 일이 있다.

그래서 남북한어의 차이는 ① 방언적 차이 ② 새로 만든 말로 인한 차이 ③ 다듬은 말(순화한 말)로 인한 차이 ④ 의미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한 차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5. 북한어 연구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북한어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북한어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에서 새로 만든 어휘나 다듬은말에 집중되었다. 그것이 남한의 언중들에게는 흥미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알'(전구), '긴 불알'(형광등), '떼불알'(상들리에) 등의 어휘들이 북한을 비하하는 의미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어휘들은 북한의 어느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말뭉치를 통해서도 검색되지 않는 단어이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보숭이'라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남한의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한데, '얼음보숭이'는 실제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다. 말다듬기의 결과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일 뿐이다. 오히려 '에스키모'가 더 많이 쓰이는 어휘이다.

북한어 연구는 그 양으로 볼 때에는 매우 방대하다.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국립국어연구원, 2001)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 논저 해제집을 보면 주로 연구사이거나 언어정책에 대한 논문이 대다수이다. 어문규범에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어에 대한 연구는 살아 있는 북한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 있어서 실질적인 북한어 연구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전만을 통해서 북한어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여서 온갖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표준국어대사전』만을 통하여 남한어를 연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한 가지 관심은 남북한의 어문규범의 차이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또한 연구 결과 및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북한의 학문적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남한어를 연구할 때에는 풍부한 예문을 제시하여 결과를 유도해 내지만, 북한어에 대한 연구는 실제의 예문을 통해 연구되지 않았다.

국어 연구에서 말뭉치의 활용은 오늘날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어 연구에서는 말뭉치를 활용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북한어 연구가 거의 없다는 증거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동포들에 의한 북한어 연구도 다를 바 없다. 중국 동포들에 의해 이루어진 북한 방언 연구도 부분적으로는 방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전반적인 조사는 아닌 것이란 증언을 여러 번 들 수 있었다.

최근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토대로 한 북한어 연구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중국에 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어 조사를 통하여 북한어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어 연구가 초보적 수준에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6. 북한의 국어 연구

북한의 국어연구는 대체로 남한에서 영인되어 소개된 북한의 국어학 관련 논저나 다른 경로를 통해 복사되어 소개된 문헌들을 통해 그 실상이 파악되어 왔다. 영인, 소개된 북한의 업적들은 대체로 중요한 업적들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북한의 국어 연구의 대략을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어연구에 대한 실상은 다음의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언어학 연구논문 색인사전

2006년에 북한에서 만든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찬, 2006)을 통해 북한의 국어연구의 전체 동향을 파악하기 수월하다. 우선 이 사전의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사전의 양을 표시하기 위해 쪽수까지도 그대로 두었다.

머리말	2
범주별색인	4
0 원전해설자료	4
1 주체의 언어사상리론	33
2 언어정책	63
3 일반언어리론	91
4 언어일반	105
5 말소리구조	126
6 문법구조	196
7 의미론	404
8 어휘론	425
9 어휘정리	477
A 문체론	500
B 글자	581
C 방언	593
D 언어생활	622
E 언어응용	702
화술	702
사전과 논문집	708
언어규범	718
응용언어학	731
F 언어력사	777
저자별색인	825
서지별색인	1193
전문단행본	1193
교재, 참고서	1197
논문집	1199
사전, 편람 및 자료	1200
잡지	1202
학위논문	1204
올림말색인	1219

이 사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① 목적 : 언어학자들이 언어학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새롭게 연구해야 할 분야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 ② 기간 : 해방후 60년동안 북한에서 출판, 발행된 언어학 연구도서들과 논문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그것을 언어학의 개념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③ 범위 : 해방후 연구, 발표된 단행본, 교재, 참고서, 논문집, 사전편람류, 학위논문, 잡지의 연구자료들을 포괄하였다.
- ④ 구성 : 범주별 항목을 기본 올림말로 하고 여기에 저자별 색인, 서지별 색인, 올림말 색인이 보충항목으로 이루어졌다.
- ⑤ 이용 방법 : 일반 이용자와 컴퓨터 언어 DB 구축 및 정보검색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 사전은 아직 출판된 적은 없다. 전자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검색이 용이하다. 연구논저 목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략한 목차나 내용까지도 첨부되어 있어서 더할나위없는 참고자료이다.

(2) 조선어학전서

2005년도에는 조선어학전서가 간행되었는데, 모두 47책의 방대한 업적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권재일 교수의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가 있어서 단지 목록만 제시하기로 한다.

<조선어학전서> 목록

I. 언어리론

1. 주체의 언어이론(최정후, 2005.1.20., 263쪽)
2. 조선문화어건설리론(리호경, 2005.4.20., 239쪽)
3. 조선로동당언어정책사(정순기·리근용·리호경·장근수·장영남·안순남, 2005.3.15., 359쪽)

II. 어학사

4. 조선말력사 1(류렬, 2005.5.15., 423쪽)
5. 조선말력사 2(류렬, 2005.7.15., 671쪽)
6. 조선말력사 3(김인호, 2005.5.15., 335쪽)
7. 조선말력사 4(김인호, 2005.1.20., 367쪽)
8. 조선말력사 5(류렬, 2005.5.15., 359쪽)
9. 조선말력사 6(김인호, 2005.5.15., 255쪽)
10. 조선말력사 7(백운혁, 2005.5.15., 279쪽)
11. 조선인민의 글자생활사(김인호, 2005.4.20., 271쪽)
12. 조선어학설사(안경상, 2005.2.15., 287쪽)
13. 향가연구(류렬, 2005.9.25., 478쪽)

III. 어휘론

14. 조선어어휘론(최완호, 2005.1.20., 303쪽)
15. 조선어어휘통계학(문영호, 2005.1.20., 256쪽)
16.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리기원, 2005.1.20., 375쪽)
17. 조선어어휘정리론(박성훈, 2005.3.15., 287쪽)
18. 조선어단어론(김백련, 2005.5.20., 279쪽)

IV. 의미론

- 19. 조선어어휘의미론(조춘옥, 2005.1.20., 247쪽)
- 20. 조선어의미구조론(문영호, 2005.1.20., 271쪽)
- 21. 조선말력사의미론(김인호, 2005.2.15., 287쪽)

V. 어음론

- 22. 조선어어음론(김성근, 2005.1.20., 295쪽)
- 23. 조선어음운론(김성근, 2005.2.15., 207쪽)
- 24. 조선어실험음성학(강진철, 2005.4.5., 303쪽)
- 25. 조선어력사어음론(최정후, 2005.4.15., 303쪽)

VI. 문법론

- 26. 조선어형태론(정순기, 2005.2.15., 343쪽)
- 27. 조선어문장론(김백련, 2005.3.15., 304쪽)
- 28. 조선어문장성분론(리기만, 2005.2.15., 287쪽)
- 29. 조선어품사론(김옥희, 2005.3.15., 295쪽)
- 30. 조선어단어조성론(김동찬, 2005.5.15., 456쪽)
- 31. 조선어실용문법(김동찬, 2005.7.15., 391쪽)

VII. 문체론

- 32. 조선어문체론(리정용, 2005.2.15., 255쪽)
- 33. 언어생활론(리정용, 2005.3.15., 311쪽)

VIII. 명칭론

- 34. 조선어명칭론연구(방린봉, 2005.3.15., 295쪽)
- 35. 조선지명학(박명훈, 2005.5.15., 247쪽)
- 36.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연구(정순기, 2005.7.15., 303쪽)
- 37. 조선지명연구(조창선, 2005.9.25., 335쪽)

IX. 방언학

- 38. 조선어방언학(김성근, 2005.2.15., 255쪽)

X. 언어공학

- 39. 조선어정보론(권종성, 2005.3.15., 303쪽)
- 40. 조선어음성공학(홍석희, 2005.4.20., 287쪽)
- 41. 조선글자공학(최병수, 2005.3.15., 295쪽)
- 42. 조선어정보검색학(김길연, 2005.2.15., 239쪽)
- 43. 조선어문법검사연구(리승길, 2005.7.15., 255쪽)
- 44. 조선어전자사전연구(리승길·방정호, 2005.5.15., 271쪽)
- 45. 조선어확률론(리정용, 2005.7.30., 527쪽)

XI. 언어규범

- 46. 조선어규범변천사(최정후·김성근, 2005.7.25., 271쪽)
- 47. 조선어규범리론(김동찬, 2005.7.15., 271쪽)

국어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때까지 간행되었던 저서들을 재간행하거나 또는 새로 집필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방언학 분야의 저서가 빈약하고 언어공학 분야 연구가 두드러지다는 점이다.

(3) 방언 연구

남한의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이에 방언 조사 계획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가 공동으로 진행되었었고, 실제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졌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중단되고 말았다,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의 언어학연구소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각 도별로 방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남한은 작년에 5개년 계획의 조사가 모두 끝나서 보고서가 간행되어 나오기도 하였지만, 북한은 그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그 당시에 4 개도에 각 2개 지점에 대한 방언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역어 조사를 통해 정리된 파일들이 있는데, 몇 예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통강군	온천군	신 계 군 (박)	곡산군(계)	구 장 군 (임)	구 장 군 (최)	향산군	안변군(최)	법동군(김)
소경	참봉	새경	소경	맹가니 소경	쇠경	소경 새경		소경	소경
절름발이	절러빠리	절뚝빠리	절뚝빠리	절뚝빠리	절름바리	절뚝빠리	절뚝빠리	절늑빠리	절늑빠리>절뚝빠리
곱사등이	폼페이	폼페이	폼세대이	폼세둥이	고페	고페	폼페이	폼세	폼세둥이
귀머거리	귀머페이	귀머거리	귀머거리	귀머찌이	귀머거리	귀머찌	귀머페이	귀머찌	귀머거리
말디듬이	떼페	반도터리	반버버리	떼페	○	더투아리	반디터리	반병어리	반버버리 떼페
병어리	버버리		버버리	버버리	뽕찌	버버리 뽕찌		병어리	병어리
잠꾸러기	잠꾸레기	잠뽕	잠꾸러기	잠꾸대기	뽕투이>잠꾸러기	잠투이	잠꾸레기	잠꾸러기	잠꾸러기
늘	?	계속 늘		내내	늘	늘			
하품	하품	하품	하품	하품	하품	하품	하품		하품
줄리다	줄린다	줄리다		줄리다	줄리다	고나다 줄리다	존다		존다
조름	조름	조름		조름	조름	조름		조름	조름
잠꼬대	잠꼬대	잠꼬대	잠꼬대	잠꼬대	잠꼬대	군소리 잠꼬대	잠한다	잠꼬대	잠꼬대

이 조사를 하면서 전사된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평북도 구장군 임씨

문: 첫아이 가졌을때 생각납니까?

답: 거 그땐 절머서 아이 하나 좀 쑥쓰럽끼두 하구 점직하기두 하구 그땐 거 철 아버지소릴 딛끼레 그땐 점직했씨요. 병워네 가서 해사늘 했는데.

문: 첫아이 가졌을때 특이하게 인상에 남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답: 그런거.

문: 남들이 이젠 아이아버지 되었다고 하면서 노는 소리한건 없습니까?

답: 그때 머 농질 한다는게 자간 그저 보니니 보니니 이제부터는 아이 아버지로구나 하는 개따나 쑥쓰러워 배는데 아 해산했따구 그래요. 야 이제부터는 이거 내가 이전 아이아버지가 될꾸나. 그게 어피나 점직하던디. 말모타구 인는데 아 그다멘 부모드리 이르믄 진짜 그래요. 게서 이르믄 그때는 기래두 제 아버지라구 부모들두 아버지가 지야 된다. 그래서 우린 철따를 부니라구 진는데 아 그땐부터는 스물두살 어렌데 아이아버지 될따구 아 부니아버지, 부니아버지하는데 그게 어피나 점직하던디 지금두 낄질 아나요. 아무데 가두 부니아버지라구 길디 이르믄 안부르구 거둔요. 아 지그믄 다 좀 나이드러서 시집장가를 가서 그러지만 그때는 열다섯살쯤 되문 벌써 건 장가 드릴쓰니까니. 거 사회생활하면서 이자 그 소리가 거 상당이 그때는 점직했씨요. 허허.

이 자료들은 음성파일로도 남아 있고 또한 분석되어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안타까울 뿐이다. 이 음성파일을 통해 북한의 방언조사 방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조사와는 별도로 이미 북한에서는 다양한 방언지도를 그려 놓고 있었는데, 그 방언지도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모두 180개의 방언지도가 작성되어 있다.

1. 모음 지도

(1)

아 - 애 대응 : 단지, 만들다, 방망이, 이마, 장가가다, 하는 것, 하다, 아-애(종합)

어 - 에 대응 : 며느리, 벼, 소경, 여-애(종합)

오 - 외 대응 : 고기, 고양이, 소역, 송아지, 오-외(종합)

위 - 우, 우이 대응 : 기저귀, 까마귀, 볼따귀, 사마귀, 사위, 앞사귀, 위-우(종합)

모음 대응(종합지도)1

모음 대응(종합지도)2

(2)

애 - 아이, 에 - 어이 대응 : 개, 게, 넷, 새, 셋, 참새, 애-아이,에-어이(종합)

외 = 에 대응 : 뉘 외-에 대응(종합)

외 - 왜 대응 : 쇠, 외-애(종합)

우 - 에 대응 : 궁둥이, 모퉁이, 우-에(종합)

우 - 위 대응 : 구경, 궁둥이, 누구, 두부, 우-위(종합)

모음대응(종합지도)1

모음대응(종합지도)2

모음대응(종합지도)3

(3)

애 - 아 대응 : 강냉이, 팽이, 담배, 재채기, 정강이, 지팽이, 애-아(종합)

오 - 아 대응 : 고양이, 오-아(종합)

와 - 아 대응 : 고와하다, 기와, 와-아(종합)

우 - 어 대응 : 국수, 누구, 두부, 사슴, 우-어(종합)

으 - 이 대응 : 가슴, 그릇, 늦그릇, 어느, 이름, 으-이(종합)

모음대응(종합지도)1

모음대응(종합지도)2

2. 자음 지도

(1)

ㄹ - ㄱ 대응 : 가루, 머루, 벌레, ㄹ(ㅇ)-ㄱ(종합)

ㄹ - ㄴ 대응 : 래일, 령감, 류월, ㄹ-ㄴ(종합)

ㅇ - ㄴ 대응 : 염소, 음달, 이마, 이야기, ㅇ-ㄴ(종합)

ㅇ - ㅂ 대응 : 고아하다, 노을, ㅇ-ㅂ(종합)

ㅇ - ㅅ 대응 : 가위, 가을, 마을, ㅇ-ㅅ(종합)

아래아 : 가을, 마을, 아래아(종합)

자음대응(종합지도)1

자음대응(종합지도)2

(2)

ㄱ - ㅈ (입천장) : 기둥, 기르다, 기와, 기저귀, 기침, 김치, ㄱ-ㅈ(종합)

ㅋ - ㅊ (입천장) : 키, ㅋ-ㅊ(종합)

ㅋ - ㅎ,ㅍ(입천장) : 쉼다, ㅋ-ㅎ,ㅍ(종합)

- ㅎ - ㅅ (입천장) : 향나무, 형, 흥년, 힘줄, ㅎ-ㅅ(종합)
- ㅅ - ㅎ (입천장기피) : 세다, ㅅ-ㅎ(종합)
- ㅈ - ㄷ (입천장기피) : 장가가다, 점심, 접시, 정강이, 좋다, 지팽이, ㅈ-ㄷ(종합)
- ㅈ - ㅌ (입천장기피) : 접시, ㅈ-ㅌ(종합)
- ㅊ - ㅌ (입천장기피) : 천둥, 천정, 치다, 칼치, ㅊ-ㅌ(종합)
- ㅌ - ㅋ (입천장기피) : 모퉁이, ㅌ-ㅋ(종합)

입천장소리되기(종합지도)

입천장소리되기현상을 통해 본 방언지역

(3)

된소리- 거센소리 : 가까이, 골짜기, 불따귀, 된소리-거센소리(종합)

된소리 - 순한소리 : 까마귀, 까치, 눈까풀, 된소리-순한소리(종합)

순한소리 -된소리 : 고수머리, 박쥐, 사위, 자갈, 순한소리-된소리(종합)

순한소리-거센소리 대응(종합)

된소리-거센소리 - 순한소리 대응을 통해 본 방언지역

3. 기타 지도

뒤불이빠지기 : 고양이, 궁둥이, 모퉁이, 방망이, 정강이, 지팽이, 뒤불이빠지기(종합)

모음줄이기 : 고양이, 송아지, 이야기, 모음줄이기(종합)

자음끼우기 : 고수머리, 기르다, 소나무, 자음끼우기(종합)

뒤불이빠지기, 자음끼우기, 모음줄이기를 통해 본 방언지역

빠지기, 끼우기, 줄이기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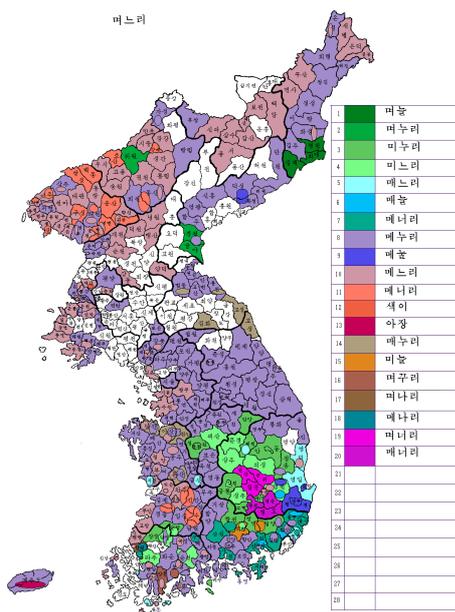
4. 종합지도

종합지도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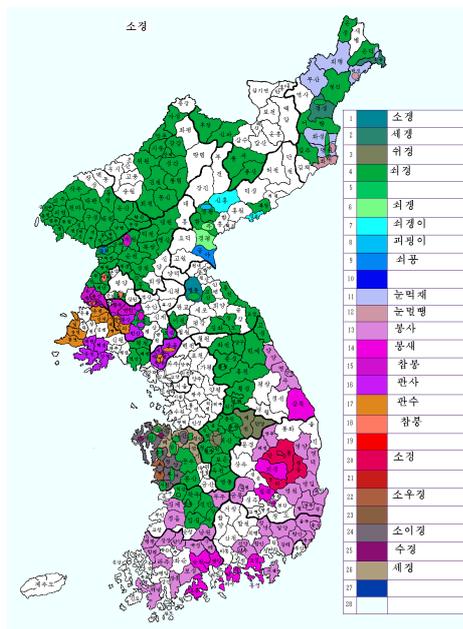
방언지역 1- 3

소리대응 1- 8

이 방언지도 중 몇 가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머느리>



<소경>

들로 알고 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말뭉치의 내용과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종류	내용	어절수	총어절수
신문	로동신문	14,890,469	15,379,664
	평양신문	489,195	
사전	력사사전	1,341,113	19,132,910
	토양사전	205,796	
	조선대백과사전	14,064,211	
	조선의 력사인물	302,006	
	농업백과사전	753,780	
	사회과학자료기지 색인사전	177,027	
	조선말사전	1,886,008	
	사전(미상)(일부)	402,969	
잡지	청년문학	547,989	6,825,608
	조선문학	637,992	
	금속	155,357	
	조선건축	40,551	
	과학의 세계	411,967	
	아동문학	395,721	
	천리마	1,229,839	
	기계제작	349,030	
	기초의학	168,528	
	민족문화유산	208,996	
	력사과학	272,554	
	철학연구	145,691	
	정치·법률연구	226,284	
	조선어문	133,945	
	문화어학습	282,358	
	조선녀성	679,808	
	조선예술	560,071	
	예술교육	117,369	
	조선예술	261,558	
전집	김일성저작집	3,337,326	3,337,326
저서	조선말사전편찬론	70,741	352,212
	언어생활론	55,654	
	조선어문장론(김백련)	47,322	
	조선어문장성분론(리기만)	49,794	
	조선어 문체론(리정용)	42,771	
	조선어의 의미구조론(문영호)	42,156	
	조선 문화어 건설리론(리호경)	43,714	
소설	개선(최학수)	117,144	3,340,841
	대지의 전설(김삼복)	87,735	
	번영의 길	105,670	
	붉은 산줄기	89,119	
	삼천리강산	110,331	
	불멸의 향도	87,654	
	천지	105,576	
	푸른 산악(안동훈)	116,335	
	근거리의 봄	111,454	
	대지는 푸르다	114,989	
	압록강	124,018	
	잊지 못할 겨울	91,418	
	력사에 묻다(2부)	105,669	
	력사에 묻다(3부)	767,866	
	첫기슭에서(1부)	99,309	
	첫기슭에서(2부)	89,389	
	지리산의 갈범 1	295,200	
	지리산의 갈범 2	272,353	
	전환(권정용)	449,592	
시가	혁명시가집	15,367	15,367
시나리오	민족과 운명	63,547	63,547
자료집	다듬은말	74,525	245,582

	조선어 기초 어휘 자료집	87,381	
	방언 대상 어휘(문화어)	81,651	
	방언 구술 자료	2,025	
방언구술자료			12,720
총계			48,705,777

입력되어 있는 자료 중 약 4,870만 어절이 한국에 전달된 셈이니,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료 이외에 한국에서 입력된 자료를 합치면 아마 1억 어절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입력한 자료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입력한 자료만 합쳐도 북한어 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북한어 연구가 단순히 북한의 사전을 보고 피상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말뭉치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 가장 궁금하지만, 개인이 말뭉치 구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회과학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말뭉치의 구축량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신 그 말뭉치의 질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입력하고 철저히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뭉치 속의 헤더에는 입력자 이름이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학자들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뭉치 구축에 대한 관심은 남한에서와 같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구축할 말뭉치의 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는 조선어 정보화에서 북한은 통계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말뭉치에 대한 관심은 이에 비해 낮음을 간파할 수 있다. 각종의 프로그램이 말뭉치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통계 처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조선어 연구를 위해 조선어 말뭉치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뭉치 구축에 그리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구축해 놓은 말뭉치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원시 말뭉치

북한에서 입력한 말뭉치의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Header>
<PublStat>
<title>개선</title>
<author>최학수</author>
<publisher>문학예술출판사</publisher>
</PublStat>
</Header>
<text><body>
<div><head>제 1 장</head><body>
<div><head>1</head><body>
<p>왜인들이 《소화 20년》이라고 부르던 《을유년》 늦은 여름날 정오 가까운 무렵.</p>
<p>강선땅을 거쳐 평양쪽으로 뻗은 넓지 않은 신작로를 따라 땀과 먼지에 찌든 흰 베적삼에 무릎까지 오는 베고의를 입은 나이 지숙한 40대의 장년이 아카시아가로수 그늘을 밟으며 바쁜 걸음을 옮겨 놓고 있었다.</p>
<p>시꺼멓게 탄 거울진 발에 신겨져 있는 짙은 앞코숭이의 신총이 몇날 꿇

```

어 졌는데 그 짬으로 빠죽 내밀린 엄지발가락에 피가 내뻘 형겁오리가 감겨 저 있었다. 한쪽 어깨에 걸친 새끼그물중태안에는 말린 미역타래와 조기, 조개따위의 어물들이 들어 있다.</p>
 <p>채양가생이가 너슬너슬한 농립모에 붙어 있는 마른 물고기비늘들이 별을 받을적마다 반짝거린다.</p>
 <이하 생략>

역시 헤더와 본문으로 되어 있고 각종의 마크업이 TEI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 입력방식의 표준화는 2002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중국 베이징 22세기반점에서 있었던 ‘정보화 시대에 따르는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과 언어 정보 산업 표준에 관한 모임’에서 남북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실천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주석 말뭉치

북한의 주석 말뭉치는 형태소 분석 말뭉치와 구문 분석 말뭉치의 두 가지가 있다. 남한에서 구축하고 있는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형태소 분석 말뭉치

형태소 분석 말뭉치의 일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로동신문’의 일부 예를 보이도록 한다.

위대한	[형(위대하다2)규(ㄴ)]	1
령도자	[명(령도자)]	2
김정일동지께서	[고(김정일)명(동지1)격(께서)]	3
사회와	[명(사회1)격(와)]	4
집단을	[명(집단)격(을)]	5
위하여	[동(위하다1)이(여)]	6
좋은	[형(좋다)규(ㄴ)]	7
일을	[명(일1)격(을)]	8
한	[동(하다)규(ㄴ)]	9
일군들과	[명(일군1)복(들)격(과)]	10
근로자들에게	[명(근로자)복(들)격(에게)]	11
감사를	[명(감사2)격(를)]	12
보내시었다	[동(보내다)준(시)시(였)맺(다)]	13

이 형태소 분석 말뭉치는 남한의 형태소 분석기가 처리한 자료와 차이가 있다. 하나는 태그가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그 태그가 형태소의 앞에 온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표는 북한 학자들이 중국 연변대학교에 와서 중국 조선어 정보화를 도우면서 개발해 준 ‘조선어 형태 단어 해석기’에 사용된 tag set를 보이는 표이다. 이 표를 통하여 북한의 조선어 tag set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어 POS태그모임			
체언	명사	일반	N
		고유	Np
	수사		U
	대명사		D
용언	불완		n
	동사		V
	형용사		X
	보조동사		Vb
	보조형용사		Xb
수식언	관형		K
	부사		F
독립언	감동사		G

토	체언토	격토	k
		도움토	z
		복수토	u
	용언토	종결토	w
		접속토	l
		규정토	q
		꾸밈토	g
		시칭토	t
		존칭토	j
		상토	x
	전성토	체언전성	bn
용언전성		bv	
접사	접두	Q	
	접미	H	
성어		C	
기호		S	
분석불능		BN	

(나) 구문 분석 말뭉치

북한의 구문 분석 말뭉치를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VP_LNK(NP_OBJ(BP_ATT(몸소/D)
    NP_OBJ(시동/N+ 단추/N+ 를/k))
    VP^LNK(VP_LNK(누르/V+ 어/e)
    VP_LNK(주/V+ 시/j+ 며/e)))

3,SS(NP_ATT(NP_MOD(NP_MOD(주체67/U+ [/S+ 1978/U+ ]/S+ 년/n)
    NP(4/U+ 월/n))
    NP(KP_MOD(어느/K)
    NP(날/N)))
    NP_SBJ(VP_MOD(경애하/V+ 는/cs)
    NP_SBJ(장군님/N+ 께서/k+ 는/i))
    NP_OBJ(NP_MOD(VP_MOD(NP_ATT(NP_MOD(KP_MOD(어느/K)
    NP_MOD(한/U)
    NP_ATT(신문사/N+ 예/k))
    BP_ATT(새로/D)
    VP_MOD(꾸리/V+ ㄴ/cp))
    NP_MOD(인쇄/N+ 공장/N+ 의/k))
    NP_OBJ(륜전/N+ 직장/N+ 을/k))
    VP_PRD(둘/V+ 어/e
    보/V+ 시/j+ 었/q+ 다/m+ ./S))
<이하 생략>

```

이 구문분석 말뭉치는 알파벳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형태소 분석 말뭉치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구문분석 말뭉치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7. 북한어 연구방법의 개선

북한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말뭉치 기반의 북한어 연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구축된 북한의 말뭉치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말뭉치를 소장하고 있는 곳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이나 거래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회는 크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정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자료들은 소비하면 없어지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되고 재창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와 활용을 방해하는 것은 재생산을 막는 일이다.

위의 두 곳은 아직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 이유가 국가보안법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그것과 상관없는 자료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연관되어 그렇다고도 하는데, 저작권과 연관 없는 자료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어 말뭉치는 수집되어도 일정한 형태로 통일시키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어 말뭉치는 가능한 한 균형잡힌 말뭉치이어야 한다. 예컨대 ‘로동신문’만을 대상으로 북한어를 연구한다면 북한어의 실상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동신문’의 하루분의 말뭉치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어절은 ‘위대한’인데, 이 결과를 북한어의 실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 자료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북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놓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학교 도서관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열람이 자유로운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의 연변대학교 도서관이나 연길시의 인민출판사 서고에 가면 엄청난 양의 북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것이다.

8. 남북한 언어의 통합적인 연구

앞에서는 주로 북한어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한국어 연구를 위해서는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그 지역의 언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곳은 남한과 북한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지역의 한국어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민이 많은 미주 지역에서는 그곳 교민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2세부터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본 지역은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리면서 민단은 남한어를, 조총련은 북한어를 따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언어 사용이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조선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이 쌓여 있어서, 지동은, 김광수, 윤희남, 김결이 공동으로 편찬한 『중국에서의 조선어 연구 논저 목록』(연변대학출판사, 2012, 554쪽)이 등장할 정도로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중국 조선어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유학을 온 우리 동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학위논문이어서 그 연구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 남한에서 중국 조선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 조선어 말뭉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연변대학교에서는 2008년부터 ‘중국 조선어 정보화’ 작업을 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구축된 원시말뭉치만도 약 6억 3천만자 가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어절의 평균 크기가 4-5 자라면 약 1억 5천만 어절이 입력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에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중국 조선어 말뭉치도 상당수 있다.

위의 여러 실정으로 보아 이제 한국어 연구는 남한어, 북한어, 중국 조선어(더 나아가서는 중앙아시아의 ‘고려말’까지)를 통합 검색하여 연구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말뭉치들을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여러 조건이 충족된다면 발표자는 이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 소장처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어서 선행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연구할 때에는 남한어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항상 북한어나 중국의 조선어를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국어 연구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다. 그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방언학의 차원에서 설명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방언의 변이형으로서 단지 언어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면 국어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국어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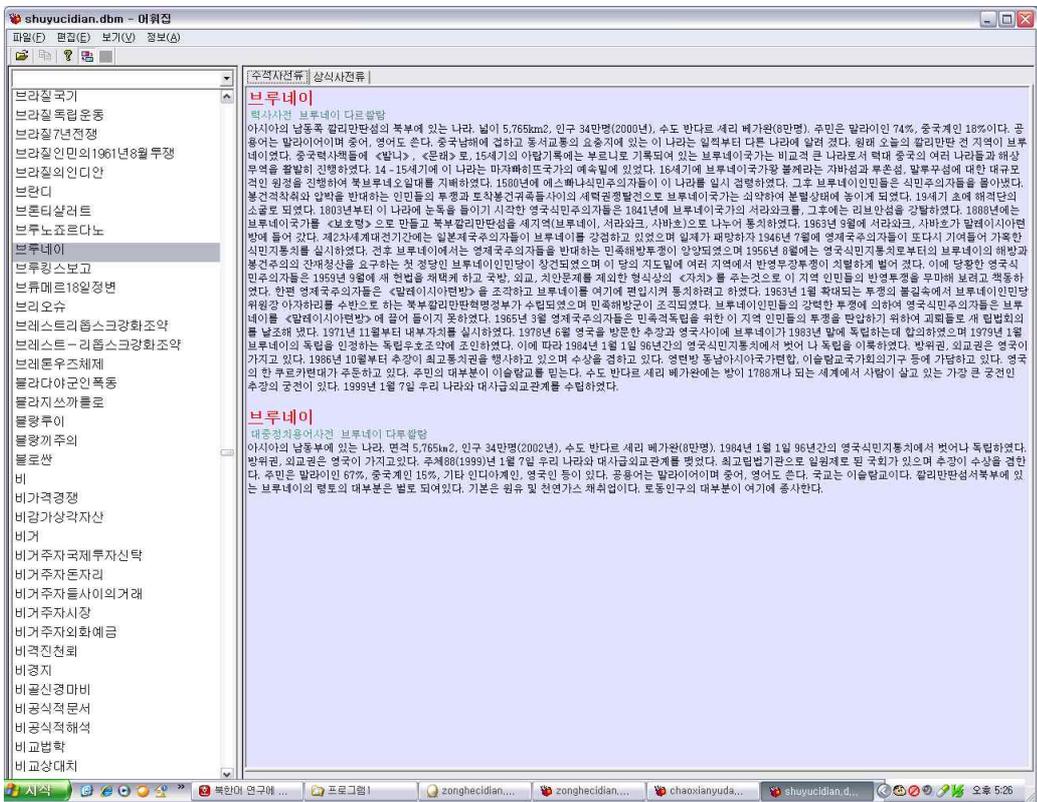
지금까지 국어사전만 참고하여서 북한어를 연구하였다고 해도 남한의 사전이나 중국의 사전을 동시에 참고만 하였어도 오늘날과 같은 북한어 연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양한 사전을 참고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나온 국어사전은 여럿 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박진양 군이 만든 ‘통합사전검색기’는 국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

전,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17세기 국어사전, 김민수 교수 외의 어원사전,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어서 이것을 검색하면 대부분 모든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제항과 그 뜻풀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사전이 어느 사전을 베꼈는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사전이 입력되어 있어서 이들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중국의 조선어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북한 학자들과 함께 만든 사전 검색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그리고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초판), 조선말대사전(증보판)을 통합 검색함은 물론 연변 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3권)까지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여러 사전들까지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00가지 남새재배, 가정과학상식, 경제법사전, 농업백과사전, 대중정치용어사전, 역사사전, 민법사전, 민족의 자랑 조선민속음식, 법률사전, 상용약물의 작용과 응용(증보판), 신약과 고려약의 임상활동, 인명사전, 일군들을 위한 경제용어해설, 조건의 고유특산식물, 조선력사상식(증보판), 조선민속사전, 혁명사적편람, 현대국제금융사전, 회계사전 등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브루나이’를 검색한 화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을 통해 남북한어 및 중국 조선어들의 어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 마무리

발표자에게 부여된 주제는 ‘남북한 통합적인 언어 연구’(그러나 ‘남북한 언어의 통합적인 연구’로 제목을 바꾸었다)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북한어의 개념을 검토해 보았고, 남북한 언어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휘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어를 연구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국어 연구의 실상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로 북한에서는 국어 연구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내었다.

- ① 북한어와 남한어는 기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과 함께 한국어일 뿐이다.

② 인위적인 여건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화된 언어는 방언형이 아니다. 남한어와 북한어란 개념은 단지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을 지칭하는 것이지, 언어학적으로 규정된 명칭이 아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지만, 남한어와 북한어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해서 국어의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양성을 차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은 서울말과 중부 북부 말이 다르니 통일시키자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이니,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이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③ 지금까지 북한어 연구는 북한의 일부 자료, 그것도 살아 있는 현실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북한에서 간행된 문헌(특히 국어사전이나 문법서)만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는 매우 피상적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북한어 연구를 위해서는 ‘말뭉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어만 연구하지 말고 중국의 조선어 등도 고려하면서 연구하여야 국어 연구의 지평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국어의 단면이 아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할 때, 국어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남북한어 및 중국 조선어(중앙아시아의 고려말)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말뭉치들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 말뭉치는 상당수 구축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에 국어의 통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그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또는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말뭉치 공개의 적극적인 의지이다.

[제 2부 분과 발표]

【 1분과 발표 】

접미사 ‘-바르-’, ‘-바리’의 설정에 대하여

김양진(경희대)

<차례>

- 1. 문제 제기
- 2. 접미사 ‘-바르-/-빠르-’와 ‘-바리/-빠리’의 설정
- 3. ‘-바리’와 ‘はり(張り)’
-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문제 제기

조항범(2009:99)에서는 ‘비바리’의 어원을 설명하는 과정에 접미사 ‘-바리’를 설정하여 “주로 명사에 결합하여 ‘나쁜 성격을 갖거나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을 지시한다”고 보고 이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로 ‘감바리, 군바리, 꿈바리, 돌바리(무당), 둔자바리, 뒤듬바리, 뒤툼바리, 발바리, 샘바리, 악바리, 트레바리’ 등을 들었다. 한길(2006:163)에서도 명사 파생 접미사의 하나로 ‘-바리’를 설정하고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뜻하는 성질이 두드러지게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 보고 ‘찌바리, 악바리, 하바리’의 예를 들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도 이러한 판단을 수용하여 접미사 ‘-바리’를 설정하고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사람’의 뜻과 얽잡는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로 풀이하고 그 사례로 ‘군바리, 데바리, 벳바리¹⁾’ 등을 들었다.²⁾ 용례상의 차이는 있으나 뜻풀이에서는 ‘사람’이나 ‘사람의 성질’ 또는 이를 낮잡아 이르는 뜻을 가리키는 뜻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통적 의미가 포착된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나 ‘사람의 성질’을 낮잡아 이르는 뜻”을 지니는 접미사 ‘-바리’에 대한 종합적 고찰로서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접미사 ‘-바리’의 결합형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출발점으로 ‘-바리’에 앞서서 접미사화한 형용사파생접미사 ‘-바르-’가 있었음을 밝히고 그 기원과 용법을 검토한 뒤, ‘-바르-’의 용법이 ‘-바리’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 한국어에서의 ‘-바르-’, ‘-바리’의 사례 중에는 일본어의 ‘張り’에 기원을 둔 ‘-はり(張り)’로부터 기원한 단어들도 있음을 보이고 두 언어 간의 유형론적 혹은 계통론적 상관성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접미사 ‘-바르-/-빠르-’와 ‘-바리/-빠리’의 설정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이나 ‘사람의 성질’을 낮잡아 이르는 뜻”을 지니는 접미사 ‘-바리’가 결합한 파생어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접미사 ‘-바리’의 예

- ㄱ. 감바리: 잇속을 노리고 약삭빠르게 달라붙는 사람.

1) 벳바리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2) 김양진·이현희(2009)에서는 이 접미사에 의한 파생명사의 예로 그밖에 ‘감바리, 꿈바리, 데툼바리, 뒤듬바리, 뒤툼바리, 샘바리, 악바리, 애바리, 트레바리, 하바리(下--)...’ 등이 더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대략 조항범(2009)와 한길(2006)의 목록을 아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제시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목록을 고려하면 ‘어바리, 질똥바리’나 ‘찌바리, 더뎨바리, 힘바리’ 등의 목록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 ㄴ. 군바리: ‘군인’을 낚잡아 이르는 말.
- ㄷ. 꿈바리: 마음이 좁고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ㄹ. 꾀바리: →꾀보.
- ㅁ. 데통바리: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미련한 사람.
- ㅂ-1. 뒤듬바리: 어리석고 둔하며 거친 사람.
- ㅂ-2. 뒤툼바리: 어리석고 미련하며 하는 일이 찬찬하지 못한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ㅅ. 샘바리: 샘이 많아서 안달하는 사람.
- ㅇ. 악바리: ①성질이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 ②지나치게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
- ㅈ. 애바리: 애바른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ㅊ. 어바리: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 ㅋ. 질똥바리: 행동이 느리고 소견이 꼭 막힌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ㅌ.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
- ㅍ. 하바리[下--]: 품위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ㅎ. 힘바리[북]: 힘이 세서 무엇이든 힘으로만 하려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³⁾

이 접미사 ‘-바리’의 의미와 기원을 이해하는 데 다음 단어들이 참조가 된다.

(2) ‘-바르-’가 결합한 형용사1

- ㄱ. 꿈바르다[형]: 마음이 좁고 지나치게 인색하다.
- ㄴ. 꾀바르다[형]: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경우를 잘 피하거나 약게 처리하는 꾀가 많다.
- ㄷ. 샘바르다[형]: 샘이 심하다.
- ㄹ. 애바르다[형]: 이익을 좇아 발발게 덤비다

(2)의 예들은 (1)의 ‘꿈바리, 꾀바리, 샘바리, 애바리’에 직접 연결되는 단어들로 ‘바르-’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나쁜 성질을) 매우 많이 지니고 있다’는 뜻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이 어떤 성질을 풍부하게 지님’의 뜻을 더하는 것은 전형적인 형용사 파생접미사의 의미로 ‘-답-, -스럽-, -롭-, -하-’의 긍정적인 경우나 ‘-긋-, -맞-, -적-/-쩍-’ 등이 지니는 부정적인 경우를 고려할 때 이때의 ‘바르다’를 형용사 파생 접미사 ‘-바르-’로 설정해 볼 만한 것이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 ‘-바르-’를 설정할 경우 이러한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로 다음의 예들을 더 들 수 있다.

(3) ‘-바르-’가 결합한 형용사2

- ㄱ. 돈바르다[형]: 성미가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롭다.
- ㄴ. 돔바르다[형]: ①매우 인색하다. ②조금도 인정이 없다.
- ㄷ. 맛바르다[형]: 맛있게 먹던 음식이 이내 없어져 양에 차지 않는 감이 있다.
- ㄹ. 별바르다[형]: 햇별이 바로 비치어 밝고 따듯하다.
- ㅁ. 양지바르다[형]: 땅이 별을 잘 받게 되어 있다.
- ㅂ. 입바르다[형]: 바른말을 하는 데 거침이 없다.

(2)의 예만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의미에 한정되는 듯 보이는 ‘-바르-’의 예는 (3)의 확장된 예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속성을 풍부히 지님’의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단어들이 ‘-바르-’에서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바리’로 재형태소화⁴⁾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들에 한정되면서 ‘-바리’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 ‘-바르-’의 예는 다음의 ‘-빠르-’ 결합형으로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3) 이밖에 ‘더뎠바리’(‘말더듬이’의 경상 방언) 등의 방언에서의 예를 더 추가해 볼 수 있다.
 4) 재형태소화(remorphemation)는 재어회화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형태소로 재구성되는 경우를 위해 명명한 학술용어이다.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스러이/스레’라든지 동사 어간 ‘붙-’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미사 ‘-붙이’와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4) ‘-빠르-’가 결합한 형용사

- ㄱ. 반지빠르다[형]: ①말이나 행동 따위가 어수룩한 맛이 없이 알미울 정도로 민첩하고 약삭빠르다.
- ㄴ. 약빠르다[형]: 약아서 눈치나 행동 따위가 재빠르다.
- ㄷ. 약삭빠르다[형]: 눈치가 빠르거나, 자기 잇속에 맞게 행동하는 데 재빠르다.
- ㄹ. 어지빠르다[형]: 정도가 넘고 처져서 어느 한쪽에도 맞지 아니하다.
- ㅁ. 역빠르다[형]: 역어서 눈치나 행동 따위가 재빠르다.
- ㅂ. 입빠르다[형]: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참을성 없이 지껄이는 버릇이 있다.

대개의 국어사전에서 ‘빠르다[速]’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는 (4)의 예들은 (3)의 ‘입바르다’와 (4)의 ‘입빠르다’의 예를 비교해 볼 때, 선행음절말 폐쇄음 환경에서의 경음화가 표기에 잘못 반영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약빠르다’와 ‘약빠리(약빠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바르-~-빠르-’와 ‘-바리-~-빠리’의 문제는 ‘-적-~-쩍-’이나 ‘-배기-~-빼기’와 같은 표기상의 규범에 따른 문제일 뿐 이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형태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이 ‘-바르-’를 ‘-빠르-’와 연결시키는 논리를 따른다면 (4)의 뜻풀이에서 제시된 ‘빠르다’라는 의미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바르-’와 관련시켜 볼 때 ‘-빠르-’의 의미는 ‘재빠르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앞말의 속성이 풍부히 있다”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약빠르다’, ‘역빠르다’의 ‘약-’, ‘역-’이 명사 혹은 명사 상당어가 아니라 형용사 어간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단어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5) ‘-바르-’가 결합한 형용사3

- ㄱ-1. 재바르다[형]: 동작 따위가 재고 빠르다. ‘재빠르다’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 ㄱ-2. 재빠르다[형]: 동작 따위가 재고 빠르다.
- ㄴ. 적바르다[형]: 어떤 한도에 겨우 자라거나 이르러 여유가 없다.

‘재다’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동작이 빠르다’ 혹은 ‘동작이 날래다’인 것을 볼 때, (5 ㄱ-1), (5 ㄱ-2)의 혼동이나 (5 ㄴ)과의 관련성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바르-/-빠르-’의 의미를 [速]보다는 [풍부히 있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바르-/-빠르-’가 명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형용사 어간에도 결합하는 양상은 동사 어간과 명사 어간에 모두 결합할 수 있는 ‘-보’와 같은 접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이 “어떤 속성이 풍부히 있음”을 나타내는 접미사 ‘-바르-’는 용언 어간 ‘바르-’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국어의 용언 ‘바르-’는 크게 4개의 동음이의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칠하다[漆]’ 혹은 ‘풀칠하다[糊]’라는 의미의 동사와 ‘골라내다[選]’ 혹은 ‘제거하다[去]’라는 의미의 동사, 그리고 ‘곧다[直, 正]’와 ‘햇볕이 들다[陽]’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⁷⁾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에는 ‘빠르다[速]’의 의미를 추정할 만한 어간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칠하다[漆]’ 혹은 ‘풀칠하다[糊]’라는 의미의 동사에서는 ‘어떠한 속성이 풍부히 있다’는 뜻을 추출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풀칠이나 흙칠 따위가 잔뜩 되어 있는 경우에 ‘덕지덕지 바르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떡칠’ 등에서 그 일단이 확인된다.

‘바르-’의 이러한 용법들은 중세국어 자료들에서부터 확인된다.

5) (4)의 다른 예들을 고려할 때, ‘반지빠르다’와 ‘어지빠르다’의 경우 *반짓바르다나 *어짓바르다와 같은 형태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짓바르다’가 ‘어찌빠르다’의 북한어 혹은 비표준어 형태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반지빠르다’의 뜻풀이를 고려할 때 이 단어의 기원을 ‘반들, 반짝’의 ‘반-’에 ‘-짓’과 같은 형태가 결합한 명사형 혹은 부사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재바르다/재빠르다(날래다), 약바르다/약빠르다(약다), 적바르다(적다)’ 등에서 ‘바르다’가 기본적으로 ‘어간+어간’의 합성어 구성에서 형용사를 형용사로 바꾸어주는 정도성 접미사로 바뀐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명사 뒤에서의 용법과 갖는 의미적 동형성을 고려한다면 ‘바르다’가 접사화한 이후에 형용사 어간에 결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7)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두 형용사가 다의어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세 국어에서 ‘直/正’의 의미를 지니는 ‘바르다’는 ‘바르-’로 나타내서 본고의 논의 대상인 ‘바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으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별[陽]’의 의미를 지니는 ‘바르-’의 중세 국어 어형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러한 ‘별[陽]’의 의미가 항상 ‘별, 陽地’ 등의 뒤에서만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때의 ‘바르-’ 역시 선행 명사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을 뜻하는 ‘바르-’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와 달리 ‘별[陽]’의 의미를 지니는 ‘바르-’의 용법은 ‘直/正’의 의미를 지니는 ‘바르-’와 구별되어 “선행명사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바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6) ㄱ. 投灰는 또 塗灰라 니르느니 塗는 부를씨라 <1461능엄언02,063a>
 ㄴ. 赤은 畜生애 가질비시니 피 부른 길히라 혼 전치라 <1465원각경,05,상2,2:046a>
 ㄷ. 혼 번 부르다 (一搽).<1669, 어록개 011a>
- (7) ㄱ. 오늘 구들 드리고 부랍 부르다<1636, 병자기, 191>
 ㄴ. 糊牆 부랍 부르다.<1690, 역어유해 상 019>
 ㄷ. 糊塗 부랍 부르다.<1690, 역어유해 상 019>
 ㄹ. 糊窓戶窓 부르다.<1690, 역어유해 상 019>
- (8) 去核子 毗 부르다<1748, 동문유해 하, 006>

(6-8)의 ‘부르다’는 동사의 용법으로 (6)과 (7)은 다의어적 용법으로 (8)은 동음이의어적 용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부르다’가 형용사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9) ㄱ. 부르며 賤흔 苦 보물 免하나니(免見貧賤苦)<금삼 3:50>
 ㄴ. 입괘 부르며(口繫)<구급간이방 6:81>
 ㄷ. 어귀 불라(牙關繫)<구급간이방 6:81>
- (10) 불라 움즈기디 朶고(拘急)<구급방언해 上:56>

(9)와 (10)의 ‘부르-’는 ‘바짝[密着]’, ‘발다[促急]’와 어원을 함께 하는 단어로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좁거나 물질적으로 빈약하고 긴축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법은 (9)에서 보인 것처럼 <구급간이방>과 같은 의약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9') ㄱ. 脣口繫(입시울 부른 병)口繫脣小不能開閣不能飲食 馬齒莧(쇠비름)煮汁洗繫脣
 ㄱ'. 이비 불라 입시우리 저거 버리디 朶 하야 밥 朶 먹거든 쇠비름 글힌 물로 입시우를 시스라 <1489구급간,3,5a>
 ㄴ. 脣繫疼及瘡 訶子肉 五倍子(우비즈)各等分爲末用少許乾粘脣上立效
 ㄴ'. 입시우리 불라 알쁘고 혈어든 아쥬 살과 우비즈와를 굳게 눈화 곱을 밍?라 저고매 朶닐 입시우레 부르면 즉재 도허리라<1489구급간,3,5b>
 ㄷ. 脣繫麵腫 控脂(소진)鎔入小油(기름)令軟帖瘡上
 ㄷ'. 입시울 부르고 朶치 朶거든 소진을 노고디 기름져 기드려 보드라이 하야 현 디 브티라<1489구급간,3,6a>
 ㄹ. 繫脣不能開閣灸虎口(엄지 손가락 어귀)男左女右又灸承漿(입시울 부른 아래 오목흔 디)三壯
 ㄹ'. 입시우리 불라 버리디 朶하거든 엄지 朶가락 어귀를 쯤디 남진이어든 왼손 거지비어든을 혼 손을 쓰라 또 입시울 부른 아래 오목흔 디 세 朶 글쓰라<1489구급간,3,6b>

(9')에서 보인 것처럼 한문 원문에 해당하는 (9'ㄱ~ㄹ)과 언해문 (9' ㄱ'~ㄹ')의 예들에서 ‘부르-’가 ‘繫’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용법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출현은 ‘부르-’의 접미사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단서가 된다.

- (11) ㄱ. 또 文殊師利여 朶잇 有情이 貪하고 새움 불라 제 모물 기리고 朶물 허러 三惡趣에 떠러디여 無量千歲를 受苦하다가 朶에서 주거 人間애 나고도 쇠어나 朶리어나 약대어나 라귀어나 朶외야 長常채 맛고 주으롭과 목물로모로 受苦하며 또 長常 朶거븐 거슬 지여 길흘 조차 朶니다가 시혹 사르미 朶외오도 朶가븐 朶미 쥬이 朶외야 朶미 부른 일 朶녀 상네 自得디 朶허리니<1447 석보상, 09:015b-016a>
 ㄴ. 쇠모롭 불휘 : 朶득 부랍 마자 추미 올라 朶운이 막달이며 어귀 朶부르고 朶눌 티쁘고 현 디로 부랍 드러 거두허며 뷔트리허미 이시락 업스락 하거든 朶두루미나시와 구리댓 불휘와 두야머주저깃 불휘와 쇠모롭 불휘를 朶운 朶레 시서 朶밋즌 것 업게 하요니와 파두를 거플 앓고 기름으란 앓디 아니하니와를 굳게 눈화 朶느리 朶라 반 돈곰 머고디 朶양 朶디허 朶쥬 朶흔 머곰만 하야 프러 머그라 어귀 朶불라 약을 브서도 朶리오디 朶하느니도 이 약이 朶득 수이 고티느니라<1489 구급간, 1,7b-8a>

ㄷ. 風自諸瘡口入項強牙關緊慾死 防風去搜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 湯各等分)爲末每服三錢童子小便(손아히 오좁)一大盞煎至七分熱服(브르미 현 굽그로 드러 모기 세오 어귀 불라 주글 듯허거든 방뽕 불휘 거린 디 업게 허니와 두야머주저깃 불휘 므레 글히니와를 곤게 논화 곶을 밍?라 세 돈곰 허야 손아히 오좁 현 되예 달혀 반 남죽허거든 더우닐 머그라)<1489구급간,6,81b>

ㄹ. 두야머주저깃 불휘 : 브롬 마자 윈 녁 올흔 녁을 다 몬 쓰며 입과 눈과 기울며 추미 올라 다와 터 말스미 곤브르며 모미 다 알프거든 대도 현 브롬앗 병을 다 고티느니라 부즈 현 량과 두야머주저깃 불휘 두 돈 반을 다 죠히예 씨물 저저 구으니와 전갈 두 돈 반 붓그니와를 사허라 현 목애 세 돈곰 허야 물 두 되예 싱양 열 다섯 편을 현디 녀허 글히니 반 남죽거든 즈식앗고 드스닐 머그라<1489 구급간, 1:6b-7a>

ㅁ. 옷 스이엿 반대좁 : 과?리 입 기울오 말스미 곤브르거든 옷 스이에 잇는 반대좁을 귀 아래 오목헌 디 뿌초디 이비 윈 녁으로 기울어든 올흔 녁 오목헌 디 씻고 올흔 녁으로 기울어든 윈 녁 오목헌 디 뿌초디 이비 평흔 듯거든 즉재 말라 입과 눈과 기울어든 비마즈씨를 거플 앓고 브스 ?라 숄바당애 브르고 위즈를 비마즈 우희 바티고 더운 므를 그 위즈애 브서 듯다가 입곳 평허거든 썰리 위즈를 아스라 올흔 녁으로 기울어든 윈 녁 숄바당애 브르고 윈 녁으로 기울어든 올흔 녁 숄바당애 불라 입과 눈과 곤브르거든 썰리 약을 시서 브리라 쯤 병헌 녀기 브터도 도허니라 <1489 구급간, 1:20a-20b>

ㅂ. 밤 아니 드외야서 楚爨 빛돏굴 디여 湘水* 곳 스이에 브르물 避호라 물 잇는 논 가로 맨 몬져 프를 즈막거늘 보밧 브른 쯤 뒹힐 브티놏다 일 비 미요매 구루미 어드우니 거스리 녀매 몃겨리 곤브르도다 <1613두시중2,023a>

(11 가)에 보이는 ‘새움 불라’의 예는 현대 국어의 ‘샘바르다’의 직접적인 선대형으로 그 의미도 현대 국어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1 나~다)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곤브르-’, ‘곳브르-~곤브르-’의 예와 비교해 본다면 ‘새움 불라’의 ‘새움 브르-’ 역시 그 의미는 ‘繁’ 혹은 ‘貧’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繁’ 혹은 ‘貧’의 의미를 지니던 ‘브르-’가 어느 시점에서 ‘선행어의 속성을 풍부히 지니고 있음’의 뜻으로 전이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繁’ 혹은 ‘貧’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형용사 어간 ‘브르-’가 동사 어간 ‘브르-[漆/糊/塗]’에 견인되어서 부정적 어감을 지닌 채 “선행어의 속성을 풍부히 지님”의 의미를 띠게 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부정적 어감은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바리’로 재형태소화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바리’의 경우는 “선행 명사의 (나쁜) 속성이 풍부히 있음”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한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접미사 ‘-바르-’로부터 ‘-바리’를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양진·정연주(2008)에서 다룬 바 있다. 김양진·정연주(2008)에서는 ‘꼼바리’, ‘샘바리’와 같은 단어의 형태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 이제까지 뚜렷한 견해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12)과 같은 분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12) 가. 꼼바르-[성격이 매우 인색하고 줌스럽다] + -이 → 꼼바리[성격이 매우 인색하고 줌스러운 사람]
 나. 샘바르-[샘이 매우 많다] + -이 → 샘바리[샘이 매우 많은 사람]

김양진·정연주(2008)에서는 이때의 ‘바르-’가 기원적으로 르불규칙동사 어기로, “물이나 풀, 약, 화장품 따위를 물체의 표면에 문질러 묻히다”의 의미를 갖는 ‘바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피바르-’는 “피가 덕지덕지 발린 것과 같이 피가 많다”의 의미로부터, ‘샘바르-’는 “샘이 덕지덕지 발린 것과 같이 샘이 많다”의 의미로부터 의미 표류를 겪은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여기에 유정명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각각 ‘피바리’와 ‘샘바리’ 등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르불규칙 동사 어기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보충하였다.

- (13) 가. 해 + 거르-[隔] + -이 → 해거리 / *해걸리
 나. 마무리- + -이 → 마무리 / *마물리
 다. 가[邊] + 두르- + -이 → 가두리 / *가둘리

일반적으로 르불규칙동사 어간은 ‘거르- + -어 → 걸리’의 활용형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굴절할 때에는 어간 말의 /ㅡ/가 탈락하고 거기에 /ㄹ/가 첨가된 형태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 형태 구성에 명사 파생의 접미사 ‘-이’가 결합할 때는 (13 ㄱ~ㄷ)의 예에서와 같이, /ㄹ/의 첨가 없이 /ㅡ/만 탈락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규칙성은 ‘아금바르다((사람이)일 따위를 해내는 데 있어 빈틈이 없고 다부지다.)-아금바리(일 따위를 해내는 데 있어 빈틈이 없고 다부진 사람)’, ‘테두르다-테두리’와 같은 단어들에서도 확인된다.⁸⁾

물론 르불규칙동사 어기가 ‘-이’와 결합하여 명사를 형성할 때, (13)과는 다른 형태론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막걸리’의 예가 그것이다. ‘막걸리’는 ‘막 + 거르-[醜] + -이’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막거리’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19세기 자료인 <閨閣叢書>, <國漢會語>에는 ‘막걸이’가, 20세기 자료인 <지형근>에 ‘막거리’가 나타나는 것을 참고하면, ‘막거르다’로부터 파생된 ‘막거리’와 ‘막걸리’가 어느 시기에 공존하며 경쟁하다가 둘 중 ‘막걸리’ 형태가 선택되어 현대 국어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⁹⁾

3. ‘-바리’와 ‘はり(張り)’

이상의 논의를 통해 (1)에서 살펴본 ‘감바리, 꺾바리, 꿈바리, 데통바리, 뒤듬바리, 뒤툼바리, 샘바리, 악바리, 애바리, 트레바리’ 등의 예를 “선행명사의 (좋지 않은) 속성을 풍부히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감바리’는 옷감, 장난감 등에서의 재료를 뜻하는 ‘감’의 뜻으로부터 “그러한 속성을 풍부히 지니는 사람”라는 의미로부터 “물질적인 잇속을 노리고 자꾸만 달라붙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조정될 필요가 있고 ‘꺾바리’는 ‘꺾’라는 속성이 풍부한 사람, ‘꿈바리’는 ‘꿈수’나 ‘꿈꿈성’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샘바리’는 ‘샘’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악바리’는 ‘악’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애바리’는 ‘(이익을 좇아) 애를 쓰는 일’이 지나치게 심한 사람, ‘트레바리’는 ‘남의 말에 대한 반대(틀기)’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각각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의 예 중의 일부 예들은 이러한 ‘-바리’의 속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군바리’, ‘하바리’의 예들이 그러하다.

(1') ㄴ'. 군바리: ‘군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ㅍ'. 하바리[下--]: 품위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 ㄴ')과 (1' ㅍ')에서 ‘군바리’나 ‘하바리’는 각각 ‘군인’과 ‘하인’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는 하나 그 속성이 풍부히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의 ‘-바리’가 2장에서 논의해 온 ‘-바리’와는 다른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만한 단어로 ‘시다바리’라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단어가 있다. ‘시다’로 널리 알려진 ‘補助’ 혹은 ‘補助員’에 붙은 ‘바리’는 일본어에서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서 “그러한 속성을 지닌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 ‘시다바리(下張り)’를 달리 읽은 말이 ‘하바리(下--)’라는 사실은 이들 단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타당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즉 ‘하바리(下--)’라는 말은 단순히 “품위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補助’ 혹은 ‘補助員’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아랫것’이라는 뜻으로 낮잡아 이르는 말”이었던 것으로 일본어의 ‘시다바리’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던 말이라는 것이다.¹⁰⁾ 실제로 이미 일본어 외래어로 자립은 ‘시다바리(下張り)’와 달리 ‘하바리(下--)’는 입말에서 ‘하빠리’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

8) ‘아금바르다’와 ‘아금바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의 여타의 사전들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단어이다.

9) ‘막걸이/막거리’와 ‘막걸리’ 중 ‘막걸리’가 현대 국어에 이르게 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다.(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가 이현희(2006)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현희(2006)에서는 ‘멀리’의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막걸리’의 불규칙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어찌 되었든 ‘막거리’의 존재는 오늘날 ‘막걸리’에서 규칙성을 상실하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13)과 같은 형태론적 양상을 규칙적으로 보인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례가 되지 못한다.

10) 일본어의 ‘시다바리(下張り)’는 ‘우에바리(上張り/うわばり)’와 대립을 이루는 말로 이때의 ‘張り’는 일본어에서 속성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특이한 것은 이때의 ‘張り’에 ‘바르다(도배)’의 뜻도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용법을 보이는 단어에 “じょうっぱり[情っ張り], 고집쟁이, 고집불통”, “すっぱり[榻張り], 성욕이 강한 여자”, .. 등의 예가 있다.

는데 이는 일본어의 ‘ぱり’에 대한 우리말의 음상과 상관이 있다. 실제로 일본어의 ぱりぱりは 우리말에서 ‘빠리빠리’로 실현된다.

그렇다면 ‘군바리’에서의 ‘-바리’는 ‘피바리, 악바리’에서의 ‘-바리’가 아니라 ‘시다바리, 우에바리’에서의 ‘-바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군바리’라는 단어는 근세 이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일제 시대를 거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확인되는 단어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어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바리, 시다바리’의 ‘바리’가 ‘도배’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말의 ‘-바리(<바르-이>)’가 형용사 ‘쁘르-[繫/急]’의 의미와 동사 ‘쁘르-[漆/糊/塗]’의 의미가 뒤섞이면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어에서의 선행 명사의 속성을 지니는 사람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塗褙’ 즉 ‘풀칠하다’와 관련된다는 것은 우연한 듯하지만 심상한 우연은 아니다. 이러한 우연이 인접 국가로 오랫동안 인적 자원과 문화적 넘나들이 많았던 두 언어간의 언어 접촉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통적 상관 관계가 깊은 두 언어의 동일 기원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언어 보편적인 유형론적 기제가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군바리, 하바리’는 근대 이후의 어휘 차용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일본어 사전인 <広辞苑>(第五版, 1998/2006)에서 ‘ぱり’가 결합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4) ㄱ. 意地張り(いじぱり): いじばること。強情。また、その性質の人。(고집을 부리는 일. 고집이 셈. 또는 그런 성질의 사람.)

ㄴ. 我張り(がぱり): 我意を張り通すこと。また、その性質の人。(아집을 부리는 일. 또는 그런 성질의 사람.)

ㄷ. 業突く張り(ごうつくぱり): 強情で人に従わないこと。ひどく欲張りで頑固なこと。また、そういう人。(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음. 욕심이 많고 완고함. 또는 그런 사람.)

ㄹ. 強張(こうぱり): ②庇護すること。また、その人。(비호함. 또는 그런 사람.)

ㄱ. 腎張り(じんぱり): 淫乱な人。じんすけ。(음란한 사람. 정욕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

ㄴ. 裾張り(すそぱり): 性欲の強いこと。また、その人。多く女性にいう。すそぱり。(성욕이 강함. 또는 그런 사람. 주로 여성에게 씀.)

ㄷ. 出しゃぱり(でしゃぱり): でしゃばること。また、その人。(주제넘게 참견함. 또는 그런 사람.)

ㄹ. 欲張り(よくぱり): 欲が深いこと。また、その人。(욕심이 많음. 또는 그런 사람.)

(14 ㄱ~ㄹ)에 보인 예들은 모두 선행어의 속성이 있는 혹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 의미도 부정적인 쪽에 경도되어 있어서 한국어에서의 ‘-바리’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手張り(てぱり)’이다.

(15) 手張り(てぱり): ①손으로 바르는 것. 혹은 자신의 손으로 바르는 것. ②증권 회사 직원 혹은 중개인이 자신의 추측으로 매매를 하는 것. ③승부가 끝난 후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빈손으로 도박을 하는 것.

우리말의 ‘흠손’이나 ‘흠손질’과 같은 단어가 ‘바르다’ 혹은 ‘(흠)칠하다’의 의미를 내재한 단어임을 고려한다면 ‘흠손/흠손질’과 ‘手張り(てぱり)’의 상관 관계도 적지 않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어 ‘張り’는 동사 ‘張る’로부터 온 말이다. 그런데 ‘張る’의 의미로부터 뜻밖의 사실이 관찰된다.

(16) 張る(하루)

1.(자동) ⑤ 긴장하다, 팽팽해지다, 썩기다.

2.(타동) ⑥(욕심 따위를) 부리다.

⑬(무엇을) 바르다.

일본어의 대표적인 다의어 동사 ‘張る(하루)’의 여러 뜻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자동사 용법의 ‘繫’과 타동

사 용법의 ‘漆’이 그것이다. 중세 한국어의 형용사 용법 ‘繁’과 동사 용법의 ‘漆’이 ‘부르-’라는 형태로 묶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 자동사 용법의 ‘繁’과 타동사 용법의 ‘漆’이 ‘張る’라는 형태로 묶이는 지점의 문제와 ‘부르~張る[하루]’의 발음상의 상관성¹¹⁾을 놓고 볼 때, 이 단어는 유형론적 관점보다는 계통론적 상관성이 더 높은 단어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 한 단어에 국한해서 다룰 수 없는 문제이므로 두 언어 간의 계통적 상관성을 드러내 주는 단어의 목록에 ‘-바리~張り’와 ‘바르~張る’를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4. 맺음말

<생략>

<참고1>

‘-바르-/-빠르-’계 단어들 :

걸바르다 [=걸+바르_다], 곧바르다 [+곧+바르_다], 귀바르다 [+귀+바르_다], 꼼바르다 [+꼼+바르_다], 꺾바르다 [+꺾+바르_다], 덧바르다 [=덧+바르_다], 돈바르다 [±돈+바르_다], 돛바르다 [±돛+바르_다], 뒤바르다 [=뒤+바르_다], 똑바르다 [+똑+바르_다], 맛바르다 [+맛+바르_다], 면바르다 [+面+바르_다], 별바르다 [+별+바르_다], 사작바르다 [], 샘바르다 [+샘+바르_다]=새암바르다 [], 아금바르다 [±아금+바르_다], 악지바르다 [+악지+바르_다], 애바르다 [=애+바르_다], 약바르다 [], 양지바르다 [+陽地+바르_다]=해바르다 [], 예바르다 [+禮+바르_다], 올바르다 [±올+바르_다], 울바르다 [], 입바르다 [+입+바르_다], 재바르다 [+재+바르_다], 재장바르다 [±재장+바르_다], 재재바르다 [], 적바르다 [±적+바르_다], 졸바르다 [], 쥘바르다 [+쥘(+쥘_어)+바르_다], 쥘어바르다 [+쥘_어+바르_다], 처바르다 [=처+바르_다]

낙빠르다 [], 녁빠르다 [], 반지빠르다 [±반지+빠르_다], 약빠르다 [+약+빠르_다], 약삭빠르다 [±약삭+빠르_다], 어지빠르다 [±어지+빠르_다], 엇빠르다 [±엇+빠르_다], 역빠르다 [±역+빠르_다], 입빠르다 [+입+빠르_다], 재빠르다 [+재+빠르_다], 축빠르다 [+축+빠르_다]

<참고2> 일본어 ‘빠리빠리’

빠리빠리 ぱり-ぱり

[부사] 《「~と」의 꼴로도 씀》

1. [부사] <「ぱりぱり 1.2.」의 가벼운 소리의 형용> 바삭바삭. 사각사각.

にんじんをぱりぱり食たべる 당근을 사각사각 씹어 먹다

布ぬのをぱりぱり切り裂さく 천을 작작 찢다.

2. [부사][명사] 기운찬 모양. 활동적인 모양.

ぱりぱりの江戸えどっ子こ 팔팔한 江戸 토박이

ぱりぱりの青年実業家せいねんじつぎょうか 팔팔한 청년 실업가.

3. [부사][명사] 물건이 새롭고 번듯한 모양.

ぱりぱりの紙幣しへい 뽀뽀한 새 지폐

ぱりぱりの洋服ようふく 말쑥한 양복.

※ ぱりぱ리(하리바리) 득득, 북북(찢다)

※ 張る(하루)

1.(자동) ㉠ 긴장하다, 팽팽해지다, 켕기다.

2.(타동) ㉡(욕심 따위를) 부리다.

㉢(무엇을) 바르다.

11)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계설을 주장하는 많은 연구에서 한국어의 ‘ㅂ’이 일본어의 ‘ㅎ’으로 반영되는 사실이 논의된 바 있다. 예) 한국어 ‘벌’ ~일본어 ‘하타[畑]’, 한국어 ‘벌’ 일본어 ‘하치[蜂]’, 한국어 ‘복(복어)’ ~일본어 후쿠(鰻)...

▶ 참고문헌

- 고영근.1972a. “現代國語의 接尾辭에 대한 構造的 研究 -확립 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논문집 18. <고영근 1989에 재록.>
- 고영근.1972b. “現代國語의 接尾辭에 대한 構造的 研究 -통합 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15-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영근 1989에 재록.>
- 고영근.1973. “現代國語의 接尾辭에 대한 構造的 研究 -동요 상황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12. <고영근 1989에 재록.>
- 高永根.1978. “形態素의 分析限界.” 언어학 3.
- 고영근.1989a/1999(개정판). 「국어형태론」, 서울대출판부.
- 고영근.1989b. “파생접사의 분석한계”,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高永根.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남사이근수박사환력기념논총(1992.4.15). 1-11
- 구본관. 1998. “접미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국립국어연구원. 23-48.
- 김양진. 1999. 국어 형태 정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양진. 2005. “형태소와 의미,” 국어 연구와 의미 정보. 월인. pp.231~249.
- 김양진·이현희.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 51(2009.12.31). pp.55-11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양진·정연주.2008. “접미사 ‘-이’의 동음이의 구별 방안 - 형태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2(2008.10.25). 한국사전학회. pp.185-207.
- 김양진·홍중선. 201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접사 선정의 기준-‘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3(2012.2.15.) 한국어학회. pp.
- 김창섭. 1992. “파생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72-88.
- 성광수. 1992. “문법 형태소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89-100.
- 심혜령. 1999. “접미사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 연구 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51-181.
- 이병근. 1989.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89-407.
- 이현희. 2006. “‘멀리서’의 통시적 문법”, 관악어문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93.
- 이현희. 2008. “사전 표제어의 형태분석을 위한 1음절 한자 처리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 32, 117-158.
- 조항범. 2009. 국어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 한길. 2006.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도서출판 역락.
-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홍중선, 2001, “국어 단어 형태의 정보화”,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9-55
- 홍중선·최호철·한정환·최경봉·김양진·도원영·이상혁.2009. 「국어 사전학 개론」 서울: 제이앤씨.
- <표준국어대사전>. 1999/2008. 국립국어원/두산 동아.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고려대 출판부.
- <廣辭苑(第五版). 岩波書店. 1998/2006

“접미사 ‘-바르-’, ‘-바리’의 설정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현희(안양대)

우선 이렇듯 좋은 논문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학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바르-’, ‘-바리’를 접미사로 처리하기 위해 ‘-바르-’, ‘-바리’를 포함하는 공시적인 용례에 대한 분석 외에도 통시적인 접근, 그리고 일본어에서까지 그 근거를 두루 찾아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김양진 선생님과 함께 사전 집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이 논의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론 연구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바르-’, ‘-바리’의 공시적인 생산성과 관련하여 이 둘을 접미사로 처리하였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생산성이 없고 ‘감바리’나 ‘꼼바르다’ 등에서 ‘-바리’와 ‘-바르-’를 분리했을 때 ‘감’이나 ‘꼼’에 대해 확정적 지위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접미사로 설정했을 때의 이점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니 ‘-바리’ 유형의 표제어가 166건이 잡힙니다. 이 중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한 표제어로 (북한어나 방언을 포함하여) ‘갯바리, 개똥바리, 거미삼바리, 곰바리, 국화삼바리, 금강바리, 기와삼바리, 나무발바리, 날바리, 남정바리, 누런점거미삼바리, 눈통바리, 다금바리, 닳줄바리, 도도바리, 무늬바리, 밭바리, 배바리, 불바리, 쌍바리, 왕삼바리, 우각바리, 우력바리, 육돈바리, 일곱톤바리, 자바리, 참바리, 해자비리, 흥바리, 황바리, 황줄바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표제어에 나타난 ‘바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예문 (11)에서 ‘-바르-’, ‘-바리’를 중세국어의 ‘부르다’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세국어의 형용사 ‘부르다(되다, 굳다, 빠르다)’가 동사 ‘부르다(바르다, 칠하다)’에 이끌려 (‘떡칠’과 같은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행어의 속성을 풍부히 지님”의 의미를 띠게 되었고 이것이 다시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바리’가 되면서 “선행 명사의 (나쁜) 속성이 풍부히 있음”의 뜻을 가진 접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형용사가 동사에 견인되는 이유나 과정, 또 형용사 ‘부르다’가 ‘가난하다(貧)’나 ‘굳다(繫)’의 의미로부터 ‘풍부하다’의 의미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칠하다’가 ‘풍부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도 ‘덕지덕지 칠하면’ ‘풍부하다’와 통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그리고 ‘-바르-’가 결합한 형용사 (3)은 ‘풍부하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2)의 예에서도 ‘피바르다, 샘바르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풍부하다’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4. 예문 (12)에서 ‘꼼바리’에 대한 분석을 ‘[[꼼바르-]-이]’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꼼바리’에서 접미사를 ‘-바리’가 아닌 ‘-이’로 보는 것인지, 혹은 ‘[[꼼-바르-]-이]’로 보아 ‘-바르-’, ‘-이’ 모두 접미사로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꼼바리’에서 ‘-바리’는 접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굳바리’는 ‘시다바리’나 ‘하바라(하빠리)’ 등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설명이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접미사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와 일관성

(The analysis of Topic in Korean discourse and coherence)

김남길 (M. N. Kim), 나원경(Wonkyung N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차례>

0. 들어가기
 1. 일관성이란 무엇인가
 2. 일관성과 응집
 3. 일관성과 스키마
 4.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와 일관성
 5. 나오기
- 참고문헌

0 들어가기

언어 분석에서 항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전달된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 언어를 전하는 문장의 구조와 단어에 의존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받아 들인 언어의 이해와 해석을 전적으로 문장의 구조와 단어에만 의존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글이나 말이 문법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읽거나 듣고도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 못 하며 그것들과 관계 있는 정보를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읽거나 듣고도 이해 못 하는 이유는 화자나 저자가 산출한 텍스트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 그렇다면 일관성이란 무엇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일관성을 응집과 스키마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또한 담화 내에서의 구정보인 주제가 도입되고 유지되는 양상을 통해 스키마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제가 글의 일관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일관성이란 무엇인가?

일관성이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앞뒤가 들어 맞는 특성 즉, 통일성을 가리킨다. 여기서 텍스트의 일관성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앞뒤가 들어 맞는 특성이란, Hasan (1984: 183)에 의하면, 언어의 문형에 의미 관계 기반이 존재함을 뜻하는데 그것은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형 그 자체의 속성 (즉, 의미 관계 기반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Hasan은 더 나아가서 언어 체계는 의미를 만들어 내는 자원이며, 의미가 언어 표현을 유발하게 하는 것과 같이 언어 표현이 의미를 나타나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통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회적, 심리적 경험 세계 속의 상황과 관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일관성은 언어 이외의 우주에 존재하는 상황과 관계 있다. 이 말은 텍스트가 일관성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텍스트를 형태적으로 조직 체계화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것들이 표현하는 의미는 우주의 상황과 일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위와 비슷한 일관성에 대한 기술은 Celce-Murcia & Olshtain(2000: 8)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일관성은 문장들이나 발화(utterance)들이(여기서 '발화'란 입에서 나온 즉, 발화된 말을 뜻한다) 서로 떨어지지 않고 뭉치고 또 서로 연관된 담화의 통일성을 뜻한다. 이 통일성과 연관성은 일부분 텍스트의 명제와 아이디어(아이디어(idea)는 사상, 개념, 생각, 견해 등 각 개의 뜻 또는 모든 뜻을 다 포함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를 위해 존재하는 인지될 수 있는 조직 체계 패턴(a recognizable organizational pattern) (조직 체계 패턴은 텍스트를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구조적 패턴을 뜻한다.)의 결과 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통일성을 공고히 하고 지엽적인 연결을 만들어 내는 언어 장치의 존재에도 의존하고 있다. (언어 장치는 여기서는 주로 응집 장치를 뜻한다. 응집 장치에 대해서는 2에서 다루기로 한다.) 인지될 수 있는 패턴들은 조직 체계 이외에도 시간적-공간적 관계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혹은 원인-결과와 같은 의미적으로 연관된 관계에 근거한 패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관성은 또한 특정 문화에 입각한 텍스트 개발의 형태와 책략에도 일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일관성은 경험, 문화 또는 관례에 근거하여 확고한 세계관에 따라 텍스트를 만드는 특질(quality)로 볼 수 있다. 또 일관성은 상호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저자/화자, 텍스트, 독자/청자와 관계 있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자질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관성은 텍스트 내의 아이디어와 명제를 개념에 근거하여 나타내는 방법과 수단을 포함한다. 글쓰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은 글을 쓰는 사람의 계획의 결과이며 문어 텍스트의 담화 세계, 화용적 자질, 내용 분야와 관계가 있다. 또 일관성은 관례적,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사학적 조직, 순서, 및 구조와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1.1 일관성의 유형 (Types of coherence)

Lautamatti(1990)는 일관성을 명제적일관성(propositional coherence)과 상호작용적일관성(interactional coherence)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명제적 일관성은 텍스트의 의미 상의 특질로 텍스트 안에서 논리적 진행을 만들어 낸다. 이 진행에 근거하여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독자의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 때 독자는 텍스트에 표현된 명제들 간에 연결 줄거리를 감지하여 자신의 세계에 대한 지식에 연결시킨다.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일관성은 참조적 연결(referential ties), 어휘 체인(lexical chains), 접속사 같은 텍스트의 응집 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상호 작용적 일관성은 구어 담화에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글 읽는 사람을 알고 있으며 또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적이거나 친숙한 편지 같은 글 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글 쓰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학술적이고 지식 중심의 글 쓰기에는 상호 작용적 일관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명제적 일관성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 일관성(coherence)과 국부적 해석(local interpretation) 및 유추(analogy)

독자나 청자가 일련의 문장이나 발화로 이루어진 텍스트에 당면하였을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가정)은 당면하고 있는 텍스트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또는 가정)이다. 독자나 청자는 이러한 생각을 텍스트가 실제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을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제 독자가 다음과 같은 두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 하는지 살펴 보자.

- (1) a. 신랑과 신부가 어제 밤에 떠났다.
b. 그는 소녀를 웃음으로 맞이하였다.
- (2) 애기가 울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위의 예와 같은 텍스트의 해석을 위해 Brown and Yule(1983:58-67)은 유추 원리(principle of analogy)와 국부적 해석 원리(principle of local interpretation)를 이용하고 있다. 이 두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유추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 되려는 경향이 있음.
- 국부적 해석원리: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는 최소일 것이라는 가정.

이제 이 두 원리에 의해 위의 두 텍스트를 해석하여 보자. 위의 두 텍스트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1)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두 문장이 각각 a와 b로 표시되어 있지만 (2)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1)은 처음부터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문장론 논문에서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은 담화에서 말하는 텍스트라기 보다는 두 독립된 예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는 (1)은 독자의 생각에 위반되는 텍스트가 된다. 그 결과 (1)은 일관성이 없는 텍스트로 해석되는데 이 해석은 독자의 유추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독자의 경험에 의하면 (1)이 텍스트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텍스트가 되지 않음으로 유추 원리를 위반하여 두 문장이 연결될 수 없고 따라서 ‘신랑’과 ‘그’는 같은 사람을 가리킬 수 없다. 그 결과 (1)은 일관성이 없는 텍스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는 처음부터 텍스트로 간주되어 일관성이 있는 텍스트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2)의 두 문장은 서로 연결된 문장들이어서 첫 문장의 ‘애기’와 둘째 문장의 ‘애기’가 같은 애기로 해석될 수 있다. (2)는 국부적 해석 원리에 의해서도 일관성이 있는 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 위에 기술한 국부적 해석 원리를 다음과 같이 좀 이해하기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수정된 국부적 해석 원리:

독자/청자로 하여금 해석에 필요한 맥락보다 더 큰 맥락을 만들게 하지 말것.

위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된 맥락에서는, 둘째 문장의 ‘어머니’는 첫째 문장의 ‘어머니’와 같은 인물이며 ‘애기’도 두 문장에서 같은 ‘애기’로 해석된다. 또 시간 맥락 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첫째 사건과 둘째 사건은 근접한 시간에서 일어난 것으로만 해석된다. 즉 애기가 울자마자 어머니가 아기를 안은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해석의 맥락보다 더 큰 맥락에서는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연결되지 않는 독립된 사건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와 애기가 동등한 인물들이 아닌 해석도 가능하다. 또 시간적 면에서도 두 사건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일어나 두 사건의 연결이 불가능한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애기가 세시간 전에 울고 어머니가 일 주일 후에 아기를 안는다면 이 두 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사건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절에서 (1)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2)는 일관성이 있음을 또 이 일관성은 Brown and Yule(1983)의 유추 원리와 국부적 해석 원리에 의해 해석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원리가 우리의 일반 생활 경험은 물론 담화 경험에서도 일관성을 설명하는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관성과 응집(Coherence and cohesion)

일관성과 응집의 관계에 있어서 응집은 일관성의 토대가 된다. 이 말은 텍스트가 일관성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응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응집은 무엇이며 일관성은 무엇인가? 학자들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다르다. Widdowson (1977)은 응집이 명제들 사이에 명확히 언어적으로 신호가 주어진 관계(the overt, linguistically-signalled relationship between propositions)임에 비해 일관성은 발화수반 행위들 사이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illocutionary acts)로 기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위의 예문 (1)과 (2)가 잘 보여 주고 있다. Widdowson이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일련의 회화가 아무런 응집 연결 없이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응집과 일관성의 관계에 있어서 두 관계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취급하는 또 다른 기술은 de Beaugrande and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에서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응집은 표면에 나타난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 즉, 우리가 듣거나 보는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배열되고 연결되어 있나를 보여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관성은 텍스트 상에 나타난 세계의 구성 요소들, 즉 표면에 나타난 텍스트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개념과 관계들이 서로 어떻게 접근하여 연결되며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위의 두 기술과 관련하여, Hoey(1999)는 응집이 텍스트의 일관성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위의 두 기술은 이 문제에 대해 만족 할 만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Hasan의 일관성에 대한 기술을 받아 드려 일관성은 텍스트의 특성이며 응집은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본다. Hoey의 일관성과 응집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좀 더 기술적인(technical) 말

로 표현한다면, 응집은 객관적이어서 자동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반면, 일관성은 주관적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1 응집(Cohesion)이란?

응집은 표층에 분명히 나타나는 텍스트의 특질로서 텍스트의 통일성과 연결성에 표층 증거를 제공한다. 응집은 큰 텍스트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언어 요소 또는 단위인 언어 장치(devices)나 연결고리(ties)에 의해 실현된다. 응집은 문법적 장치와 어휘적 장치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관계가 있다. 만일 학습자가 응집에 대한 언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한 응집 연결을 놓치게 되어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Celce-Murcia & Olshtain (2000: 126). 응집에 대한 기술을 잘 정리한 예로서 Paltridge(2006: 131)를 들 수 있다. Paltridge가 기술한 응집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집은

- i.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단어, 구, 절, 및 대명사, 명사, 접속사 같은 문법 항목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 ii. 단어와 이 단어를 가리키는 대명사간의 관계(참조 항목)를 포함한다.
- iii. 텍스트 내에서 흔히 공기하는 단어들(연어)과 또 유사하고, 연관이 있으며 상이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간의 관계(어휘 응집) 를 포함한다.
- iv. 절들간의 의미 관계와 이 관계가 접속사 사용을 통해 표현되는 방법도 고찰한다.
- v. 또 응집이 고찰하는 것으로 'one'이나 'do'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텍스트 내의 다른 단어들을 대체하는 법과 단어나 구가 텍스트로부터 생략 되는 법도 있다.

응집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텍스트 상에 존재하는 언어 항목들 간의 관계이다. 그럼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응집유형 또는 응집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절에서 알아보자.

2.2 응집 유형 (Patterns of cohesion)

위에서 이미 본 것과 같이 응집이란 텍스트 내의 여러 요소들이 절이나 문장 사이에서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말한다. 담화 분석은 이러한 문법 관계, 즉 응집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러한 대표적인 연구가 Halliday and Hasan (1974)이다.) 응집의 문법 관계는 응집 유형(patterns of cohesion) 또는 응집 매듭(cohesive ties)에 의해 성립된다. 대표적인 응집 유형으로 동사형 (verb form), 병렬 (parallelism), 참조(reference), 대치(substitution), 생략(ellipsis), 및 접속(conjunction)을 들 수 있다 (Cf. McCarthy 1991, Celce-Murcia and Olshtain 2001, and Paltridge 2006).

3 일관성과 스키마

일관성은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텍스트가 나타낸 지식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그리고 텍스트 구조에 대한 텍스트 사용자의 저장된 지식인 스키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스키마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로 볼 수 있는데, 이 틀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계와 현실에 대하여 개념으로 되어 있는 구조(structures of the world and reality in the readers' mind)이다. 이 구조는 독자들로 하여금 해석 과정의 일부로 예상되는 사건들에 투영되는 '시나리오' 즉 스키마를 개발하게 한다 (Celce-Murcia & Olshtain (2000: 126). 독자의 스키마가 텍스트와 일치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해석이 쉬워지며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일종의 중재 책략이 가해져야 된다. 다시 말해 텍스트를 처리하고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독자들은 저자가 텍스트에 표현한 맥락과 형태에 대한 스키마와 독자들 자신의 스키마와 세계관은 물론 텍스트에 표현된 주제 분야 또는 내용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견

해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1 이전 지식과 공유 지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이미 존재하는 스키마의 작동을 이용하는데 이 스키마는 메시지에 주어진 내용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게 한다. 글을 읽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혹은 의사 소통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담화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전의 지식(prior knowledge)에 일반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전에 경험한 지식은 화자들이 공유한 지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유한 지식이 보통 화자들 상호간에 의사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서로 잘 알고 있는 화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 소통은 대부분의 경우 공유 지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예로서 다음의 부부 간의 대화를 보자:

(3) 아내: 오늘 저녁 파티는 정원에서 해요.

남편: 재킷을 입을 거야.

부부 간에는 위의 대화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관성 있는 텍스트가 된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 지식에 근거하여 부부간의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아내의 말은 추울 것이라는 추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편은 그러한 추위를 대비하여 재킷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서로 잘 알지 못 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 소통 교환의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이 필요한 맥락 요소들을 제공한다. 문어 텍스트나 연설 같이 맥락이 주어지기 어려운 담화에서는 이 담화를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 자체와 이전의 지식에 더욱 더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3.2 담화에서의 지식(Knowledge in discourse)

담화 산출과 수용에 있어서 세계와 사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함은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텍스트를 읽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지식과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지식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테스트에 대한 성공적인 전달을 위하여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텍스트가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 하는 것은 다음 예문이 보여 주는 것 같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지식에 달려있다. (4)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바나나는 먹을 수 있지만 책상은 먹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언어를 기능적으로 보는 견해(the functional views of language)에서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어떤 학생이 (5)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자. 위의 텍스트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 중의 일부임을 알며 또 어떤 상황에서 학생이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추정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텍스트가 짧기는 하지만 뜻을 나타내며 통일성, 즉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책상 위에 바나나가 있었다. 영희가 그것을 먹었다.

(5) 죄송합니다. 차가---

이와 같이 안다는 것, 즉 지식이 텍스트의 일관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말해, 지식이 텍스트의 일관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며 다른 언어 요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알아 보자.

3.3 지식 구조: 스키마(Knowledge structure: schemata)

지식 스키마란 전형적인 상황을 마음속에 나타낸 것으로 Cook(1989: 69)은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s of typical situations)’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지식 스키마는 담화가 기술하는 특정 상황의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담화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다. 이 말의 주요 개념은 텍스트 내의 주요 단어나 구, 또는 맥락에 의해 자극 받은 마음이 지식 스키마를 활성화 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

해 이 지식 스키마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고 또 이해할 때 스키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고 하자. 이 때 B는 매우 상세히 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만을 대강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B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A에게 그 이야기들이 불필요하거나 쓸데 없는 것들로 들려진다면 A는 B에게 농담을 하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 일종의 나무람 같은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가 B에게 그렇게 나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B의 상세한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이 듣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3.4 스키마가 존재하는 증거 (Evidence for schemata)

담화 해석을 위해 마음이 지식 스키마를 이용하는 증거는 많다. 그 예로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한참 지난 후 그 책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읽지 않은 내용, 즉 스키마가 제공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키마 존재의 또 다른 예로서 주제 표지(topic marker) 은/는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주제 표지 사용 중 잘 알려진 사실은 (6)과 같이, 두 같은 명사구가 한 텍스트에서 쓰일 때 앞에서 언급된 명사구는 주격 조사 이/가를 택하는 반면 다시 뒤에서 언급된 명사구는 주제 표지 은/는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7)에서 보여 주는 것 같이 같은 명사구가 없이도 주제 표지 은/는이 쓰일 수 있다.

(6)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침이 되면 개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7) 어제 밤 늦게 친구 집에서 나와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는 길을 몰라 헤매다가 늦게 도착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명사구 '기사 아저씨'가 주격 조사 '가'를 택할 수 있지만 주제 표지 '는'을 택하여도 아무 문제없이 받아 드러진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명사구 없이도 명사구 '기사 아저씨'가 주제 표지 '는'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택시'라는 스키마에는 '택시 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가 부른 '택시'에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사'라는 말을 앞에서 언급하지 않고 '택시'만을 언급하여도 '기사'라는 말이 언급된 것 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제 위의 텍스트와 대조 되는 텍스트를 보기로 하자:

(8) 어제 밤 늦게 친구 집에서 나와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김선생님은 길을 몰라 헤매다가 늦게 도착하였다.

위의 텍스트의 각 문장은 완전히 문법적이고 의미도 분명하다. 하지만 두 문장을 해석할 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의 연결, 특히 '김선생님'이 앞의 문장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의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8)에서는 '택시'하면 '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스키마가 작동되지만 둘째 텍스트 (8)에서는 '택시'와 '김선생님' 사이에서는 이러한 스키마가 작동되지 않는다. 만일 텍스트 (8)이 통일성과 의미를 가진 일관성 있는 텍스트가 되려면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 응집(cohes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응집은 다음 텍스트 (9)가 보여 주는 것 같은 과 같이 스키마가 필요 없는, 텍스트 (9)의 패러프레이즈(paraphrase)에 의해 분명하게 되며 일관성 있는 텍스트가 된다. 다음에서는 한국어 담화에서 주제가 어떻게 도입되며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것이 어떻게 스키마와 연관이 있으며 글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일조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9) 어제 밤 늦게 친구 집에서 나와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놀랍게도 택시 기사가

김선생님이었다. 김선생님은 길을 몰라 헤매다가 늦게 도착하였다.

4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와 일관성

그렇다면 한국어 담화에서 주제와 스키마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고, 이 주제가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분석을 위해서 먼저 각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주제가 스키마 및 연관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4.1 담화와 주제에 대한 정의

먼저 담화란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산출되고 해석되는 언어 형태로서 한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일관성 있는 언어의 단위이다. 담화는 구어 또는 문어로 표현되는데 의사소통의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이 담화를 분석할 때, 담화의 일부분만을 데이터로 이용하게 되는데 담화를 분석이 용이하도록 나눌 때 주제(topic)의 개념에 따라 나눌 수가 있다. 여기서 주제란 일련의 담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다. 주제는 일련의 문장이나 발화된 말들이 서로 하나의 통일적인 유기체로서 연결하고,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10)의 문어 텍스트의 경우 담화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구어 대화인 (11)의 경우 주제는 지난 주말에 한 일, 국립공원, 그리고 캠핑으로 이어진다.

(10) 옛날 옛적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살았습니다..(중략)..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11) A: 내가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알아?

B: 뭐 했는데?

A: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다 왔어.

B: 그랬어?

A: 응, 정말 좋았어. 일년 내내 경치가 정말 좋아.

B: 나도 캘리포니아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길 제일 좋아해. 캠핑하는 걸 좋아하거든

담화 내에서 주제가 도입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작가와 청자/독자, 담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담화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스키마 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11)을 보면 대화 참여자 A는 지난 주말에 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는 자신이 여행한 곳에 대해서 다른 대화 참여자인 이미 B가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A는 자신이 여행한 곳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해 평을 덧붙이는데, 이미 한 번 확립된 주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요소 자체가 생략이 되어도 B의 머릿속에는 이미 주제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지식 스키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맥 상 A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일련의 담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담화 내에서 주제가 어떻게 도입되고 유지되며 일관성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주제의 개념은 주로 문장 구조 분석과 연계되어 설명이 되었는데, 주로 문장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Hockett (1958)에 따르면 문장을 주제(Topic) 부분과 평설(Comment)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을 덧붙인다고 말하고 있다. 주제는 또한 Kuno (1972)나 Chafe (1976)에 의해서 ‘주어진 또는 알려진 구정보’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이들이 말하는 주제는 화자가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 모두가 알고 있는 알려진 정보이거나 이미 언급된 주어진 정보여야 하며 청자는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특정한 개체에 대해 유추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주제는 문두에 위치한 명사구로 뒤에 짧은 휴지(pause)가 뒤따른다. 또한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알려진 구정보이므로 강세가 오지 않고, 한정성(definiteness)을 특징으로 한다. 학자들은 한국어에서도 문장 주제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알려진 한정성을 가지며, 주제 표시인 은/는으로 표시된다고 말해왔다. 주제는 또 앞에서 언급한 직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aboutness)'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주제를 문장이나 발화된 말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제에 대한 개념들은 주로 문장 수준에서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문장이나 발화된 말로 이뤄진 일련의 담화의 주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문장이나 발화된 말이 가지고 있는 맥락(context)이나 대화 참여자끼리 공유하거나 자신의 머릿속에 확립되어 있는 지식 스키마를 고려하지 않고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장 수준에만 국한되어 주제를 파악하기보다는 문장을 넘어서는 일련의 담화에서 어떻게 주제가 도입되며, 담화 내에서 어떻게 주제가 유지되고 또한 전환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담화 주제는 문장 주제와 어떻게 다를까? Brandsford와 Johnson (1973)의 실험에 사용된 문어 텍스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피실험자들은 다음의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실험에 참여했다. 피실험자들은 아래의 텍스트의 제목(title)이 주어진 경우 그 내용을 훨씬 더 잘 기억해냈다.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제목이 주어진 경우 피실험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 스키마가 활성화되어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특별한 연결 고리가 없는 경우에도 각 문장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담화로 재구성해 준다는 것이다.

(12) 과정은 꽤 단순하다. 먼저 그룹별로 분류한다. 양이 얼마나 많으나에 따라 차곡차곡 쌓으면 된다.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준비가 다 된 셈이다...(중략)...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그룹별로 재정리해서 알맞은 자리에 넣어 둔다.

그렇다면 담화 주제를 위에서 언급된 텍스트의 제목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담화 주제가 제목처럼 한 단어나 문장만으로 표현된다고 말하기 보다는, 담화 주제는 담화 전체를 아우르는지 아니면 담화 내에서도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문장들 내부의 주제를 언급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텍스트의 주제 또한 '빨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옷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한 문장 안에서만 주제를 파악하는 문장 주제와 달리 담화 주제는 문장 외 요소들(문맥, 담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스키마 등)과 담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능동적으로 선택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나 대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도 가능하고 문장 별로 소주제를 파악하는 일도 가능하다. 또한 구어 대화의 경우 대화 참여자들 간에 말을 주고 받으면서 주제가 전환되는 일도 가능하다. 다음에서는 실제 한국어 담화에서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며 주제가 일관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스키마가 주제의 선택과 유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2 실제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 분석: 스키마와 일관성에 대한 논의

한국어에서의 주제는 주로 문장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두에 나타나며 주제 표지인 은/는으로 표시되는 명사구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문장의 다른 요소들도 문두로 이동하는 주제화(topicalization)이 일어나면 주제 표지인 은/는이 붙어 주제로 해석되었다. 또 문두가 아닌 곳에 은/는이 나타나면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는데, 은/는이 한 문장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 문두의 명사구만 주제로 해석되고 나머지는 대조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장 앞뒤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 주제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일련의 담화 전체를 놓고 그 안에서 주제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렇게 담화를 분석할 때는 문어 텍스트와 구어 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어 텍스트는 작가가 독자에게 글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이고 구어 대화의 경우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있다. 또한 텍스트에서는 조사 등의 문법 요소들의 생략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구어 대화에서는 조사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간의 지식 스키마를 통해 문맥 상 유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다른 문장 요소들의 생략도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옛날 이야기나 동화 같은 문어 텍스트의 경우 등장 인물이 소개되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정형화된 형식에 맞춰 쓰여지는데, 등장 인물들이 소개될 때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언급할 때 일정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등장 인물이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처음 언급될 때는 조사 *이/가*가 쓰이고, 그것이 다시 두 번째로 언급되어 주제로 선택되었을 경우 주제 표지 은/는으로 표시되며, 동일한 주제가 계속 유지되어 지속적으로 언급될 경우 생략이 되는 것이다. 이는 아직 독자나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정보의 경우 *이/가*로 표시되고 주제처럼 알려진 구정보는 은/는으

로 표시되는 가정을 따른다. 다음 텍스트를 살펴보자.

(13) 황희 정승이 젊었을 때 이야기이다. 황희는 젊었을 때 성품이 경솔하고 남의 단점을 꼬집어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농부가 검정소와 누렁소를 한 마리씩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여보시오! 검정소와 누렁소 중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황희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말했다.

“덩치는 검정소가 더 크지만 힘이 없고 금방 지친다오. 누렁소는 덩치는 작아도 고분고분하고 힘이 좋지요.”

“하하하, 알겠소 현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귓속말로 속삭인단 말이오?”

“아니, 큰일날 소리를 하시는구먼. 검정소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소.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길 헐뜯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 아니겠소?”

황희정승은 그 후로 농부가 준 교훈을 배워 남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했다.

위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황희 정승과 소’ ‘황희 정승이 얻은 교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텍스트 내의 소주제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유지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황희 정승은 처음 소개될 때 신정보를 표시하는 조사인 *이/가*로 표시되었다. 등장 인물이 소개되고 난 후에는 그 뒤에 등장 인물에 대한 소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제 표시인 *은/는*이 사용되면 독자로 하여금 등장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줄 수 있다. 등장인물인 황희가 주제로 확립되고 난 후, 그 주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또 언급이 되는 경우 생략이 된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문장에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주체는 황희인데 이미 주제로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도 이미 주제로 확립된 황희라는 것을 독자가 지식 스키마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등장 인물인 농부의 경우도 처음 담화에 등장할 때는 *이/가*로 표시되었다가, 황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부분에서 농부가 새로운 주제로서 확립이 되는데 이 때 *은/는*으로 표시가 전환된다.

문어 텍스트의 경우 주제의 도입과 유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만 구어 대화의 경우 주제를 분석할 때 훨씬 더 복잡하다. 먼저 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대화 참여자간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착오가 생긴다거나 중간에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는 등 담화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지식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지시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생략도 빈번히 일어난다.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자.

(14)그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건강하시죠?

그 남자의 엄마: 영국에 갔다 왔다고?

그녀: 예. 일 년 반쯤 있었어요. 그 사람 잊으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 남자의 엄마: 그래...이제 마음 많이 편해?

그녀: 네...많이요...

그 남자의 엄마: 정말인 거 같은데? 우리 애...하늘나라에서 섭섭해하겠어...

그녀: 아니에요... 더 좋아할 거예요...

그 남자의 엄마: 그래...그래...나도 그걸 얼마나 바랬는지 알지.

견우: 고모! 여권 사진 찍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의 엄마: 이게 몇 년 만이냐? 응?

그 남자의 엄마: 내가 말도 없이 이렇게 불렀어. 견우라고 내 조카야. 그 애하고 많이 닮았지? 너 맘 고생할 때 몇 년 전부터 너한테 한 번 소개하려고 오라고

그랬더니,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 다니는 통에...(중략)
(영화 '엽기적인 그녀' 대본 중 발췌)

위 대화를 대화가 일어나는 앞뒤 문맥과 상황,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의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제 3자가 들었다면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다. 또한 대화 참여자들간에 공유하고 있는 지식 스키마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참여자들 간에 유추 가능한 요소들은 아예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이해가 힘들어진다.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예전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담화 상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지만, 두 대화 참여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 스키마 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화의 일관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구어 대화의 경우 문어 텍스트와 다르게 문장 요소의 생략이나 조사의 생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 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담화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평서문에서 문장의 주체가 화자 자신인 경우 주어 생략이 많이 나타나고 의문문에서도 질문을 듣는 사람은 2인칭 '너'이기 때문에 주어 생략이 많이 나타난다. 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그 남자의 엄마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주제로 도입된 '우리 애'에는 주제 표지 은/는이 붙지 않았고, 바로 뒤 문장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었을 때도 문맥 상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 그리고 대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견우가 주제로 확립되어 견우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 처음 언급된 이후에는 계속 생략이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주제가 한 번 확립되면 생략이 되어도 대화 참여자들은 공유하고 있는 지식 스키마를 통해 유추를 해서 생략된 주제가 가리키는 바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5 나오기

지금까지 우리는 일관성이 무엇이며, 일관성을 중심으로 응집과 스키마,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끝으로 다시 이 일관성과 응집, 그리고 스키마 이 세 개념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논문을 마치기로 하겠다. Celce-Murcia & Olshtain (2000: 127)은 일관성과 응집을 혼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텍스트가 표면상으로는 응집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뜻이 통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는 텍스트가 될 수도 있으며, 또 텍스트가 분명히 응집 장치가 결여되었어도 표현된 아이디어나 정보가 현실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완전히 일관성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제 Celce-Murcia & Olshtain이 인용한 Halliday and Hasan (1989: 83)과 Carrell (1982: 484) 제공하는 예문을 각각 보자.

(15) A cat is sitting on a fence. A fence is often made of wood. Carpenters work with wood.

Wood planks can be bought from a lumber store.

(고양이가 울타리 위에 앉아 있다. 울타리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목수들이 나무를 가지고 일한다. 널빤지는 목재상에서 살 수 있다.)

위의 텍스트 (15)는 표면상으로는 응집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명제들 간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볼 때 뜻이 통하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텍스트로 해석된다. 위의 텍스트와 대조적인 다음 예문 (16)을 보자.

(16) The picnic was ruined. No one remembered to bring a corkscrew.

(피크닉은 망쳤다. 모두들 잊고 마개뽑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위의 텍스트 (16)은 보기에 짧고 응집이 결여되어 있지만 뜻이 통해 누구나 이 텍스트를 일관성이 있는 텍스트로 인정할 것이다. 위의 텍스트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저자와 독자 모두가 마개뽑이를

와인병에 또 와인을 피크닉에 연결시키는 지식과 스키마를 공유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문어 텍스트와 구어 대화에서 ‘화자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가 어떻게 도입되고 유지되며 이것이 어떻게 담화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일련의 담화 내에서 화자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가 도입되고 유지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독자나 청자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서 담화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제의 선택과 도입, 유지에 있어서 담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지식인 스키마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밝힐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Anderson, R. C. (1984) Role of the reader's schema in comprehension, learning, and memory. In Anderson, R. C. , Osborn, J. & Tierney, R. J. (eds.), *Learning to read in American schools: Basal readers and content texts* (pp. 243-257).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Brabfsord, J. D. & Johnson, M. K. Considerations of some problems of comprehension. In William G. Chase (e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New York: Academic Press, 1973, 383-438.
- Brown, G. & Yule, G.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ell, P. L. (1982). Cohesion is not coherence. *TESOL Quarterly*, 16(4), 479-488.
- Celce-Murcia, M. & Olshtain, E. (2000). *Discourse and contex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Li (Ed.), *Discourse analysis* (pp. 27-55). New York: Academic Press, p. 27-55.
- Cook, G. (1989).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Beaugrande, R. & Dressler, W. U.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Hasan, R. (1984): Coherence and cohesive harmony. In Flood, J. (ed.) *Understanding reading comprehension*. Newark, Delawar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Hockett, C. (1958). Two models of grammatical description. *Readings in Linguis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ey, M. (199). *Patterns of lexis i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 Paltridge, B. (2006). *Discourse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Widdowson, H. G. (2007). *Discourse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어 담화에서의 주제와 일관성”에 대한 토론문

김용경(경동대)

먼저 한국어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 담화 관련 주제 논문을 읽고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일관성에 대한 개념과 담화 텍스트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텍스트 요소인 응집과의 관계, 스키마와 주제의 역할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3.2의 ‘텍스트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지식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토론자가 연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다.

첫째, 1장에서 ‘일관성’을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앞뒤가 들어 맞는 특성 즉, 통일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일관성과 응집의 관계에 있어서 응집은 일관성의 토대가 된다. 이 말은 텍스트가 일관성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선 응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Celce-Murcia & Olshtain (2000: 127)를 인용하여 ‘일관성과 응집을 혼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또 ‘일관성과 응집, 스키마’ 세 개념의 상호 작용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일관성(coherence)과 응집성(cohesion)은 텍스트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데, 응결성은 텍스트 표층의 문법적 연결성을, 응집성은 텍스트의 내용적, 의미적 연관성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칫 일관성과 응집성을 순환논리식의 설명이 되기 쉽다. 아울러, ‘일관성’, ‘응집성’, ‘스키마’, ‘주제’라는 개념 사이의 관계가 이 연구에서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둘째, 4.2에서, 담화에서의 주제 분석 과정, 즉 ‘황희 정승과 소’ 또는 ‘황희 정승이 얻은 교훈’이라는 주제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스키마를 통한 문맥 상 유추가 텍스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어 표지인 ‘이/가’와 ‘은/는’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든다. 텍스트 표층의 문법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응집’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것인지,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스키마로 활용하여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지 도움을 주는지가 문제이다. 여기서도 적용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상의 두 문제를 끝으로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다.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황화상(서강대)

<차례>

1. 서론
 2. 본용언 ‘있다’의 의미와 품사, 그리고 활용
 3. 보조용언 ‘있다’의 의미기능과 품사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용언은 의미 특성, 활용의 양상 등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나뉜다. 그런데 용언 가운데에는 의미 특성 측면에서, 혹은 활용의 양상 측면에서 동사와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품사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들 단어에 대한 문법적 처리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이를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본다. 이를테면 (1ㄱ)과 같이 ‘크다’를 ‘크기가 보통 정도를 넘다’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형용사로, ‘자라다’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동사로 보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 둘째, (1ㄴ)과 같이 이를 동사와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되 의미 특성 혹은 활용의 양상 측면에서 다른 품사의 속성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맞다’를 동사로 보되 형용사적 특성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도원영 2002).¹⁾

(1) ㄱ. 그 아이는 키가 크다.

그 아이는 (지금도) 키가 크다.

ㄴ. 옷이 아이의 몸에 꼭 {맞는다, 맞다}. (도원영 2002:59)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함께 쓰이는 ‘있다’도 동사나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있다’는 ‘크다, 맞다’ 등의 부류와는 그 속성이 얼마간 다르다. ‘있다’는 (2ㄱ)과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형용처럼 활용하기도 하지만 ‘크다’와는 달리 의미(혹은 의미 기능)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또 ‘있다’는 (2ㄴ)과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는 점에서 ‘맞다’와도 다르다. ‘있다’를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제3의 품사(존재사)로 설정하기도 하는 것(이완응 1929, 박승빈 1931, 1935 등)은 바로 이와 같이 ‘있다’는 어떤 동사 부류나 형용사 부류와도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 ㄱ. 집에 {있다, 있어라}.

앉아 {있다, 있어라}.

먹고 {있다, 있어라}.

ㄴ. 그는 지금 집에 {있다, ?있는다}.

1) 도원영(2002)에서는 ‘맞다’와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활용하기도 하는 단어들을 ‘형용성 동사’라고 불렀다. 형용성 동사는 ‘의미적으로 상대성을 가지면서 형태 활용이나 통사적 기능에서 형용사적 특성, 형용성을 띠는 동사류’(도원영 2002:47)를 말한다.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있는다}.

그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있는다}.

결국 '있다'의 품사를 설정하는 데에는 논리적으로 이를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보는 것, 이를 동사나 형용사 어느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 이를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제3의 품사(존재사)로 설정하는 것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다'의 품사 설정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형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있다'의 활용에서 드러나는 특이성을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어렵다.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볼 때에는 두 가지 용법의 '있다' 사이에 의미(혹은 의미 기능)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난점이 있고,²⁾ 이를 동사나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볼 때에는 다른 하나의 품사처럼 활용하기도 하는 특이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존재사로 보는 것은 '있다'의 특이성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특이성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있다'의 품사를 어떻게 설정함으로써 그것의 활용에서 드러나는 특이성을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있다'의 의미 특성에 대한 재검토이다. 활용의 특성은 품사의 설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품사의 설정은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있다'의 의미 특성은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유형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각각 2장과 3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본용언 '있다'의 의미와 품사, 그리고 활용

본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를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는 다시 동사로 보는 연구, 형용사로 보는 연구, 존재사로 보는 연구로 나뉜다.

(3) 본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

ㄱ. 어느 하나의 품사로 설정한 연구

① 동사

『우리말큰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주시경(1910), 정인승(1959, 1968) 등

② 형용사

『연세한국어사전』,³⁾ 최현배(1937/1961), 이승녕(1956ㄱ, ㄴ), 유현경(2006) 등

③ 존재사

이완웅(1929), 박승빈(1931, 1935), 심의린(1935), 김근수(1947), 이희승(1950, 1956), 성광수(1976), 서정수(1994/1996) 등

ㄴ.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본 연구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최호철(1993), 신선경(1997/2002), 이상억(1970/1999), 김정남(1998/2005), 배주채(2000), 황화상(2011/2013) 등

선행 연구 가운데에서 '있다'의 특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이를 존재사로 보는 연구들이다. '있다'를 '없다, 계시다'와 함께 존재사로 설정한 이완웅(1929:106 註)에서는 존재사 설정의 이유를 (4)와 같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존재사는 '있다'의 활용 양상이 일부 동사와 같기도 하고 일부 형용사와 같기도 하여⁴⁾ 동사나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

2) 이는 특히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있다'의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다만 '동사적'으로 쓰여서 '머무르다, 지내다', '시간이 경과하다'의 뜻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밝다, 크다' 등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했다.

4) 이는 박승빈(1931, 1935)에서처럼 '활용이 동사와 다르기도 하고 형용사와 다르기도 하다'라고 하여 다른 점에 초점을 두어 표현할 수도 있다.

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있다’의 활용의 특이성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특이성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 (4) 國語文法에서는 [有]는 動詞, [無]는 形容詞로 되었으나, 朝鮮語에서는 二者가 共히 性質及活用이 全然 同一하며 그 活用하는 形이 一部分은 形容詞와 如하고, 一部分은 動詞와 如한 故로, 動詞나 形容詞에 屬지 아니하고 一種 獨立한 品詞로 된 것이며, 또 [계시다]도 普通 形容詞와 같으나 此亦 形容詞와는 多少 相異한 點이 有한 故로 其語의 性質及活用하는 形狀에 依하여 存在詞에 屬케 되니라. (띄어쓰기는 필자에 의함)

‘있다’를 동사나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는 연구는 ‘있다’의 의미 특성은 어느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의미 특성은 차지하더라도 활용형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곧 ‘있다’를 동사로 볼 때에는 ‘있다, 있으려고’와 같이 활용하는 예외를, 형용사로 볼 때에는 ‘있어라, 있자’와 같이 활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있다’를 형용사로 본 최현배(1937/1961:185-187)을 주목할 수 있다. 최현배(1937/1967)에서는 활용의 측면에서 동사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서술형(베품꼴)의 활용(동사 ‘-는다’, 형용사 ‘-다’)을 표지(표점)로 삼아 ‘있다’를 형용사로 보았다. ‘있거라, 있자’와 같은 활용은 예외적인 것으로 본 셈이다.

- (5) “있다”와 “없다”가 움직씨와 그림씨의,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 이는 참 우리말에서의 한 물음거리이다. … “있다”와 “없다”가 그 베품꼴(敍述形)에서는 이적 나아감(現在進行)의 때매김이 없고,⁵⁾ 매김꼴(連體形)에서는 이적 나아감의 때매김이 있나니: … 그러므로, “있다”와 “없다”는 움직씨와 그림씨와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하지마는, 베품꼴이 매김꼴보다 더 기초적 의의를 가진 것이니까, 그 베품꼴의 때매김에 따라서, “있다”와 “없다”를 그림씨로 잡음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있다”는 “없다”와도 달라서, 시킴꼴(命令形)과 꺾임꼴(請誘形)을 갖춰 가지고 있으니:⁶⁾ …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있다”만은 움직씨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마는, 그리해서는, 베품꼴 “있다”를 설명할 수 없는 동시에 베품꼴의 중요성 곧 움직씨와 그림씨와의 갈라보는 표점됨을 무시할 수도 없으므로, 아직은 편의적으로 위와 같은 뜻과 방법에서 “있다”와 “없다”를 다 같이 그림씨로 잡았노라. (일부 괄호 안의 한자, 밑줄, 그리고 각주는 필자에 의한 것임)

한편 ‘있다’를 동사로 본 연구 가운데에서는 정인승(1959)를 주목할 수 있다. 정인승(1959)에서는 ‘있다’가 ‘있는다’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변칙활용일 뿐이며, 또 의미적으로도 ‘있다’는 움직임(‘그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를 동사로 보았다.

- (6) … “있다”라는 말은 “있는다”로 되지 않는 점 외에는 모든 변화가 다른 움직씨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으니 이것은 움직씨로서 다만 “벗어난 끝바꿈”(변칙활용) 하는 것으로 다루면 그만일 것(왜냐하면, 이보다 더 심한 벗어난 움직씨가 많다.)이요, “없”라는 말은 “없은”으로 돼야 할 경우에 “없는”으로 되는 점과, … 더구나, 내용상으로 따진대도 … “있다”는 어떤 경우는 순전한 상태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마는, 어떤 경우는 움직임을 나타냄이 더 주되는 내용이 된다. 곧 그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정인승 1959:38)

활용의 특이성에 따른, ‘있다’의 품사 설정에 대한 고민은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는 어느 활용형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있다’를 형용사(종결평서형 기준)로 볼 수도 있고 동사(명령형과 청유형 기준)로 볼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있다’의 품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7) 이곳에서는 종결평서형에 근거하여 두 단어를 형용사로 간주하는 편에 서지만 실제로 ‘있다’는 동사에 가깝다.

5) ‘돈이 있는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었다.

6) 각각 ‘복동아, 여기 있거라.’, ‘복동아, 여기 있자.’의 예를 들었다.

…7)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있다’는 동사에 넣을 수 있고 ‘없다’는 형용사로 간주할 수 있다. ‘있다’는 몇 군데의 불규칙한 곳은 있으나, 활용형 전반을 채우고 있다.

이와 같이 ‘있다’를 어느 하나의 품사로 보는 연구는 의미(상태 혹은 움직임)와 활용(평서형, 혹은 명령형과 청유형) 측면에서 드러나는, ‘있다’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것을 주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동사로 보는 연구와 형용사로 보는 연구가 나뉜다. 두 견해의 차이는 특히 평서형에서 ‘있다’의 활용(‘있다, *있는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있다’를 형용사로 본 최현배(1937/1961)에서는 이를 주요 근거로 삼았고, ‘있다’를 동사로 본 정인승(1959)에서는 이를 변칙활용의 하나로 이해했다. 그런데 (8)에서 알 수 있듯이 평서형에서도 ‘있다’가 늘 ‘있다’로만 활용하고 ‘있는다’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8) ㄱ. 나는 오늘 집에 있다. (성광수 1976:112 주8)
 ㄴ. 아이들이 오늘은 집에만 있다. (신선경 1997/2002:32)
 ㄷ. 그는 집에 있는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있다’를 그 쓰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용사로 보기는 어렵다. 분명한 결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도 ‘있다’를 동사로 볼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평서형에서 ‘있는다’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 (9) 그리고 평서형에서 최근 들어 ‘있다’가 ‘있는다’가 되는 경향이 강하여 동사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져 가고 있다. 이런 일은 ‘나 오늘 집에 있는다’와 같이 구어체에서 더 두드러지지만 문장체에서도 목격된다.⁸⁾ (남기심·고영근 1985/1993:133)

그러면 ‘있다’를 일률적으로 동사로 볼 수 있을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모든 경우에 ‘있다’가 ‘있는다’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는 최근 들어 ‘있다’가 ‘있는다’로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지만, 이는 ‘있다’가 ‘있는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있다’로 활용하는 때와 ‘있는다’로 활용하는 때가 구별되는 것일 뿐이다.⁹⁾ (11)에서도 ‘있는다’의 자리에는 본래부터 ‘있다’가 쓰이기 어렵다.¹⁰⁾

- (10) ㄱ. 철수는 지금 학교에 {있다, ?있는다}
 ㄴ. 나는 내일 집에 {*있다, 있는다}.
(11) ㄱ.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이 아플 때까지 이런 상태로 있다.
 ㄴ. 이까짓 놈의 하청공장 있으래도 안 있어, 더러워서도 안 있는다.
 ㄷ. 15.3%는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답했으나 ….
 ㄹ. ‘라스’ 김구라 “나는 술자리에 1시간만 있다”

그러면 ‘있다’를 본래부터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용언으로 볼 수 있을까? 문제의 핵심은,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 특성이 다른 만큼, ‘있다’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왜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¹¹⁾

7) ‘여기에 있어라, 같이 있자(cf. 가거라, 먹어라, 가자, 먹자)’, ‘*여기에 없애라, *같이 없자(cf. *어서 예빠라, *어서 붉어라, *같이 예쁘자, *같이 붉자)’의 예를 들었다.
8) 남기심·고영근(1985/1993:133)에서는 그 예로 박지홍(1981:110)에서 제시한 ‘… 퇴근 시간은 밤 10시 반, 이 때쯤 되면 최씨는 남편의 저녁을 차려 놓고 집 앞에 나가 있는다. 세 살짜리 아들은 혼자 자고 있다.(1981. 5. 2. 코리아의 맥박)’를 인용했다.
9) (10ㄴ)은 의지 혹은 미래의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10ㄱ)의 두 문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형용사는 의지를 나타낼 수 없고, 또 그 자체만으로는 미래의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일 수 없다. 다만 ‘내일은 날이 흐리겠다.’와 같이 ‘-겠-’이 결합하여 추측을 뜻할 때에는 형용사도 미래의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일 수 있다.
10) (11)은 각각 경향신문(1968.3.25, ‘달뽀해지는 미용 체조’), 동아일보(1979.9.7., 소설 ‘달이 뜨면 가리라’), 한겨레신문(1992.12.24., ‘만원 지하철 문 열릴 때 가장 불안’), 스타뉴스(2013.6.13, 기사 제목)에서 뽑은 예문이다.
11) 앞서 제시했듯이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용언으로 본 연구는 있었다. 그러나 활용의 양상을 주요 근거로 삼거나, 의미의 차이를 제시했다더라도 그 두 의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있다’의 두 가지 의미를 자세하

아울러 서술형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활용형에서도 그 차이가 형식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 먼저 (12)와 같이 보통 ‘있다’로 활용하는 예에서 ‘있다’의 의미를 살펴보자.

(12) 그는 지금 집에 있다.

(12)는 ‘그가 지금 집에 있음’, 혹은 ‘그가 지금 집에 있는 상태임’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때 ‘있다’는 ‘그’의 ‘존재(有)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형용사 ‘없다’가 부재(無)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대등하다. 따라서 (12)에서 ‘있다’는 무엇보다도 그 의미로 볼 때 형용사로서 쓰인 것이며, ‘있다’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런데 ‘있다’가 갖는 존재로서의 상태성은 ‘예쁘다, 굵다, 크다’ 등 보통의 형용사가 갖는 상태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통의 형용사가 드러내는 상태성과 달리 존재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로서 만들어져서 지속되는(혹은 유지되는) 상태이며, 또 주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상태는 ‘밖에 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로서 만들어져서 지속되는데, 주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그 상태는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¹²⁾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있다’가 (13)에서와 같이 동사적 쓰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13) (우리는 나갔다 올 테니) 너는 {그냥, 계속} 집에 있어라.

(13)은 ‘밖에 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로서 만들어져서 지속되어 온, 집에 있는 상태를 앞으로도 지속함’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때 ‘있다’는 존재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이하 ‘존재 상태의 지속(행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13)에서 ‘있다’는 그 의미로 볼 때 동사로서 쓰인 것이며, ‘있어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런데 어떤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길이, 곧 기간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14)에서처럼 동사로서의 ‘있다’는 ‘오늘, 내일’ 등의 시간 부사와는 같이 쓰이지만 ‘지금, 한 시간 후’ 등 어느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는 같이 쓰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참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부사도 조사 ‘부터’와 결합하여 어느 기간의 시작으로서의 시점을 나타낼 때에는 ‘있다’와 같이 쓰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있다’가 동사이므로 ‘있다’가 아닌 ‘있는다’로 활용한다.

(14) ㄱ. 나는 {오늘, 내일} 집에 있다.

ㄴ. ?나는 지금 집에 있다.

cf) 나는 지금부터 집에 {있다, *있다}.

ㄷ. ?나는 한 시간 후에 집에 있다.

cf) 나는 한 시간 후부터 집에 {있다, *있다}.

물론 형용사로서의 ‘있다’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길이가 전제될 때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형용사 ‘있다’와 동사 ‘있다’의 의미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5ㄱ)은 ‘집에 있는 상태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됨’, 곧 존재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이하 ‘존재 상태의 지속(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15ㄴ)은 ‘집에 있는 상태를 어제부터 지속하여 지금까지 지속함’, 곧 ‘존재 상태의 지속(행위)’를 뜻한다.

계 다른 신선경(1997/2002:55)에서도 동사로서의 ‘있다’에 대해 “‘있다’는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exist) 상태(state)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과정성(process)을 갖는 ‘머무름’의 의미도 나타낸다. ... 이와 같이 ‘있다’가 ‘사건적 존재’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그것은 한 대상의 존재 여부나 존재하는 상태 자체에 관한 진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여 그 과정을 문제삼는다는 면에서 ‘있다’의 다른 의미들과 구별된다.”고 했을 뿐, ‘있다’가 왜 ‘머무름’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존재’를 어떻게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신선경(1997/2002)에서는 ‘있다’ 구문을 존재(존재론적 존재, 유형론적 존재, 사건적 존재, 처소적 존재) 구문과 소유(양도성 소유, 비양도성 소유) 구문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사건적 존재 구문의 ‘있다’만 동사로, 나머지 구문의 ‘있다’는 모두 형용사로 보았다. 이 밖에 ‘있다’의 의미, 유형, 특성 등에 대해서는 박양규(1975), 양정석(1995), 유현경(1996), 고석주(199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2) 이와 달리 이틀테면 ‘예쁘거나 굵거나 큰’ 상태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생기지도 않으며, 또 주체의 의지에 따라 지속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이다.

- (15) ㄱ.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집에(만) 있다.
 ㄴ.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집에(만) 있다.

이와 같이 ‘있다’는 형용사로서 ‘존재 상태’, 혹은 ‘존재 상태의 지속(상태)’을 나타내기도 하며, 동사로서 ‘존재 상태의 지속(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에는 품사가 다른 만큼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용,¹³⁾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6) 형용사 ‘있다’의 활용

- ㄱ. 그가 지금 집에 있다.
 너는 지금 집에 있구나.
 그는 지금 집에 있다고 한다.
 ㄴ. 그는 지금 집에 있지 않다.
 그도 지금 집에 있기는 하다.
 ㄷ. *그는 지금 집에 못 있다.
 *그는 지금 집에 있지 못하다.

(17) 동사 ‘있다’의 활용

- ㄱ. 그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다.
 너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는구나.
 그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는다고 한다.
 ㄴ. 그는 혼자서는 집에 잘 있지 않는다.
 그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기는 하다.
 ㄷ. 나는 혼자서는 집에 못 있다.
 나는 혼자서는 집에 있지 못하다.

그리고 형사와 ‘있다’와 달리 동사 ‘있다’에는 (18)과 같이 ‘-겠-, -을게, -을래, -오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을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¹⁴⁾ ‘-어라, -자’와 같은 어미를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있다.

- (18) ㄱ. 나는 집에 {있겠다, 있을게, 있을래, 있오마, 있으려고 한다}.
 ㄴ. 집에 {있어라, 있자}.

한편 ‘있다’는 (19)에서와 같이 ‘어떤 직장에 다니다’의 뜻을 갖기도 한다.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은 주체가 그 직장에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체가 그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도 ‘있다’는 동사(‘존재 상태의 지속(행위)’의 뜻)와 형용사(‘존재 상태’, 혹은 ‘존재 상태의 지속(상태)’의 뜻)로 함께 쓰인다.

- (19) ㄱ. 그는 아직 그 회사에 있다.
 너는 그냥 그 회사에 있어라.
 ㄴ. 그는 아직 그 회사에 있다고 한다.
 그는 그냥 그 회사에 있는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있다’는 많은 경우에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

13) 잘 알려져 있듯이 보조용언 ‘않다, 하다’는 본용언이 형용사일 때에는 ‘않다, 하다’로 활용하며(‘예쁘지 않다, 예쁘기는 하다’), 동사일 때에는 ‘않는다, 한다’로 활용한다(‘먹지 않는다, 먹기는 한다’). 이는 부정의 ‘못하다’도 마찬가지이다.

14) 다만 ‘-겠-’은 형용사로서의 ‘있다’에도 결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와는 다르다.

정한 의미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있다’가 동사로만 쓰이거나 형용사로만 쓰이는 때도 있다.

(20) ㄱ.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표준국어대사전』)

ㄴ.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있는다}.

신(神)이 있다.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오늘 회식이 있다.

그는 고집이 있다.

(20ㄱ)에서처럼 ‘있다’는 ‘시간이 경과하다’의 뜻을 갖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동사로만 쓰인다. 이때의 ‘있다’가 동사로만 쓰이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테면 (20ㄱ)에서 오늘과 추석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사흘이라는 기간이 있다.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다’의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20ㄴ)에서 ‘있다’가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은 각 문장의 주어와 관계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있는다’로의 활용은 존재 상태가 주체의 의지에 의해 생겨서, 또 주체의 의지에 따라 지속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 물론 이때 주체는 문장에서 주어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를테면 (20ㄴ)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책’이다. ‘책’은 존재 상태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상태를 지속하는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 문장이 나타내는 존재 상태는 이를테면 누군가가 책을 책상 위에 ‘놓는 행위’에 의해서 생긴 상태이며, 또 그 책을 책상 위에서 ‘가져가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상태이다. ‘있다’가 ‘있는다’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¹⁵⁾

3. 보조용언 ‘있다’의 의미 기능과 품사

보조용언¹⁶⁾ ‘있다’의 품사 설정에 대한 연구도 크게 이를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품사로 보는 연구는 다시 보조동사로 보는 연구, 보조형용사로 보는 연구, 존재사로 보는 연구로 나뉜다.¹⁷⁾

(21)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

ㄱ. 어느 하나의 품사로 설정한 연구

①보조동사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정인승(1968), 허웅(1995/2000),¹⁸⁾ 민현식(1999), 이익섭(2005), 김승곤(2009), 황화상(2011/2013) 등

②보조형용사

최현배(1937/1961), 이송녕(1968),¹⁹⁾ 이인모(1968) 등

15) ‘없다’가 ‘없다’로는 활용하지만 ‘없는다’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상태’, 곧 ‘부재’는 논리적으로 주체가 의지에 따라 만들거나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집에 없는 상태’는 이를테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행위에 의해 생겨서 그 행위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혹은 ‘다시 들어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주체가 의지에 따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은 ‘나가 있는 상태’이며, ‘없는 상태’는 그 결과로서 만들어져서 지속되는 것일 뿐이다.

16) 선행 연구에서 보조용언은 ‘조동사, 보조동사, 의존용언, 의존동사, 메인풀이씨, 도움풀이씨’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용어에 관계없이 편의상 이를 보조용언(보조동사, 보조형용사)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17) 이 밖에 보조용언 ‘있다’에 대한 연구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그 품사를 구별하지 않고 ‘보조용언’으로 통칭한 연구들(손세모들 1994/1996, 이선웅 1995, 임병민 2010 등)도 있다.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세부적인 품사를 어떻게 보는지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의미 기능과 품사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는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18) 허웅(1995/2000)에서는 ‘계시다’는 보조형용사로 보았다.

19) 이송녕(1968:125-126)에는 ‘-어 있다’의 예만 제시되어 있다.

③존재사

성광수(1976), 서정수(1994/1996) 등

ㄴ. 동사(‘-고 있다’)와 형용사(‘-어 있다’)를 겸하는 단어로 본 연구

『금성판 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남기심·고영근(1985/1993), 김석득(1992), 배주채(2000), 이주행(2000/2001) 등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에서 제기되는, 본용언 ‘있다’와는 또 다른 어려움은 활용 양상의 차이가 의미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품사는 의미 특성에 따라 구별되며, 활용의 양상은 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²⁰⁾ 그런데 보조용언 ‘있다’는 의미 기능으로는 대체로 ‘-어 있다’의 형태로 쓰일 때(‘상태’, 혹은 ‘상태의 지속’)와 ‘-고 있다’의 형태로 쓰일 때(‘진행’)가 구별되며,²¹⁾ 또 이에 따라 각각 형용사와 동사로 구별하지만, 활용의 양상은 의미 기능이나 품사와는 특별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²²⁾

(22) 본용언 ‘있다’의 품사 구별

ㄱ. (형용사) 집에 있다.

ㄴ. (동사) 집에 있어라.

(23)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 구별

ㄱ. (형용사) 의자에 앉아 {있다, 있어라}.

ㄴ. (동사) 밥을 먹고 {있다, 있어라}.

(23)은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를 선행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어 있다’(이하 ‘있다1’)는 형용사로, ‘-고 있다’(이하 ‘있다2’)는 동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이는 ‘있다’의 의미 기능을 단순히 ‘있다1’은 상태(혹은 상태의 지속, 완료)를, ‘있다2’는 진행(혹은 과정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있다1’과 ‘있다2’로 나누어 보조용언 ‘있다’의 의미 기능과 품사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한다.²³⁾

먼저 ‘있다1’을 살펴보자. ‘있다1’은 본용언 ‘있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상태를 나타낸다. 본용언 ‘있다’와 다른 점은 그 상태가 선행하는 본용언이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에 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4ㄱ)은 ‘의자에 앉는’ 행위의 결과로서 ‘그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를, (24ㄴ)은 ‘방에 눕는’ 행위의 결과로서 ‘그가 방에 누워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따라서 이때의 ‘있다1’은 (어떤 행위의) 결과 상태, 구체적으로는 (X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X해 있는 상태(X는 본용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4) ㄱ.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

ㄴ. 그는 방에 누워 있다.

그런데 (24)에서 ‘있다1’이 표현하는 ‘결과 상태’ 또한 주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그 상태는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있다1’이 (25)에서와 같이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리고 이때 ‘있다1’은 결과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이하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를 나타낸다.²⁴⁾

20) 앞서 살펴보았듯이 ‘있다’가 본용언으로 쓰일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21) 본용언 ‘있다’를 동사로 본 『금성판 국어대사전』, 형용사로 본 『연세한국어사전』, 동사와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되 그 결정을 유보한 남기심·고영근(1985/1993) 등에서 보조용언 ‘있다’에 대해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것으로 본 것은 바로 그 의미 기능이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2) 본 연구에서는 보조용언 ‘있다’도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의미 특성과 활용의 양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23) 배주채(2000)은 활용의 차이를 근거로 ‘있다1’과 ‘있다2’ 각각에 대해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것으로 본 유일한 연구(다만 이후 양정석(2012)에서도 이를 받아들임)이다. 그러나 배주채(2000)에서는 활용의 차이는 제시했지만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각각 어떤 구체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활용의 양상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했다. ‘사전 기술’을 표방했지만 미시구조에 뜻풀이 없이 예문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바로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4) 이는 본용언 ‘있다’의 경우와 유형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25) ㄱ. 의자에 {그냥, 계속} 앉아 있어라.
 ㄴ. 너는 방에 {그냥, 계속} 누워 있어라.

(27)에서처럼 동사 ‘있다1’은 ‘지금, 한 시간 후’ 등 어느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는 같이 쓰이기 어렵지만, 조사 ‘부터’와 결합하여 어느 기간의 시작으로서의 시점을 나타낼 때에는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리고 (27ㄱ)과 같이 형용사 ‘있다1’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길이가 전제될 때에는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이하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를 나타내는 (27ㄴ)의 동사 ‘있다1’과 대비된다.

- (26) ㄱ.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cf) 나는 지금부터 의자에 앉아 {있는다, *있다}.
 ㄴ. ?나는 한 시간 후에 의자에 앉아 있다.
 cf) 나는 한 시간 후부터 의자에 앉아 {있는다, *있다}.
 (27) ㄱ.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 의자에(만) 앉아 있다.
 ㄴ.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 의자에(만) 앉아 있다.

이와 같이 ‘있다1’은 형용사로 쓰여서 ‘결과 상태’, 혹은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동사로 쓰여서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에는 품사가 다른 만큼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용,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²⁵⁾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28) 형용사 ‘있다1’의 활용

- ㄱ.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너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구나.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
 ㄴ.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 않다.
 그도 지금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다.
 ㄷ. 그는 아직 의자에 못 앉아 있다.
 *그는 아직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다.

(29) 동사 ‘있다1’의 활용

- ㄱ. 그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다.
 너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는구나.
 그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는다고 한다.
 ㄴ. 그는 혼자서는 의자에 잘 앉아 있지 않는다.
 그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기는 한다.
 ㄷ. 나는 혼자서는 의자에 못 앉아 있다.
 나는 혼자서는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다.

그리고 동사로서의 ‘있다1’에는 (30)과 같이 ‘-겠-, -을게, -을래, -오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이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하며, ‘-어라, -자’ 등의 어미가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한다.

- (30) ㄱ. 나는 의자에 앉아 {있겠다, 있을게, 있을래, 있으마, 있으려고 한다}.

25) (28ㄷ)과 같이 짧은 부정문에서는 ‘있다1’이 형용사로 쓰일 때에도 ‘못’ 부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못’이 ‘앉아 있다’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앉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장은 ‘[못 앉은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28ㄷ)은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부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능력’에 의한 부정을 뜻하는 (29ㄷ)과는 다르다. ‘못’ 부정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남기심·고영근(1985/1993:367-369)을 참조할 수 있다.

ㄴ. 의자에 앉아 {있어라, 있다}.

다음으로 ‘있다2’를 살펴보자. ‘있다2’는 ‘진행’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이렇게 보면 그 의미 특성은 본질적으로 동작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 ‘있다’가 동사와 형용사를 겸한다고 본 선행 연구에서 ‘있다2’를 동사로 본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리고 (31)에서 알 수 있듯이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든 동사처럼 활용을 하든 관계없이 ‘있다2’가 쓰인 문장은 논리적으로 진행의 상적 의미를 갖는다.

(31) ㄱ.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ㄴ. 책을 읽고 있어라.

그러면 (31)에서 똑같이 진행의 상적 의미를 갖는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있다2’도 기본적으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31ㄱ)인데,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31ㄴ)로서의 용법도 갖는다고 본다. 진행은 본질적으로 동작성을 띤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은 일종의 ‘상태’로도 인식할 수 있다. 모든 행위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료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이를테면 진행 중인 상태인지, 완료된 상태인지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있다2’ 구문을 (32)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2’가 ‘상태 진술’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 임흥빈(1975/1998:614-615)을 주목할 수 있다.²⁷⁾

(32) ㄱ. 차를 타고 있다. (=차를 타는 상태에 있다.)

ㄴ.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는 상태에 있다.)

‘있다2’는 바로 이와 같은 인식, 곧 진행에 대한 상태로서의 인식에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갖는다. 물론 본용언 ‘있다’, ‘있다1’과 마찬가지로 ‘있다2’도 단순히 상태(진행 상태, 혹은 진행 상태의 지속(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형용사로서의 용법을, 행위(진행 상태의 지속(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동사로서의 용법을 갖는다.²⁸⁾

(33) ‘있다2’의 의미 기능과 품사

ㄱ. 형용사

-‘진행 상태’: 어떤 행위가 진행되는 상태

-‘진행 상태의 지속(상태)’: (어떤 행위의) 진행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ㄴ. 동사

-‘진행 상태의 지속(행위)’: (어떤 행위의) 진행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

이와 같이 ‘있다2’는 의미 기능과 품사가 다른 만큼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용,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²⁹⁾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³⁰⁾

(34) 형용사 ‘있다2’의 활용

26) 이는 ‘(-고) 있다’를 보조형용사로 본 최현배(1937/196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7) 이 밖에 민현식(1999:142)에서도 “종래 ‘-아 있다’는 대개 상태 의존용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용어는 너무 막연하여 예컨대 진행도 상태라 볼 수 있기에 상태 아닌 것이 없으므로 ….”(민현식 1999:142,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라고 하여 진행도 상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28) 형용사로서 ‘상태’, 혹은 ‘상태의 지속(상태)’이라는 뜻을, 그리고 동사로서 ‘상태의 지속(행위)’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은 본용언 ‘있다’, ‘있다1’과 다르지 않다. 다만 ‘있다2’는 ‘진행 상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존재 상태’와 관련되는 본용언 ‘있다’, ‘결과 상태’와 관련된 ‘있다1’과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이 유형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있다2’의 의미 기능과 품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시 하지 않고 본용언 ‘있다’, ‘있다1’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한다.

29) (34ㄷ)에서 짧은 부정문이 성립하는 것은 ‘있다1’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앞의 것(주23)으로 대신한다.

30) 동사 ‘있다2’의 쓰임은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다(충청일보, 2013.3.19), 네티즌은 “집안에서는 편하게 있고 있는구나” …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충청일보, 2012.12.7), 금촌시장 상인들도 외부의 도움만 바라고 있지는 않는다(동아일보, 2013.6.25), 자기도 꿈을 갖고 살고 있지만 백연이나 아버지처럼 꿈을 살고 있지는 못한다(경향신문, 1964.11.9.)’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ㄱ.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너는 지금 책을 읽고 있구나.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고 한다.
- ㄴ.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지 않다.
그도 지금 책을 읽고 있기는 하다.
- ㄷ. 그는 아직 책을 못 읽고 있다.
*그는 아직 책을 읽고 있지 못하다.

(35) 동사 '있다2'의 활용

- ㄱ. (강의가 없을 때에는)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다.
(강의가 없을 때에는) 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구나.
(강의가 없을 때에는) 그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다고 한다.
- ㄴ. (강의가 없을 때에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고 있지는 않는다.
(강의가 없을 때에는) 나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기도 한다.
- ㄷ. (강의가 없을 때에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못 읽고 있다.
(강의가 없을 때에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고 있지는 못한다.

그리고 동사로서의 '있다2'에는 (36)과 같이 '-겠-, -을게, -을래, -오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을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려, -자' 등의 어미를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있다.

- (36) ㄱ. 나는 밥을 먹고 {있겠다, 있을게, 있을래, 있으마, 있으려고 한다}.
- ㄴ. 밥을 먹고 {있어라, 있자}.

한편 '있다2'는 (37)과 같이 '결과 상태'와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갖는 때도 있다. 이는 본용언이 '감다, 끼다, 타다' 등 비교적 짧은 순간에 끝나는 행위를 나타내며, 또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재귀적(reflexive)이기³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눈을 감거나, 반지를 끼거나, 차를 타는' 행위가 시작해서 끝나기까지의 아주 짧은 순간도 진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37)도 '진행 상태'와 관련된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³²⁾

- (37) ㄱ. 눈을 감고 {있다, 있어라}.
- ㄴ. 반지를 끼고 {있다, 있어라}.
- ㄷ. 차를 타고 {있다, 있어라}.

(37)과 같이 '결과 상태'와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가짐으로써 '있다2'는 결과적으로 '있다1'의 빈자리를 일부 대신하는 셈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대국어에서 '있다1'은 타동사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을 갖는다.³³⁾ 따라서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 상태는 '있다1'로는 표현할 수 없다(*감아 있다, *끼어 있다, (버스를) *타 있다).

4. 결론

본용언이든 보조용언이든 '있다'를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활용형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선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라고 본다. 그리고 보조용언

31) 이들 동사의 재귀적 속성에 대해서는 이남순(1981/1998), 고영근(2004), 김윤신(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밖에 '알다, 잇다'와 같은 심리달성동사(김윤신 2004)들에 결합할 때에도 '있다2'는 '결과 상태'와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갖는다.

32) '옷을 입고 {있다, 있어라}.'와 같은 예에서 이와 같은 중의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33) '있다1'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에는 타동사에도 결합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결합하지 못한다. '있다1'의 결합과 그 제약에 대해서는 임홍빈(1975), 정태구(1994), 한동완(2000), 정언학(2002ㄱ,ㄴ), 고영근(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있다’의 품사 설정에서 제기되는, 본용언 ‘있다’와는 또 다른 어려움은 활용 양상의 차이가 의미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 있다(있다1)’는 형용사로, ‘-고 있다(있다2)’는 동사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있다’는 본용언이든, 보조용언 ‘있다1’이든, ‘있다2’든 모두 ‘상태’, 혹은 ‘상태의 지속(상태)’(=상태가 지속됨)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로, 그리고 ‘상태의 지속(행위)’(=상태를 지속함)라는 뜻을 갖는 동사로 함께 쓰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그 뜻이 본용언 ‘있다’는 ‘존재 상태’와, ‘있다1’은 ‘결과 상태’와, ‘있다2’는 ‘진행 상태’(그리고 일부 타동사의 경우 ‘결과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를 요약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ㄱ. 본용언 ‘있다’

①형용사: 존재 상태, 존재 상태의 지속(상태)

②동사: 존재 상태의 지속(행위)

*단, 어느 하나의 품사로만 쓰일 때 갖는 다른 의미는 본문의 기술로 대신함.

ㄴ. 보조용언 ‘(-어) 있다(있다1)’

①형용사: 결과 상태,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

②동사: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

ㄷ. 보조용언 ‘(-고) 있다(있다2)’

<진행 상태>

①형용사: 진행 상태, 진행 상태의 지속(상태)

②동사: 진행 상태의 지속(상태)

<결과 상태>

①형용사: 결과 상태,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

②동사: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

한편 본용언 ‘있다’, ‘있다1’, ‘있다2’는 모두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이므로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용,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동사에는 ‘-겠-, -을게, -을래, -오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이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라, -자’ 등의 어미가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한다.

▶ 참고문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국어 문법의 탐구』(남기심 편, 태학사) 3, 99-127.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근수(1947), 『중학 국문법책』, 문교당 출판부.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1-71 재
록, 탑출판사.
- 김민수 외 3인편(1992),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탑출판사.
- 김승곤(2009), 『21세기 우리말본 연구』, 도서출판 경진.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43-65쪽.
- 김정남(1998/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도원영(2002),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 경성: 보성전문학교.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1-48 재록, 탑출판사.
- 박승빈(1935), 『조선어학』, 경성: 조선어학연구회,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50
재록, 탑출판사.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국어학회, 93-117쪽.
- 박지홍(1981), 『우리현대말본』, 문성출판사.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쪽.
- 배주채(2000),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성심어문학회, 223-246쪽.
- 서정수(1994/1996), 『국어문법(수정 증보판)』, 뿌리깊은나무.
- 성광수(1976), “존재(동)사 「있다」에 대한 재고,” 『한국어문논총(우촌강복수박사회갑기념논문집)』(우촌강복
수박사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형성출판사), 109-123쪽.
- 손세모들(1994/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신선경(1997/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 심의린(1935),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경성: 조선어연구회.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77), 『역대한국문법대
계』 1-59 재록, 탑출판사.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박이정.
- 양정석(2012), “‘느’ 분석론과 ‘있다’, ‘없다’의 문제”, 『한글』 296, 한글학회, 81-122쪽.
-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유현경(2006), “형용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남기심 외 12인, 커뮤니케이션북스), 147-196쪽.
- 이남순(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이남순(1998), 『시제·상·서법』, 월인,
7-102 재록.
- 이상억(1970/1999),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집문당.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승녕(1956ㄱ), 『중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89 재
록, 탑출판사.
- 이승녕(1956ㄴ), 『고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90 재
록, 탑출판사.
- 이승녕(1968),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을유문화사.
- 이완웅(1929),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경성: 조선어연구회.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6), 『역대한국문법대
계』 1-40 재록, 탑출판사.
- 이익섭(2005), 『한국어문법』, 서울대 출판부.
- 이인모(1968), 『(인문계 고등학교)새문법』, 영문사.

- 이주행(2000/2001), 『한국어 문법의 이해(개정판)』, 월인.
- 이희승(1950),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이희승(1956), “존재사 「있다」에 대하여-그 형태요소로서의 발전에 대한 고찰-”, 『논문집』(서울대) 3, 17-47.
- 임병민(2010), “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 임홍빈(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논문집』 8, 국민대, 13-36쪽.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1-문장 범주와 굴절』, 태학사, 593-621 재록.
- 정언학(2002ㄱ), “중세국어 보조용언 연구-‘V-어 V’, ‘V-고 V’ 구성을 대상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정언학(2002ㄴ), “-고 있다’ 구성의 문법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진단학보』 94, 진단학회, 167-203쪽.
- 정인승(1959), “우리말의 씨가름(품사 분류)에 대하여”, 『한글』 125, 한글학회, 32-43쪽.
- 정인승(1968), 『(인문계 고등학교)표준문법』, 계몽사.
- 정태구(1994),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24, 국어학회, 203-230쪽.
-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세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 최호철(1993), “현대 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의소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한글학회 편(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 한동완(2000), “-어 있-’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257-288쪽.
- 허웅(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고친판)』, 샘 문화사.
- 황화상(2011/2013), 『현대국어 형태론(개정판)』, 지식과 교양.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에 대한 토론문

박동근(건국대학교)

‘있다’의 품사 처리는 국어의 품사 연구의 대표적인 쟁점 사례 가운데 하나로 연구자의 발표 내용처럼 다양함(또는 가능한 모든) 논의들이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있다’의 품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가 통용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어차피 품사 통용이 실제하는 바, 동사 용법의 ‘있다’를 구태여 형용사의 특이형으로 본다고 해서 문법 기술의 경제성 면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 오늘 발표자의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논의들에 대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토론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몇몇 해석에 대한 다른 가능성이나 내용상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발표에서 연구자는 품사의 설정이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2) 그는 집에 있다. [존재 상태, 존재 상태의 지속(상태)(형용사)]

(13) (우리는 나갔다 올 테니) 너는 {그냥, 계속} 집에 있어라 [존재 상태의 지속(행위)]

본용언 ‘있다’와 관련해서 동사 ‘있다’가 갖는 존재로서의 상태성은 보통의 형용사들이 갖는 상태성과 달리 주체의 의지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로서 만들어져 지속하는 ‘행위’로 이를 ‘존재 상태의 지속(행위)’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 언어를 좀더 간단히 조정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동사의 의미 해석 자질로 [상태]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존재]라는 속성은 그 자체가 동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cf. 존재하다 ν). 즉 (13)의 ‘집에 있어라’라에서 [존재]란 ‘상태의 지속’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작에 반하는 또 다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사로서의 ‘있다’의 의미는 ‘존재 상태의 지속(행위)’보다 [존재 행위의 지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둘째, 발표자는 품사를 판단하는데 형태보다 의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진행의 상적 의미를 갖는 문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진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조용언 ‘-고 있다’와 관련해서, 진행은 본질적으로 동작성을 띄지만(동사), ‘상태’로도 인식할 수 있다(형용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 형용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1) ㄱ.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형용사]

ㄴ. 책을 읽고 있어라. [동사]

(32) ㄱ. 차를 타고 있다. (=차를 타는 상태에 있다)

ㄴ.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모든 동사를 잠재적인 형용사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cf. "우리의 태극양자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다")

즉, 동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들 (예를 들어 ‘-니다, 명령어미, 청유어미 등)은 동사임을 검증하는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동사 표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형용사의 의미로 과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한 다음 (37)의 ‘-고 있다’ 구문에서 ‘있다’는 본용언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 (37) ㄱ. 눈을 감고 있다.
ㄴ. 반지를 끼고 있다.
ㄷ. 차를 타고 있다.

【 2분과 발표 】

池錫永 『兒學篇』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

-이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준환(창원대 국문과)

<차례>

1. 도입
 2. 序의 내용과 국문 표기 원칙 검토
 3. 자음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
 4. 모음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
 5. 마무리
- 참고문헌

1. 도입

이 글은 1908년(隆熙 2년) 2월 2일에 龍山 印刷局에서 印刷를 하고 2월 3일에 廣學書舖와 大東書市에서 發行하여 發賣한 池錫永의 『兒學篇』의 한자 뜻풀이와 한자음에 반영되어 있는 표기 및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여 기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兒學篇』은 본래 茶山 丁若鏞이 편찬한 책이다. 따라서 순수 池錫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池錫永의 『兒學篇』은 茶山の 『兒學篇』을 저본으로 하여 학습 대상이 되는 漢字를 가운데에 배치하고 여기에 漢字音의 所屬韻을 표시하고, 田龍圭의 도움을 받아 華音을 주기고, 대응하는 일본어 단어와 한자음을 片假名(가타가나)와 한글로써 제시를 하고, 대응하는 영어 단어와 발음을 한글로써 제시를 하였다.¹⁾ 이렇게 한자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4개 국어의 대응 관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 책으로서 이 책은 茶山の 『兒學篇』과는 전혀 다른 책이 되었다. 이런 구조를 지닌 이 책은 애국 계몽기 때에 漢字를 매개로 하여 아이들이 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池錫永의 소망을 담아 편찬한 것으로 교육용으로 의미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茶山에 의해 편찬된 『兒學篇』은 전라도 康津에서 아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해 편찬한 것으로, 茶山의 高孫子인 丁奎英이 편찬한 『俟菴先生年譜』에 따르면 1804년 봄에 『兒學篇』의 訓義가 완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정재영 2002: 11). 그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책들을 보면 ①강경훈 소장본(1813년 필사), ②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소장본, ③규장각 소장본이 널리 알려져 있다(정재영 2002, 한성우 2010). 이 중 규장각 소장본에는 상권 후반부터 한자의 음훈이 필사되지 않은 필사본 자료가 하나 더 있다(정재영 2002: 16). 이외에 『名物小學』이라는 이름이 붙은 홍윤표 교수 소장본이 더 있는데, 이 자료는 현재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으나 아직 해제가 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연구도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이들 이본 및 訓義自序와 千文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재영(2002)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이본 간의 표기와 음운 현상에 관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兒學篇』에 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兒學篇』의 이본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제시해 두어서 한눈에 《강경훈본》, 《한중연본》, 《규장각본》, 《지석영본》의 뜻풀이와 한자음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표를 보면 《규장각본》의 뜻풀이와 한자음은 池錫永의 『兒學篇』과 일부 차이를 제외를 하고는 대체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池錫永이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책을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던 데에는 《규장각본》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언어에서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재영(2002)에서는 《규장각본》이 19세기 말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池錫永의 『兒學篇』에 대해서는 한성우(2010)에서 중국어의 재발견, 일본어의 인식, 영어의 수용 및 동아시아의 언어 교류에 초점

1) 이 책의 刊記를 보면 著作者는 洸水 丁若鏞, 注釋 兼 發行者는 太原 池錫永으로 되어 있어, 池錫永이 이 책이 분명히 丁若鏞의 것을 가지고서 注釋을 달아서 발행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을 맞추어서 연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고 분류 자료, 한자음 비교표, 한일 표기 대응표, 한영 표기 대응표를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이 자료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여 놓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덕택에 『兒學篇』을 보다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이 문헌에 반영된 언어적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池錫永의 『兒學篇』을 중심으로 하여 표기 및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음운론적 특징은 표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국어의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하는 데에 최대한 이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도 주목하도록 하겠다.²⁾

2. 序의 내용과 국문 표기 원칙 검토

2.1. 序의 내용

序는 「閔丙奭의 序」와 「池錫永의 序」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 순서에 따라서 「閔丙奭의 序」와 「池錫永의 序」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閔丙奭의 序」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周興嗣의 『千字文』이 깨우침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서는 蒙學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되었지만 이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茶山の 『兒學篇』을 가지고서 蒙學을 위한 교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둘째, 기존의 蒙學 교재의 뜻풀이에는 문제가 있어서 ‘宙’를 ‘屋’과 같이 읽고, ‘宿’을 ‘睡’와 같이 읽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뜻풀이는 몽롱하고 모호한 것으로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셋째, 田龍圭와 같이 글자를 정성들여 옮겨 적고 국문, 한문, 일문, 영문을 아울러 제시하여 음과 뜻을 풀이하고 古篆의 글자를 붙여서 蒙學을 위해 처음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첫째와 둘째는 기존에 蒙學을 위하여 썼던 교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내용인 즉, 『千字文』과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아이들의 蒙學을 위해서 漢字를 선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한자들의 뜻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ㅍ스풀이를 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작업을 새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에서 쓰는 말도 더불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兒學篇』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와 같은 字釋類 문헌에서의 한자 선별 방식과 뜻풀이를 『兒學篇』에서는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한자 선별 방식에 관해서는 김태오(1993), 정재영(2002), 정일균(2012)에서 다루어져 있어서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자의 뜻풀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천착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³⁾

(2) 「池錫永의 序」

「池錫永의 序」는 「閔丙奭의 序」 다음에 제시된 것으로 池錫永의 『兒學篇』을 편찬한 구체적인 목적과 편찬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池錫永의 『兒學篇』이 茶山の 『兒學篇』을 가지고서 한 것이며 그 내용은 인간 세상에서 늘 쓰는 것을 有形과 無形으로 나누는 것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 나루터와 뗏목의 구실을 해 줄 수 있는 것임이 드러나 있다. 둘째, 개항을 하여 서구 및 아시아와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부족하고 견문이 적음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취하여 그들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려는 때에 語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중국, 서양, 일본의 音義로써 아이들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셋째, 田龍圭가 서로 비교

2) 다만 홍윤표 교수 소장 『名物小學』은 아직 그 특징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탓에 이번엔 이용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名物小學』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를 통하여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3) 그러나 우선 음운론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서 다루기로 하겠다. 『兒學篇』의 뜻풀이의 특징은 이 책의 序에 실린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 시기의 자석류 문헌과 비교할 때 뜻풀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양상을 살피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고찰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고 검토하여 수개월을 열람한 결과 완성을 하여 漢字 한 글자를 가지고서 古今, 東西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釋義를 한 것이 드러나 있다.

이를 보면 池錫永이 『兒學篇』을 편찬한 것은 池錫永이 茶山の 『兒學篇』의 實用性を 높이 평가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애국 계몽을 위해서는 語學이 중요한 것이므로 漢字를 매개로 하여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아울러 생각하고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편찬 작업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찬 작업에 핵심적인 구실을 한 사람이 바로 田龍圭임이 드러나 있다.

田龍圭는 池錫永이 校長으로 있던 醫學校에서 1900년 12월 11일부터 1904년 12월 8일까지 敎官을 지내고 1904년 12월 8일부터 1907년 3월 14일까지는 醫學校 書記를 지낸 사람으로 오랫동안 池錫永과 醫學校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다. 池錫永이 醫學校 校長으로 재임한 기간이 1899년 3월 28일부터 1907년 3월 14일까지이므로 池錫永 다음으로는 醫學校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다. 田龍圭는 본래 대한제국 때에 나라 財政을 맡아보던 度支部에서 主事로 일을 했던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의 학력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醫學校 敎官을 할 정도로 엘리트였음을 알 수 있고, 池錫永이 주도하여 1907년 2월 1일에 만든 國文研究會에서 研究員 및 書記로 일을 할 정도로 국문, 한문, 외국어뿐만 아니라 근대적 행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兒學篇』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의 양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田龍圭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언어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 상태에서는 田龍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양상을 잘 정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한다.

2.2. 국문 표기 원칙

국문 표기 원칙은 「大韓國文」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新訂國文』(1905)의 내용 가운데서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은 것이다. 따라서 池錫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함없이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大韓國文」 이름으로 실린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번호는 필자가 매긴 것임).

1. 新訂初中終三聲辨(새롭게 고친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 소리)

(1) 初聲終聲通用八字(초성 종성에 두루 쓰는 여덟 자)

ㄱ: 기읍, ㄴ: 니은, ㄷ: 디을,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읏, ㅇ: 이응

ㄷ字取帶字之釋俚語爲聲而稍輕(ㄷ자는 ‘帶’의 釋에서 딴 것으로 항간에서 흔히 쓰이는 소리로 작고 가볍다.)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8音은 用於初聲(초성에 쓰고)

읍, 은, 은, 을, 음, 읍, 읏, 응 8音은 用於終聲(종성에 쓴다.)

(2) 初聲獨用六字(초성에만 쓰는 여섯 자)

ㅈ: 지, ㅊ: 치, ㅋ: 키, ㅌ: 티, ㅍ: 피, ㅎ: 히

ㅌ字取塵字之釋俚語爲聲(ㅌ자는 ‘塵’의 釋에서 딴 것으로 항간에서 쓰이는 소리이다.)

(3) 中聲獨用十一字(중성에만 쓰는 열한 자)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ㅟ: 이으슴音, ㅣ: 이

2. 新訂合字解(새롭게 고친 글자를 합쳐 쓰는 방법)

初聲ㄱ字를 中聲ㅏ字에 습하면 가字를 成하고 終聲ㅇ字를 가字에 습하면 강字가 되니 餘倣此(초성 ㄱ字를 중성 ㅏ字에 합하면 가字를 이루고 종성 ㅇ字를 가字에 합하면 강字가 되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

3. 新訂高低辨(새롭게 고친 높낮이)

4) 田龍圭와 관련된 내용은 서울대 황상익 교수의 글(2010)을 참고하였다. 이 글은 2010년 11월 15일에 프레시안에 실린 글로 「대한제국 최고 인기 수학책, 저자가 요절한 까닭은?-[근대 의료의 풍경·75] 남순희와 전용규」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근대 의료의 풍경』은 2013년에 푸른 역사에서 책으로 출판되었다.

上聲去聲은 傍加一點(我東俗音에 上去聲이 別노 差等이 無함이라)하고 平入兩聲은 無點이오 凡做語之曳聲에 亦加一點(상성 거성은 옆에 점을 하나 찍고(우리나라 속음에 상성과 거성이 별로 차이가 없음이라)하고 평성과 입성 두 성조는 점을 찍지 않는다. 무릇 말을 길게 끄는 소리에도 또한 점을 하나 찍는다.)

(1)字音高低標(한자음의 고저표)

動음즉일동, 同한가지동, 禦막을어, 魚고기어 之類

(2)做語曳聲標(말을 길게 끄는 소리의 표)

簾발럼, 足발족, 列버릴렬, 捐버릴연之類

4. 新訂名詞聯音辨(새롭게 고친 명사가 이어질 때의 소리를 나타내는 방법)

배삯 댓돌 等 名은 ㅅ字를 中間에 置하여 上下의 名詞로 하여금 障礙됨이 업시 聯讀하면 其音義가 了然하니 배ㅅ듯 매ㅅ돌之類(배삯 댓돌 따위의 이름은 ㅅ자를 가운데에 두어 위아래의 명사로 하여금 막힘이 없이 연속하여 읽으면 그 음의가 분명하니 배ㅅ듯 매ㅅ돌 따위와 같다.)

여기에서 '(1)初聲終聲通用八字'에 실려 있는 “ㄷ字取帶字之釋俚語爲聲而稍輕”이 뜻하는 바는 ‘帶’의 훈인 ‘찍’과 비교할 때 ‘ㄷ’는 작고 가볍다는 것으로 된소리와 구별되는 예상소리의 음성적인 특색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初聲獨用六字'에 실려 있는 “ㄷ字取塵字之釋俚語爲聲”는 ‘塵’의 훈이 『兒學篇』에서는 ‘찍글’로 되어 있으나⁵⁾ 향간에서는 ‘틋글~틋쓸’과 같이 ‘ㅌ’을 초성으로 하는 것을 쓰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⁶⁾

3. 자음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

3.1. 받침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받침의 표기는 ‘新訂初中終三聲辨’의 ‘(1)初聲終聲通用八字’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八終聲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乳젓 유<4ㄱ>’, ‘陸뭇 룩<7ㄱ>’, ‘廚부억 쥬/주<22ㄱ>’⁷⁾, ‘薪섭 신<10>’, ‘陽벗 양<6ㄴ>’, ‘賢콩팥 신<5ㄴ>’, ‘面낫 면<6ㄴ>’, ‘膝무릅 슬<5ㄴ>’, ‘塚놓흔무덤 총<23ㄴ>’, ‘稿집 고<15ㄴ>’, ‘田밭 전<9ㄴ>’, ‘阡밭길 천<10ㄴ>’, ‘芍함박꽃 작<11ㄴ>’, ‘藿콩닙 곱<12ㄴ>’, ‘葉닙사귀 엽<14ㄴ>’, ‘筆붓 필<24ㄴ>’, ‘姊맛누의 자<1ㄴ>’, ‘伯맛 백<2ㄴ>’, ‘呻웁쥬릴 신<38ㄴ>’, ‘嗅맛흠 후<36ㄴ>’, ‘詠웁흠 영<36ㄴ>’ 등과 같이 받침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兒學篇』에 표기된 예들을 보면 ‘ㄷ’은 받침으로 쓰이지 않아서 실제로는 七終聲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을 예를 들면, ‘陸뭇’, ‘陽벗’, ‘田밭’, ‘阡밭길’ 등은 모두 ‘ㅌ’을 末音으로 지나는 것들이므로 八終聲에 따르자면 각각 ‘陸뭇’, ‘陽벗’, ‘田밭’, ‘阡밭길’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筆붓’, ‘姊맛누의’, ‘伯맛’, ‘閉닷을’, ‘堅굳을’, ‘受밭을’은 모두 ‘ㄷ’을 末音으로 지나는 것들이므로 八終聲에 따르자면 각각 ‘筆뽏’, ‘姊맛누의’, ‘伯맛’, ‘閉닷을’, ‘堅굳을’, ‘受밭을’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이는 바와 같이 말음이 모두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중 용언의 경우는 연결을 하지 않고 분철을 한 탓에 생겨난 표기 양상이다. 따라서 받침 표기의 원칙은 八終聲이었으나 실제로는 근대국어 시기의 표기법의 전통을 따라서 七終聲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呻웁쥬릴’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 7종성의 범위 내에서 표기를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嗅맛흠’, ‘詠웁흠’에서 보이는 표기 양상도 7종성의 범위 내에서 종성을 표기하고자 하는 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7종성법으로 표기하고 있는 양상은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들 문헌에서도 ‘傍겻<강, 한>’⁸⁾, ‘表겻<강, 한>’, ‘處긔<강, 한>’, ‘鼎숯<강, 한>’, ‘葉닙<강, 한>’, ‘萸꽃뽏침

5) 《강경훈본》, 《한중연본》, 《규장각본》, 《지석영본》 모두 이렇게 ‘찍글’로 되어 있다.
 6) 이 둘은 공교롭게도 모음으로 ‘ㄴ’을 지니는 어휘를 가지고서 각각 ‘디’와 ‘티’를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를 보면 ‘디’, ‘티’, ‘띠’와 같이 초성을 지니고 있는 음절에서 모음 ‘ㄴ’은 실제로는 ‘ㄴ’로 발음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7) 한자음 표시에서 / 앞의 것은 규범음, 뒤의 것은 현실음을 나타낸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8) 앞으로 용례 제시에서는 문헌의 약호를 써서 《강경훈본》→《강》, 《한중연본》→《한》, 《규장각본》→《규》, 《지석영본

《강》~꽃바침《한》, ‘田밭《강, 한》’, ‘情뜻《강, 한》’ 등과 같이 7종성에 따라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나 ‘閉다들《강, 한》’, ‘堅구들《강, 한》’, ‘受바들《강, 한》’과 같이 용언의 경우는 연결 표기가 되어 《규장각본》, 《지석영본》에서 보이는 표기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漢字音 가운데 받침을 갖는 경우는 陽聲韻尾는 ‘ㄴ, ㅁ, ㅇ’, 入聲韻尾는 ‘ㄷ, ㄹ, ㅂ’의 경우이므로 이들은 모두 ‘初聲終聲通用八字’에 포함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어의 받침 표기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된다.

3.2. 합용 병서의 사용

『兒學篇』의 초성과 종성 표기에는 합용 병서가 사용되어 있다. 초성에 쓰인 합용 병서는 ㅅ계 합용 병서만 보이는데, 이것은 語頭와 非語頭에서 모두 쓰이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ㄷ’, ‘ㄷ’, ‘ㅅ’, ‘ㅅ’, ‘ㅅ’이 고루 나타난다.⁹⁾ 이에 해당하는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초성 합용 병서의 사용

- ①ㄷ: 頂꼭뒤 덩/정<4>, 花꽃 화<11>, 藥꽃술 예<15>, 蒂꼭지 체/체<15>, 雉똥 치<17>, 殼껍질 각<21>, 臍배꼽 제<4>, 兎토끼 토<17>, 芻솔 추<15>, 齒꼭두선이 천<12>, 椽혀사래 연<21>, 醒쌔 성<37>, 斷썩글 착<46>
- ②ㄷ: 地땅 디/지<1>, 塵찌글 진<8>, 伐제 벌<40>, 臙장싼지 천/천<4>, 糞똥 분<5>, 柴쌔나무 시<10>, 莎세 사<11>, 庭뜰 덩/정<22>
- ③ㅅ: 觀광대쌔 권/관<4>, 頰쌔 험<4>, 桑송나무 상<14>, 骨뼈 골<5>, 蓬뽕쑥 봉<11>, 蒿다복쑥 호<11>, 根뿌희 근<14>, 鬘손씻을 관<45>, 澣쌔 한<46>
- ④ㅅ: 扉문썩 비<4>, 翮썩지 격<20>, 藍쪽 램<12>, 鹹쌀 함<35>, 鬣뽕길 빈<38>, 脣썩겔 부<46>, 織쌀 직<46>
- ⑤ㅅ: 廩쌀고 림<21>, 苗썩 묘<15>, 米쌀 미<15>, 霰싸락는 선/선<6>, 茶쌔바귀 도<11>, 艾썩 애<11>, 鱖쏘가리 꺾<18>, 膽쓸개 담<5>, 射썩 샴/사<39>, 戰쌔흙 전/전<40>
- ⑥ㅅ(한자음): 雙쌍 쌍<61>, 氏성씨 시/씨<47>
- ⑦된소리 미반영: 瞋눈부름들 진<37>

이들 중에서는 ‘뉘[伐]’, ‘뉘[莎]’, ‘뉘[艾]’, ‘뉘[米]’과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ㅅ계 합용 병서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ㅅ계 합용 병서로 반영되게 된 예가 있다. 그리고 ‘꽃’, ‘껍질’, ‘쪽’, ‘쏘가리’와 같이 본래는 ‘꽃’, ‘껍질’, ‘쪽’, ‘쏘가리’와 같이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화가 된 것을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이시옷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형성된 것 ‘臍배꼽 제’와 같은 예나 선행 음절말의 받침과 후행 음절의 초성이 하나가 되어 형성된 것 ‘兎토끼 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양상이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ㅅ계와 ㅅ계 합용 병서가 모두 쓰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ㅅ계로는 ‘ㄷ’, ‘ㄷ’, ‘ㅅ’이 사용되고 있고 ㅅ계로는 ‘ㅅ’, ‘ㅅ’, ‘ㅅ’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ㅅ’은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 고루 보이나, ‘ㅅ’은 주로 《강경훈본》에서 보이고 《한중연본》에서는 ‘ㅅ’보다는 ‘ㅅ’이 훨씬 많이 쓰인다. 그리고 드문 예이기는 하나 ‘ㅅ’이 《강경훈본》에서 보이기도 한다.

(2)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의 초성 합용 병서의 사용

- ①ㅅ: 霰싸락는《강》~빠라기는《한》, 膽쓸기《강, 한》, 艾썩《강, 한》, 蓬쌔양썩《강》~썩《한》, 蒿물썩《강》~물썩《한》, 鱖썩아리《강》~쏘가리《한》, 鬘손씨슬《강》, 米뉘《강, 한》, 射뉘《강, 한》
- ②ㅅ: 扉스립썩《강》~문썩《한》, 簡대썩《강》~디썩《한》, 鹹뉘《강》~쌀《한》, 鬣뉘길《강》~썩길《한》, 斷썩을《강》~썩글《한》, 脣썩월《강》, 織뉘《강》~쌀《한》, 戰싸울《강》~싸움《한》
- ③ㅅ: 醒뉘《강》~술뉘《한》

따라서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된 것에는 이전 시기의 i)이전 시기의 ㅅ계 합용 병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ii)이전 시기의 ㅅ계 합용 병서를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한 것, iii)이전 시기에는 예상소리인 것이 된소리가 된 것을 반영한 것, iv)사잇소리를 반영한 것, v)‘토끼’와 같이 이전 시기에는 분철 표기를 하였던 것

》→《지》와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9) ‘ㅅ’은 각자병서인지 합용 병서인지 형태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나 다른 병서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에 합용 병서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을 연철 표기를 하면서 생긴 표기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한자음의 표기에서는 병서 표기는 ‘雙쌍’과 ‘氏씨’ 두 예가 보인다. 이는 지식영의 또 다른 저작인 『言文』(1909)에서도 ‘쌍쌍雙雙, 쌍슈산성雙樹山城, 쌍룡雙龍’과 ‘씨족氏族, 씨명氏名, 강씨姜氏’ 등과 같이 ‘ㅅ’이 쓰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1)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氏’는 본음으로 ‘시’가 실려 있는 반면에 ‘雙’은 본음이 따로 실려 있지 않아 차이가 있다. 따라서 ‘雙’에 대해서만 본음까지도 된소리를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리를 보인 것은 『字典釋要』(1909)의 처리와도 같은 것인데, 『字典釋要』에서 이와 같이 처리를 한 것은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따랐기 때문이다(이준환 2012나: 296-297). 그러나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는 ‘雙쌍 쌍’, ‘氏각시 시|| 성시 시’에서 보듯이 된소리로 되어 있는 것은 ‘雙’뿐이어서 <규장각본>이나 <지석영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된소리가 활발히 반영된 것과는 달리 (1)㉕의 ‘曠눈부름들’에서 볼 수 있듯이 된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예도 있다. 이 어휘는 15세기와 16세기에는 ‘부르쁘-<월석, 선가>’, 17세기에는 ‘부르쁘-<박통사> ~ 부르쁘-<마경>’, 18세기에는 ‘부름쁘-<경문> ~ 부름쁘-<오륜>’, 19세기에는 ‘부름쁘-<한불> ~ 부름쁘-<성경직해>’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에 『兒學篇』의 표기 경향에 따르면 ‘눈부름쑈’로 표기되어야 마땅한 것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불파음 뒤에서 된소리와 대립하는 예사소리가 올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된소리가 되는 현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와 같이 예사소리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종성 표기에도 많은 합용 병서가 쓰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3) 종성 합용 병서의 사용

- ①^ㄷ : 翁 늙은이 용<2ㄴ>, 土 흙 토<7ㄱ>, 槐 흙덩이 괴<8ㄱ>, 泥 즙흙 니<9ㄱ>, 葛 쑤 갈<12ㄱ>, 罍 닭의혜 시<21ㄱ>, 哲 밭을 철/철<33ㄱ>, 朱 붉을 주/주<35ㄴ>, 紅 붉을 흥<35ㄴ>, 紫 검붉을 자/자<35ㄴ>, 聰 귀밭을 총<37ㄴ>, 擻 굽을 소<38ㄴ>, 讀 읽을 독<40ㄱ>, 老 늙을 로<49ㄴ>, 淸 맑을 청/청<50ㄴ>, 淡 묽을 담<51ㄴ>
- ②^ㅁ : 少 젊을 소<49ㄴ>
- ③^ㅂ : 悲 슬허할 비<58ㄴ>, 踐 밟을 천/천<43ㄴ>, 踏 밟을 답<43ㄴ>, 蹈 밟을 도<43ㄴ>, 呻 읊쥬릴 신<38ㄱ>, 詠 읊을 영<36ㄴ>, 薄 엷을 박<50ㄴ>, 廣 넓을 광<50ㄴ>, 八 여덟 팔<61ㄴ>, 尋 여덟자 심<61ㄴ>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크게 합용 병서만 종성 표기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게 합용 병서가 쓰이게 된 것은 분철을 하거나 어간말 자음군을 밝혀 적은 결과 생겨난 것인데, 대부분은 다 용언의 표기에서 보이는 것이고, 순수 체언에서 보이는 표기는 ‘槐 흙덩이’, ‘罍 닭의혜’, ‘葛 쑤 갈’, ‘八 여덟’에서 보인다. 그리고 ‘ㅂ’ 중에는 본래 ‘ㅂ’에 속하는 것 말고도 ‘悲 슬허할’, ‘呻 읊쥬릴’와 같이 ‘ㅂ’인 것이 7종성 표기에 따라서 ‘ㅂ’으로 표기된 것도 섞여 있다. 따라서 자음군의 경우 ‘ㄹ’계 자음군에서 먼저 분철을 하는 경향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철을 하거나 어간말 자음군을 밝혀 적은 결과 종성에서도 합용 병서를 쓴 것은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에 비하면 연철이 된 예들이 상당히 많은 탓에 병서의 사용 정도는 약하게 나타난다.

(4)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의 종성 합용 병서의 사용

- ①^ㄷ : 土 흙<강, 한>, 槐 흙덩이<강, 한>, 泥 즙흙<강, 한>, 罍 닭의혜<한>, 葛 쑤<강> ~ 쑤<한>, 哲 밭<강, 한>, 朱 붉<강, 한>, 紅 붉<강>, 紫 붉<강>, 聰 귀밭<강> ~ 귀밭<한>, 擻 굽<강> ~ 굽<한>, 讀 읽<강> ~ 일<한>, 老 늙<강, 한>, 淸 맑<강> ~ 말<한>, 淡 묽<강>, 穉 못<강, 한>
- ②^ㅁ : 少 젊<강, 한>
- ③^ㅂ : 踐 밟<강, 한>, 踏 밟<강, 한>, 蹈 밟<한>, 呻 읊쥬릴<강>, 詠 읊<강> ~ 읊<한>, 八 여덟<강> ~ 여덟<한>

이 이외의 경우는 ‘ㅂ’의 경우는 ‘價 값 가<47ㄱ>’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있거나 ‘無 업슬 무<51

10) ‘토끼’가 ‘토끼’로 표기된 것은 “토끼는 삭임질은 흐되 족이 갈나지지 아니호 고로 쪼긋지 못흐다 호느니<1894 턴로 95>”와 같이 『턴로려명』(1894)에서 볼 수 있다. 이 이전의 문헌에서는 대개 ‘툃기’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 ‘툃귀’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고시조에서 “툃기 죽은 後 1면 기마즈 삼기논이<고시조, 朱문에, 海東>”에서 보듯이 ‘툃기’로 표기된 예가 보이는데, 『海東歌謠』가 1763년에 나온 歌集임을 고려하면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표기된 것이 후행하는 /ㄱ/에 동화된 후 된소리로 발음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ㄱ>와 같이 말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어 있는데,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도 이런 양상은 동일하다. ‘ㄱ’ 가운데에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예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한중연본》의 ‘葛축’과 《규장각본》의 ‘攀역매일’과 《지석영본》의 ‘攀영매일’이다. 이 둘 모두 자음군 단순화를 보여 주나 《지석영본》은 자음군 단순화 결과 살아남은 /ㄱ/이 후행하는 /ㄹ/에 의해 비음동화가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ㄴ’의 경우는 ‘坐안즐 좌<43ㄴ>’와 같이 말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어 있고, ‘ㄴ’과 ‘*’의 경우는 ‘多만을 다<54ㄴ>’, ‘失일을 실<48ㄴ>’, ‘可을을 가<48ㄴ>’, ‘義을을 의<32ㄱ>’와 같이 말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면서 약화되어 있다. 이런 양상은 《강경훈본》에서는 ‘坐안즐’, ‘多만홀’, ‘失일홀’, ‘可을홀’, ‘義을을’, 《한중연본》에서는 ‘坐안질’, ‘多만홀’, ‘失일을’, ‘可을홀’, ‘義을을’로 나타나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하겠다.

3.3. 용언의 관형사형 표기

『兒學篇』의 용언의 뜻풀이는 관형사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비불규칙 활용 용언의 관형사형 표기가 아래와 같이 특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5) 비불규칙 활용 용언의 관형사형 표기

- ①단독: 寬너그러을 관<32ㄴ>, 昏어두을 혼<33ㄴ>, 辛매을 신<36ㄱ>, 癢가려을 양<41ㄱ>, 臥누을 와<43ㄴ>, 亂어즈러을 란<48ㄴ>, 害해로을 해<49ㄱ>, 輕가부여을 경<50ㄴ>, 重무거을 중<50ㄴ>, 厚두터을 후<50ㄴ>, 柔부드러을 유<51ㄱ>, 熱더을 열<51ㄴ>, 滑밋그러을 활<50ㄱ>, 汗더러을 오<51ㄴ>, 暗어두을 암<52ㄴ>, 近갓가을 근<53ㄱ>, 難어려을 난<53ㄴ>, 易쉬을 이<53ㄴ>, 美아름다을 미<55ㄴ>, 麗고을 려<55ㄴ>, 孤외로을 고<57ㄴ>, 慙붓그러을 참<59ㄱ>, 畏무서을 외<59ㄱ>, 暴사나을 포<59ㄴ>, 裕너그러을 유<60ㄱ>, 猛사나을 맹<60ㄴ>, 娛즐거을 오<60ㄴ>
- ②합성어: 湯더은물 탕<63ㄱ>
- ③파생어: 懼두려어할 구<58ㄴ>, 羨부러어할 선/선<59ㄴ>

이와 같은 표기 양상은 《규장각본》에서 보이는 양상과 같다. 그리고 《강경훈본》이나 《한중연본》에서도 이런 양상이 일부 나타난다. 따라서 『兒學篇』의 여러 이본에서 이런 경향은 상당히 널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두 이본에서는 비불규칙 활용형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이 일관되게 비불규칙 활용 용언의 관형사형 표기를 ‘X우-’ 또는 ‘X오-’ 형이 아닌 ‘X으-’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6)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의 비불규칙 활용 용언의 관형사형 표기

- ①단독: 寬너그러을<강>~너그러을<한>, 昏어두을<강>~어두을<한>, 辛미을<강, 한>, 癢가려을<강, 한>, 臥누을<강, 한>, 亂어즈러을<강>~어지어을<한>, 害히을<강>~히로을<한>, 輕가벼을<강>~가부여을<한>, 重무거을<강, 한>, 厚두터을<강>~두터을<한>, 柔부드러을<강, 한>, 熱더을<강, 한>, 滑밋그러을<강>~미씨러을<한>, 汗더러을<강, 한>, 暗어두을<강>~어두일<한>, 近갓가을<강, 한>, 難어려을<강>~어려을<한>, 易쉬을<강>~쉬을<한>, 美아름다을<강>~아름다을<한>, 麗고을<강>~고을<한>, 孤외로을<강, 한>, 慙붓그러을<강>~부구러을<한>, 畏무서을<강>~두려을<한>, 暴스오나을<강>~사우날을<한>, 裕너를<강>~너그러을<한>, 猛밍널을<강>~스오나을<한>, 娛즐거을<강>~질길<한>
- ②합성어: 湯은탕<강>~성탕<한>
- ③파생어: 懼두려을<강, 한>, 羨부러을<강>~부러할<한>

심지어 어간의 끝음절이 ‘우’인 용언 어간이 직접 관형사형 어미 ‘-ㄴ/-ㄹ’과 결합할 때에도 어간의 끝음절을 ‘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를 보여 주는 예가 ‘學배을 학<40ㄱ>’인데,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는 각각 ‘비을’과 ‘비을’로 나타난다.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ㄹ’이 결합하지 않고 ‘-을’이 결합한 예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簾싸불을 파<46ㄴ>’, ‘碎부수를 쇠<55ㄴ>’이 있다.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는 ‘簾’는 모두 ‘식불’로 ‘碎’는 각각 ‘부셔질’과 ‘부세질’로 나타나서 《규장각본》과 《지석영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3.4 분철 표기

『兪學篇』에는 종전에는 연철하여 표기하던 것을 분철하여 어휘를 표기한 예가 보인다. 이들은 근대국어 시기의 분철의 확대를 잘 보여 주는 것인데,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용언의 표기에서 분철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용언의 분철 표기 양상

- ①홀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玄검을 현<35ㄴ>, 啗씹을 담<36ㄱ>, 龔귀먹을 롱<37ㄱ>, 抱안을 포<38ㄱ>, 攀더위잡을 반<38ㄴ>, 沐머리감을 목<45ㄱ>, 稼곡식심을 가<45ㄴ>, 捕잡을 포<46ㄱ>, 濁씻을 탁<46ㄴ>, 小적을 쇼/소<50ㄱ>, 曲굽을 곡<50ㄴ>, 狹좁을 협<50ㄴ>
- ②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 紅붉을 흥<35ㄴ>, 紫검붉을 즈/자<35ㄴ>, 蹈밟을 도<43ㄴ>, 呻웁쥐릴 신<38ㄱ>, 擻굵을 소<38ㄴ>, 讀읽을 독<40ㄱ>, 老늙을 로<279>, 少젊을 소<49ㄴ>, 淸맑을 청/청<50ㄴ>, 淡물을 담<51ㄴ>

이런 양상은 연철 표기가 많이 나타나는 《강경훈본》이나 《한중연본》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이본에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경훈본》에서는 연철되어 있는 것을 《한중연본》에서는 분철을 하여 제시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8)《강경훈본》과 《한중연본》의 표기 양상의 차이

- ①《강경훈본》: 握자불, 執자불, 問무를, 走다를, 燥ㄱ를, 狹조블, 廣너를, 濁흐릴
- ②《한중연본》: 握잡을, 執잡을, 問물을, 走달을, 燥말을, 狹좁을, 廣널을, 濁흘일

이와 같이 《강경훈본》보다는 후대의 본인 《한중연본》에서 보이는 양상이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에서 더욱 확대되는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어원이거나 이전 시기의 표기 관습을 고려할 때에 분철을 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이는 것에도 분철 표기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이를 보여 주는 것들이 ‘凍소낙이(<쇠낙기) 동<6ㄴ>’,¹¹⁾ ‘麤고란이(<고라니) 미<17ㄱ>’, ‘蛆구덥이 저<19ㄴ>’, ‘鎖잠을쇠(<즈물쇠) 쇠<22ㄴ>’, ‘琴검은고(<거문고) 금<32ㄱ>’, ‘晦금음(<그믐) 회<34ㄱ>’, ‘非글을(<그를) 비<32ㄴ>’, ‘否글을 부<48ㄴ>’, ‘行 단일(<다닐) 행<35ㄱ>’, ‘教갈아칠(<ㄱ르칠) 교<44ㄴ>’, ‘簸싸불을(<싸보를) 파<48ㄴ>’ 등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어간에 있는 격음을 ‘평음+ㅎ’의 연쇄로 분철하여 나타내는 경향이 널리 보인다. 이는 분석 표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정재영 2002: 33).

(9)격음을 ‘평음+ㅎ’의 연쇄로 분철하여 표기하는 양상

- ①《규장각본》.《지석영본》: 塚놓흔무덤 총<23ㄴ>, 俯굽흐릴 부<34ㄴ>, 嗅맛흘 후<36ㄱ>, 詠웁흘 영<36ㄴ>, 報갑흘 보<39ㄱ>, 痛압흘 통<41ㄱ>, 高놉흘 고<50ㄴ>, 淺엿흘 천<51ㄴ>, 深깊흘 심<51ㄴ>, 散훗흘 산<52ㄱ>, 同갓흘 동<54ㄴ>, 悲슬허할 비<58ㄴ>
- ②《강경훈본》.《한중연본》: 俯굽푸릴《강》, 嗅맛흘《강》~니뭇틀《한》, 報갑흘《강》~갑풀《한》, 痛압흘《강》~압풀《한》, 淺엿흘《강》~얏틀《한》, 深깊흘《강, 한》, 高놉흘《강, 한》, 散훗흘《강》~훗틀《한》, 同갓흘《강》~갓틀《한》, 詠웁흘《강》~웁풀《한》

이를 보면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도 격음을 ‘평음+ㅎ’의 연쇄로 분철하여 표기하는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강경훈본》에 비해 《한중연본》에서는 중철 표기로 나타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3.5. 구개음화 및 구개음화 관련 음운 현상

근대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음운 현상이라 하면 구개음화 및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의 활음 /j/의 탈락 또는 첨가를 들 수 있다.

ㄷ구개음화는 《지석영본》에서는 뜻풀이나 한자음에서 모두 거의 다 구개음화된 형태가 반영되어 있다. 그

11) 괄호 안에 제시된 것이 어원이거나 이전 표기이다.

러나 일부 구개음화가 되지 않은 형태가 반영되어 있기도 한데, 《규장각본》에서도 이런 예가 있다. 이에 비해서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는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데(정재영 2002: 33-34), 《강경훈본》에서는 구개음화된 것이 《한중연본》에서 구개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10)구개음화의 반영 양상

- ①《지석영본》의 구개음화의 예: 天하날 텃/천<1>, 地땅 디/지<1>, 弟아우 데/제<1>, 娣제수 데/제<1>, 仲버금 중/중<2>, 帝황제 데/제<2>, 狄북되 덕/적, 頂꼭뒤 덩/정<4>, 體몸 테/체<6>, 汀물사 덩/정<8>, 鐵식우쇠 털/철<10>, 竹대 죽/죽<14>, 畜륙축 추/추<20>, 殿전각 댐/전<21>, 柱기둥 주/주<21>, 寺절 스/사<21>, 堂대청 당<21>, 廚부엌 주/주<22>, 釘못 덩/정<22>, 櫟접시 덩/접<12>, 忠충성 중/중<32>
- ②비구개음화의 예: 梯사다리 데/데<22>《지》, 地땅 디《규》
- ③《강경훈본》과 《한중연본》의 비구개음화의 예: 地따 디《강, 한》, 弟아우 데《강》~아우 데《한》, 娣제수 데《강》~아우동서 데《한》, 姪족하 딜《강, 한》, 梯기음풀 데《강》~기음풀 더《한》, 涕코물 테《강》~코물 테《한》
- ④《강경훈본》과 《한중연본》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 汀물가 정《강》~물가 덩《한》, 境지경 경《강》~디경 경《한》, 界지경 계《강》~디경 계《한》

이를 보면 한자음은 ‘天하날 텃/천, 帝황제 데/제, 鐵식우쇠 털/철’과 같이 구개음화가 되지 않은 음과 구개음화가 된 음 두 가지가 제시된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구개음화가 되지 않은 것은 규범음인데, 이들은 舌頭音에 속하는 聲母의 한자음이다. 반면에 활음 /j/의 보유 여부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仲버금 중/중, 竹대 죽/죽, 廚부엌 주/주’ 등은 舌上音에 속하는 한자음이다. 따라서 舌頭音과 舌上音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처리는 근대 운서의 한자음과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자음을 제시할 때의 경우이고 뜻풀이에 쓰인 경우에는 ‘娣제수, 帝황제, 殿전각, 堂대청, 櫟접시, 畜륙축, 忠충성’에서 보듯이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전혀 없으며 활음 /j/도 모두 탈락을 시켜 현실음과 일치하는 표기를 해 놓았다.

(10)①을 보면 《지석영본》에서는 구개음화의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梯사다리 데’에서 보듯이 활음 /j/가 떨어진 한자음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강경훈본》에서 보이는 ‘涕코물 테’와 동일한 유형이다. 그리고 /s, ㅅ, ㅆ/ 아래에서 활음 /j/는 뜻풀이나 현실음에서는 모두 떨어진 형태로 나오고 규범음에서만 떨어지지 않은 형태로 실려 있다. (10)에서 구개음화된 것들에서 활음 /j/가 탈락되어 있는 것은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 ㅅ, ㅆ/ 아래에서 활음 /j/가 탈락한 것과 잘 일치한다.

(11)구개성 자음 아래에서의 활음 /j/의 탈락

- ①/s/ 아래: 叔아자비 숙/숙<2>, 相정승 상/상<2>, 商장사 상/상<2>, 手손 슈/수<3>, 雪는 설/설<6>, 汐석수 석/석<8>, 松소나무 송/송<13>
- ②/ㅅ/ 아래: 主주인 주/주<2>, 將장수 장/장<2>, 足발 족/족<3>, 潮조수 조/조<8>, 朱붉을 주/주<35>, 章글장 장/장<39>, 饑전송할 전/전<42>
- ③/ㅆ/ 아래: 戚겨레 척/척<2>, 娼창녀 창/창<3>, 腸장판지 천/천<4>, 燭초 축/축<10>, 塚놓 혼무덤 총/총<23>, 翠푸를 취>취<35>, 臭냄새 추/취<36>

ㄷ구개음화 이외에도 ‘餼이불 금<30>’과 같이 ㄴ구개음화를 보이는 예가 있는 반면에 ‘翳닉힐 습<40>’, ‘起니러날 괴<43>’과 같이 ㄴ구개음화를 보이지 않는 예가 있다. ‘餼’은 《한중연본》에서만 ‘니불’로 나타나며, ‘翳’은 《강경훈본》은 ‘익일’, 《한중연본》은 ‘이길’로 나타나며, ‘起’는 《강경훈본》, 《한중연본》에서는 ‘일’, 《규장각본》에서는 ‘이러날’로 되어 있어서 ㄴ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있어서 문헌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마지막으로 ㄱ구개음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예가 있다. ‘紡길습 방<46>’이 이에 해당하는데 《강경훈본》, 《규장각본》, 《지석영본》에서 이 예가 모두 보인다. 이 예는 본래의 ‘질삼’을 ‘길습’으로 과도교정한 예로 ㄱ구개음화에 대한 인식과 /·/의 변화로 인한 혼란상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런 예는 《강경훈본》에서 더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獸김승 수’, ‘麤김승식기 미’가 있는데(정재영 2002: 34), 이는 18세기 초에 ‘짐승’의 구개모음화된 형태인 ‘짐승’이 쓰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구개음화와 관련된 현상이 『兒學篇』에서는 널리 보이는데, 구개성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모음 /ㅡ/가 구개모음인 /ㅣ/로 바뀌는 현상인 구개모음화 현상은 《지석영본》에서는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부 보인다.

(12)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의 구개모음화 현상

- ① 《지석영본》의 양상: 泥즌흙 니<9ㄱ>, 獸즙생 수<20ㄱ>, 牝암즙생 빈<20ㄴ>, 葛츄 갈<12ㄱ>, 徑즈럼스길 경<9ㄴ>, 鬮쯩길 빈<5ㄱ>, 嗽기츄 수<42ㄱ>, 咳기츄 해<42ㄱ>, 癩버츄 선<42ㄱ>, 亂어즈러을 란<48ㄴ>, 紛어즈러을 분<54ㄴ>, 動움즉일 동<52ㄱ>, 假거जू 가<53ㄱ>, 終마츄 종<54ㄴ>, 僞거जू 위<59ㄴ>, 勤부즈러할 근<53ㄱ>, 曾일즉 증<63ㄴ>, 荒거칠 황<61ㄱ>
- ② 과도교정이 된 예: 虧이즈러즐 휴<54ㄱ>
- ③ 다른 이본의 관련 예: 荒거칠 황<<강>>, 獸김승 수<<강>>, 坐안질 좌<<한>>, 勤부지러할 근<<한>>, 卑나질 비<<한>>, 動움지길 동<<한>>, 嬉질길 희<<한>>, 娛질길 오<<한>>, 仄기울 칙<<한>>, 增더할 징<<한>>, 憎미울 징<<한>>

《지석영본》에서 구개모음화가 적용된 예는 ‘荒거칠 황’에 그치는데, ‘虧이즈러즐’은 ‘이즈러디-’가 ㄱ구개음화된 ‘이즈러지-’ 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구개모음화 현상에 대한 과도교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구개모음화된 예로 볼 수 있다. 다른 이본에서는 《한중연본》에서 구개모음화된 예가 많이 보이며, 이에는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음에서도 ‘仄칙’, ‘增징’, ‘憎’에서 보듯이 이 현상이 보인다.

3.6. ㅎ탈락 현상

《지석영본》에서는 ㅎ말음 용언이 유성음 사이에서 표기되지 않는 예가 많이 보인다. 또한 체언에서도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표기되지 않은 예가 보인다. 『兒學篇』에서 ㅎ말음 용언 및 유성음 사이에서 /ㅎ/을 지닌 형태의 표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ㅎ탈락 현상의 양상

- ① ㅎ말음 용언: 義울을 의<32ㄱ>, 是울을 시<32ㄴ>, 可울을 가<48ㄴ>, 失일을 실<48ㄴ>, 蓄싸을 축<54ㄱ>, 多만을 다<54ㄱ>, 決물터노을 결<55ㄱ>, 好조를 호<55ㄴ>, 放노을 방<56ㄴ>, 積싸을 적<62ㄱ>
- ② 체언: 鵲부형이 휴<16ㄴ>, 檐첨아 첨<22ㄱ>
- ③ 다른 이본의 표기 양상: 多만할 다<<강, 한>>, 好조할 호<<강>>~쥬할 호<<한>>, 放노할 방<<강, 한>>, 失일할 실<<강>>~일할 실<<한>>, 可울할 가<<강, 한>>, 積쌓을 적<<강>>~싸을 적<<한>>, 鵲부형이 휴<<강, 한>>, 檐첨아<<강>>~첨하<<한>>, 爽스흰홀<<강>>

이를 보면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에서는 ㅎ말음 용언은 일관되게 ㅎ이 탈락되어 있는 반면에, 《강경훈본》이나 《한중연본》에서는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에서는 어간말의 /ㅎ/은 모음 앞에서 필연적으로 탈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경훈본》이나 《한중연본》에서는 이 양상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볼 때 ㅎ탈락 현상이 19세기말에 들어서는 거의 필수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해 준다. 그러나 《강경훈본》에서는 ‘爽스흰홀’에서 보듯이 모음 사이에서 /ㅎ/이 첨가된 예가 있어서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체언의 경우는 ‘鵲부형이’, ‘檐첨아’에서 보듯이 /ㅎ/이 음절 초에 놓인다는 점에서 용언과는 구별이 된다.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의 양상뿐만 아니라 《강경훈본》이나 《한중연본》의 양상을 볼 때 이런 환경에서의 /ㅎ/의 탈락은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형이’란 형태는 “부형이 鵲<1880 한불 338>”에서 보듯이 19세기 후반 자료 하나 더 보이며, ‘檐’에 대한 표기는 “저러지고 저러지는 처마 압 물방울을 보라 <1883 명성 28ㄱ>”에서 보듯이 19세기 후반 자료에서 /ㅎ/이 아예 탈락하고 선행 음절의 말음 /ㄹ/이 연음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나온 독본 자료에서는 ㅎ탈락 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남을 볼 때¹²⁾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의 표기는 표기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루어진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석영의 《言文》(1909)에서도 이런 결합에서 말음 ‘ㅎ’이 연음되지 못하고 ‘과 夥·만을’, ‘실 失일을’, ‘호 好·조·을’와

12) 學部에서 나온 『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5), 『신경심상소학』(1896)의 표기를 아래와 같이 /ㅎ/의 탈락이 수의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① 『국소』: 조흐니~도아햏야~도흔~조아햏는~조흔~조화햏고, 만이~만흐니라, 일혀[失]~일으면, 울흐니, 슝히[間]
- ② 『소학』: 조흔~조히
- ③ 『심소』: 울은편, 조흔~조흐며~조흔테를~조흐니~조아햏야~조와햏야, 알으시논[患], 나히, 만흐신~만흠을~만이~만히~만흐니, 더의들이

같이 탈락해 있고, 《字典釋要》(1909)에서도 ‘失일을 실’, ‘好조를 호’, ‘多만을 다’와 같이 탈락한 양상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3.7. 두음법칙

《지석영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4)두음법칙 관련 양상

- ①/ㄹ/: 閭리문 려<9ㄴ>, 鑞백철 랍<10ㄱ>, 硫류황 류<10ㄴ>, 蓼엿귀 료<11ㄴ>, 蘭란초 란<12ㄱ>, 蓮련실 련<12ㄱ>, 荷련꽃 하<12ㄱ>, 檜로송나무 회<13ㄱ>, 糧량식 량<15ㄴ>, 鸞란조 란<16ㄱ>, 龍룡 룡<18ㄱ>, 畜육축¹³⁾ 추<20ㄱ>, 簾발 렴<23ㄱ>, 輦련 련<24ㄱ>, 綾비단 령<28ㄴ>, 笠갓 립<29ㄴ>, 醪탁주 료<31ㄱ>, 翫래일 익<34ㄱ>, 來올 래<35ㄱ>, 祿록봉 록<35ㄴ>, 攀엿매일 련<43ㄱ>, 理리치 리<48ㄴ>, 力힘 렉<47ㄴ>, 濼넘칠 램<56ㄱ>, 隣리웃 린<9ㄱ>, 鱸노어 노<18ㄱ>, 慮념려할 려<59ㄱ>
- ②/ㄴ/: 齒니 치<4ㄱ>, 齶니스몸 악<4ㄱ>, 尼녀승 니<3ㄱ>, 姆녀스승 무<2ㄱ>, 藿콩닙 곱<12ㄱ>, 葉닙 사귀 엽<14ㄴ>, 驪나귀 려<17ㄴ>, 菓나무넬매 과<14ㄴ>, 起니러날 귀<43ㄴ>
- ③다른 이본의 양상: 鑞유납 납<강>~랍철 랍<한>~백철 납<규>, 蘭난초 난<강>~란초 란<한>~란초 란<규>, 蓼노화 노<강>~료화 료<한>~엿귀 요<규>, 檜노송나무 회<규>, 簾발 녴<강>~발 렴<한>~발 엽<규>, 輦년 년<강>, 綾깃 능<강>~낭릉 령<한>~비단 능<규>, 笠갓갓 닷<강>~갓갓 립<한>~갓 립<규>, 醪탁조 요<강>~호린술 료<한>, 翫니일 익<강>~니일 익<한>~내일 익<규>, 來올 내<강>~올 리<한>, 攀곰비팔 연<강>~오골아 질 연<한>~억매일 련<규>, 起일 기<강>~일 기<한>~이러날 기<규>, 力힘 녵<강>~힘 렉<한>~힘 녵<규>, 濼넘칠 남<강>~너물 램<한>~넘칠 남<규>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석영본》에서는 대체로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고 원음에 맞게 표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隣리웃 린<9ㄱ>’, ‘鱸노어 노<18ㄱ>’, ‘慮념려할 려<59ㄱ>’, ‘菓나무넬매 과<14ㄴ>’와 같이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隣리웃 린<9ㄱ>’과 같이 15세기부터 ‘이웃’<석보, 능엄경>으로 쓰이던 것으로 마땅히 ‘이웃’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리웃’과 같이 어두음이 ‘ㄹ’로 표기된 것이 있다. 이 ‘이웃’은 아마도 漢字音의 ‘리>니>이’의 현상에 대한 인식에 이끌려 ‘리웃’과 같은 형태가 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菓나무넬매 과’에서도 보인다. ‘열매’는 ‘넬매’가 바뀌어 생긴 형태가 아니므로 ‘열매’로 적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기한 것을 실제 음성적 실현을 반영한 것이라 본다면 이 말을 합성어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ㄱ/ 앞에서 /ㄴ/이 첨가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 음성적 실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j/ 앞에서의 ㄴ구개음화로 /ㄴ/ > ∅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에 이끌린 과도교정의 예라고도 볼 수 있다. ‘鱸노어 노<18ㄱ>’의 예는 ‘鱸’의 원음이 ‘로’임에도 불구하고 훈과 음 모두 음이 ‘노’로 주기되어 있어서 다른 예들과는 차이가 있다. ‘驪나귀 려<17ㄴ>’는 이 말이 『석보상절』에는 ‘라귀’의 형태로 나오나 『월인석보』에는 ‘나귀’의 형태로 나와 이 두 형태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 문헌에서는 대체로 ‘나귀~나괴’의 형태가 우세하게 쓰이고 있는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석영본》의 양상은 다른 이본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이도 보인다. (14)③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석영본》은 《강경훈본》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한중연본》과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그리고 《규장각본》과도 ‘鑞’, ‘蓼’, ‘檜’, ‘簾’, ‘力’, ‘濼’의 뜻풀이나 한자음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석영본》과 《규장각본》의 차이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두음법칙과 관련된 표기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8. 비음동화 및 비음화, /ㄴ/ 첨가, ㄹㄹ 연쇄의 ㄹㄴ의 표기

비음동화 내지 비음화가 반영되어 있는 예가 《지석영본》에는 일부 보인다.

(15)비음동화 및 비음화의 예

- ①비음동화: 攀엿매일 련<5ㄴ>, 榆느름나무 유<13ㄱ>

13) 六畜은 집에서 기르는 소, 말, 양, 돼지, 개, 닭’을 이르는 말이므로 ‘육’은 ‘六’에 대응하는 것이다.

②비음화: 樂풍뉴 약<42ㄴ>

이 중 비음화가 일어난 ‘풍뉴’는 《지석영본》의 표기 경향을 고려할 때 ‘풍류’로 표기됨이 마땅한데도 ‘풍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문헌에서 비음동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비음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ㄴ/ 첨가가 이루어진 예가 일부 보인다.

(16)/ㄴ/ 첨가의 예

①《지석영본》: 氈담뇨 전/전<26ㄴ>, 漸쌀닐 석/석<46ㄴ>

②다른 이본의 양상: 漸쌀닐《강》

‘담뇨’는 ‘담(氈)+요’로 이루어진 말로, /j/ 앞에서 /ㄴ/이 첨가되었음을 보여 주며, ‘쌀닐’은 ‘쌀+일-’로 이루어진 말로 /ㅣ/ 앞에서 /ㄴ/이 첨가된 예이다. 그런데 ‘쌀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후술할 모음 /-ㅣ/의 반영 양상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음 아래에서 /-ㅣ/가 /ㅣ/로 발음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강경훈본》에서 ‘漸쌀닐’로 /ㄴ/이 첨가된 예가 있음을 보면 이와 같은 바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ㄹㄹ의 연쇄를 ㄹㄴ의 연쇄로 표기한 것이 많이 보인다.

(17)ㄹㄹ의 연쇄의 ㄹㄴ으로 표기

예: 羈굴네 ㄹ<24ㄴ>, 軒물네 광<27ㄴ>, 馳달닐 치<40ㄴ>, 退물너갈 퇴<44ㄴ>, 治쇠불닐 야<45ㄴ>, 陟울닐 척/척<48ㄴ>, 揚들날닐 양<50ㄴ>, 獨홀노 독<57ㄴ>, 驚놀날 경<60ㄴ>

이와 같은 표기는 근대국어의 특징적인 표기 경향이기도 하다.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도 큰 차이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본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4. 모음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

4.1. 원순모음화

《지석영본》에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음 양쪽에서 원순모음화 현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원순모음화를 보이지 않는 예도 상당히 나타나며, 같은 문헌 안에서 원순모음화를 보이는 형태와 원순모음화를 보이지 않는 형태가 공존하기도 한다.

(18)원순모음화 현상

①원순모음화를 보이는 예: 篋대수풀 황<14ㄴ>, 荻풀썰희 희/해<14ㄴ>, 燄불당길 염<11ㄴ>, 衾이불 금<30ㄴ>, 糊풀 호<30ㄴ>, 熄불써질 식<55ㄴ>, 汀물사가 덩/정<8ㄴ>, 妍어엿불 연<50ㄴ>, 滷물마를 확<54ㄴ>, 薑풀성할 회<54ㄴ>, 흙깃불 희<58ㄴ>, 墨먹 목/묵<24ㄴ>, 朋벗 붕/붕<2ㄴ>, 默잠잠할 묵/묵<60ㄴ>, 退물너갈 퇴<44ㄴ>

②원순모음화를 보이지 않는 예: 溜머물 류<52ㄴ>, 張베플 장<53ㄴ>, 稀드물 희<54ㄴ>, 解프러질 해<57ㄴ>, 欣깃불 혼<58ㄴ>, 諒밧불 량<60ㄴ>

③다른 이본의 원순모음화 예: 黑거물《강》, 愉깃불《강, 한》, 悅깃불《강, 한》, 欣깃불《강, 한》, 握자불《강》, 執자불《강》, 捕즈불《한》, 捉즈불《한》, 蛛거뭇《한》, 信밧불《강》, 玄거물《강》, 黑거물《강》, 退물너갈《강, 한》, 踐밭불《강, 한》, 少절물《강, 한》, 妍어엿불《강, 한》

④비순자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 관련 예: 碎부수를 쇠<55ㄴ>, 躡쑥구릴 준<43ㄴ>, 膝무릅《강》, 珠구술《강》, 壁구술《강》, 猿원승이 원<18ㄴ>, 冬겨을 동<33ㄴ>

이런 원순모음화 가운데에는 어형의 변화를 일으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면서도 원순모음화를 반영한 예들이 있다. 특히 《강경훈본》과 《한중연본》에서 어형의 변화와는 무관한 것 가운데에서도 원순모음화를 반영한 예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한자음에서는 ‘墨목/묵’, ‘朋붕/붕’, ‘默묵/묵’에서 보듯 규범음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반면에 현실음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어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규범음이 근대국어 시

기에 간행된 운서 및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자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 관련 현상 말고도 (18)④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一/→/ㅌ/, /ㅌ/→/一/로 나타나는 예들이 있다. 이 예들은 대체로 주위에 원순모음 /ㅌ/가 나타나는 어사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보이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따라서 모음 체계상의 /一/와 /ㅌ/의 대립 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4.2. /·/

《지석영본》에서 ‘·’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불문하고 쓰인 예가 없다. 다만 한자음 가운데 규범음 표기에서 ‘·’가 쓰이고 있다.

(19)/·/의 표기 양상

- ①고유어: 天하날(<하늘) 텃/천<1>, 子아들(<아들) ㅈ/자<1>, 伯맛(<문) ㅍ/백<2>, 心마암(<마음) 심<5>, 風바람(<바람) 풍<6>, 土흙(<흙) 토<7>, 菜나물(<나물) 채<11>, 莠가라지(<갯) 유/수<16>, 鹿사슴(<사슴) 룩<17>, 蝸달팽이(<달팽이) 와<19>, 蠅파리(<플) 승<19>, 鎖잠을 쇠(<조물쇠) 쇠/쇄<22>, 媳며나리(<며느리) 식<1>, 婢쥐며나리(<쥐며느리) 위<20>, 蠍쥐며나리(<쥐며느리) 멸<20>
- ②한자어: 性생질(<성질) 싱/생<20>, 翫래일(<리실) 익<34>, 答대답할(<디답할) 답<44>, 胎태(<티) 태<42>, 祭제사(<제수) 제/제<42>, 慶경사(<경수) 경<44>, 技재조(<지조) 기<39>
- ③다른 이본의 표기 양상: 性싱딜 싱<강, 한>, 翫니일 익<강, 한>, 答디답 답<한>, 胎티 티<강, 한>, 祭제스 스<강, 한>, 慶경스 경<강, 한>, 技지조 기<강, 한>
- ④한자음: 兒^ㄴ/아, 師^스/사, 額^익/액, 梓^즈/자, 宅^택/택, 臺^디/대, 璽^스/새, 甕^잉/앵

이와 같은 양상은 이미 /·/는 어두와 비어두의 일부에서는 /ㅌ/로, 비어두 일부에서는 /一/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고유어에는 이런 현실에 따라서 음성적 실현에 따른 표기를 하되 漢字音에서만 본 흡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를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서 《강경훈본》이나 《한중연본》에서는 ‘·’로 표기된 것들이 대세를 이룬다. 이를 보면 19세기 전반과 19세기 후반의 /·/의 음운론적 지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4.3. /ㅣ/ 모음 역행 동화

《지석영본》에는 다음과 같이 /ㅣ/ 모음 역행 동화를 보여 주는 예들이 있다.

(20)/ㅣ/ 모음 역행 동화

- ①《지석영본》: 橋대리 교<9>, 蛆구덥이 저<19>, 隔막힐 격<23>, 杖집행이 장<27>, 間새이 간<34>, 滯맥힐 체/체<55>, 堙맥힐 인<55>, 阻맥힐 조<57>, 飾썩밀 식<63>
- ②다른 이본: 橋대리<규>, 蛆귀덥이<한>, 隔막힐<강>, 杖지팡이<강> ~ 집행이<규>, 間새이<강, 한>, 滯맥힐<규>, 堙맥힐<규>, 阻막힐<강> ~ 맥힐<규>

이를 보면 다른 이본보다 《지석영본》에서 /ㅣ/ 모음 역행 동화를 반영한 예들이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강경훈본》에서도 상당한 예가 보인다. 이를 어휘 구조에 따라서 살펴보면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橋대리, 蛆구덥이, 間새이, 飾썩밀’과 같은 예들도 있는 반면에, ‘隔막힐’과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예들도 있다.

4.4. 고모음화 현상

『兒學篇』에는 고모음화 현상과 관련된 예들도 상당히 실려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들을 살펴보면 《지석영본》에서는 고모음화가 된 예들과 그렇지 않은 예들이 상당히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

(21)고모음화 관련 현상

- ①고모음화 예: 硯벼루 연<24>, 鉤갈구리 구<28>, 鼓며주 시<32>, 簸싸불을 파<46>, 交사귄

- 교<57ㄴ>, 爭다툼 쟁<60ㄴ>, 鬪다툼 투<60ㄴ>
 ②고모음화가 되지 않은 예: 溺오줌 뇨<5ㄴ>, 棗대초 조<13ㄴ>, 麿노로 균<17ㄴ>, 蠅개고리 와<19ㄴ>, 礎주초스들 초<22ㄴ>, 碯바독 그<25ㄴ>, 柺바독판 평<25ㄴ>, 蹤자최 종<43ㄴ>, 跡자최 적<43ㄴ>
 ③다른 이본의 고모음화 예: 礎주추<강>, 溺오줌<규>

이 중 ‘대초’는 “大棗 대츄<1613 동의 2:18ㄴ>”와 같이 17세기 전반 자료에 고모음화가 된 예가 보이기는 하나 거의 모든 문헌에서 ‘대초~대초’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아직 고모음화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예를 보면 아직 상당한 예들이 고모음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주추’는 <강경훈본>에서 고모음화된 형태가 반영되어 있고, ‘오줌’은 <규장각본>에서 고모음화된 형태가 반영되어 있다.

4.5. 자음 아래에서의 /ㄴ/ 및 기타

자음 아래에서 모음 /ㄴ/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22)모음 /ㄴ/의 반영 양상

- ①/ㄴ/ 보존형: 塵씩글 진<8ㄴ>, 帶씩 디/대<29ㄴ>, 跛저기드딜 피<43ㄴ>, 爽식원할 상<57ㄴ>, 猜시긔할 식/시<60ㄴ>, 烟연긔 연<11ㄴ>, 麟긔린 린<17ㄴ>
 ②/ㄴ/ > /ㅣ/ 반영형: 豁시원할 활<57ㄴ>, 猜시긔할 식/시<60ㄴ>, 莊씩씩할 장<60ㄴ>
 ③한자음: 柴쌀나무 식/시<10ㄴ>, 猜시긔할 식/시<60ㄴ>
 ④다른 이본의 관련 예: 爽스흰홀<강>, 식연할<한>, 猜시긔홀 시<강>, 시긔홀 치<한>, 시긔할 시<규>, 柴나무 시<강, 한>, 쌀나무 시<규>, 姑식어미<강, 한>, 娼간나희<강, 한>, 麟긔린<강, 한>

이를 보면 /ㅅ/ 아래에서는 /ㄴ/ 보존형과 /ㄴ/ > /ㅣ/ 반영형이 공존함을 알 수 있고, 다른 자음 아래에서는 /ㄴ/이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음에서는 규범음에서는 /ㄴ/ 보존형이 우세하나 현실음에서는 이미 /ㄴ/ > /ㅣ/가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뜻풀이에 쓰인 ‘시긔(猜忌)’를 볼 때 이와 같은 경향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다른 이본의 한자음이나 뜻풀이를 살펴보더라도 /ㅅ/ 아래에서 /ㄴ/은 /ㅣ/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자음에서 /ㅡ/와 /ㅍ/의 교체를 보여 주는 예가 있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廩’의 한자음이다. 이 글자는 다른 문헌에서는 모두 ‘름’으로 한자음이 주기되어 있는데, <강경훈본>에서는 ‘념’으로 주기되어 있어 모음이 /ㅍ/로 대응한다. 따라서 /ㅡ/를 /ㅍ/로 반영한 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6. 모음의 길이

앞서 池錫永이 「大韓國文」을 통하여 “凡做語之曳聲에 亦加一點”이라 하여 長音에 점 하나를 찍음을 밝히고, 簾발럼, 足발족, 列버릴렬, 捐버릴연之類과 같은 做語曳聲標(말을 길게 끄는 소리의 표)를 제시한 바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렇게 長音이라고 표시한 것이 현대국어의 長短音의 실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국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長音 표시가 붙어 있는 양상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22)長音 표시 양상

- ①어두: 女계`집<1ㄴ>, 娣계`수<1ㄴ>, 舅외`삼촌<1ㄴ>, 朋벗`<2ㄴ>, 媼노`파<2ㄴ>, 將장`수<2ㄴ>, 卿재`상<2ㄴ>, 巫무`당<3ㄴ>, 婢계`집종<3ㄴ>, 隸하`인<3ㄴ>, 妓기`생<3ㄴ>, 臙장`판지<4ㄴ>, 脛종`아리<5ㄴ>, 臙오`장<5ㄴ>, 星별`<6ㄴ>, 雪눈`<6ㄴ>, 霧안`개<6ㄴ>, 棼혜`성<7ㄴ>, 石돌`<7ㄴ>, 川내`<7ㄴ>, 野들`<7ㄴ>, 洞골`<7ㄴ>, 阪간`등<7ㄴ>, 泉샘`천<8ㄴ>, 溪시`내<8ㄴ>, 澗간`수<8ㄴ>, 漢한`수<8ㄴ>, 島섬`<8ㄴ>, 閭리`문<9ㄴ>, 巷골`목<9ㄴ>, 圃채`전<9ㄴ>, 寶보`배<10ㄴ>, 錢돈`<10ㄴ>, 幣폐`백<10ㄴ>, 圭서`옥<10ㄴ>, 柴쌀`나무<10ㄴ>, 蕙혜`초<11ㄴ>, 荻달`<11ㄴ>, 葍무`<12ㄴ>, 瓜외`<12ㄴ>, 樞비`자<13ㄴ>, 柿감`<13ㄴ>, 棗대`초<13ㄴ>, 栗밤`<13ㄴ>, 桂계`수나무<13ㄴ>, 樞치`자<14ㄴ>, 檠황계`피<14ㄴ>, 鳳봉`<16ㄴ>, 鸛황새`<16ㄴ>, 鷓새`매<16ㄴ>, 鷓가`치<16ㄴ>, 犬개`<17ㄴ>, 猫괘`<18ㄴ>, 熊곰`<18ㄴ>, 猿원`승이<18ㄴ>, 條송`사리<18ㄴ>, 鯉리`어<18ㄴ>, 鱒준`치<18ㄴ>, 鮒부`어<18ㄴ>, 鱷뱀`장어<18ㄴ>, 蟹게`<18ㄴ>, 蜂벌`<19ㄴ>, 蟻개`미<19ㄴ>, 蠅파`리<19ㄴ>, 蛇뱀`<19ㄴ>, 蠨바`구미<20ㄴ>, 禽새`<20ㄴ>, 雛새`삿기<20ㄴ>, 卵새`알<20ㄴ>, 驥갈`기<20ㄴ>, 殿전`각

<21>, 闕대꺄문<21>, 廐마꺄구<22>, 堦꺄꺄꺄<22>, 鑰꺄꺄<22>, 簾꺄꺄<23>, 度꺄꺄꺄꺄꺄, 榻꺄꺄꺄<23>, 幕꺄꺄꺄<23>, 槲꺄꺄꺄<23>, 簡꺄꺄꺄<24>, 籒꺄꺄꺄<25>, 几꺄꺄꺄꺄<25>, 奩꺄꺄꺄<26>, 櫃꺄꺄<26>, 戴꺄꺄꺄<26>, 爐꺄꺄꺄<26>, 斧꺄꺄꺄<27>, 軒꺄꺄꺄<27>, 耙꺄꺄꺄<27>, 箴꺄꺄꺄<28>, 錦꺄꺄꺄<28>, 繡꺄꺄꺄<28>, 羅꺄꺄꺄<28>, 惡꺄꺄꺄<32>, 左꺄꺄꺄<34>, 紫꺄꺄꺄<35>, 臭꺄꺄꺄<36>, 瞻꺄꺄꺄<37>, 吐꺄꺄꺄<37>, 睡꺄꺄꺄<37>, 提꺄꺄꺄<38>, 乞꺄꺄꺄<39>, 圖꺄꺄꺄<39>, 畫꺄꺄꺄<39>, 病꺄꺄꺄<41>, 葬꺄꺄꺄꺄꺄<42>, 罪꺄꺄꺄<48>, 黜꺄꺄꺄<48>, 事꺄꺄꺄<48>, 抑꺄꺄꺄<50>, 活꺄꺄꺄<50>, 少꺄꺄꺄<50>, 長꺄꺄꺄<50>, 無꺄꺄꺄<51>, 濃꺄꺄꺄<51>, 凍꺄꺄꺄<51>, 汗꺄꺄꺄<51>, 開꺄꺄꺄<52>, 假꺄꺄꺄<53>, 損꺄꺄꺄<53>, 遠꺄꺄꺄<53>, 多꺄꺄꺄<54>, 寡꺄꺄꺄<54>, 舊꺄꺄꺄<54>, 好꺄꺄꺄<55>, 麗꺄꺄꺄<55>, 濫꺄꺄꺄<56>, 空꺄꺄꺄<56>, 竭꺄꺄꺄<56>, 牽꺄꺄꺄<56>, 休꺄꺄꺄<57>, 知꺄꺄꺄<58>, 怒꺄꺄꺄<58>, 兪꺄꺄꺄<59>, 暴꺄꺄꺄<59>, 驚꺄꺄꺄<60>

②비어두: 帝꺄꺄꺄<2>, 僮꺄꺄꺄<3>, 霰꺄꺄꺄<6>, 礫꺄꺄꺄<8>, 鄉꺄꺄꺄<9>, 驛꺄꺄꺄<9>, 菁꺄꺄꺄<12>, 藥꺄꺄꺄<15>, 鸛꺄꺄꺄<16>, 豹꺄꺄꺄<17>, 雌꺄꺄꺄<20>, 雄꺄꺄꺄<20>, 味꺄꺄꺄<20>, 糧꺄꺄꺄<24>, 軸꺄꺄꺄<24>, 几꺄꺄꺄꺄<25>, 簾꺄꺄꺄<25>, 籒꺄꺄꺄<26>, 礪꺄꺄꺄<27>, 祛꺄꺄꺄<29>, 鎡꺄꺄꺄<29>, 駟꺄꺄꺄<38>, 葬꺄꺄꺄꺄꺄<42>, 贖꺄꺄꺄<46>, 浙꺄꺄꺄<46>, 強꺄꺄꺄<51>, 詳꺄꺄꺄<53>, 蒼꺄꺄꺄<54>, 怒꺄꺄꺄<58>

③장음이나 장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虎꺄꺄<17>(비교: 豹꺄꺄<17>)

④일관성이 없는 경우: 雀꺄꺄<17>(비교: 雌꺄꺄<20>, 雄꺄꺄<20>)

위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장음 표시는 어두와 비어두 모두에 표시되어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비어두에서는 장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이런 조치는 특이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어두에 장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대개는 단일어가 아니라 합성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단일어로 보이는 것은 ‘几꺄꺄꺄꺄<25>’ 정도가 아닌가 한다. 나머지는 ‘한자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들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후행 요소가 본래 장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에 따라서 장음 표시를 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장음이면서도 장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③과 같은 경우도 있고, ④와 같이 장음 표시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들 중 고유어는 중세국어에서 聲調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上聲인 것들이며, 일부 去聲인 것들도 있다. 그리고 한자어는 上聲이거나 去聲인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현대국어의 표준 발음과 비교하여 『兒學篇』이 만들어질 때의 장단의 실현 양상과 현대국어의 장단의 실현 양상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발음과 비교하여 보면 ①에서 제시한 예들은 거의 다 표준 발음과 일치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어서 다음과 같이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예들이 있다.

(23)현대국어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예

①표준 발음이 단음인 경우: ‘味꺄꺄꺄<20>’의 ‘부꺄꺄’, 軒꺄꺄꺄<27>, 癩꺄꺄꺄<41>, 揮꺄꺄꺄<43>, 轉꺄꺄꺄<47>, 妍꺄꺄꺄<50>, 張꺄꺄꺄<53>

②표준 발음과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경우: 漏꺄꺄<55>(‘새다’는 ‘새어→새:’의 경우만 장음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런 양상을 보면 대체로는 『兒學篇』에서 규정한 장음과 현대국어의 장음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일부에서는 차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池錫永의 당시 국어의 長短에 관한 관찰이 상당히 정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국어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예들 가운데 일부는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誤記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5. 마무리

이 글은 1908년에 나온 池錫永 『兒學篇』의 한자 뜻풀이와 한자음에 반영되어 있는 표기 및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兒學篇』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兒學篇』의 「序」와 국문 표기 원칙인 「大韓國文」을 살펴보고, 실제 표기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기의 고찰에서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받침 표기는 8종성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표기는 근대국어의 전통에 따른 7종성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즉 ㄷ은 받침 표기에 쓰이지 않고 ㅅ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초성의 합용 병서는 ㅅ계 합용 병서만 쓰였는데, 이것은 19세기 전반기에 나온 <<

《강경훈본》과 이보다 좀 늦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한중연본》에서는 ‘ㅁ’, ‘ㅂ’, ‘ㅅ’과 같은 ㅁ계 합용 병서가 쓰인 것과 차이를 보였다. 한자음의 표기에서는 ‘雙쌍, 氏씨’ 두 예에서 보듯 ㅁ계 합용 병서로 된소리를 표시하였다. 종성의 합용 병서는 ‘ㅁ’, ‘ㅂ’, ‘ㅅ’이 쓰여서 《강경훈본》, 《한중연본》과 차이가 없으나 이들과 비교할 때 분철의 경향이 강해진 것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이는 받침이 자음군이 아닌 경우에도 분철 경향이 강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분철 경향은 용언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강경훈본》보다는 《한중연본》의 분철 경향이 강하고 《규장각본》과 《지석영본》의 분철 경향은 이보다도 강하게 나타났다. 두음법칙과 관련된 표기는 원음에 따른 상당히 원칙적인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이본과 비교할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ㄹ이 연쇄될 경우에는 ㄹㄹ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근대국어 시기의 표기법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다른 이본에서도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모음의 표기에서는 ‘·’가 한자음의 규범음 표기에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양상은 《강경훈본》, 《한중연본》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모음은 /ㅅ/ 아래에서는 /ㅣ/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이본에서도 /ㅅ/ 아래에서도 /ㄴ/가 /ㅣ/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모음이 長音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을 오른쪽에 찍어서 나타내고 있는데, 어두와 비어두에서 모두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고유어 및 한자어의 長短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음운론적 특징에 관해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로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음에서는, 초성 합용 병서의 사용 양상을 통해서 된소리의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두와 비어두에서 모두 활발히 된소리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성 합용 병서에서는 일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예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음절말 자음의 실현 양상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는 설두음의 규범 한자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현실 한자음과 뜻풀이에서는 모두 구개음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이본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예들이 상당히 보인다. 그리고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 활음 탈락도 현실음에서는 모두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구개모음화 현상은 일부 예를 제외하는 반영되지 않아서 다른 이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규범적인 처리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성음 사이에서 ㅎ탈락 현상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 마치 이 현상이 필수적인 현상으로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이본과 다른 텍스트의 양상을 고려할 때 아직은 이 현상을 수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 일부 비음동화와 비음화, /ㄴ/ 첨가 현상이 보인다.

모음에 관해서 정리하자면, 우선 원순모음화 현상에 관해서는 고유어의 원순모음화는 많이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예도 상당히 보인다. 반면에 한자음은 규범음과 현실음의 처리가 달라서 현실음은 모두 원순모음화가 되어 있다. /·/는 /ㅏ/나 /ㅑ/로 나타나 음운 변화가 마무리되었음을 보여 준다. /ㅣ/ 모음 역행 동화의 예도 꽤 보이는데, 단일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일부 고모음화 현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어형으로 바뀐 예들을 상당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음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어두의 장음 표시가 된 것들은 일부 예들을 제외하고는 현대국어의 표준 발음과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경우는 대체로 상성이었던 것이거나 일부 거성이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한자어에서는 한자의 성조가 상성과 거성인 것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비어두에서 장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합성어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로 후행 요소의 어두 음절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어휘가 단일어인지와 복합어인지를 분석하고 복합어의 경우 후행 요소의 어두 음절이 장음을 지닌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별하여 장음 표시를 하여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태오(1993), 「다산의 『兒學篇』에 반영된 문자교육관」, 『教育哲學』 11, 한국교육철학회, 59-80.
- 大韓醫史學會(1994), 『松村 池錫永』, 아카데미아.
- 이준환(2012가), 「자전석요(字典釋要)의 체재상의 특징과 언어적 특징」, 『泮橋語文研究』 32, 반교어문학회, 113-144.
- 이준환(2012나), 「池錫永 <言文>의 표기, 음운, 어휘의 양상」, 『國語學』 65, 國語學會, 281-317.
- 정일균(2012), 「다산 정약용의 ‘소학론’(II): 『아학편』을 중심으로」, 『다산학』 20, 다산학술문화재단, 181-221.
- 정재영(2000), 「茶山の <兒學篇>」, 『국어사 자료 연구』 창간호, 국어사학회, 151-174.
- 정재영(2002), 『茶山 정약용의 『兒學篇』』, 태학사.
- 한성우(2009), 「『兒學篇』을 통해 본 근대 동아시아의 언어 교류」, 『한국학연구』 2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67-301.
- 한성우(2010),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 지식』, 동아시아 한국학 자료 총서 3, 인하대학교 출판부.
- 황상익(2010), 「대한제국 최고 인기 수학책, 저자가 요절한 까닭은?-[근대 의료의 풍경:75] 남순희와 전용규」, 프레시안 2010년 11월 15일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11508022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池錫永 『兒學篇』의 표기 및 음운론적 양상-이본과의 비교를 통하여-”에 대한 토론문

배영환(서원대)

위 논문은 지식영의 『아학편』에 나타난 한자 뜻풀이와 한자음에 반영되어 있는 표기 및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정리·기술한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학편』의 이본들 간에 나타난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에 대한 논의 가운데 20세기 초기의 언어 현상이나 자료 등에 대한 연구가 눈에 증가하고 있는 요즘, 특정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국어학적인 특징을 밝히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다만, 이 자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못한 본 토론자로서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요즘 20세기 초기 자료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국어사 연구는 그 하한선이 19세기 말까지에 한정되어 온 감이 있는데, 20세기 초기의 언어를 국어사의 시기 구분에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기의 국어사적 의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지식영의 『아학편』에 나타난 한자의 뜻풀이(훈?)와 음은 <규장각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면 이 책에 나타난 국어학적 특징이 온전히 지식영의 『아학편』만의 특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영의 『아학편』과 규장각본의 『아학편』의 차이가 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 지식영은 서울 출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영은 비슷한 시기에 『자전석요』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 선생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석요』와 『아학편』에 나타난 음훈의 특징, 나아가 서울 방언이나 또는 개인 방언으로 볼 만한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자료 해석상의 질문

① 13쪽 ‘스훤훤’에서 ‘스훤ㅎ-’는 모음 사이의 /ㅎ/첨가로 볼 수 있는지?

② 두음법칙에서 ‘뇨화 뇨, 발 념, 년 년’과 같이 ‘ㄹ’이 y앞에서 ‘ㅇ(문자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ㄴ’으로 나타나는 것과 ‘ㅇ’으로 나타난 것 사이는 구분해서 제시하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③ 15쪽 원순모음화 현상에서 ‘자불, 즈불, 발불, 절물’ 등은 형태소 경계(어간+어미)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달리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원승이 원, 겨울 동”에서 ‘겨울 동’은 이전 시기에 ‘겨슬ㅎ’로 실현된 것으로 보면 굳이 원순모음화의 논의와 관련된 예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④ /이/모음역행동화에서 ‘새이 간’은 달리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이-모음 역행동화가 매개 자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음절 축약과 모종의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음운 단위는 운율 단위인가?

안병섭(고려대)

<차례>

1. 머리말
 2. 한국어 운율 구조와 운율 단위
 3. 음운 단어의 정의와 형성 과정에 대한 검토
 4. 음운 단어의 범주에 관한 제안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전통적으로 언어는 문법부, 의미부, 음운부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되었고 언어 연구는 이러한 영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생성 이론에 와서는 이러한 하위 영역들의 내부가 일정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발견을 통해 언어학 연구에 공헌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생성언어학 초기부터 이러한 영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있음이 지적되었고, 운율 음운론에 와서는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통사부와 음운부 간의 불일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운율 단위들을 설정한 시도 등이 그러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통사부와 음운부 간의 불일치 현상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운율 단위들을 설정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구조상의 불일치성에 대한 발견은 특히 음운 단어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음운 단어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 음운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통사적 단위성에 대한 논의가 음운 단어 연구의 주 주제가 되기도 하였으며(시정곤 1993·1994, 유필재 1994, 엄태수 1996·2003, 김상태 2006 등), 음운 단어를 형성하는 원인(김상태 2006, 안병섭 2008), 특정 음운 규칙의 적용 여부 검토(시정곤 1993·1994, Kang 1992, Jun 1993, 유필재 1994, 광동기 1996·1999, 신지영 2003, 신지영 외 2003, 엄태수 2003) 등이 계속 논의되어 왔다(안병섭 2008:88~97). 이외에도 제약 기반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 음운 단어를 형성하는 여러 제약들을 세우고 이들 제약 간의 위계 설정을 통하여 음운 단어 형성 과정 및 설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광동기 1999).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운율 단위의 하나라는 음운 단어의 정의와 특성을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설명한 논의들이 대부분이며, 음운 단어의 운율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음운 단어가 문법부와 음운부의 교합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운율 단위로서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음운 단어가 과연 운율 단위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운율 단위라면 그것이 문법부와 음운부와 교합적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운율적인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¹⁾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운 단어의 운율적 특성과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확실치 않은 음운 단어의 범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운율 구조 모형들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운율 단어의 형성 방법과 운율 단위들의 운율 특성을 알아 본다. 그리고 음운 단어의 운율적 특성과 형성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음운 단어가 운율 구조 안에서 설명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안병섭(2008:17~18)에서는 운율 단위가 지녀야 할 세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운율 단위는 단위로서의 고유하고 분명한 운율 특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운율 단위는 운율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운율 단위는 운율적인 형성 과정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어 운율 구조와 운율 단위

2.1 한국어 운율 구조 모형

한국어 운율 구조를 상정하는 세 가지 이론적 방법이 있다.

먼저 운율음운론에 입각해 설정된 한국어 운율 이론은 최소 운율 단위인 모라로부터 ‘모라-음절-음운 단위-음운구-억양구-발화’로의 운율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운율 단위 형성의 방법이나 운율 단위의 독자적인 기능에 주목하기보다 통사 구조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²⁾. 연구자들의 이러한 관심은, 생성 이론이 그러하듯이 통사부를 기저로 설정하고 통사부 이후의 단계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가정된 모형이라는 태생적 이유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음운부와 통사부와 관련성이란 곧 통사 단위와 어긋난 형성 과정을 보여준 음운부의 단위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양상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견에 집중되었다. 특히 음운 단어를 설정할 경우, 파생과 굴절 사이에 존재하는 음운 규칙의 비대립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³⁾ 그러나 운율 단위나 운율 구조를 운율 특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형태통사적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성철재(1994), 이호영(1991, 1996) 등에서는 ‘말토막-말마디-문장’으로 이루어진 운율 구조를 제시하였다⁴⁾. 말토막과 말마디는 쉼의 단위이지만 말토막이 단순히 끊어 말하는 단위인 반면 이보다 상위 단위인 말마디는 기식군의 기능과 정보 단위를 이루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말토막과 말마디를 형성하는 운율적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운율음운론보다 운율 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말토막은 음절들의 패턴화된 강약 관계가 리듬을 형성하는 단위로, 말마디는 하나의 억양이 실현되는 단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말토막을 최소 운율 단위로 인식하여 음절을 운율 구조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운율 구조의 최대 단위를 문장으로 설정한 점은 비판받을 수 있다⁵⁾. 이 구조 하에서는 말마디 마지막에 실현되는 억양 패턴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하위 단위인 말토막이나 말마디의 운율 특징과 그 기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억양음운론은 주로 억양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운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언어의 운율 구조 모형을 개발하기에 이른다.⁶⁾ 억양음운론은 가변성을 지닌 운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인 운율 분석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두 운율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언어 연구는 언어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분석 방법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운율 자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운율 연구에서는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억양 음운론의 수용을 통해 한국어 운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이론에서 가정된 운율 구조는 최소 단위로부터 ‘음절-운율 단위(음운 단위)-강세구-억양구’로 설정된다. 이와 같은 운율 구조는 그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 받아, 최근의 한국어 운율 연구는 주로 억양음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발표문에서도 억양음운론에서 수립한 운율 구조 모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2) 모라에 대한 연구들은 순수하게 음운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음절 구조와 모라와의 관련성, 모라의 시간 단위성에 대한 연구가 그러한 것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라가 한국어에서 운율 단위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표적인 연구가 정명숙·신지영(2000)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시간 단위는 음절임을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3) 대표적인 연구들이 광동기(1989, 1996, 1999), Kang(1992), 엄태수(1996, 2003, 2012) 등이다. Kang(1992)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운율 구조의 전체적 조망보다는 음운 단어를 통해 파생과 굴절 사이에 존재하는 음운 규칙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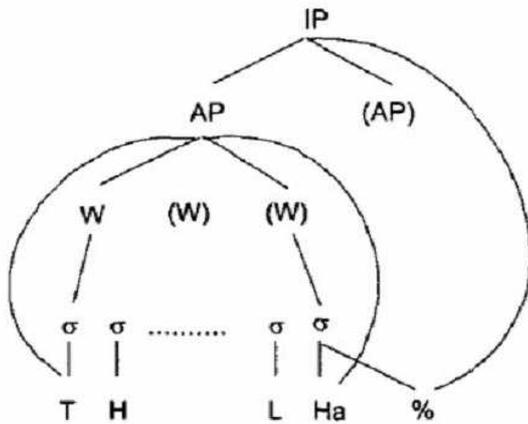
4) 이 운율 구조는 이현복(1973, 1974, 1982) 등에서 시작되어 이호영(1996)에 이르러 한국어 운율 구조의 전체적인 모습이 설명되었다.

5) 주지하다시피 문장은 문어에서의 단위이다. 문어와 구어를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 사용 국면이므로 문어의 단위인 문장이 아무런 운율적 검토 없이 구어 단위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구어에서 발화 단위는 문장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음성언어 자료 구축 과정에서 증명된 바 있다.

6) 한국어 운율 전사 방법인 K-ToBI, 영어 운율 전사 방법인 E-ToBI, 일본어 운율 전사 방법인 J-ToBI 등 개별 언어들의 운율 차이를 고려한 운율 전사 방법이 마련되었다. 억양음운론의 초기 이론은 각 언어의 운율 전사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2 운율 단위의 특성과 형성 방법

역양음운론에서 설정한 한국어 운율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 IP(Intonation Phrase) : 억양구
- AP(Accentual Phrase) : 강세구
- W(Prosodic word, Phonological word)
: 운율 단어, 음운 단어
- σ (Syllable) : 음절
- T, H, L(Tone type) : 성조 유형
- % (boundary tone) : 억양구 경계성조

[그림] 국어 운율의 계층 구조(Jun, 2000)

음절은 운율 구조의 최하위 단위에 위치한다. 한국어의 음절은 자립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자, 성조를 담당하는 운율 단위이기도 하다.⁷⁾

음절들이 일정하게 모이면 강세구를 형성한다. 이때 강세구를 형성하는 방법은 비어휘적 성조들의 일정한 연쇄들로 형성된다. 기본적인 성조 연쇄 유형은 4음절 강세구에서 나타나는 ‘THLH’형이다. 이러한 성조 연쇄 유형은 모두 14 개로 강세구를 형성하는 음절의 수와 첫 음절의 초성 자음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선택된다. 강세구는 일음절로도 가능하나, 강세구는 성조 연쇄로 이루어지므로 일음절 강세구의 경우 하나의 음절에 두 개의 성조가 배당되어 성조 연쇄를 이룬다.⁸⁾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강세구는 한국어 운율 구조에서 리듬 단위가 된다. 리듬이란 주기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강세구는 일정한 성조 연쇄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강세구가 모여 억양구를 형성한다.⁹⁾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강세구로 구성되며, 억양구 말미에 경계성조(boundary tone)를 갖는다. 특히 억양구 마지막 음절은 장음화가 발생하고, 억양구 경계에서 휴지(pause)가 나타난다는 운율적 특징이 있다.

억양구의 크기는 통사 단위의 절이나 문장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이 점으로 미루어 억양구 자체가 통사 구조를 직접 반영했다기보다는 발화 산출 과정에서 계획된 정보 단위의 생성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¹⁰⁾ 억양구 마지막 음절에 실리는 경계성조가 발화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3 운율 단위의 예측 가능성과 음운 단어

2.2절에서 우리는 운율 구조 가운데 음절, 강세구, 억양구를 중심으로 하위 운율 단위들이 모여 상위 운율 단위를 형성하는 방법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각 운율 단위들의 크기(또는 길이)를 알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3절에서는 음운 단어의 운율적 형성 방법과 그 크기가 예측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언어 구조를 가정할 때 언어 구조를 이루는 각 단위는 해당 영역의 정보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운율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하위 운율 단위가 상위 운율 단위를 형성하는 방법과 형성 길이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

7) 성조에는 어휘적 성조와 비어휘적 성조가 있다. 어휘적 성조는 어휘의 의미 변별 기능을 하며, 비어휘적 성조는 어휘의 의미 변별 기능 없이 말소리의 자연스러운 연속을 위해 형성된 성조이다. 본문에서 성조라 함은 비어휘적 성조를 뜻한다.

8) 강세구의 성조 연쇄 유형은 Jun(2000), 신지영·차재은(2003), 안병섭(2008)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9) 강세구의 형성 방법과 억양구 형성 방법에 대해서는 안병섭(2008:75~150)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음.

10) 억양이 생성되는 단위가 발화에서의 정보 생성 단위임을 피력한 견해는 Holliday(1985, 1994, 2004), Chafe(1994)에서 보인다. 전자는 기능문법을, 후자는 언어와 시간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틀은 다르지만 억양이 없이는 단위들의 길이에 대한 견해는 거의 유사하다.

억양음운론에서 설정한 운율 단위들은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세구는 성조를 배당 받은 음절들이 연쇄하여 형성되며, 그 길이는 음절 수와 그에 따른 일정한 성조 연쇄형으로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강세구를 가지며 말미에 경계 성조와 장음화, 휴지를 동반한다. 하지만 이 운율 구조에서 음운 단어가 차지하는 운율 구조상의 역할은 분명히 설명되지 않았다.

음운 단어가 갖는 운율 단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은 Jun(1993:225~242)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운율 단어의 운율 특성이 강세구와 명확하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운율 단어에 대해 ‘강세구적 운율 단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안병섭(2008:96~97)에서도 음운 단어가 운율 특징으로 설명되지도 않으며, 운율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작동하는 두 가지 강력한 제약을 모두 어긴다는 점에서 운율 단위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운율 단위들이 모여 운율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작용한다. 엄격 층위 가설(Strict Layer Hypothesis)과 운율 인가(Prosodic licensing)가 그것이다.

(1) 엄격 층위 가설(Selkirk, 1984:26)

운율 위계상의 상위 단위는 하위 단위를 직접 지배한다.

(2) 운율 인가(Itô, 1986:2)

하위 운율 단위는 상위 운율 단위로 남김없이 지배되어야 한다.

엄격층위가설이란 상위 운율 단위가 바로 아래의 하위 운율 단위를 직접 지배해야지 바로 아래의 운율 단위를 건너뛰어 그 다음 아래의 하위 운율 단위를 직접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운율 인가는 하위 운율 단위가 상위 운율 단위로 남김없이 지배되어야지, 상위 운율 단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남겨진 하위 운율 단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운 단어도 운율 단위로 가정되므로 이 두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음운 단어는 다른 층위와의 관계에서 위 두 원리에서 모두 어긋나 있다.

먼저 음운 단어의 상위 층위는 강세구이므로 강세구는 음운 단어를 직접 지배해야 한다. 엄격층위가설에 의한다면 음절이 모여 음운 단위를 형성하는 방법이 설명되어야 하고, 음운 단위가 모여 강세구를 설명하는 방법이 설명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강세구는 음운 단어를 건너 뛰어 음절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 강세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음운 단어가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음운 단어는 운율 인가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음운 단어는 상위 층위인 강세구에 남김없이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그렇지 못하다. 음운 단어 설정 없이 음절이 곧장 강세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오히려 음운 단어를 설정하면 운율 인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그럴 리가]_{AP}[없다]_{IP}

위 발화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강세구로 실현되는데, 첫 번째 강세구 ‘그럴 리가’에서 ‘그럴 리’는 형태적 분리성과 운율적 분리성이 어긋났으므로 음운 단어로 인정된다.¹¹⁾ ‘그럴 리’는 구별되는 형태들의 통사적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럴’과 ‘리’ 사이에 운율적 분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휴지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럴 리가’라는 강세구에서 ‘그럴 리’를 음운 단어로 인정하면 조사 ‘가’도 음운 단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음운 단어는 상위 층위인 강세구로 남김없이 지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 자체를 음운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다. ‘가’는 우리말의 특성상 운율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자립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운율 단위, 운율 단위를 형성하지 못하는 통사적 단위 ‘가’가 결합해서 상위의 운율 단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운율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약들을 여기게 된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구와 구의 결합이

11) 음운 단어 설정 방법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절을 형성한다는 통사 구조 형성 과정에서 선행 구에 역양구 경계성조가 없혀 절을 형성한다는 식의 설명 방법이나 통사부가 형태소-음절-단어-구-절-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처럼 비일관적인 기준으로 통사 구조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비음운론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음운 규칙이 있듯이 언어 현상은 이질적인 단위들의 교차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나 구조 형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질적인 영역의 단위를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조사 ‘가’가 단어로 인정되지만 그 특성상 자립성과 분리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그럴 리가’를 하나의 음운 단어로 설정해도 다시 문제는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음운 단어로 형성된 강세구를 거의 찾을 수 없다. 결국 하나의 음운 단어는 대부분이 하나의 강세구로 형성되므로 음운 단어는 불필요한 단위가 된다.

이와 같이 운율 구조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두 가지 원리로 보자면 음운 단어는 운율적 정체성이 모호하며, 구조상 잉여적이다.

3. 음운 단어의 개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검토

음운 단어를 정의하고 설정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방법이 있다. 접근 방법의 차이인데, 음운 단어의 음운론적 역할에 주목하는 방법과 음운 단어의 특성인 운율적에 분리성에 주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음운론적 역할에 주목한 설정 방법은 음운 현상들의 적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음운 현상은 순수한 음운 정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형태구조 정보를 동원해 음운 단어가 설정된다.¹²⁾ 순수한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 사이에는 음절화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은 Kang(1992)에서 제시한 예이다.

- (4) 가. 덧옷이[더도시] : 형태 구조의 밀접성 → (덧옷)(이), [더소디]
 운율 구조의 밀접성 → (덧)(옷이), [더도시]
 나. 앞앞이[아바피] : 형태 구조의 밀접성 → (앞앞)(이), [아파비]
 운율 구조의 밀접성 → (압)(아피), [아바피]

그러나 어휘부에서 음운부로 넘어오는 과정을 고려하면 ‘덧옷’은 이미 어휘부에서 음운규칙이 적용되었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덧옷’보다 ‘옷이’가, ‘앞앞’보다 ‘앞이’가 운율적으로 더 밀접하다는 설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엄태수(2012)에서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음운 단어의 형성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5) 음운 단어 형성 원리(엄태수, 2012)
 가. 어휘삽입된 통사부의 출력은 구조가 보존된 어휘부의 요소를 제외한 구 구조 범주를 삭제한다.
 나. 어휘범주는 측단이론에 따라 어휘범주의 가장 왼쪽 끝에 음운 단어를 배정한다.¹³⁾
 다. 다음으로 오른쪽으로부터 괄호를 닫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형성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6) 할아버지께서는 주무세요.

(6)에서 ‘할아버지께서는’는 화자에 따라 ‘할아버지께서는’을 하나의 운율로 발화하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와 ‘께서는’을 운율적으로 분리하여 발화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께서는’은 강세구에 해당되므로

12) Kang(1992), 광동기(1999), 엄태수(2012) 등에서 이러한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13) 이 측단 이론은 Kang(1992)과 광동기(1992, 1999)에서 아래와 같이 어근 왼쪽 정렬 규칙으로 제시된 바 있다.

Kang(1992) : lex[→ @ (lex : lexical category)

광동기(1992, 1999) : {좌측단, X} (X : 어휘 범주)

당연히 음운 단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5)의 음운 단어 형성 원리에 의해 어휘범주의 왼쪽에 음운 단어를 설정함으로써 ‘깨서는’은 독자적으로 음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발화에서는 음운 단어 상위의 단위인 강세구로 형성되어, 운율 인가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

다른 예로 어휘 범주만으로 구성된 표현에서도 문제가 된다. 가령 ‘병역 비리 사건’의 경우, (5)의 형성 원리에 따라 어휘 범주의 왼쪽에 음운 단어를 형성하므로 ‘병역 비리 사건’은 필연적으로 세 개의 음운 단어가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병역/ 비리/ 사건, 병역비리/ 사건, 병역/ 비리 사건, 병역비리사건’ 등과 같이 다양하게 운율을 분리하여 발화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5)의 형성 원리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7) 범민족적, 초자연주의, 비합리적인, 대철학자

이들은 파생어이므로 하나의 어휘범주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의 형성 원리를 따르면 (7)의 예들은 모두 하나의 음운 단어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범/민족적, 초/자연주의, 비/합리적인, 대/철학자’와 같이 접두사와 후행 형태 사이에 분명하게 운율적으로 분리되어 접두사들이 모두 개별적인 강세구로 실현된다.

한편 음운 단어는 형태적으로 분리 되지 않아야 할 단어가 운율적으로 분리되거나 형태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단어가 운율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단위로 정의되기도 한다.¹⁴⁾ 유필재(1994)에서는 음운 단어의 예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8) 유필재(1994)에서 제시한 음운론적 단어의 예

가. 의존명사 류 : 먹을 것, 알 바, 할 줄, 몇 리, 그럴 리 등

나. 보조용언 류 : 나가 버렸다, 써 간다, 많아 보인다 등

다. 부정부사 류 : 안 먹는, 못 먹었다 등

그 외의 형태적 분리성과 운율적 분리성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대로 음운 단어로 인정된다. 여기서 운율적 분리성이란 휴지의 실현이다. 그런데 우리는 운율적인 분리성의 조건으로 휴지 실현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안병섭(2007)에서는 강세구 경계에서는 휴지가 실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억양구 경계에서 휴지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강세구 하위 단위인 음운 단어가 휴지 실현 여부를 그 경계 표지로 삼는 것은 언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 방법이다. 안병섭(2008)에서는 지금까지 음운 단어 설정 과정에서 운율적 분리성이라 명명해 왔던 운율 특성은 휴지가 아니라 성조 연쇄의 경계에서 오는 운율적 단절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음운 단어는 모두 강세구로 그대로 대치된다. 그렇게 되면 운율 구조상에서 음운 단어는 잉여적이어서 운율 단위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4. 음운 단어의 범주에 관한 제안

3장에서 음운 단어의 개념과 형성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음운 단어는 통사부와 음운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는 일견 유용한 설명력을 확보하였지만 그 운율적 특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음운 단어를 설정하는 두 방법은 공통적으로 운율 특성만으로 음운 단어를 설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사부 또는 형태 정보를 끌어 와야 그 설정이 가능했다. 그리고 여타 운율 단위와의 관계를 운율 구조면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었으며, 운율 구조를 형성하는 두 원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음운 단어는 운율 단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다. 그렇다면 음운 단어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14) 유필재(1994)에서는 자립적 발화 가능성과 잠재적 휴지의 가능성을 음운 단어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곧 형태적 분리성과 운율적 분리성의 관계를 그 근거에 둔 설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태(2006)에서도 음운 단어가 형성되는 방법을 형태적 분리성과 운율적 분리성의 관계로 음운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최정순(1994)과 엄태수(2012)에서는 음운부와 통사부가 교합적 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통사음운부를 설정하고, 이 통사음운부에서 통사부의 출력이 재조정되어 음운 단어를 형성한다는 주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 설정도 (6)에서 보였던 문제점을 동일하게 가지게 된다. 조사와 같은 교착 요소를 앞의 선행 어휘(또는 음운 단어)에 포함시키든, 시키지 않은 설명상의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사의 통사 범주를 생략하고 통사음운부에서 선행 요소와 하나의 음운 단어로 처리한다면 역시 하나의 음운 단어는 그대로 상위의 운율 단위(음운구 또는 강세구)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조사를 선행 요소와 하나의 음운 단어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음운 단어와 통사 단위가 결합해 상위의 운율 단위를 형성한다는 비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시정곤(1993, 1994), 최형용(2003)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연구들에서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고 유형화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단어를 어휘적 단어, 통사적 단어, 음운적 단어로 분류하였다.¹⁵⁾

특히 시정곤(1993)에서는 어휘적 단어, 통사적 단어 외에 음운 단어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음운 단어는 흔히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관형절과 의존 명사의 결합이 언중들에게는 하나의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어 형성 시에 사잇소리현상으로서 경음화가 발생하고, 방언에서는 성조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데 음운 단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9) 가. 영자는 밥을 먹을 것이다.

나. 영자가 그 일을 할 줄 어떻게 아느냐?

다. 영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10) 가. 영자는 내가 살 그 집을 샀다.

나. 영자는 자기가 경영할 조그만 가게를 살펴보았다.

다. 희망은 우리가 지나갈 바로 그 길위에 있었다.

(9)와 (10)은 모두 통사적 구성이지만 (9)는 후행 요소가 경음화를 일으키고 (10)은 경음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일한 구성이라 하더라도 (9)는 형태적 구성, (10)은 통사적 구성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태(2006)에서도 대학생들의 띄어쓰기 오류를 통해 (9)와 같은 구성이 언중들에게 하나의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음운 단어의 심리적 실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기존 논의에서 두 개의 음운 단어로 처리했던 (7)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7)의 경우는 후행 요소의 음절 수에 따라서 수의적이다. 가령 ‘초자연, 대학생’과 같이 후행 요소의 음절 수가 적은 경우는 운율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이 (9)의 경우와 구별되는 점이다. 자연스런 발화에서 (9)는 운율적으로 분리되는 일이 없다. 결국 (7)은 음운부를 넘어오기 전에 하나의 단어이지만 음운부에서 두 개의 강세구로 분리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따라서 음운 단어를 단어의 한 유형으로 편입시키면 더 이상 운율 구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말의 운율 구조는 ‘음절-강세구-억양구-발화’로 선명해진다. 그리고 각 단위들은 2.2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 운율 특성이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고, 하위 운율 단위들이 상위 운율 단위를 형성하는 과정들이 선명해진다. 또한 운율 형성의 두 원리인 엄격충위가설과 운율 인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5. 맺음말

15) 최형용(2003)에서는 우리말의 단어를 어휘적 단어, 음운론적 단어, 문법적 단어로 분류하였다.

▶ 참고문헌

- 곽동기(1989) 「우리말의 운율적 단위에 관하여」 『논문집』 28, 부산여대.3~21면.
- 곽동기(1996) 「강계층가설의 재해석」 『제1회서울국제음성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음성학회, 493~501면.
- 곽동기(1997) 「억양구절과 하위 운율단위에 대하여」 『제3회 음성학술대회 발표집』 대한음성학회, 144~160면.
- 곽동기(1999) 「음운론적 단어와 음절화」 『언어학』 24, 한국언어학회, 4~23면.
- 김상태(2006) 「음운적 단어 설정에 대한 연구: 띄어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31~52면.
- 시정곤(1993) 「‘음운적 단어’의 설정을 위한 시고」 『우리어문연구』 6·7, 우리어문학회, 121~138면.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안병섭(2007) 「휴지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검토」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67~87면.
- 안병섭(2008) 「국어 운율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엄태수(1996) 「최적 이론에 의한 현대국어 음운현상의 설명」 『음성음운형태연구』 2, 한국음운론학회. 91~116면.
- 엄태수(2003) 「음운규칙의 강도와 음운론적 단어」 『시학과 언어학』 6, 시학과 언어학회. 207~229면.
- 엄태수(2012) 「국어 음운부의 조직과 음운규칙의 분류」 『우리어문연구』 44, 우리어문학회. 389~417면.
- 유필재(1994) 「발화 분석의 음운론적 단위」 『국어연구』 125. ; 『음운 I』(태학사) 재수록.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현복(1973).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 「문리대 학보」, 19, 서울대학교. 113~128면.
-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5~25면.
- 이현복(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대한음성학회.
- 정명숙·신지영(2000) 「한국어의 시간 단위에 관하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261~278면.
- 최정순(1994) 「국어 통사음운론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Chafe, Wallace L.(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병원·성기철 역(2006), 「담화와 의식과 시간; 언어의식론」 한국문화사.
- Halliday, M. A. K. and Matthiesen, M. I. M.(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ition). London: Hodder Arnold.(1st edition, Halliday 1985; 2nd edition, Halliday 1994)
- Itô, J.(1986). *Syllable Theory in Prosodic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Jun, Sun-Ah(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The Ohio University.
- Jun, Sun-Ah(2000) *K-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1*,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Journal of Speech Science*, Vol. 7, No. 1:143~169.
- Kang, Ongmi(1992) *Korean Prosodic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3) *Korean Prosodic Phonology*, Seoul:Taehaksa.
- Ladd, D. R.(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spor, Marina and Irene Vogel(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Selkirk, E.(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정선방언 비음절화와 성조의 변동

최영미(경동대)

<차례>

1. 머리말
 2.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규칙
 3. 모음탈락에 의한 비분절화
 4. 반모음화에 의한 비분절화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는 정선방언의 비음절화에 따른 성조의 변동을 기술하고 정선방언에서 실현되는 보상적 상성화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모음충돌(hiatus)은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의 개입이 없는 음소 연쇄일 때 발생한다. 모음이 충돌할 때, 앞 성절음을 점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고, 조음으로 매우 불편한 음의 연쇄이다. 이에 많은 언어에서 모음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은 자음 첨가, 모음 탈락, 반모음화, 모음 축약 등이 있다. 이 중에 모음탈락과 반모음화는 분절음 층위에서 비음절화를 수반하고, 비음절화는 운율 층위에서 성조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조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선방언에서도 모음충돌의 환경에서 분절음 층위에서는 모음탈락, 모음축약,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비음절화가 실현되고 비분절음 운율 층위에서는 성조 변동이 일어난다. 정선방언에서 용언 어간에 ‘-아/어X’가 결합할 때 성조 변동을 보이면 (1), (2)와 같다.

(1) ㄱ. (·개-+-어·서 → 개·어·서 /H²M/[MHM] → :개·서 /M²/[MH]
 ㄴ. (·따-+-아·서 → ·따·서 → 따서 /H²/[MH]

(2) ㄱ. 세(計)-+-어·서 → 세·어·서 → 세·서 /HM/[HM] ~ :세·서/M²/[MH]
 ㄴ. 케(點火)-+-어·서 → 케·어·서 → ?케·서 /M²/[MH]

(1)과 (2)는 분절음 층위의 음운과정에서 용언 어간과 ‘-아/어X’가 결합하여 ‘동일모음 탈락’이나 ‘모음상 혼동화 → 동일모음 탈락’을 겪고 공통적으로 비음절화가 일어난다. 반면, 운율 층위에서는 (1ㄱ)과 (2ㄱ)은 비음절화로 인하여 탈락한 모음에 얹혔던 성조가 그대로 남아 성조의 변동 즉,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만

(1ㄴ)과 (2ㄴ)은 비음절화로 말미암아 탈락한 모음에 얹혀 있던 성조도 탈락하여 성조가 상성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김봉국(2002:123~152)은 정선방언을 준성조방언으로 파악하고, 운율 층위에서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1ㄱ)과 (2ㄱ)은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언어의 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은 성조를 바라보는 단순한 관점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정선방언이 성조방언에서 비성조방언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과 음장방언과 준성조방언 운율의 실현이 다를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면, 성조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필자에게는 적어도 그렇다.

그렇다면, 왜 음운과정에서 동일하게 비음절화를 겪고 난 후, (1ㄱ)과 (2ㄱ)은 운율 층위에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는데 (1ㄴ)과 (2ㄴ)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가?¹⁶⁾ 이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선방언에서 보상적 상성화가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규칙

2.1. 성조소와 성조의 음운과정

정선방언의 성조체계는 세 개의 성조소를 가진다. 성조소는 각 음절에 얹힌 높낮이 자질로서, 높낮이가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다. 정선방언과 삼척방언 성조체계도 3개의 성조소로 이루어졌으며, 방점과 성조소의 대응 관계를 제시하면 (3)과 같다.

(3) 성조소의 대응관계

성조 분류		중세국어	정선방언	삼척방언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	고 /H/ □	고 /H/ □
측성	저성	가장 높은 음조 /M/ ·□	저 /M/ ·□	저 /M/ ·□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	저 /M/ :□	고: /H/ :□

(3)을 보면, 중세국어의 평성(□, /L/)과 거성(·□, /H/)이 정선·삼척방언의 평성(□, /H/)과 거성(·□, /M/)으로 그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허웅(1965:357)은 중세국어와 김해방언의 대응관계를 고찰하여, 중세국어와 김해방언의 평성과 거성의 음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세국어, 정선방언, 삼척방언의 상성(:□)의 음조를 /R, M, H/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는 각 성조방언마다 실현되는 음조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¹⁷⁾.

성조형은 형태소, 단어, 어절의 각 음절에 부여된 성조소의 연결형이며, 형태소, 단어, 어절에 얹히는 높낮이 가락을 지칭한다. 성조방언에서 모든 성조소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지만, 성조방언에 존재하는 성조규칙이나 음조규칙에 따라 성조형은 한정되고 제한되어, 형태소, 단어, 어절의 성조형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가저성조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조로 실현되는 성조의 음운과정은 방점형 → /성조형/ → [음조형]의

16) 비음절화에 수반되는 운소의 변동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는 한영균(1988), 고광모(1991), 이진호(2001) 등이 있다. 한영균(1988)과 고광모(1991)은 논의에 차이는 있지만 성조가 소멸하고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획득하면서 보상적 장모음화가 발생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비음절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면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고 비음절화가 수의적으로 적용되면 보상적 장모음화가 실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이진호(2011)는 반모음화는 원래 보상적 장모음화를 동반하지 않다가 반모음 첨가와 중복음 탈락이라는 변화가 연속적으로 적용되어 보상적 장모음화를 일으키거나 유추, 감염 또는 개별 어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상적 장모음화를 보인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통시적인 관점은 주로 현대국어의 음장방언을 대상으로 음운 규칙과 보상적 장모음화의 연관성을 논의했다.

17) 중세국어 성조의 음조는 김완진(1977:29), 정선방언 성조의 음조는 최영미(2009:37), 삼척방언 성조의 음조는 김차균(2006ㄱ:37)에서 제시하고 있다.

3단계를 거친다. ‘집, ·몸, :일’이 조사 ‘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정선방언의 음운과정을 보이면 (4)와 같다.

(4) 성조의 음운과정

층위		어휘		
		단계	집·이(家)	·몸·이(身)
기 저 층 위	기저방점표상	□ + □	·□ + □	:□ + □
	←성조규칙	당연규칙 ¹⁸⁾	중화규칙	중화규칙
			·□ ² (중간형)	
			거성의 평2형화규칙	
최종방점표상	□·□	□ ²	:□ ²	
	성조형	/HM/	/H ² /	/M ² /
표 면 층 위	←음조실현규칙	평1형 음조실현규칙	평2형 음조실현규칙	상성형 음조실현규칙
		음조형	[HM]	[MH]

(4)에서 기저방점표상은 형태소와 단어가 가지는 고유 성조소의 연결형이고, 최종방점표상은 기저방점표상에 성조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것이며, /성조형/은 최종방점표상을 (3)에 제시한 성조소로 바꾼 성조소의 연속체이다. 또한, [음조형]은 /성조형/에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된 표면층위의 성조연속체이다. (4)를 보면, 성조의 음운과정에서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

성조규칙은 기저방점표상이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정선방언의 성조규칙을 제시하면 (5)와 같다.

(5) 정선방언의 성조규칙

ㄱ. 중화규칙(김차균 2006L:34)

- ① <<□ —>>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 ② <<{·□, :□, ·□,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ㄴ. {·에} 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거성의 평성화규칙은 거성형 어휘형태소가 토씨 {·에X}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거성이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이다.

ㄷ. 모음 앞에서 상성의 평성화

상성의 평성화규칙은 상성형 어휘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토씨나 시끝과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상성이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이다.

ㄹ. 거성형의 평2형화규칙

정선방언에서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과 합류하는 성조규칙이다. 단, 이 규칙은 공시규칙인 동시에 통시규칙이기도 하다.

18) 당연규칙은(default rule)은 기저방점표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마. 평복형¹⁹⁾의 자유변동

정선방언에서 n음절(단 n≥2)로 이루어진 평복형의 각 하위 방점형들은 서로 자유로 변동한다.

음조실현규칙은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정선방언의 음조실현규칙을 제시하면 (6)과 같다.

(6) 정선방언의 음조실현규칙(최영미 2010:36-37)

ㄱ. 단음절

① 평성 /H/ → [H̃] /#-#

② 거성 /M/ → [M̃] /#-#

③ 상성 /M/ → [M̃] /#-#

ㄴ. 다음절

① 평일형/HM₁/ → {[HM₁], [H₁HM₀]} / #_...#

② 평복형/H₂M n/ → [M₀HM_n] / #_...#²⁰⁾

③ 상성형/M₂/ → [M₀HM_n] / #_...#

성조의 음운과정에 따라 정선방언의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을 정리하면 (8)과 같다. 지면 관계 상 5음절로 된 어절의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만 제시한다.

(8)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구분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평 측 형	평1형 □·□ ⁴	/HM ⁴ /	[HM ⁴]
	평2형 □ ² ·□ ³	/H ₂ M ^y /	[MHM ³] ~ [M ₁ HM ²]~ [M ₁ ² HM] ~ [M ₁ ³ H]
	평3형 □ ³ ·□ ²		
	평4형 □ ⁴ ·□		
	평5형 □ ⁵		
측 성 형	거성형 (·□ ⁵ →)□ ₂ ·□ ⁿ	/H ₂ M ^y /	[MHM ³]
	상성형 :□ ⁵	/M ⁵ /	[MH ⁴]

이 연구의 성조 기술은 방점법 이론²¹⁾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자료는 최영미(2009)²²⁾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것이다.

19) 평복형은 어절의 첫 방점이 평성으로 시작하고, 둘 이상의 평성이 이어나는 성조형의 통칭을 말한다. 즉, 평측형 중에 평2형, 평3형, 평4형, 평5형... 등이 이에 속한다.

20) <<HM₁/ → {HM₁, [H₁HM₀]} / #_...#>>은 당연규칙(default rule)인 <<HM₁ / → [HM₁] / #_...#>>과 임의적인 변동규칙인 <<HM₁ / → [H₁HM₀] / #_...#>>을 합친 것이다.

21) 방점법 이론은 15-16세기 훈민정음에서부터 150여 년 동안 국어의 성조를 표기한 고전적인 방점법을 토대로, 김차균(1993) 이후에 확립한 새로운 방점법이다. 이 방점법은 성조의 조치를 평성과 측성으로 나눈 2분법과 유표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음절마다 방점을 표시한 것은 고전적인 방점법과 유사하지만, 방점으로 대립과 중화의 기능을 표시한 점과 방점기호, 첨자 등을 사용해서 어절을 구성하는 음절에 없던 성조를 표시한다는 점은 새롭게 고안된 것이다.

22)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수록된 자료 중에 비음절화와 관련된 어휘항목을 모두 추출하여 이 논문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3. 모음탈락에 의한 비음절화

모음탈락은 두 모음이 연결될 때 모음충돌회피의 방법 중의 하나다. 모음탈락은 두 모음이 연결되어 모음 ‘으’와 ‘아/어’가 탈락하는 현상이 있다. 음운과정에서 모음탈락을 겪으면 음절이 줄는데 이를 비음절화라고 한다. 정선방언은 성조언어인 바 성조에 따라 모음연쇄를 분류하여 모음탈락에 의한 비음절화로 인한 보상적 상성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거성형의 모음 연쇄

거성형 어간의 말이 개음절로 끝나고 어미 ‘-아/어X’가 결합하면 거성(·□) + 거성(·□)의 모음 연쇄를 이룬다. 이러한 모음의 연쇄를 보이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9) 거성(·□) + 거성(·□X)

- ㄱ. (·따-+-아·서 → ·따·서 →) 따서 /H²/[MH]
- (·짜-+-아·서 → ·짜·서 →) 짜서 /H²/[MH]
- (·까-+-아·서 → ·까·서 →) 까서 /H²/[MH]
- (·짜-+-아·서 → ·짜·서 →) 짜서 /H²/[MH]
- (·타-+-아·서 → ·타·서 →) 타서 /H²/[MH]
- (·파-+-아·서 → ·파·서 →) 파서 /H²/[MH]
- (·떠-+-어·서 → ·떠·서 →) 떠서 /H²/[MH]
- ㄴ. (·치-+-어·서 → ·치·서 →) 처서 /H²/[MH]
- (·찌-+-어·서 → ·찌·서 →) 찌서 /H²/[MH](蒸)
- ㄷ. (·끄-+-어·서 → ·꺼·서 →) 꺼서 /H²/[MH]
- (·크-+-어·서 → ·커·서 →) 커서 /H²/[MH]
- ㄹ. (·개-+-어·서 → ·개·서 →) /H²M/[$\widehat{MH}M$] → :개·서 /M²/[MH]
- (·매-+-어·서 → ·매·서 →) /H²M/[$\widehat{MH}M$] → :매·서 /M²/[MH]
- (·새-+-어·서 → ·새·서 →) /H²M/[$\widehat{MH}M$] → :새·서 /M²/[MH]
- (·떼-+-어·서 → ·떼·서 →) /H²M/[$\widehat{MH}M$] → :떼·서 /M²/[MH]
- (·썰-+-어·서 → ·썰·서 →) /H²M/[$\widehat{MH}M$] → :썰·서 /M²/[MH]
- (·쇠-+-어·서 → ·쇠·서 →) /H²M/[$\widehat{MH}M$] → :쇠·서 /M²/[MH]
- ㅁ. (·뿔-+-어·서 → ·뿔·서 →) /H²M/[$\widehat{MH}M$] → :뿔·서 /M²/[MH]
- (·휙-+-어·서 → ·휙·서 →) /H²M/[$\widehat{MH}M$] → :휙·서 /M²/[MH]
- ㅂ. (·쓰-+-어·서 → ·쓰·서 →) /H²M/[$\widehat{MH}M$] → :쓰·서 /M²/[MH]

(9ㄱ-ㄷ)은 모음탈락로 인한 비음절화를 겪은 후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9ㄹ-ㅂ)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

분절음 층위에서 (9ㄱ-ㄷ)은 용언 어간의 말음과 어미의 두음이 모음으로 연결된 것으로써 두 모음이 동일모음인 경우(V_i+V_i)는 중복음 탈락(타아서>타서)을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지만 다른 모음인 경우(V_i+V_j)는 어간의 모음(치어서>처서, 크어서>커서)이 탈락하게 된다. 또한, 운율 층위에서는 ‘(·타·아·서 → ·타·서 →)타서/H²/[MH]’의 음운과정을 거친다. 정선방언에서 거성형은 2음절 이상 어절이면 평2형으로 변한다. 즉, 기저방점형(·타·아·서)가 최종방점형(타서)으로 도출하는 과정에 (5ㄷ)에서 제시한 성조규칙이 적용되고,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이 되며,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어 보상적 상성화가 적용되지

않고 [MH]로 도출된다.

(9ㄹ-ㅂ)은 용언 어간의 말음과 어미의 두음이 모음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두 모음이 다른 모음인 경우 (V_i+V_j)인 경우이다. (9ㄹ-ㅁ)은 분절음 층위에서 두 모음은 ‘모음순행동화(캐어서>캐에서)’을 거치고 (9ㄹ)은 ‘중복음 탈락(캐에서>캐서)’을 거치고 (9ㅁ)은 모음탈락(훼에서>훼서)을 거친다. 또한 (9ㅂ)은 ‘모음순행동화’를 거치지 않고 용언 어간의 말음인 ‘으’가 탈락한 것이다. 그리고 운율 층위에서는 ‘(·캐·애·서 →) 캐애·서 /H²M/[\widehat{MH} M] →) :캐·서/M²/[MH]’의 음운과정을 거친다. 즉 ‘거성의 평2형화규칙’을 거치고, ‘보상적 상성화’를 겪게 된다. 이때, ‘보상적 상성화’에 대해 김봉국(2002:123-152)는 강릉과 삼척 지역어에서는 저조와 고조가 병치된 저고복합조화가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정선 지역어는 원주 지역어와 함께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3.2. 평측형의 모음 연쇄

평측형 체언이나 용언 중에서 두 모음이 연결될 때 성조의 변동은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먼저 체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성조의 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정리하면 (10)과 같다.

(10) 평성(□) + 평성(□)

ㄱ. 마알(村)	/H²/[\widehat{MH}]	~	:말	/M²/[MH]
새애(間)	/H²/[\widehat{MH}]	~	:새	/M²/[MH]
마음(心)	/H²/[\widehat{MH}]	~	:맘	/M²/[MH]
ㄴ. 추우(寒)	/H²/[\widehat{MH}]	~	:추	/M²/[MH]

(10)은 형태소 내부에서 평성과 평성이 결합하여 성조의 변동이 있다. 분절음 층위에서 (10ㄱ)은 통시적 변화 과정로 말미암아 중복음탈락(ㅁ술>ㅁ을>마알>말)을 겪어 비음절화하였고, (10ㄴ)은 모음순행동화(추위>추우)를 겪고 중복음탈락(추우>추)하여 비음절화를 겪었다. 한편 운율 층위에서 (10ㄱ-ㄴ)은 기저방점표상(□□)이 최종방점표상으로 그대로 도출되고, 최종방점표상이 성조형으로 바뀌어 성조형 /H²/가 되었다. 성조형에서 표면형으로 도출할 때, (6ㄴ)의 ②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고 보상적 상성화를 겪어서 음조형 [\widehat{MH}]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두 모음이 결합할 때, 성조의 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살펴보자. 체언이 곡용할 때 모음탈락이나 축약으로 말미암아 비음절화를 겪는 예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용언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예가 매우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인 것과 평복형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어절의 성조형이 평측형 중 평1형인 것을 정리하면 (11)과 같다.

(11) 평1형(□~□·□) + 거성(·□X)

ㄱ. 세+--어·서 → 세·어·서 ~ 세·애·서	/HM²/[HM²] → 세·서 /HM/[\widehat{HM}] ~ 세·서	/M²/[MH]計
때+--어·서 → 때·어·서 ~ 때·애·서	/HM²/[HM²] → 때·서 /HM/[\widehat{HM}] ~ 때·서	/M²/[MH]
쉬+--어·서 → 쉬·어·서 ~ 쉬·애·서	/HM²/[HM²] → 쉬·서 /HM/[\widehat{HM}] ~ 쉬·서 ²³⁾	/M²/[MH]

ㄴ. 뒤-+-어·서 → 뒤·어·서 ~ 뒤·에·서 /HM ² /[HM ²] → [?] :뒤·서 /M ² /[MH]
매-+-어·서 → 매·어·서 ~ 매·애·서 /HM ² /[HM ²] → [?] :매·서 /M ² /[MH]
깨-+-어·서 → 깨·어·서 ~ 깨·애·서 /HM ² /[HM ²] → [?] :깨·서 /M ² /[MH](破)
뀌-+-어·서 → 끼·어·서 ~ 끼·에·서 /HM ² /[HM ²] → [?] :뀌·서 /M ² /[MH]
케-+-어·서 → 케·어·서 ~ 케·에·서 /HM ² /[HM ²] → [?] :케·서 /M ² /[MH]點火
데-+-어·서 → 데·어·서 ~ 데·에·서 /HM ² /[HM ²] → [?] :데·서 /M ² /[MH]디다
재-+-어·서 → 재·어·서 ~ 재·애·서 /HM ² /[HM ²] → [?] :재·서 /M ² /[MH](測)
짚-+-어·서 → 짚·어·서 ~ 짚·외·서 /HM ² /[HM ²] → [?] :짚·서 /M ² /[MH]
찌-+-어·서 → 찌·어·서 ~ 찌·에·서 /HM ² /[HM ²] → [?] :찌·서 /M ² /[MH]
ㄷ. 근·치-+-어·서 → 근·치·어·서 ~ 근·치·에·서 /HM ³ /[HM ³] → 근·치·서 /HM ² /[HM ²]
보·내-+-어·서 → 보·내·어·서 ~ 보·내·애·서 /HM ³ /[HM ³] → 보·내·서 /HM ² /[HM ²]
언·지-+-어·서 → 언·지·어·서 ~ 언·지·에·서 /HM ³ /[HM ³] → 언·저·서 /HM ² /[HM ²]
얼·리-+-어·서 → 얼·리·어·서 ~ 얼·리·에·서 /HM ³ /[HM ³] → 어·리·서 /HM ² /[HM ²]
달·개-+-어·서 → 달·개·어·서 ~ 달·개·애·서 /HM ³ /[HM ³] → 달·개·서 /HM ² /[HM ²]
개·애-+-어·서 → 개·애·어·서 ~ 개·애·애·서 /HM ³ /[HM ³] → 개·애·서 /HM ² /[HM ²]
빼·끼-+-어·서 → 빼·끼·어·서 ~ 빼·끼·에·서 /HM ³ /[HM ³] → 빼·끼·서 /HM ² /[HM ²]
비·비-+-어·서 → 비·비·어·서 ~ 비·비·에·서 /HM ³ /[HM ³] → 비·베·서 /HM ² /[HM ²]
견·제-+-어·서 → 견·제·어·서 ~ 견·제·에·서 /HM ³ /[HM ³] → 견·제·서 /HM ² /[HM ²]
자·라-+-어·서 → 자·라·어·서 /HM ³ /[HM ³] → 자·라·서 /HM ² /[HM ²]
ㄹ. 모·르-+-어·서 → 모·르·어·서 /HM ³ /[HM ³] → :모·라·서 /M ³ /[MHM]

(11ㄱ)은 평성형 용언어간(□)과 어미 ‘-아/어X’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인 것으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는 예이고, (11ㄴ)은 평1형 용언어간(□·□)과 어미 ‘-아/어X’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인 것으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예이다.

(11ㄱ-ㄹ)은 분절음 층위에서 ‘모음순행동화(세어서>세에서)’ 또는 ‘모음상호동화(뛰어서>뒹에서)’를 겪고 ‘중복음탈락’이나 ‘모음탈락’이 일어나서 비음절화를 겪는다. 다만 (11ㄱ-ㄷ)은 ‘아/어~애/에’가 탈락하지만 (11ㄹ) 불규칙 동사로 ‘으’가 탈락한다.

한편 운율 층위에서 (11ㄷ)은 기저방점표상(□·□³)이 최종방점표상으로 그대로 도출되고, 최종방점표상이 성조형으로 바뀌어 성조형 /HM³/이 되었다.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하여 음조형 [HM³]이 된다. (11ㄷ)은 두 모음이 연쇄가 일어나서 모음탈락으로 말미암아 비음절화가 일어나지만 성조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11ㄹ)은 중세국어에서부터 평측형(평1형)이 상성형으로 성조가 변동하는 불규칙동사이므로 보상적 상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11ㄱ-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예이다. 즉, 운율 층위에서 (11ㄱ-ㄴ)은 기저방점표상(□·□²)이 최종방점표상으로 그대로 도출되고, 최종방점표상이 성조형으로 바뀌어 성조형 /HM²/가 되었다.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하여 음조형 [HM²]가 된다. 그런데 (11ㄱ)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만, (11ㄴ)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나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방언조사 당시에 제보자들이 (11ㄴ)을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 보상적 상성형보다 보상적 상성형이 겪지 않은 평측형(평1형)으로 주로 발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1ㄱ)이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입장에서는 (11ㄴ)이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유추’나 ‘감염’을 제시한다. 즉, 비음절화를 겪은 후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 성조형에 ‘유추’나 ‘감염’이 되어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났다고 보고자 한다²⁴⁾. 따라서 (11ㄱ)은 신형이고

23) 김봉국(2002:147)은 ‘X웨-+-어X →웨에’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적용되어 활음화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1ㄴ)은 구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정선방언에서 평측형은 평측형과 평복형으로 구분되는데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11ㄴ)은 정선방언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힘의 지배를 받아 평측형과 평복형을 구분하려는 의식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11ㄱ)과 같은 예는 평일형과 평복형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어절의 성조형이 평측형 중 평2형인 것을 정리하면 (12)와 같다.

(12) 평복형(□□) + 거성(·□X)

ㄱ. 꺼메--+·어·서	→	꺼메·어·서 ~ 꺼메·애·서	/H ² M ² /[MHM ²]	→	꺼메·서	/H ² M/[MHM]
까마--+·어·서	→	까마·어·서 ~ 까마·애·서	/H ² M ² /[MHM ²]	→	까매·서	/H ² M/[MHM]
꾸미--+·어·서	→	꾸미·어·서 ~ 꾸미·애·서	/H ² M ² /[MHM ²]	→	꾸매·서	/H ² M/[MHM]
더해--+·어·서	→	더해·어·서 ~ 더해·애·서	/H ² M ² /[MHM ²]	→	더해·서	/H ² M/[MHM]
바라--+·어·서	→	바라·어·서 ~ 바라·애·서	/H ² M ² /[MHM ²]	→	바래·서	/H ² M/[MHM]
퍼래--+·어·서	→	퍼래·어·서 ~ 퍼래·애·서	/H ² M ² /[MHM ²]	→	퍼래·서	/H ² M/[MHM]
패래--+·어·서	→	패래·어·서 ~ 패래·애·서	/H ² M ² /[MHM ²]	→	패래·서	/H ² M/[MHM]
떠나--+·아·서	→	떠나·아·서	/H ² M ² /[MHM ²]	→	떠나·서	/H ² M/[MHM]
야푸--+·어·서	→	야푸·어·서	/H ² M ² /[MHM ²]	→	야퍼·서	/H ² M/[MHM]
ㄴ. 야프--+·아·서	→	야프·아·서 ~ 야프·어·서	/H ² M ² /[MHM ²]	→	야파·서 ~ 야퍼·서	/H ² M/[MHM]
아프--+·아·서	→	아프·아·서 ~ 아프·어·서	/H ² M ² /[MHM ²]	→	아파·서 ~ 아퍼·서	/H ² M/[MHM]
바쁘--+·어·서	→	바쁘·아·서 ~ 바쁘·어·서	/H ² M ² /[MHM ²]	→	바빠·서 ~ 바퍼·서	/H ² M/[MHM]
다르--+·아·서	→	다르·아·서 ~ 다르·어·서	/H ² M ² /[MHM ²]	→	달라·서~달러·서	/H ² M/[MHM]
마르--+·아·서	→	마르·아·서 ~ 마르·어·서	/H ² M ² /[MHM ²]	→	말라·서~말러·서	/H ² M/[MHM](燥)
그르--+·어·서	→	그르·어·서	/H ² M ² /[H ² M ²]	→	글러·서	/H ² M/[MHM]
ㄷ. 빠르--+·아·서	→	빠르·아·서	/H ² M ² /[MHM ²]	→	빨·라·서	/HM ² /[HM ²]
이르--+·어·서	→	이르·어·서	/H ² M ² /[H ² M ²]	→	일·러·서	/HM ² /[HM ²]
짜르--+·아·서	→	짜르·아·서	/H ² M ² /[MHM ²]	→	짤·라·서	/HM ² /[HM ²]
흐르--+·어·서	→	흐르·어·서	/H ² M ² /[MHM ²]	→	흘·러·서	/HM ² /[HM ²]
무르--+·어·서	→	무르·어·서	/H ² M ² /[MHM ²]	→	물·러·서	/HM ² /[HM ²]
빠르--+·어·서	→	빠르·어·서	/H ² M ² /[MHM ²]	→	빨·러·서	/HM ² /[HM ²]
짜르--+·어·서	→	짜르·어·서	/H ² M ² /[MHM ²]	→	짤·러·서	/HM ² /[HM ²]

(12ㄱ-ㄷ)은 평복형 용언어간(□□)과 어미 ‘-·아/·어X’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형이 평2형인 것으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이다.

분절음 층위에서 (12ㄱ-ㄷ)은 ‘중복음탈락’이나 ‘모음순행동화(까매어서>까매에서)’를 겪어 ‘모음탈락’이 일어나서 비음절화를 겪는다. 즉, (12ㄱ)은 모음 ‘아/어~애/에’가 탈락하지만 (12ㄴ-ㄷ)은 모음 ‘으’가 탈락한다.

운을 층위에서 (12ㄱ-ㄷ)은 기저방점표상(□²·□²)이 최종방점표상으로 그대로 도출되고, 최종방점표상이 성조형으로 바뀌어 성조형 /H²M²/가 되었다. 성조형에 (6ㄴ)의 ②에서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HMM~M_{HH}HM~M_{HHH}H]²⁵이 도출된다. 여기에 (12ㄱ-ㄷ)에서는 둘째음절 혹은 셋째음절의 모음이 탈

24) 비록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이진호(2011:120-121)은 반모음화에 따른 운소 변동의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현대국어의 보상적 장모음화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기술한 바가 있다. 또한 필자와 견해가 다르지만 김봉국(2002)도 강릉과 삼척 지역어에서 활음화(=반모음화)에 따른 고저복합조로 (11ㄱ)과 같은 예를 설명하고 정선 지역어에서는 보상적 장모음화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5) 정선방언에서 평복형은 자유변동을 한다. 즉, (11ㄱ-ㄴ)은 4음절 평복형이다. 4음절의 평복형은 평2형(□²·□²), 평3형(□³·□), 평성형(□⁴) 등은 자유롭게 변동한다. 이로 인해 정선방언에서 평복형은 수의적으로 변동을 한다. 따라서 (11ㄱ-ㄴ)의 음조형 [MHMM]은 변이음조형 [M_{HH}HM~M_{HHH}H]을 갖는다.

락하는데, (12ㄱ-ㄴ)은 셋째음절의 모음에 얹힌 성조가 탈락하여 평복형이 도출되고, (12ㄷ)은 둘째음절에 얹힌 성조가 탈락하여 평1형이 도출된다. 이로 인해 비음절화를 겪은 이후 음조형은 [MHM~MHH]로 실현되어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3. 상성형의 모음 연쇄

상성형 어간의 말음이 개음절로 끝나고 어미 ‘--아/어X’가 결합하면 두 모음이 연결된다. 이러한 모음의 연쇄를 보이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3) 상성형(:□, :□·□) + 거성(·□X)

ㄱ. 메-+-어·서	→	메·어·서~메·에·서 /HM ² /[HM ²]	→	[?] :메·서	/M ² /[MH]:메·다
괴-+-어·서	→	괴·어·서~괴·외·서 /HM ² /[HM ²]	→	[?] :괴·서	/M ² /[MH]:괴·다
되-+-어·서	→	되·어·서~되·애·서 /HM ² /[HM ²]	→	[?] :되·서	/M ² /[MH]:되·다(硬)
쥐-+-어·서	→	쥐·어·서~쥐·에·서 /HM ² /[HM ²]	→	[?] :쥐·서	/M ² /[MH]:쥐·다(把)
ㄴ. 긍-+-어·서	→	긍·어·서 /HM ² /[HM ²]	→	[?] :거·서	/M ² /[MH]:긍·다(線)
냥-+-아·서	→	냥·아·서 /HM ² /[HM ²]	→	[?] :나·서	/M ² /[MH]:냥·다(線)
ㄷ. :근·내-+-어·서	→	:근·내·어·서 ~ :근·내·애·서 /M ⁴ /[MHM ²]	→	:근·내·서	/M ³ /[MHM]
:지·내-+-어·서	→	:지·내·어·서 ~ :지·내·애·서 /M ⁴ /[MHM ²]	→	:지·내·서	/M ³ /[MHM]
:지·대-+-어·서	→	:지·대·어·서 ~ :지·대·애·서 /M ⁴ /[MHHM]	→	:지·대·서	/M ³ /[MHM]
:놀·래-+-어·서	→	:놀·래·어·서 ~ :놀·래·애·서 /M ⁴ /[MHHM]	→	:놀·래·서	/M ³ /[MHM]
:내·치-+-어·서	→	:내·치·어·서 /M ⁴ /[MHHM]	→	:내·치·서	/M ³ /[MHM]
:이·뿌-+-어·서	→	:이·뿌·어·서 /M ⁴ /[MHHM]	→	:이·뿌·서	/M ³ /[MHM]
ㄹ. :누·르-+-어·서	→	:누·르·어·서 /M ⁴ /[MHHM]	→	:놀·러·서	/M ³ /[MHM]
:슬·프-+-어·서	→	:슬·프·어·서 /M ⁴ /[MHHM]	→	:슬·퍼·서	/M ³ /[MHM]
:고·르-+-아·서	→	:고·르·아·서~:고·르·어·서 /M ⁴ /[MHHM]	→	:골·라·서~:골·라·서	/M ³ /[MHM]

(13ㄱ-ㄴ)은 상성형 1음절 용언어간(:□)과 어미 ‘--아/어X’가 결합하고,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이다. (13ㄷ-ㄹ)은 2음절 이상의 상성형 용언어간과 ‘--아/어X’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형이 상성형이다. (13ㄱ-ㄹ)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분절음 층위에서 (13ㄱ)과 (13ㄷ)은 ‘모음순행동화(메어서>메에서)’와 ‘모음탈락’을 겪어 비음절화가 실현되고, (13ㄴ)과 (13ㄹ)은 모음 ‘으’가 탈락하여 비음절화를 겪는다. 또한 운율 층위에서 (13ㄱ-ㄴ)은 가변적 상성형으로 모음어간 앞에서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으로 변동하고 (13ㄷ-ㄹ)은 다음절 상성형은 고정적 상성형으로 어절의 성조형이 상성형으로 변동한다. 이에 (13ㄱ-ㄴ)은 기저방점형(:□·□·□)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될 때 (5ㄷ)에 제시한 성조규칙이 적용되어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M²/가 도출되고,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어 음조형 [HM²]가 도출된다. 그러나 (13ㄱ-ㄴ)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정선방언 제보자들은 (13ㄱ-ㄴ)을 평1형으로 발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11ㄴ)의 설명에서 제시한 근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3ㄷ-ㄹ)은 기저방점형(:□·□·□·□)이 그대로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되어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M⁴/가 도출되고,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될 때, (6ㄴ)③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HMM~MHHM~MHHH]이 도출된다. 이때, 분절음 층위에서 둘째음절과 셋째음절의 모음이 탈락할 때 그 모음에 얹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여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4. 변동평성형의 모음 연쇄

변동평성형은 용언의 어간에 뒤따르는 씨끝에 따라 용언어간의 성조가 변동을 함을 말한다. 주로 개음절로 끝나는 동사어간이 이에 속한다. 변동평성 동사어간과 ‘-아/어X’가 결합하면 두 모음의 연쇄가 일어나서 비음절화를 겪고 성조의 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정리하면 (14)와 같다.

(14) 변동평성형(□) + 거성(·□X)

- ㄱ. 가-+-아 → *가·아 → ·가 /M/[M]
 나-+-아 → *나·아 → ·나 /M/[M]
 자-+-아 → *자·아 → ·자 /M/[M]
 사-+-아 → *사·아 → ·사 /M/[M]
 서-+-어 → *서·어 → ·서 /M/[M]
 지-+-어 → ·지·어 → ·저 /M/[M]
- ㄱ'. 가-+-아·도 → (·가·아·도 → ·가·도→) 가도 /H²/[MH]
 나-+-아·도 → (·나·아·도 → ·나·도→) 나도 /H²/[MH]
 자-+-아·도 → (·자·아·도 → ·자·도→) 자도 /H²/[MH]
 사-+-아·도 → (·사·아·도 → ·사·도→) 사도 /H²/[MH]
 서-+-어·도 → (·서·어·도 → ·서·도→) 서도 /H²/[MH]
 지-+-어·도 → (·지·어·도 → ·지·도→) 지도 /H²/[MH]
- ㄴ. 하-+-여 → (·하·여→) 하여 /H²/[MH] → :해 /M/[M]
 ㄴ'. 하-+-여·도 → (·하·여·도→) 하여·도 /H²M/[MH] → :해·도 /MH/[MH]

(14ㄱ)은 변동평성형 동사어간(가-, 나-, 자-, 사-, 서-, 지-)과 어미 ‘-아/어X’가 결합하고, 어절의 성조형이 거성형으로 실현된 것이고, (14ㄴ)은 변동평성형 동사어간(하-)과 ‘-아/어X’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형이 상성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14ㄱ)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14ㄴ)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

분절음 층위에서 (15ㄱ-ㄴ)은 두 모음이 연결되어 ‘중복음탈락(가아>가)’이나 ‘모음탈락(지어>저)’이 일어나고 비음절화를 겪는다. 또한 운율 층위에서는 (14ㄱ)은 기저방점형(□·□)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의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모음이 탈락할 때, 비음절화로 인해 모음에 얹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5ㄷ)에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최종방점형 ·□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M/이 되고,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6ㄱ)②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이 도출된다. (14ㄱ')은 기저방점형(□·□·□)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될 때,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의 개별적 특성²⁶⁾에 의해서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5ㄷ)에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종방점형 □□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가 되고, 이 성조형에 (6ㄴ)①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H]가 도출된다. 그러나 (14ㄱ)과 (14ㄱ')는 보상적 상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4ㄴ)과 (14ㄴ')의 성조의 음운과정은 (14ㄱ')와 같다. 그러나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14ㄱ-ㄱ')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14ㄴ-ㄴ')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날까? 이에 대한 기술은 통시적으로 비음절화에 따른 성조를 살펴본 후라야 기술할 수 있지만, 우선 (14ㄱ-ㄱ')은 ‘지·어’를 제외하면 중복음이 필수적으로 탈락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26)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은 ‘-아/어X’와 결합을 하면,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화한다.

4. 반모음화에 의한 비음절화

반모음화는 두 모음이 연결될 때 모음충돌회피의 방법 중 하나로, 연쇄된 두 모음 중 어느 하나가 반모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과정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음절이 줄게 되어 비음절화를 겪는다. 반모음화는 /j/ 반모음화와 /w/ 반모음화로 구분하고, 어근 또는 어간성조에 따라 성조의 변동을 살펴볼 것이다.

4.1. /j/ 반모음화

/j/ 반모음화는 연쇄된 두 모음 중 어느 하나가 반모음 /j/로 변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j/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면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거성형, 평측형, 상성형, 변동평성형 등 4가지로 어간의 성조를 구분하여 예를 제시할 것이다.

첫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거성형일 때,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예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5) 거성형(·□) + 거성(·□X)

·피·+·어·서 → (·피·어·서~·피·어·서 → ·피·서 → ·폐·서) 폐서 /H²/[MH] → :폐·서 /M²/[MH]
 ·기·+·어·서 → (·기·어·서~·기·어·서 → ·겨·서 → ·게·서) 게서 /H²/[MH] → :게·서 /M²/[MH]

(15)는 분절음 층위에서 ‘모음순행동화(피어서>피에서)’, ‘/j/ 반모음화(피에서>폐서)’, ‘여→에 축약’ 등이 일어난 후 비모음화를 겪는다. 또한 운율 층위에서는 ‘(·피·어·서~·피·어·서 → ·피·서 → 폐서) 폐서 /H²/[MH]’의 음운과정을 거쳐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 즉, 기저방점형(·□·□·□)가 최종방점형(□□)으로 도출하는 과정에 (5ㄷ)에서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이 되며,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면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

김봉국(2002:129)은 (15)와 같은 운율의 변동을 삼척이나 강릉 지역에서는 저고복합조를 실현되지만 정선 방언에서는 음장이 변변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고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정선 방언을 성조언어라고 판단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음절에 줄어진 것에 대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날 때, 성조체계에서 가장 유사한 성조소인 상성형(:□)과 음조 차원에서 동일적으로 실현된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평측형일 때,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예를 보자. 평측형은 어절의 첫 방점을 기준으로 앞에 나타나는 평성의 개수에 따라 구분된다. 즉, 하나이면 평1형, 둘이면 평2형, 셋이면 평3형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어절이 평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평성형으로 구분한다. 또한, 정선 방언 성조체계에는 평측형은 평1형과 평복형만이 변별적으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5ㄹ)에 제시한 ‘평복형의 자유변동’이라는 성조규칙이 음운과정에 적용되어 평복형의 하위방점형들은 변별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근이나 어간의 성조가 평측형이면서 비음절화를 겪는 예는 평1형과 평복형으로 구분하여 예를 제시한다.

먼저, 평1형의 예를 제시하면 (16)과 같다. (16ㄱ)은 명사와 조사 ‘·에’가 연결되어 비음절화가 실현되는 예이고, (16ㄴ-ㄷ)은 용언어간에 ‘-·아/·어X’가 결합하여 /j/ 반모음화가 비음절화를 겪는 예이다.

(16) 평1형(□) + 거성(·□X)

- ㄱ. 머·리+에 → 머·리·에/HM²/[HM²] ~ 머·리·예/HM²/[HM²] → 머·레 → 머·레 /HM/[HM~*HM̂]
- 고·기+에 → 고·기·에/HM²/[HM²] ~ 고·기·예/HM²/[HM²] → 고·게 → 고·게 /HM/[HM~*HM̂]
- ㄴ. 비·비+어·서 → 비·비·어·서 /HM³/[HM³] → 비·벼·서 → 비·베·서 /HM²/[HM²~*HM̂M]
- 생·키+어·서 → 생·키·어·서 /HM³/[HM³] → 생·켜·서 → 생·케·서 /HM²/[HM²~*HM̂M](香)
- 팅·기+어·서 → 팅·기·어·서 /HM³/[HM³] → 팅·겨·서 → 팅·게·서 /HM²/[HM²~*HM̂M]
- 이·기+어·서 → 이·기·어·서 /HM³/[HM³] → 이·겨·서 → 이·게·서 /HM²/[HM²~*HM̂M]
- 쑥·이+어·서 → 쑥·이·어·서 /HM³/[HM³] → 쑥·여·서 → 쑥·예·서 /HM²/[HM²~*HM̂M]
- 올·리+어·서 → 올·리·어·서 /HM³/[HM³] → 올·려·서 → 올·레·서 /HM²/[HM²~*HM̂M]
- 플·리+어·서 → 플·리·어·서 /HM³/[HM³] → 플·려·서 → 플·레·서 /HM²/[HM²~*HM̂M]
- 흘·리+어·서 → 흘·리·어·서 /HM³/[HM³] → 흘·려·서 → 흘·레·서 /HM²/[HM²~*HM̂M]
- ㄷ. 마·시+어·서 → 마·시·어·서 ~ 마·시·에·서/HM³/[HM³] → 마·세·서 → 마·세·서 /HM²/[HM²~*HM̂M]
- 찍·기+어·서 → 찍·기·어·서 ~ 찍·기·에·서/HM³/[HM³] → 찍·게·서 → 찍·게·서 /HM²/[HM²~*HM̂M]
- 땡·기+어·서 → 땡·기·어·서 ~ 땡·기·에·서/HM³/[HM³] → 땡·게·서 → 땡·게·서 /HM²/[HM²~*HM̂M]
- 끓·리+어·서 → 끓·리·어·서 ~ 끓·리·에·서/HM³/[HM³] → 끄·레·서 → 끄·레·서 /HM²/[HM²~*HM̂M]
- 끓·리+어·서 → 끓·리·어·서 ~ 끓·리·에·서/HM³/[HM³] → 끓·레·서 → 끓·레·서 /HM²/[HM²~*HM̂M]
- 느·리+어·서 → 느·리·어·서 ~ 느·리·에·서/HM³/[HM³] → 느·레·서 → 느·레·서 /HM²/[HM²~*HM̂M]
- 대·리+어·서 → 대·리·어·서 ~ 대·리·에·서/HM³/[HM³] → 대·레·서 → 대·레·서 /HM²/[HM²~*HM̂M]
- 돌·리+어·서 → 돌·리·어·서 ~ 돌·리·에·서/HM³/[HM³] → 돌·레·서 → 돌·레·서 /HM²/[HM²~*HM̂M]
- 때·리+어·서 → 때·리·어·서 ~ 때·리·에·서/HM³/[HM³] → 때·레·서 → 때·레·서 /HM²/[HM²~*HM̂M]
- 버·리+어·서 → 버·리·어·서 ~ 버·리·에·서/HM³/[HM³] → 버·레·서 → 버·레·서 /HM²/[HM²~*HM̂M]
- 올·리+어·서 → 올·리·어·서 ~ 올·리·에·서/HM³/[HM³] → 올·레·서 → 올·레·서 /HM²/[HM²~*HM̂M]
- 제·리+어·서 → 제·리·어·서 ~ 제·리·에·서/HM³/[HM³] → 제·레·서 → 제·레·서 /HM²/[HM²~*HM̂M]
- 채·리+어·서 → 채·리·어·서 ~ 채·리·에·서/HM³/[HM³] → 채·레·서 → 채·레·서 /HM²/[HM²~*HM̂M]
- 얼·리+어·서 → 얼·리·어·서 ~ 얼·리·에·서/HM³/[HM³] → 어·레·서 → 어·레·서 /HM²/[HM²~*HM̂M]
- 쌀·이+어·서 → 쌀·이·어·서 ~ 쌀·이·에·서/HM³/[HM³] → 쌀·예·서 → 쌀·예·서 /HM²/[HM²~*HM̂M]
- 입·히+어·서 → 입·히·어·서 ~ 입·히·에·서/HM³/[HM³] → 입·페·서 → 입·페·서 /HM³/[HM³~*HM̂M]
- 잡·히+어·서 → 잡·히·어·서 ~ 잡·히·에·서/HM³/[HM³] → 잡·페·서 → 잡·페·서 /HM³/[HM³~*HM̂M]
- 덤·히+어·서 → 덤·히·어·서 ~ 덤·히·에·서/HM³/[HM³] → 덤·페·서 → 덤·페·서 /HM³/[HM³~*HM̂M]

분절음 층위에서 (16ㄱ)은 /j/ 첨가현상(머리에>머리에)이 일어나는 형태도 있지만 /j/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형태도 있다. /j/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형태는 /j/ 반모음화(머리에>머레)를 겪고 난 후 /j/ 반모음 탈락(머레>머레)을 겪는다. 용언어간과 어미의 결합인 (16ㄴ-ㄷ)을 보면, (16ㄴ)은 ‘/j/ 반모음화(비비어서>비벼서)’가 일어나서 비음절화를 겪고 ‘여→예 축약(비벼서→비베서)’이 일어난다. 반면에 (16ㄷ)은 ‘모음순행동화(마시어서>마시에서)’와 ‘/j/ 반모음화(마시에서>마세서)’가 일어난 후 비음절화를 겪고 다시 ‘여→예 축약(마세서>마세서)’이 일어난다.

한편, 운율 층위에서는 (16ㄱ)은 ‘머·리·에 → 머·레 → 머·레’의 음운과정을 겪는다. 즉, 기저방점형(□·□·□)이 비음절화 이후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M/이 되며,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어, 음조형은 [HM]이 된다. (16ㄴ-ㄷ)도 어절의 음절수만 다르지 동일한 음운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16ㄱ-ㄷ)은 정선방언에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HM], [HM²] 등은 [*HM̂]나 [*HM̂M]으로 성조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한다.

김봉국(2002:129)은 (16ㄴ-ㄷ)의 예에 대해 정선 지역어에서는 장음이 비어두 음절에서 변별적으로 기능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성조언어인 강릉이나 삼척 지역어에서는 ‘저저복합조화’가 일어난 후 저조가 탈락하여 저조복합조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선방언이 성조언어라고 판단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16ㄱ-ㄷ)은 평일형은 성조체계 내에서 평복형과 대립하여 변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16ㄱ)은 둘째음절 이하에서 모음이 탈락할 때, 그 모음에 얹혔던 성조도 함께 탈락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16ㄱ)이 비음절화에 따라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는 ‘고저복합조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16ㄴ-ㄷ)은 어절의 첫 방점(·□) 이후에 음절의 성조는 중화되어 축성으로 변한다. 때문에 축성 두개로 실현된 음조형 [HM²]이나 저조와 저조가 병치되었다가 탈락한 음조형 [*HM¹M]나 음조적으로 차이가 없을 듯하다.

다음으로, 평복형의 예를 제시하면 (17)과 같다.

(17) 평복형(□□) + 거성(·□X)

- ㄱ. 단지+에 → 단지·에/H²M/[MHM]~단지·에/H²M/[MHM] → 단·제 → 단·제 /HM/[HM~*¹HM]
- 감자+에 → 감자·에/H²M/[MHM]~감자·에/H²M/[MHM] → 감·제 → 감·제 /HM/[HM~*¹HM]
- 다리+에 → 다리·에/H²M/[MHM]~다리·에/H²M/[MHM] → 다·레 → 다·레 /HM/[HM~*¹HM]
- ㄴ. 보이+---어·서 → 보이·어·서~보이·어·서 /H²M²/[MHM²] → 보·예·서 /H²M/[MHM~*¹MHM]
- 모이+---어·서 → 모이·어·서~모이·어·서 /H²M²/[MHM²] → 모·예·서 /H²M/[MHM~*¹MHM]
- 매이+---어·서 → 매이·어·서~매이·어·서 /H²M²/[MHM²] → 매·예·서 /H²M/[MHM~*¹MHM]
- ㄷ. 그리+---어·서 → 그리·어·서~그리·어·서 /H²M²/[MHM²] → 그·레·서 → 그·레·서 /H²M/[MHM~*¹MHM]
- 드리+---어·서 → 드리·어·서~드리·어·서 /H²M²/[MHM²] → 드·레·서 → 드·레·서 /H²M/[MHM~*¹MHM]
- 부리+---어·서 → 부리·어·서~부리·어·서 /H²M²/[MHM²] → 부·레·서 → 부·레·서 /H²M/[MHM~*¹MHM]
- 흐리+---어·서 → 흐리·어·서~흐리·어·서 /H²M²/[MHM²] → 흐·레·서 → 흐·레·서/H²M/[MHM~*¹MHM]
- 달기+---어·서 → 달기·어·서~달기·어·서 /H²M²/[MHM²] → 달·게·서 → 달·게·서 /H²M/[MHM~*¹MHM]
- 따시+---어·서 → 따시·어·서~따시·어·서 /H²M²/[MHM²] → 따·세·서 → 따·세·서 /H²M/[MHM~*¹MHM]
- 빠지+---어·서 → 빠지·어·서~빠지·어·서 /H²M²/[MHM²] → 빠·제·서 /H²M/[MHM~*¹MHM]

(17ㄱ)은 명사와 조사 ‘에’가 연결되어 비음절화가 실현되는 예이고, (17ㄴ-ㄷ)은 용언어간에 ‘--아/어X’가 결합하여 /j/ 반모음화가 비음절화를 겪는 예이다.

분절음 층위에서 (17ㄱ)은 /j/ 첨가현상(다리에>다리에)이 일어나는 형태도 있지만 /j/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형태도 있다. /j/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형태는 /j/ 반모음화(다리에>다레)를 겪고 난 후 /j/ 반모음 탈락(다레>다레)을 겪는다. 용언어간과 어미의 결합인 (17ㄴ-ㄷ)은 ‘모음순행동화(그리어서>그리에서)’와 ‘/j/ 반모음화(그리에서>그레서)’가 일어난 후 비음절화가 일어난다.

또한, 운율 층위에서는 (17ㄱ)은 ‘다리·에 → 다·레 → 다·레’의 음운과정을 겪는다. 기저방점형(□□·□)이 비음절화 이후 모음이 탈락하면서 모음에 얹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여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M/이 되며,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어, 음조형 [HM]이 된다. (17ㄴ) ‘그리·어·서 → 그·레·서’의 음운과정을 겪는다. 즉, 기저방점형(□□·□·□)이 비음절화 이후 모음이 탈락하면서 모음에 얹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여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M/이 되며, 이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면서 (6ㄴ)②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

되어 음조형 [MHM]이 일어난다.

(17)에 제시한 예에서도 보상적 상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17ㄱ)은 (16ㄱ)과 같은 이유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ㄴ-ㄷ)은 논의가 필요하다. 김봉국(2002:137)은 (17ㄴ)에 대해 활음화(=반모음화)로 인해 성조 층위에서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어 고저복합조화가 실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모예(:)두’의 성조실현은 [LH·LL]와 [LHL]로 수의적인 변동한다고 본다.

‘모예·도’의 성조가 [LHL](필자의 표기[MHM])로 실현되는 것은 동의라 한다. 그러나 ‘모예·도’의 성조가 ‘고저복합조’로 실현되어 [LH·LL]로 실현된다는 것은 음성적 층위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나 음운론적 층위에서 ‘고저복합조’의 복합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상성(:□)이 엮힌 음절은 거성(□)이나 평성(□)이 엮힌 음절보다 1.3ms 더 길다. 다른 하나는 국어의 상성(:□)이나 장음은 어절의 첫음절에서만 변별적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상성형일 때,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예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상성형(:□, :□·□, :□·□·□) + 거성(□X)

- ㄱ. :비+-어서 → 비·어·서 ~ 베·어·서 /HM²/[HM²] → ?베·서 /M²/[MH]:비·다空枕갈
- :징+-어서 → 지·어·서 ~ 제·어·서 /HM²/[HM²] → ?제·서 /M²/[MH]:짓·다
- ㄴ. :모시·+-어서 → :모·시·어·서 /M⁴/[M_HHM] → :모·셔·서 → :모·세·서 /M³/[MHM]

(18ㄱ)은 분절음 층위에서 ‘모음상호동화(비어서>비에서)’만 일어나고 비음절화는 격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비·다’는 가변적 상성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되면 어절의 성조가 상성형(:□·□·□)에서 평측형(□·□·□)으로 변동하는 동사어간이기 때문이다. (18ㄴ)은 /j/ 반모음화(모시어서>모셔서)로 인해 비음절화가 일어나고 ‘ㄷ→ㄱ’ 모음축약이 일어나는 예다.

운율 층위에서는 (18ㄱ)은 ‘:지·+-어·서 → 제·어·서’의 음운과정을 겪는다. 즉, 기저방점형(:□·□·□)이 (5ㄷ)에 제시한 성조규칙(모음 앞에서 상성의 평성화)이 적용되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M²/이 되며,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어, 음조형 [HM²]이 된다. 또한 (18ㄴ) ‘:모·시·어·서 → :모·셔·서 ~ :모·세·서’의 음운과정을 겪는다. 즉, 기저방점형(:□·□·□·□)이 비음절화 이후 모음이 탈락하면서 모음에 엮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여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M³/이 되며, 이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면서 (6ㄴ)③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HM]이 일어난다. (18)의 예는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8ㄱ)에 대해 김봉국(2002:132)은 분절음 층위에서 ‘징·+-어·도 → 저·도^(/j/반모음화) → 제도^(ㄷ→ㄱ 모음축약)’의 음운과정을 기술하고, 운율 층위에서는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성조언어인 강릉어나 삼척 지역어에서 (18ㄱ)은 활음화(=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서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어 있는 고저복합조(제·도[H·LL])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선방언을 성조방언으로 판단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고저복합조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조언어에서 ‘:징·다²⁷⁾’는 가변적 상성으로 분류되는 어휘이다. 즉, ‘:징·다’는 ‘-·아/·어X’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과 결합하면 어절의 성조가 평측형으로 바뀌는 특징을 가진 어휘이다. 따라서 분절음 층위에서 김봉국(2002:132)에서 기술을 반영할지라도 운율층위에서 ‘지·어·도/HM²/[HM²] → *저·도 → 제·도

27) 중세국어에서도 ‘:짓·다(作)’는 가변적 상성형이었다. 통시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정선방언의 ‘:짓·다(作)’를 병치하는 고저복합조를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HM/[HM]'의 음운과정에서 /j/ 반모음화로 인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음절화를 겪고 탈락하는 모음에 얹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8ㄱ)은 방언조사 당시에 상성형(/M²/[MHM])으로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만약 정선방언이 음장방언으로 변화한다면, (18ㄴ)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선방언 제보자들은 (13ㄱ-ㄴ)을 평1형으로 발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까닭은 정선방언의 성조체계 내에서 평일형과 평복형이 변별적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변동평성형일 때,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예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변동평성형(□) + 거성(·□X)

ㄱ. 이-+-어 → *이·어 → ·여 /M/[M]
 ㄱ'. 이-+-어·도 → (이·어·도 → ·여·도) 여도 /H²/[MH] → *여·도 /M²/[MH]

(19ㄱ)는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이-)와 어미 '-아/어X'가 결합하고, 어절의 성조형이 거성형으로 실현된 예이나 (19ㄱ')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이-)와 어미 '-아/어X'가 결합하고, 어절의 성조형이 평측성 중 평2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분절음 층위에서 (19ㄱ)은 두 모음이 연결되어 '모음탈락(이어>여)'이 일어나고 비음절화를 겪는다. 반면에 (19ㄱ')은 '/j/ 반모음화'가 일어나 비음절화를 겪는다.

또한 운율 층위에서는 (19ㄱ)은 기저방점형(□·□)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의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모음이 탈락할 때, 비음절화로 인해 모음에 얹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5ㄴ)에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최종방점형 ·□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M/이 되고,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6ㄱ)②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이 도출된다. (19ㄱ')은 기저방점형(□·□·□)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될 때,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5ㄴ)에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종방점형 □□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가 되고, 이 성조형에 (6ㄴ)①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H]가 도출된다. 그러나 (19ㄱ)과 (19ㄱ')는 모두 보상적 상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4.2. /w/ 반모음화

/w/ 반모음화는 연쇄된 두 모음 중 어느 하나가 반모음 /w/로 변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w/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면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도 어간의 성조에 따라 구분하여 예를 제시할 것이다.

첫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거성형일 때, /w/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예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 거성형(·□) + 거성(·□X)

·쑤-+-어·서 → (·쑤·어·서 → 쑤·서) 쑤서 /H²/[MĤ] → :쑤·서 /M²/[MH]
 ·쏘-+-아·서 → (·쏘·아·서 → 쏘·서) 쏘서 /H²/[MĤ] → :쏘·서 /M²/[MH]
 ·추-+-어·서 → (·추·어·서 → 춰·서) 춰서 /H²/[MĤ] → :춰·서 /M²/[MH]

(20)는 분절음 층위에서 ‘/w/ 반모음화(쓰어서>췌서)’가 일어난 후 비모음화를 겪는다. 또한 운율 층위에서는 ‘(·쓰·어·서 → ·췌·서→) 폐서/H²/[MH¹’의 음운과정을 거쳐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 즉, 기저방점형(□·□·□)가 최종방점형(□□)으로 도출하는 과정에 (5ㄷ)에서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이 되며,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면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15)와 같다.

두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평측형일 때, /w/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예를 살펴보자. 평측형의 예는 평1형과 평복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먼저 평1형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평1형(□, □·□) + 거성(·□X)

- ㄱ. 불-+-어·서 → 부·어·서 /HM²/[HM²] → ?·뵤·서 /M²/[MH]
- 농-+-아·서 → 농·아·서 /HM²/[HM²] ~ 노·아·서 ~ 뉘·아·서 /HM²/[HM²] → ?·뉘·서 /M²/[MH]
- ㄴ. 배·우-+-어·서 → 배·우·어·서 /HM³/[HM³] → 배·워·서 /HM²/[HM²~*HM¹M]
- 싸·우-+-어·서 → 싸·우·어·서 /HM³/[HM³] → 싸·워·서 /HM²/[HM²~*HM¹M]
- 세·우-+-어·서 → 세·우·어·서 /HM³/[HM³] → 세·워·서 /HM²/[HM²~*HM¹M]
- 태·우-+-어·서 → 태·우·어·서 /HM³/[HM³] → 태·워·서 /HM²/[HM²~*HM¹M]
- 띠·우-+-어·서 → 띠·우·어·서 /HM³/[HM³] → 띠·워·서 /HM²/[HM²~*HM¹M]
- 꽂·우-+-어·서 → 꽂·우·어·서 /HM³/[HM³] → 꽂·워·서 /HM²/[HM²~*HM¹M]
- 피·우-+-어·서 → 피·우·어·서 /HM³/[HM³] → 피·워·서 /HM²/[HM²~*HM¹M]
- 외·우-+-어·서 → 외·우·어·서 /HM³/[HM³] → 외·워·서 /HM²/[HM²~*HM¹M]
- 알·구-+-어·서 → 알·구·어·서 /HM³/[HM³] → 알·귀·서 /HM²/[HM²~*HM¹M]
- 농·구-+-어·서 → 농·구·어·서 /HM³/[HM³] → 농·귀·서 /HM²/[HM²~*HM¹M]
- 얼·구-+-어·서 → 얼·구·어·서 /HM³/[HM³] → 얼·귀·서 /HM²/[HM²~*HM¹M]
- 일·구-+-어·서 → 일·구·어·서 /HM³/[HM³] → 일·귀·서 /HM²/[HM²~*HM¹M]
- 팅·구-+-어·서 → Ting·구·어·서 /HM³/[HM³] → Ting·귀·서 /HM²/[HM²~*HM¹M]
- 찌·꾸-+-어·서 → 찌·꾸·어·서 /HM³/[HM³] → 찌·귀·서 /HM²/[HM²~*HM¹M]
- 가·두-+-어·서 → 가·두·어·서 /HM³/[HM³] → 가·뉘·서 /HM²/[HM²~*HM¹M]
- 가·두-+-어·서 → 가·두·어·서 /HM³/[HM³] → 거·뉘·서 /HM²/[HM²~*HM¹M]
- 채·루-+-어·서 → 채·루·어·서 /HM³/[HM³] → 채·뤼·서 /HM²/[HM²~*HM¹M]
- 전·주-+-어·서 → 전·주·어·서 /HM³/[HM³] → 전·췌·서 /HM²/[HM²~*HM¹M]
- 가·추-+-어·서 → 가·추·어·서 /HM³/[HM³] → 가·췌·서 /HM²/[HM²~*HM¹M]
- 사·귀-+-어·서 → 사·귀·어·서 /HM³/[HM³] → 사·귀·서 /HM²/[HM²~*HM¹M]
- ㄷ. 밭-+-어·서 → 미w·아·어·서 → 미·와·서 ~ 미·워·서 /HM²/[HM²]
- 개·롭-+-어·서 → 개·루w·아·어·서 → 개·루·와·서 ~ 개·루·워·서 /HM³/[HM³]
- 어·둑-+-어·서 → 어·두w·아·어·서 → 어·두·와·서 ~ 어·두·워·서 /HM³/[HM³]
- 예·롭-+-어·서 → 예·루w·아·어·서 → 예·루·와·서 ~ 예·루·워·서 /HM³/[HM³]
- 매·롭-+-어·서 → 매·루w·아·어·서 → 매·루·와·서 ~ 매·루·워·서 /HM³/[HM³]
- 내·굽-+-어·서 → 내·구w·아·어·서 → 내·구·와·서 ~ 내·구·워·서 /HM³/[HM³]
- 무·굽-+-어·서 → 무·구w·아·어·서 → 무·구·와·서 ~ 무·구·워·서 /HM³/[HM³]
- 무·습-+-어·서 → 무·수w·아·어·서 → 무·수·와·서 ~ 무·수·워·서 /HM³/[HM³]

부·두·럽+·어·서 → 부·두·러w·아/·어·서 → 부·두·러와서 ~ 부·두·러워서 /HM⁴/[HM⁴]
 아·름·답+·어·서 → 아·름·다w·아/·어·서 → 아·름·다와서 ~ 아·름·다워서 /HM⁴/[HM⁴]

분절음 층위에서 (21ㄱ)은 동사어간 ‘불-, 놓-’과 어미 ‘-아/어X’가 결합하여, 비음절화는 겪지 않는다. 어간 ‘불-’은 /w/ 반모음화가 겪지 않고, 어간 ‘놓-’은 /w/ 반모음화를 겪은 것(놉·아·서)과 모음 사이에서 ‘ㅎ’만 탈락한 것(노·아·서)가 있다. 반면에 (21ㄴ-ㄷ)은 /w/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같지만, (21ㄴ)은 비음절화를 겪지만 (21ㄷ)은 비음절화를 겪지 않는다. (21ㄷ)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운율 층위에서 보면, (21ㄱ) ‘부·어·서’의 기저방점형(□·□·□)은 최종방점형 □·□·□으로 도출되며,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M²/이 된다. 이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어, 음조형은 [HM²]이 된다. 즉,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김봉국(2002:141~142)에서 ‘부·어·도[HLL] → 버·도[H·LL], 노·아·도[HLL] → 놉·도[H·LL]’로 파악하여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어 있는 고저복합조화를 겪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버·도[H·LL]’와 ‘놉·도[H·LL]’은 하나의 음절에 두개의 성조가 병치되어 있어 결국 필자의 표기법으로 바꾸면, ‘:버·도/M²/[MH]’와 ‘:놉·도/M²/[MH]’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는 /w/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되어 하나의 음절에 두 개의 성조가 얹혀 음절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1.3ms 길어진다는 점에서 상성형으로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방언조사 당시에 제보자들은 평1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저복합조는 [H]에서 시작하여 [M]으로 끝나는 하강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고저복합조 [F]는 토박이의 심리 속에서 두 개의 음조 [HM]을 병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HMM]과 같은 것으로 고저복합조를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김차균 2006:134 참조). 이에, (21ㄱ)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21ㄴ)은 운율 층위에서 ‘배·우·어·서 → 배·워·서’의 음운과정을 겪는다. 즉, 기저방점형(□·□·□·□)이 비음절화 이후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M²/이 되며,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도출되어, 음조형은 [HM²]이 된다.

(21ㄴ)의 예에 대해 김봉국(2002:149)은 정선 지역어에서는 장음이 비어두 음절에서 변별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릉이나 삼척 지역어에서는 ‘저저복합조화’가 일어난 후 저조가 탈락하여 저조복합조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선방언이 성조언어라고 판단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21ㄱ)은 둘째음절 이하에서 모음이 탈락할 때, 그 모음에 얹혔던 성조도 함께 탈락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16ㄴ-ㄷ)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다음으로, 평복형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2) 평2형(□□) + 거성(·□X)

- ㄱ. 다·투+·어·서 → 다·투·어·서 /H²M²/[MHM²] → 다·튀·서 /H²M/[MHM~*MH²]
- 다·루+·어·서 → 다·루·어·서 /H²M²/[MHM²] → 다·뤼·서 /H²M/[MHM~*MH²]
- 답·구+·어·서 → 답·구·어·서 /H²M²/[MHM²] → 답·귀·서 /H²M/[MHM~*MH²]
- 챙·구+·어·서 → 챙·구·어·서 /H²M²/[MHM²] → 챙·귀·서 /H²M/[MHM~*MH²]
- 싱·구+·어·서 → 싱·구·어·서 /H²M²/[MHM²] → 싱·귀·서 /H²M/[MHM~*MH²]
- 농·구+·어·서 → 농·구·어·서 /H²M²/[MHM²] → 농·귀·서 /H²M/[MHM~*MH²]
- 밭·구+·어·서 → 밭·구·어·서 /H²M²/[MHM²] → 밭·귀·서 /H²M/[MHM~*MH²]

발구--·어·서	→ 발구·어·서 /H ² M ² /[MHM ²]	→ 발귀·서 /H ² M/[MHM~*MH [̂] M]
장구--·어·서	→ 장구·어·서 /H ² M ² /[MHM ²]	→ 장귀·서 /H ² M/[MHM~*MH [̂] M]
바꾸--·어·서	→ 바뀔·어·서 /H ² M ² /[MHM ²]	→ 바뀔·서 /H ² M/[MHM~*MH [̂] M]
모두--·어·서	→ 모두·어·서 /H ² M ² /[MHM ²]	→ 모뒸·서 /H ² M/[MHM~*MH [̂] M]
따루--·어·서	→ 따루·어·서 /H ² M ² /[MHM ²]	→ 따뤼·서 /H ² M/[MHM~*MH [̂] M]
고푸--·어·서	→ 고푸·어·서 /H ² M ² /[MHM ²]	→ 고푸·서 /H ² M/[MHM~*MH [̂] M]
말루--·어·서	→ 말루·어·서 /H ² M ² /[MHM ²]	→ 말뤼·서 /H ² M/[MHM~*MH [̂] M]
늘구--·어·서	→ 늘구·어·서 /H ² M ² /[MHM ²]	→ 늘귀·서 /H ³ M/[M _h HM~*MH [̂] M]
짱구·우--·어·서	→ 짱구·우·어·서 /H ² M ³ /[MHM ³]	→ 짱구·워·서 /H ² M ² /[MHM ² ~*MH [̂] MM]
ㄴ. 가잡--·어·서	→ 가차w·아·어·서	→ 가차와·서 ~ 가차워·서 /H ³ M/[M _h HM~*MH [̂] M]
아깅--·어·서	→ 아까w·아·어·서	→ 아까와·서 ~ 아껴워·서 /H ³ M/[M _h HM~*MH [̂] M]
차갑--·어·서	→ 차가w·아·어·서	→ 차가와·서 ~ 차겨워·서 /H ³ M/[M _h HM~*MH [̂] M]
반갑--·어·서	→ 반가w·아·어·서	→ 반가와·서 ~ 반겨워·서 /H ³ M/[M _h HM~*MH [̂] M]
가볍--·어·서	→ 가벼w·아·어·서	→ 가벼와·서 ~ 가벼워·서 /H ³ M/[M _h HM~*MH [̂] M]
질겁--·어·서	→ 질거w·아·어·서	→ 질거와·서 ~ 질겨워·서 /H ³ M/[M _h HM~*MH [̂] M]
뜨겁--·어·서	→ 뜨구w·아·어·서	→ 뜨구와·서 ~ 뜨구워·서 /H ³ M/[M _h HM~*MH [̂] M]
따겁--·어·서	→ 따구w·아·어·서	→ 따구와·서 ~ 따구워·서 /H ³ M/[M _h HM~*MH [̂] M]
뚜겁--·어·서	→ 뚜구w·아·어·서	→ 뚜구와·서 ~ 뚜구워·서 /H ³ M/[M _h HM~*MH [̂] M]
아꿈--·어·서	→ 아꾸w·아·어·서	→ 아꾸와·서 ~ 아꾸워·서 /H ³ M/[M _h HM~*MH [̂] M]
차꿈--·어·서	→ 차구w·아·어·서	→ 차구와·서 ~ 차구워·서 /H ³ M/[M _h HM~*MH [̂] M]
개릅--·어·서	→ 개루w·아·어·서	→ 개루와·서 ~ 개루워·서 /H ³ M/[M _h HM~*MH [̂] M]
두릅--·어·서	→ 두루w·아·어·서	→ 두루와·서 ~ 두루워·서 /H ³ M/[M _h HM~*MH [̂] M]
외릅--·어·서	→ 외루w·아·어·서	→ 외루와·서 ~ 외루워·서 /H ³ M/[M _h HM~*MH [̂] M]
짜겁--·어·서	→ 짜구w·아·어·서	→ 짜구와·서 ~ 짜구워·서 /H ³ M/[M _h HM~*MH [̂] M]
부꾸럽--·어·서	→ 부꾸러w·아·어·서	→ 부꾸러와·서 ~ 부꾸러워·서 /H ³ M ² /[M _h HM ² ~*MH [̂] M]
시끄럽--·어·서	→ 시끄러w·아·어·서	→ 시끄러와·서 ~ 시끄러워·서 /H ³ M ² /[M _h HM ² ~*MH [̂] M]
어지럽--·어·서	→ 어지루w·아·어·서	→ 어지루와·서 ~ 어지루워·서 /H ³ M ² /[M _h HM ² ~*MH [̂] M]

분절음 층위에서 (22)는 용언어간에 ‘-·아·어·서’가 결합하여 /w/ 반모음화(다투어서>다뒸서, 가차w어서>가차워서)가 일어나지만 (22ㄱ)은 비음절화를 겪는 데 반해서 (22ㄴ-ㄷ)은 비음절화를 겪지 않는다. 이에 (22ㄴ-ㄷ)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21ㄱ)은 운율 층위에서는 ‘다투·어·서 → 다뒸·서’의 음운과정을 겪는다. 즉, 기저방점형(□□·□·□)이 비음절화 이후 모음이 탈락하면서 모음에 얹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여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된다. 이 최종방점형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M/이 되며, 이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면서 (6ㄴ)②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HM]이 일어난다. (22ㄱ)에 제시한 예에서도 보상적 상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17ㄴ)과 같다.

(22ㄱ)과 같은 예에 대해서 김봉국(2002:140)은 강릉과 삼척 지역어에서 활음화(=반모음화)로 인해 성조 층위에서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어 고저복합조화가 실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다뒸(·)두’의 성조실현은 [LH·LL]와 [LHL]로 수의적인 변동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선 지역어에서는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상성형일 때, /w/ 반모음화를 겪는 예를 살펴보자. (23ㄱ-ㄴ)은 가변적 상성형이고, (23ㄷ)은 고정적 상성형이다.

(23) 상성형(:□, :□·□, :□·□·□) + 거성(·□X)

- ㄱ. 쫌-+-아서 → 쫌·아서~쫌·아서 /HM²/[HM²] → *:쫌·서 /M²/[MH]:쫌·다
- 꾸-+-어서 → 꾸·어서~꿔·어서 /HM²/[HM²] → *:꿔·서 /M²/[MH]:꿍·다(煎)
- ㄴ. 뚝-+-아서 → 도w·아서 → 도·와서 /HM²/[HM²~*HMM̂]
- 덜-+-아서 → 더w·아/·어서 → 더·와서 ~ 더·워서 /HM²/[HM²~*HMM̂]
- ㄷ. :곶-+-아서 → :고w·아/·어서 → :고·와서 ~ :고·워서 /M³/[MHM²~*HMM̂]
- :고·맵+-아서 → :고·마w·아/·어서 → :고·마·와서 ~ :고·마·워서 /M⁴/[MHHM~*HMM̂]
- :드·릅+-아서 → :드·르w·아/·어서 → :드·르·와서 ~ :드·르·워서 /M⁴/[MHHM~*HMM̂]
- :사·납+-아서 → :사·나w·아/·어서 → :사·나·와서 ~ :사·나·워서 /M⁴/[MHHM~*HMM̂]

(23ㄱ)은 분절음 층위에서 ‘/w/ 반모음화(쫌아서>쫌아서)’와 ‘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나고 비음절화는 격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23ㄴ-ㄷ)도 /w/ 반모음화(뚝w아서>도와서)는 일어나지만 비음절화는 겪지 않는다. 따라서 (23)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네 번째, 용언어간의 성조가 변동평성형일 때, /w/ 반모음화를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예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변동평성형(□) + 거성(·□X)

- ㄱ. 오-+-아 → ·오·아 → ·와/M/[M]
- 보-+-아 → ·보·아 → ·봐/M/[M]
- 누-+-어 → ·누·어 → ·뉘/M/[M]
- 주-+-어 → ·주·어 → ·쥬/M/[M]
- 두-+-어 → ·두·어 → ·뒤/M/[M]
- ㄱ'. 오-+-아·도 → (·오·아·도 → ·와·도→) 와도 /H²/[MH~*MĤ]
- ㄱ''. 보-+-아·도 → (·보·아·도 ~ ·바·아·도→) 봐도 ~ 바도 /H²/[MĤ] → :봐·도 ~ :바·도 /M²/[MH]
- 누-+-어·도 → (·누·어·도 ~ ·노·오·도→) 뉘도 ~ 노도 /H²/[MĤ] → :뉘·도 ~ :노·도 /M²/[MH]
- 주-+-어·도 → (·주·어·도~·주우·도~·조우·도→) 쥬도~주도~조도 /H²/[*MĤ] → :쥬·도~:주·도~:조·도 /M²/[MH]
- 두-+-어·도 → (·두·어·도~·두우·도~·다우·도→) 뒤도~두도~다도 /H²/[*MĤ] → :뒤·도~:두·도~:다·도 /M²/[MH]

(24ㄱ)은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오-, 보-, 누-, 주-, 두-)과 어미 ‘-아/·어’가 결합하고, 어절의 성조형이 거성형으로 실현된 것이고, (24ㄱ')과 (24ㄱ'')은 변동평성형 동사어간과 ‘-아/·어도’가 결합한 점은 같으나 (24ㄱ')은 어절의 성조형이 거성형으로 실현된 예이고, (24ㄱ'')은 어절의 성조형이 상성형으로 실현된다.

분절음 층위에서 (24ㄱ)과 (24ㄱ')은 /w/ 반모음화가 일어나고 비음절화를 겪는다. 또한 (24ㄱ'')은 /w/ 반모음화(보아도>봐도), 모음완전동화(보아도>바아도), 중복음탈락(바아도>바도) 등을 겪고 비음절화가 일어난다.

(24ㄱ)은 운율 층위에서 기저방점형(□·□)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의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모음이 탈락할 때, 비음절화로 인해 모음에 얽힌 성조도 함께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5ㄷ)에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최종방점형 ·□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M/이 되고,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6ㄱ)②에 제시한 음

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이 도출된다. 정선방언에서 1음절 거성형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선방언을 성조언어로 판단하는데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선방언에서는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으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정선방언에서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1음절 거성형의 음조형[M]이 상성형의 그것과 동일한데 성조소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 특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4ㄱ'-ㄱ'')은 기저방점형(□·□·□)이 최종방점형으로 도출될 때,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의 개별적 특성²⁸⁾에 의해서 최종방점형 □□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5ㄴ)에 제시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종방점형 □□을 성조형으로 바꾸면 /H²/가 되고, 이 성조형에 (6ㄴ)①에 제시한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음조형 [MH]가 도출된다.

(24)에서 (24ㄱ)과 (24ㄱ')는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만 (24ㄱ'')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24ㄱ-ㄱ')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24ㄱ'')은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날까? 이에 대한 기술은 비음절화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겠지만 (24ㄱ-ㄱ')은 '중복음이 필수적으로 탈락하고 수의적인 변이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24ㄱ'')은 수의적인 변이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정선방언의 비음절화에 따른 성조의 변동을 기술하고 정선방언에서 실현되는 보상적 상성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선방언에서 '모음탈락'과 '/w/ 반모음'가 일어나서 비음절화를 겪는 예에서는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지만 /j/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비음절화를 겪는 예에서는 보상적 상성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w/ 반모음화'를 겪고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는 예는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반면에 '모음탈락'을 겪고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는 예는 수의적으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난다. 전자는 정선방언 성조체계 내에서 다음절 거성형은 모두 평2형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후자는 통시적인 변화와 관련성이 매우 깊은 듯하다²⁹⁾.

둘째, 정선방언에서 상성형은 비음절화와 보상적 장모음화를 겪지 않았다. 고정적 상성형은 '-·아/·어X'와 결합하면 상성형으로 실현되었고, 가변적 상성형은 평측형 중 평1형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셋째, /j/ 반모음화를 겪은 예는 비음절화는 일어나나 보상적 상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중세국어 자료에서 반모음화는 보상적 장모음화와 관련이 없었다(이진호 2011)는 기술에서 통시적인 운율과 이중모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⁰⁾.

넷째, 평측형은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평측형 중 '평1형'에서 비음절화와 보상적 상성화를 겪고 있다.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보상적 상성화는 통시적인 변화(마을(村)/H²/[MH] ~ :말/M²/[MH])에 기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소 경계에서 용언어간의 성조가 평1형인 어절에서 일어나는 보상적 상성화는 상성화가 예(세(計)-+-·어서 → 세·에서 → 세·서/HM/[HM] ~ :세·서/M²/[MH])와

28) 변동평성형 동사어간은 '-·아/·어X'와 결합을 하면,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화한다.

29) 한영균(1988), 고광모(1991) 참고.

30) 이 문제는 지면을 달리해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예(케(點火)-+-어·서 → 케·에·서 → ?:케·서 /M²/[MH])가 공존한다. 형태소 경계에서 용언어간의 성조가 평1형인 어절에서 일어나는 보상적 상성화는 상성화가 예(세(計)-+-어·서 → 세·에·서 → 세·서 /HM/[HM] ~ 세·서/M²/[MH])와 그렇지 않은 예(케(點火)-+-어·서 → 케·에·서 → ?:케·서 /M²/[MH])가 공존한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보상적 상성화의 실현은 평1형(□·□/HM/[HM])의 변별적 기능과 상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모음탈락		반모음화			
				/j/ 반모음화		/w/ 반모음화	
		비음절화	보상적 상성화	비음절화	보상적 상성화	비음절화	보상적 상성화
거성형	단음절	○	○(수의적)	○	×	○	○(필수적)
평측형	형태소 내부	○	○(수의적)	○	×	×	×
	평1형	○	○(수의적)	×	×	×	×
	평복형	×	×	×	×	×	×
상성형	단음절	×	×	×	×	×	×
	다음절	×	×	×	×	×	×
변동평성형	단음절	○	×	×	×	○	×
	다음절	○	○(필수적)	×	×	○	○(필수적)

그러므로, 정선방언에서 비음절화에 따른 보상적 상성화는 성조방언으로서의 특성을 잃어가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즉, 비음절화로 인한 보상적 상성화는 1차적인 원인은 정선방언 성조체계에서 거성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선방언에서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으로 변화하여 평복형과 변별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에 거성형 용언어간과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어미 '-아/어X'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비음절화를 겪고 필수적으로 보상적 상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거성형 용언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다음절 어절을 이루고, 성조의 음운과정에서 거성의 평2형화 성조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보상적 상성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은 정선방언의 성조가 변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 준다.

▶ 참고문헌

- 강흥구(2005), 강릉방언 1음절 어간 풀이씨 성조, 『한글』 270, 한글학회, pp5-63.
-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모음화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세진(2006),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만(1986), 국어 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 김차균(2003), 『영남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 김차균(2006ㄱ), 우리말 성조사 500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국어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김차균(2006ㄴ),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글누림.
- 문효근(1974),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숙희(2001), 굴절의 음운 과정과 성조 변동, 『민족문화논업』 2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1-27.
- 이문규(2007), 국어 성조 체계 간 성조 현상의 대응 양상, 『언어과학연구』 41, 언어과학회, pp. 21-43.
- 이진호(2011), 국어 반모음화에 따른 운소 변동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60, 국어학회, p99-122.
- 차재은(1996), “하다”류 동사의 기저 성조 고찰,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pp59-94.
- 최영미(2000), 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2003), 삼척지역어의 장단과 고저에 대한 청취실험연구, 『국어국문학』 110,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영미(2009),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미(2010ㄱ),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인 변천』, 역락.
- 최영미(2010ㄴ), 정선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pp295-324.
- 최영미(2010ㄷ), 정선방언 ‘가·다’류 동사의 성조형의 변화,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pp407-438.
- 한영균(1988), 비음절화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1-26.
- 허 응(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정선방언 비음절화와 성조의 변동”에 대한 토론문

김남미(서강대)

순수 인문학적 연구 가치를 실용적 척도로 재단하고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시기다. 그러한 시기이기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애정을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 쏟아 붓고 있는 연구자의 노력이 오히려 더 돋보인다. 방언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질문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아는 까닭에 연구자의 노력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언어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다양한 변인들로 인하여 실제 언어인 방언의 특유성이 희석되고 있기에 언어학자의 현실에 밀착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런 실증적 연구의 성과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 토론자 역시 강릉 토박이 화자인지라 연구자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해당 방언의 언어적 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읽었다. 논문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연구자의 노력을 응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한다.

① 이 논문의 연구자는 정선 방언에 나타나는 보상적 상성화 사례들을 근거로 정선 방언이 성조 방언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논문에 밝혔듯이 이는 김봉국(2002) 등의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 근거가 정선 방언에 나타나는 비음절화에 따른 보상적 상성화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논자들과 다른 의견이 나타난 것이 관점이나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사 시기상의 차이로 인한 변화의 문제인지, 제보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② 이 논문의 연구자는 성조언어에서 비성조언어로 변화 양상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보상적 상성화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 환경에서 보상적 상성화의 여부에 따라 해당 방언의 신형과 구형을 구분하고 있다. 토론자가 이해한 바로는 보상적 상성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자료가 신형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자의 해석이 맞다면, 이는 성조 언어의 특성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정선방언이 성조언어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는 경향과 상치되는 일이라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③ 연구자는 정선 방언의 성조방언으로서의 특성을 증명함에 있어 중세국어의 성조적 질서는 어떠하였는가에 깊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방언자료를 음운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석하려 한 연구자의 연구 방법론 자체에는 토론자 역시 깊이 공감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표면 성조형이 ‘하강조’를 나타내는 자료들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세국어에는 하강조가 없다는 점이다. 표면 성조를 확인할 수 없는 중세국어의 자료에 대해 연구자가 어떠한 해석의 척도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④ 성조의 연구에서는 음절이 하나인지 두 음절인지를 구분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병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선 방언의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병치’인지 두 음절의 연속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듣고 싶다. 또 이것이 강세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 3분과 발표 】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 교육에서의 교재 구성

서정미(안양대)

<차례>

1. 서론
 2. 기존 교재 분석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맺음말
- 참고문헌

1. 서론

이 글은 안양대학교¹⁾에서 이루어지는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과목 중 공통 필수 과목인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의 교재가 지금의 교양교육²⁾의 이념이나 목표를 잘 반영한 바람직한 교재 구성을 하고 있는지의 궁금함에서 출발을 하였다. 불과 7년여 전만해도 같은 과목의 교재 이름은 ‘글쓰기’, ‘창조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점차 ‘생각과 표현’, ‘사고와 표현’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변화하고 있다³⁾.

이 논문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교재를 가지고 ‘머리말’에 드러나는 각 교재의 목적과 목적에 따른 목차 구성, 각 단원의 구성 체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학의 교양교육은 중등과정과는 다르게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기에 대학교의 표준화된 교육이념이나 교재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학 당국의 여건에 맞게, 교수자의 재량으로 교재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교재는 교육과정 교육 이념 및 철학, 교육방법, 학습자에 대한 관점, 교육 목표 등이 총망라된 표상이기 때문에 한 권의 교재가 지니는 의미는 사실 교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대학이 앞선 대학의 교재를 단순 모방하거나 일부 제 재만을 변형하여 사용하던 관습이 있음도 묵과할 수 없다(허재영:2009).

어떤 주제나 분야든 상관없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교재는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수업 내용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교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과 교육 이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교재가 없다면, 교육과정이나 교육 철학은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 정책이나 이념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표현한 좋은 교재가 수업의 내용과 질을 결정한다

1) 공통교양(공통필수)인 ‘사고와 표현’ 과목은 4학점으로 4.5시간 한 학기만을 이수한다. 그리고 영역별선택 실무영역으로 ‘실용글쓰기’, 아름다운 리더십 영역으로 ‘양서와의 만남’, ‘토론의 이론과 실제’, ‘토론과 논쟁’, ‘계열별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등이 있다.

2) ‘융복합교육’이라는 새 방향의 교육은 실은 전통적인 ‘교양교육’의 이념과 통하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든지 모든 영역에서 두루 통하는 소양과 식견을 갖추게 하는 교육, 그 자체 본래적 가치를 갖는 품성을 도야하고 자기 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교양교육일진대, 이는 곧 새 방향의 교육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루두루 통하는’자질을 기른다는 점에서 보통(普通)교육이요, 특정 영역에 갇혀 특정 목적에 수단으로서 봉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케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교육이기도 하다. 윤우섭(2012, p.11).

3) 글(2008), 사고와 표현_글쓰기(2010), 사고와 표현_열린생각 즐거운소통(2013) 등과 같이 새내기를 위한 교재개발을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재의 개발과 연구는 교양 교육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현되며,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김영만, 2005: pp.219-2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1학년 교재의 목차와 교재 구성을 비교하고, 실제 교양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새내기로서의 교양교육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교재구성인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우선이 된다. 그리고 기존의 교재 분석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부분을 보완하여 새 교재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요구 분석은 다음의 연구로 미루고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새내기를 위한 혹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국한하여 교재구성과 단원의 구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동안 증등 과정의 교재분석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분석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것에 비하여, 대학 나름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각 대학의 교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2. 기존 교재 분석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재는 아래와 같이 다섯 종의 교재이다. 이 교재들은 머리말에 ‘새내기를 위한’이나 ‘대학생활을 시작하는’이라는 해당 학습자가 드러난 교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머리말이 없는 교재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교명	서지사항
안양대학교	김동현 외, 2013, <u>사과와 표현</u> , 과주: 태학사
성균관대학교	김경훤 외, 2013, <u>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u> , 2판 1쇄,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신여자대학교	김명석 외, 2013, <u>글쓰기</u> , 개정판 2쇄,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 편찬위원회, 2013, <u>우리말과 글쓰기</u> , 개정 1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편, 2013, <u>창조적 사고와 글쓰기</u> , 개정 3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본고에서는 ‘안양’, ‘성균관’, ‘성신’, ‘이화’, ‘한양’으로 표현한다. 먼저 각 교재의 교재 유형을 보면, 한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합형 교재임을 알 수 있었다.⁵⁾ 한양은 위의 교재에는 주로 글쓰기와 글쓰기를 통한 소통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듣기, 말하기, 읽기는 따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창조적 사고와 글쓰기’만 다루도록 한다.

2.1. 교재를 사용하는 대상

먼저 각 교재의 머리말에는 이 교재의 대상, 교재의 목적, 목표와 교재 구성의 안내, 그리고 활용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교재를 공부하는 학습자 대상을 보았다. 학습자는 머리말에 따르면, 안양과 성균관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임을 볼 수 있다. 성신, 이화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본 교재의 수강 대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성신은 12년 국어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이화는 유치원에서 시작한 언어 교육을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

4) 허재영(2009)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과의 운영방식과 교재 개발 실태를 밝혀주고 있다.

5) 통합형 교재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통합하여 교수할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 유형을 말한다. 통합형 교재는 ‘분권식 통합형 교재’와 ‘영역 구분식 통합형 교재’로 구분된다.

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명	대 상
안양대학교	공통 교양 ‘사고와 표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의 의사소통 영역 강좌인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수강생
성신여자대학교	1학년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
한양대학교	대학생

2.2. 교육 목적

각각의 교재 개발의 목적을 살펴보면, 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교양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각 교재에서 드러나는 교재의 목적을 아래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네 개의 항목은 ‘지식인의 필수’라는 항목, ‘학문적 목적’,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 등이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식인의 필수: 이는 교양인으로서 가져야할 나에 대한 성찰, 나를 둘러싼 세상과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의미한다.
- 2) 학문의 목적: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를 일반적인 교양으로 교양의 기초로 보고, 자신의 전공을 학습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이론과 실재를 의미한다.
- 3) 직무수행능력: 국내 사기업이나 교내외 활동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글쓰기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 4) 의사소통: 글쓰기를 포함하여 말하기 듣기, 즉 독자나 청자를 고려하거나 배려한 목적임을 의미한다.

안양은 과거의 문학 및 글쓰기 분야에 치중되었던 ‘대학국어’ 교과와는 달리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친 표현 능력의 적극적인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은 모든 교과 및 전공교과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실용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과이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학습을 위한 교과의 기초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균관은 모든 학문 영역의 학습과 연구 수행에 바탕이 되는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식 정보화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안목을 키우는 데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성신은 글쓰기란 동서양의 오랜 수사학적 전통 속에서 지식인의 필수 과목이었고,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과 전공 학문 수행을 위한 기초능력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이화는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언어 사용 능력은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며 덕목이다. 말과 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워 주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글쓰기의 이론과 실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글쓰기의 능력을 계발하도록 만들었다. 한양은 우리 사회가 다매체 시대에 들어서면서 글쓰기 교육은 새로운 좌표 설정과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과제를 요청받게 되어 대학 교양 교육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새롭고도 효율적인 글쓰기 방법의 개발과 그 실천을 꾀하게 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글쓰기 교육이 창조적 사고 과정의 결과로서의 글쓰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2013년에 개발된 안양 외에는 다들 개정판이다 보니 큰 틀을 깨지 않고 ‘글쓰

기'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과 오랜 교양교육의 목표인 지식인의 필수과목, 교양 기초, 전공기초라는 목표는 어느 학교나 다 포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교재들에 나타나는 교육 목적을 표로 정리하였다.

교육목적	안양	성균관	성신	이대	한양
지식인의 필수	0	0	0	0	0
학문적 목적	0	0	0	0	0
직무수행능력	0	0	0		
의사소통	0	0	0	0	
기타	토론		리더십, 컴퓨터		인터넷 글쓰기

교육 목적 중 '지식인의 필수'와 '학문적 목적'은 다섯 교재가 다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무수행능력'은 안양, 성균대와 성신만이 반영을 있으며,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한양을 제외하고는 다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교재가 분권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 외에 안양은 유독 '토론'이 다른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안양대학교의 교양 교육 과정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한 성신과 한양대는 '컴퓨터글쓰기'와 관련한 내용을 교육 목적의 내용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성신에서만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글쓰기의 능력이 리더의 자질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⁶⁾.

2.3. 교재의 구성

목차의 내용은 그 교재의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 교재의 목차와 내용을 보고 위의 목적과 걸맞은 교재가 구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목적에서 드러난 지식인의 필수 항목은 어떤 대상을 보고 사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학문적 목적에는 교양기초와 전공기초로 나누어 교양기초에는 글쓰기 전반과 관련한 글쓰기의 개념, 목적, 단락의 구조나 개요, 글쓰기의 전개과정을 포함한다. 전공기초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논문쓰기나 리포트 작성법,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자기소개서, 이력서 아르바이트나 취업활동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의사소통에는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시켜 발표 등을 이 항목에 넣었다. 그리고 기타에는 그 외에 토론이나,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성균관은 교육목적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목차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독자와 작자'의 의사소통을 말한다면 모를까 실제 내용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네 개의 교재와는 달리 내용에 어문 규정과 바른 쓰기라는 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고답적인 명문 모방의 학습의 전통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한다고 하기도 1장이 글쓰기의 개념이라 그런지 석학의 명문을 예문 1, 2, 3, 4까지 활용하였다. 성신은 개정판을 내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시문들을 없애고, 학문 영역별 글쓰기를 다루었던 장을 아예 빼고, 오히려 교수자들이 개별 학과의 특성에 맞게 주제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논문 작성법은 추가 보완하여 학술적 글쓰기의 공통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글쓰기가 있어 다른 교재에 없는 특징이 있다. 성신의 경우에는 '지식인의 필수'와 관련한 교재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나치게 학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추다보니, 실제로 사고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이화의 경우에는 직

6) 리더는 우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비판적 사고),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의사소통), 그리고 주장한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문제 해결),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경영관리). 네 능력 중 경영관리능력은 특히 인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세 능력은 글쓰기 교육과 직결되는 항목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하, 2012)

무수행능력에 대한 교육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자기소개서'를 다양한 글의 특징과 기술에 함께 넣어 이론을 익히게 하였다. 한편 의사소통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데, 목차의 안에는 언급이 없다. 한양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이 부합되었다.

부록은 성신과 이화에서만 제시되어 있는데, 성신은 '대학생이 틀리기 쉬운 표현 100가지'라는 것으로 실제 글쓰기를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실습양식'에는 실용목적의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기안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발표 요지문 등이 나열되어있다. 이화에서는 교육목적이 '지식인의 필수, 학문적 목적에만 초점이 있어 모든 내용이 '사고'와 교양기초와 전공기초를 쌓는데 있다. 부록에는 대학생으로 알아야 할 논문 작성의 실제, 소논문, 발표화 토론, 한글맞춤법 등이 등이 있다.

교육목적	항목	안양	성균관	성신	이화	한양
지식인의 필수		사고, 표현,	창의적 사고 윤리, 성찰적 글쓰기		'쓰기'의 시대와 글의 힘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자기표현으로 서의 글쓰기
학문적 목적	교 양 기 초	주제찾기, 단락, 개요, 쓰기, 고쳐쓰기	글쓰기 개념, 글쓰기의 과정	글쓰기 과정의 이해	글의 설계도, 글의 결과 색	글쓰기 절차
	전 공 기 초	리포트	보고서쓰기, 논증적글쓰기비 평적글쓰기	논문작성법	서평, 문화비평, 시론	학술 에세이 쓰기
직무수행 능력		자기소개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글쓰기 실용적글쓰기	자기소개서	
의사소통		말하기, 발표		발표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기타		서사, 묘사, 유형별 글쓰기, 토론	어문규정과 바른표기. 올바른 문장쓰기, 창조적 글쓰기	글쓰기의 기초 묘사, 서사, 설명, 논증 발표문쓰기		전개방식 한글맞춤법
부록				대학생이 틀리기 쉬운 표현 100가지, 실습양식	논문작성의 실제, 소논문쓰기, 발표와 토론, 한글맞춤법	

2.4. 단원의 구성 체제

각 단원의 구성 체제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양: 단원명 - 본문 - 생각하고 활동하기

성균관: 단원명 - 본문 - 연습문제1 - 예문 - 연습문제 2

성신: 단원명 - 본문 - 함께하기 - 연습문제- 학생글 예시

이화: 단원명 - 본문 - 연습문제

단원명 - 본문 - 생각해 볼 문제(5단원만)

단원의 구성을 보면 안양의 경우 교재명과 부합하게 사고와 표현하는 것을 그 단원의 구성에도 '생각하고 활동하기'라고 하여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신에는 가끔 '신문 보며 쉬어가기'라는 부분을 넣어 재미있는 정보를 주며 부록 1에는 대학생이 틀리기 쉬운 표현 10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에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부록2에는 실용글쓰기에서 쓰이는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화의 경우에는 1에서 4단원까지는 '단원명 - 본문 - 연습문제'로 5단원은 '단원명 - 본문 - 생각해 볼 문제'로 다르게 구성하여 5단원은 인간, 관계, 유토피아, 삶 속의 예술, 문화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금까지 살펴 본 다섯 개의 교재들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을 지니며, 현재의 사회와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원하는 여러 목적들을 교재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재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다양한 내용들을 반영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글쓰기'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교재구성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각 교재의 구성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초반부에 본문을 제시하고 예문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 후에 연습문제를 풀게 하는 전형일률적인 단원 구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글쓰기'위주가 되다보니, 교육 목적은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것처럼 씌어 있지만 정작 내용은 글쓰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중등과정이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으로 골고루 다루어 줌으로써 이 네 가지 기능을 고르게 발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우리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토론'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요즘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사소통'과 '학문'의 좀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양 쪽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론 교육이다. 그 이유는 앞의 교재 구성들이 '글쓰기' 위주의 흐름이지만 결국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잘 정돈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실제로 글 쓰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고 해놓고서 정작 교과서에는 과정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글쓰기의 이론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정중심의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재가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몰라서 과거의 이론을 답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쓰기는 교재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등에서 교재와 상관없는 성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

4. 맺음말

결과적으로 교양교육에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현재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바라는 바가 사전 조사가 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교수자들이 원하는 교양교육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 목표와 수업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양교육의 글쓰기 과목이 각 대학의 실정이 다르고 학습자의 요구도 다를

터인데, 그들의 요구가 조사되고 분석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그러기에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학습자의 요구분석과 기존 교재의 빠진 부분들이 대학의 목적과 잘 버무려져 교재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한계는 오로지 기존의 교재분석에만 논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학습자의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교재로 이루어지는 교양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염두에 두고 분석이 되었으면 좀 더 세밀한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임을 시인한다. 또한 각 학교의 교양교육 과정을 조사하여 교과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는 대학교 1학년인 새내기 교재를 교양교육의 개념, 그리고 목적, 목표, 마지막으로 단원구성체제까지 분석함으로써 교재 개발을 할 때 일관성 있는 적용을 하여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 참고문헌

- 고 원, 2011. 공감과 소통의 토론 교육과 연구 과제, 사고와 표현, 제4집 1호,
부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김영만, 2005. 교재의 구성과 개발방향, 한국어교육론 1, 서울: 한국문화사.
- 박만엽, 2011. 비판적 사고와 논증 분석 -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 사고와 표현,
제4집 1호, 부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박정하, 2012. 대학 글쓰기 교육의 의의와 현실, 두르내, 창간호,
- 박형우, 2008. 문법 교육 연구와 교과서 제작 -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22, 서울: 한말연구학회
- 신선경, 2010. 공학인을 위한 발표와 토론 교육, 사고와 표현, 제3집 1호,
부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윤우섭, 2012. 두르내, 창간호
- 하병학, 2009. 탐구와 소통의 학문하기와 학습윤리교육, 사고와 표현, 제2집 1호,
부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허재영, 2009. 대학 글쓰기 교과서의 운영 방식과 교재 개발 실태, 한말연구25,
서울: 한말연구학회.
- 황성근, 2011. 글쓰기에서의 말하기의 영향 - 의사소통 측면을 중심으로 -,
사고와 표현, 제4집 1호, 부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황영미, 2010. 읽기 교육의 토론과 글쓰기 통합 모형 연구, 사고와 표현, 제3집 1호,
부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 교육에서의 교재 구성”에 대한 토론문

서유석(한라대)

본 발표문은 몇몇 대학의 교양교육 과목 중 공통 필수 과목인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의 교재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토론자도 사실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차에 본 연구가 보여주는 각 대학 교재의 실상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대학의 교양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본 논의에 대한 의문점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1. 왜 ‘사고와 표현’인가?

사실 이 질문은 우문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저 왜 안양대학교에서는 1학년 기초 교양교육 교과목 명으로 ‘사고와 표현’을 선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와 표현’이라는 제목 자체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에 관한 다양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명에 의한 교재 구성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발표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 교재들은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기 보다는 ‘글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본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안양대학교 교재는 다른 학교 교재보다 말하기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큰 틀에서 ‘글쓰기’ 교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사고와 표현’이란 과목명에 알맞은 교육목표는 무엇인지요? 본 발표문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안양대학교 교재는 ‘지식인의 필수’, ‘학문적 목적’,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이라는 4가지 목적을 모두 다 정확히 지향하고 있는지요? 순환의 오류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와 표현’이란 과목명이 가지고 있는 교육 목적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지점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왜 ‘사고와 표현’이 필요한가?

본 발표문의 논의 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다른 대학의 ‘글쓰기’ 혹은 ‘말하기’ 교과목이나 교재들도 역시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명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이나 교재와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대학에서 ‘사고와 표현’이라는 제목 하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관심을 기울인지는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발표문은 대학의 교양교육이 교수자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 목표와 수업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요구하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의 필요성과 달리 학습자가 원하는 교양교육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대학이 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2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각 대학의 교육 이념과 실정에 알맞은 ‘사고와 표현’ 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수준의 ‘사고와 표현’ 교육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사고와 표현’은 꼭 새내기 대상이어야 하는가?

‘사고와 표현’ 그리고 ‘글쓰기’와 같은 과목을 수업하다보면 글쓰기 혹은 의사소통 이론 수업의 무용함을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는 물론 토론자 교육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실상 몇몇 교재들은 이러한 이론 수업의 허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의 글쓰기, 혹은 사고와 표현 수업을 만들어가는 곳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와 표현’ 교육이라는 것이 꼭 대학 1학년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시행되었던 ‘계열별 글쓰기’나 교양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과목을 꼭 1학년에 수강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 과정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도 1학년 때 교양 필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와 표현’ 교재의 다양한 구성은 교과목 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양교육을 바라보

는 그 대학의 전체적인 커리큘럼 내에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학 저학년들이 바라는 '사고와 표현'의 목표와 대학 고학년들이 바라보는 '사고와 표현'의 목표가 같을 수 없다면, 학습자 요구에 의한 교과목 개발이나 교재 개발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및 방향

김진희(한국교원대학교)

<차례>

1. 들어가며
 2.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 2.1.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
 - 2.2.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3.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
 - 3.1 국어 규범 교육 위상의 방향
 - 3.2.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방향
 4. 나가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국어 규범¹⁾은 국어 화자가 국어를 바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한 지침을 말한다. 국어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가리키며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언어는 말소리와 뜻의 관계가 자의적이고 사회적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국어 규범은 동시대, 동지역이라는 조건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표준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 따라서 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국어 규범을 바르게 알고 그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어 화자의 국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국어 규범에 대한 파괴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점차 국어 규범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국어 규범의 위상조차 위태로운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오늘날의 국어 사용 실태를 학교 교육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국어 규범 교육은 학습자가 실제 국어 생활에 있어서 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 규범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왔었다. 국어 규범이라는 내용적 특성으로 인해 국어 규범 교육은 문법 교육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 국어 사용 실태를 미루어 볼 때, 국어 규범 교육은 학습자가 실제 국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어 규범 교육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규범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국어 규범 교육을 반성해보고 국어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국어 규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을 위상과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이 장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과 ‘내용’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³⁾

1) ‘국어 규범’은 민현식(2003:25~26)의 논의에 따라 ‘좁은 의미의 국어 규범’과 ‘넓은 의미의 국어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국어 규범’은 흔히 어문규정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가리킨다. 반면 ‘넓은 의미의 국어 규범’은 바른 발음법, 바른 단어 사용법, 바른 문장 작성법, 바른 대화 능력, 바른 문체 구성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국어 규범’은 좁은 의미의 국어 규범에 한정된 것이다.
2) ‘국어 규범’은 국어 어문 규정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1988)’, ‘표준어 규정(1988)’, ‘외래어 표기법(198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을 말하는 것으로, 논자에 따라 ‘어문 규정’, ‘어문 규범’, ‘언어 규범’ 등으로 부르지만 편의상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의 명칭을 따라 ‘국어 규범’으로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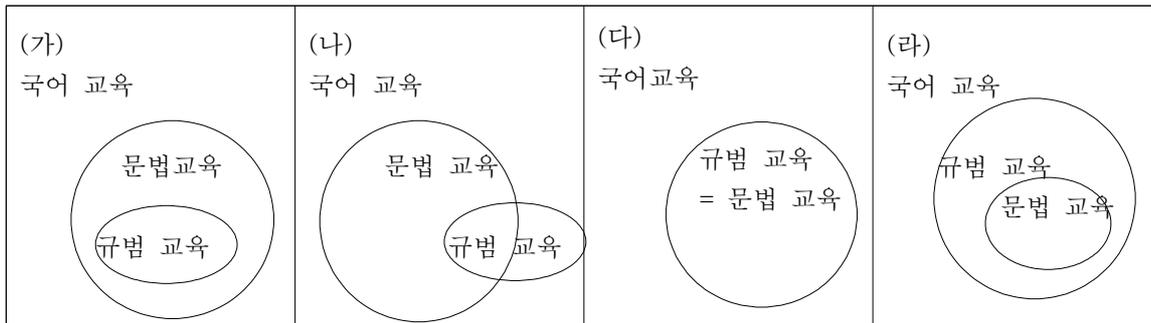
2.1.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

‘국어 규범’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근거이자 척도로 작용하는 점에서 국어 교육에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국어 규범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완전체를 이룬 국어능력을 지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어 규범을 따르지 않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국어 교육’이 국어라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이상,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 교육 내에서 반드시 편협하거나 명실상부한 존재로서 위상을 지니면 안 된다는 데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은 국어교육에서 어디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어디에서’는 국어과의 여러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 다루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 ‘어떠한’은 그 영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이전에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 교육 내에서 기본적으로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입말과 글말에 대한 규범을 모두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두루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 규범의 내용적 특성상 국어의 문법적 지식을 담고 있는 점에서 문법 영역이 다른 국어 영역보다 많은 교육적 부담량을 지녀야 함은 당연하지만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배제된다면 국어 규범은 학습자에게 지식차원에서의 규범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언어 생활의 적용까지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 내에서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위상⁴⁾



<그림 1>의 (가)는 규범 교육이 문법교육에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국어 영역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규범 교육이 일부는 문법 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다른 국어 영역들에서 도일부 이루어진다. (다)는 규범 교육만이 문법 교육의 전체로 다루어진다. (라)는 문법 교육이 규범 교육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규범 교육에 필요한 문법적 지식만을 다루는 것이다.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 교육에서 지닐 수 있는 위상은 <그림 1>의 네 가지 형태가 가능하지만, 현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은 전형적인 (가)의 형태이다.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에서 밝히겠지만, 필자는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이 (나)의 형태처럼 각 국어 영역 내에서 두루 자리할 때 비로소 국어 규범 능력이 향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물론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선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과정에서는 다른 국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내용 선정 및 배열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현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과의 여러 영역 중 ‘문법’영역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현 국어 규범 교육은 ‘문법 교육’ 내에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현재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이 구체

3) 단 본고에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유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에서는 ‘국어 규범이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은 류의 교육 내용만을 다룰 뿐 체계적인 국어 규범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내용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룬 차원보다는 심화된 내용으로 국어 규범 교육이 행해지고는 있으나 음운 교육 내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국어 규범 교육이 모두 행해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을 전적으로 행해지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4) <그림 1>에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국어 규범 교육’이라는 명명을 ‘규범 교육’으로 편의상 지칭하고자 한다.

적으로 어떠한지 또한 그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 최근 몇 년 사이로 교육과정이 교육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2007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7-79호, 2007.2.28) 이는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육과정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2011년에 ‘학년군제’를 도입하여 개정된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11.8). 이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라 한다.⁵⁾

앞서 말했듯이 거듭되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속에서 문법 교육에서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도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있어 선행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점검하고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국어 규범 교육과 관련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살펴보았다.⁶⁾ 다음 <표 1>과 <표 2>는 각각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선택중심교육과정(선택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체계이다.

<표 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과목 내용 체계(선택중심 교육과정)

국어와 말 ◦ 언어의 본질 ① 언어와 인간 ② 언어의 특성	◦ 국어의 구조 ① 음운 ② 단어 ③ 문장 ④ 담화 ⑤ 의미
국어와 삶 ◦ 국어와 규범 ① 정확한 발음 ② 올바른 단어 사용 ③ 좋은 문장 표현 ④ 효과적인 담화 구성	◦ 국어와 생활 ① 일상 언어 ② 예술 언어 ③ 매체 언어 ④ 전문어
국어와 얼 ◦ 국어의 변천 ① 국어가 걸어온 길 ②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③ 선인들의 국어 생활	◦ 국어의 미래 ① 통일 시대의 국어 ② 세계 속의 국어 ③ 국어와 인접 분야

<표 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1』의 ‘문법’영역과 『독서와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 (선택 교육과정)

(가) 『국어 1』

문법	· 음운과 어휘의 이해	·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 올바른 국어 사용의 생활화
----	--------------	-----------------	------------------

5) 이전의 7차 교육과정을 보완·수정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7-79호)과 ‘학년군제’를 도입한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사이에 2009년 12월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한하여 2009년 12월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고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1호). 이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고등학교 선택과목들을 통합·조정하였다. 기존의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인 6개의 선택 과목들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이라는 3과목으로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를 구별하여 통상적으로 2009-41호에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 하고, 2011-361호에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을 ‘2011 개정 교육과정’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2007-79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2011-361호’에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기로 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본고도 이를 따랐다. 또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교육과정이었으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6) 주세형·신호철(2011)의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심화과정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당시 어문 규범 교육의 비중에 대해 ‘문법 교과서에서 한 단원 이상 할애하기는 어려운 정도’라고 표현하였으며,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룰 기회가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살펴본 논의이므로 그 이후의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위상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전의 교육과정의 위상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논의되지 않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최근의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정리해보았다.

(나) 『독서와 문법』

독서와 언어의 본질	·독서의 본질 ·언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이해	·음운 ·단어 ·문장 ·담화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글의 구성 원리 ·독서의 방법
독서의 실제와 국어 자료의 탐구	·독서와 국어 생활 ·국어 자료의 탐구 ·독서의 가치와 성찰

<표 1>과 <표 2>에 정리된 선택중심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의 ‘문법’과목에서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과목의 내용 체계에서는 명백하게 ‘국어와 삶’이라는 범주에 ‘국어의 규범’이라는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에 따른 하위 범주로도 국어 규범 교육은 언어 단위에 따라 나열되어 있었다. 반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1』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이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간접적으로 국어 규범 교육은 ‘음운과 어휘의 이해’와 ‘국어 구조의 이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이 짐작 가능하다. 각 교육과정에 명시된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과목 국어 규범 교육의 세부 내용 (선택중심 교육과정)

세부 내용		
국어의 규범	① 정확한 발음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발음한다.
	② 올바른 단어 사용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외래어 차용 현상을 이해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규정을 익혀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 표기 원리와 규정을 익혀 국어를 로마자로 올바르게 표기한다.
	③ 좋은 문장 표현	·문장부호 사용의 원리와 규정을 익혀 문장 부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교정한다.
	④ 효과적인 담화 구성	·담화의 표현 원리를 이해하고 담화를 효과적으로 구성한다. ·표준 화법과 언어 예절에 맞게 담화를 효과적으로 구성한다.

<표 4>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1』의 ‘문법’영역과 『독서와 문법』 과목의 국어 규범 교육의 세부 내용(선택 교육과정)

『국어 1』
(10) 음운과 음운의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있는 발음 생활 에 대해 알아본다.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인 음운과 그 음운들이 지니는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디로 나눌 수 있는 분절 음운과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이해한다. 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을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자음은 파열음과 파찰음에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구분이 있고, 유·무성의 대립이 없다든지 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음운 체계의 이해를 토대로 주변에서 발음 생활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교양있는 발음 생활의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본다.
(1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을 알고 교양있는 표기 생활 에 대해 알아본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는 정확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국어 생활에서 한글 표기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탐구하여 교양 있는 표기 생활이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이를 교수·학습할 때는 실제 국어 자료를 사용하며, 맞춤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의 양상도 생각해 보며, 반대로 맞춤법에 맞는 교양있는 표기 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독서와 문법』
(6)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표기하는 생활을 한다. 음운의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로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음운 변동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상과 같은 개별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과 발음의 괴리를 보이는 자료를 통해 올바른 발음과 표기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독서와 관련하여 청자나 독자를 위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9)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국어를 로마자 로 표기하는 방법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어문 규범에 나타난 주요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생활 외래어, 전문 외래어, 그리고 저명한 인명, 지명의 로마자 표기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탐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표기가 글을 이해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하도록 한다.

위의 <표 3>과 <표 4>를 보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규범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각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함을 기술한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독으로 국어 규범 교육이 행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음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에서 국어 규범 교육을 연계하여 행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상은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점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산술적으로 성취 기준의 수를 고려해 볼 때 국어 규범 교육의 비중은 다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는 독립적인 교과였던 『문법』이 『독서와 문법』이라는 통합된 교과서로 편찬되면서 전반적으로 ‘문법’영역의 성취기준의 수가 줄었다. 이는 실제로 교육과정 상에 명시적으로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교과서는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따라 단원 및 학습 내용을 구현하므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축소되고 그에 따라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도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 기준에 국어 규범의 내용을 분명하게 언급한 점은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교육과정(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표상된 국어 규범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파악해 보았다.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육 환경의 내·외적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에 변화 속에서 국어 규범 교육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의 적정성, 학습량의 과중한 부담 으로 인한 축소 요구와 같은 교육 환경의 내·외적 요구가 지배적이라면 국어 규범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상의 축소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입장을 고려할 때, 문법 교육에서만 전적으로 담당했던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국어과에서 범 영역적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2.2.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전술하였듯이 현재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 교육 내의 문법 교육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적 특성상 문법 교육에서 보다 깊이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 규범 교육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상당부분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어 규범 내용이 다소 문법적 지식과 관련이 연관이 있고, 또한 문법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야 국어 규범의 원리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현 2013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국어 1』 교과서가, 고등학교 2·3학년에는 2009년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1호)을 적용한 『독서와 문법 2』교과서에서 국어 규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거개 담고 있는 『독서와 문법 2』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 규범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가진 내용 및 구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표 5>는 『독서와 문법 2』교과서에 제시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제시된 단원 체계이다.

<표 5> 『독서와 문법 2』에 제시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단원 체계

출판사 ⁷⁾	교과서 단원 체계
천재교육 (박영목 외)	IV. 국어 생활과 규범 1. 올바른 단어 사용 (1)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 (2) 한글 맞춤법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2. 정확한 문장 표현

	(1)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2) 문장 부호 3. 효과적인 담화 구성 (1) 담화의 표현 원리 (2) 표준화법과 언어 예절
비상교육 (이남호 외)	II. 국어와 규범 1. 한글 맞춤법 2. 표준어 규정 3.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4. 표준 화법과 국어의 표현
지학사 (이삼형 외)	1. 말과 글의 규범 01. 올바른 단어 사용 (1) 표준어 규정 (2) 한글 맞춤법 (3) 외래어 표기법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02. 정확한 발음 (1) 표준 발음법 (2) 방언의 이해 03. 정확한 문장 표현 (1) 바른 문장 표현 (2) 문장 다듬기 04. 효과적인 담화 (1) 담화의 표현 원리 (2) 표준 화법과 언어 예절
미래엔 (윤여탁 외)	I. 국어 규범의 탐색 1. 정확한 발음 (1) 표준어와 방언 (2) 표준어와 표준 발음 2. 올바른 단어 사용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II. 정확한 문장과 효과적인 담화 구성 1. 정확한 문장 표현 (1) 정확한 문장 구성 (2) 올바른 문장 표현 2. 효과적인 담화 구성 (1) 담화의 표현과 구성 (2) 표준 화법과 예절

위 <표 5>를 살펴보면,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대체로 교과서에서 한 단원을 할애하여 다루어진다. 대체로 하나의 대단원 안에 국어 규범인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각각 하나의 소단원으로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다른 규범에 비해 내용이 적어 교과서 한 단원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나,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은 그렇지 않다. 교과서의 내용 체계만 보더라도 국어 규범 교육이 한정된 지면에 과중한 내용 분량을 담고 있다는 한계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설명의 충실성 면에서의 문제이다. 위의 교과서들은 대체적으로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세부 항에 대한 설명을 ‘학습 활동’에서 다루고 있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조항’의 내용이 다소 많아 교과서의 ‘본문’에 모두 실기는 어려운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규범의 조항들을 적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각 조항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덧붙여서 친절하게 제시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표준 발음법’ 관련 단원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설명은 글로 풀어 설명되어있고, 세부 조항에 대한 언급 없이 학습활동의 지문 차원에서 조항의 내용만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구성은 조항에 대한 설명을 실기에 교과서 지면상의 한계가 있다는 짐작이 가능하나 학습자가 국어 규범의 조항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어렵다.

둘째, 설명 방식 면에서의 문제이다. 실제로 각 교과서에서는 국어 규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어 규범에 대한 세부 조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항이 어디 ‘절’에 속하고, ‘몇’ 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위계에 따른 설명이 아닌 조항을 음운 지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 음운 교육인지 규범 교육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가 국어 규범이 어떠한 틀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국어 규범의 내용의 선정 기준에 대한 언급없이 일부 조항들만 나열한 점에서 각 규정들을 모두 암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셋째, 예시의 적정성 면에서의 문제이다. 각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 규범의 세부 조항에 대한 예시는 제시되지 않고 조항들만 기술하거나, 학습활동 과정에서 각 조항에 따른 예시를 찾는 질문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실제로 국어 규

7) 이 장에서 국어 규범 내용에 관련하여 해당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비판점을 제시할 때는 출판사 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법의 각 조항에는 예시들을 자세하고 많은 예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예시가 소략하고 대체적으로 조항들만 나열한 점에서 구체적으로 국어 규범에서 조항에 대한 대표 예시들로 어떤 단어들을 예로 들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독서와 문법 II』교과서에 제시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는 과정에서 집필진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연구자 나름대로의 비판적 고찰을 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점은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며 교과서가 개발될 때마다 문제점들은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상의 교과서에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고찰해 본 결과, 교과서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구성하는 데에 다소 부족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국어 규범의 내용은 기본적인 성격상 각 규정에 대해 암기해야 하는 문법적 지식이라는 인식을 준다. 따라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보다 국어 규범에 대한 수월한 이해가 되도록 하여 학습자가 국어 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국어 규범을 적용하여 바르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상에서의 현 국어 규범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3.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

2장에서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점검하고, 또한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중 『독서와 문법 II』교과서를 바탕으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에 3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위상’과 ‘내용’의 범주로 각각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3.1. 국어 규범 교육 위상의 방향

국어 교육의 목표가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때, 국어 규범 교육의 목표는 ‘규범 능력의 신장’이라 할 수 있다. ‘규범 능력’은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국어 규범을 이해하여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국어 규범에 대한 의식 및 국어 사랑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범박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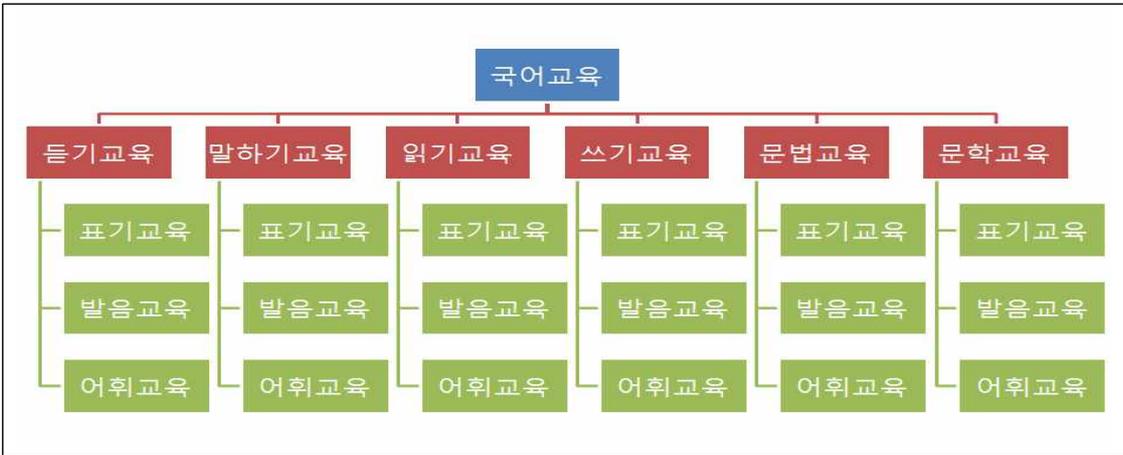
바르고 정확한 국어 사용을 위한 중요한 지침의 성격을 지니는 ‘국어 규범’은 국어 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바른 사용을 위한 규정인 점에서 국어과의 각 영역들에서 두루 다루어질 때 보다 국어 규범 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규범이 지닌 내용적 특성상 문법 영역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내용으로 담아야 하지만, 국어 규범이 국어 사용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과 국어 규범 교육의 효과적 측면까지를 고려할 때 국어과에서 범 영역적으로 국어 규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은 앞서 밝힌 <그림 1>에서의 (가)의 형태처럼 국어과의 범 영역적인 관점에서 위상을 가져야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2장에서 현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살펴 본 결과 국어 규범 교육은 교육내용의 적정화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 완화라는 교육 환경의 요구에 따라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현재 문법 영역에서만 다루던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국어 사용 영역에서 관련한 국어 규범 내용을 연계하여 다룸으로서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 규범 교육이 문법 영역을 포함하여 국어과의 각 범 영역에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국어 규범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국어과 범 영역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국어과 범 영역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 범주



<표 6>에서 ‘표기교육’, ‘발음교육’, ‘어휘교육’은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범주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어 규범 교육에서 ‘어휘교육’은 표기교육이나 발음교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어 규범의 ‘표준어 규정’과 같이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가름에 대한 내용들은 ‘표기’나 ‘발음’에 대한 교육 내용보다는 적합한 어휘를 밝히는 규정인 점에서 별도로 ‘어휘교육’의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고자 구분한 것이다.

위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 범주는 국어과의 각 영역에서 규범 교육 내용에 대해 각 영역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실현하자는 것은 아니다. 각 영역의 고유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각 영역의 특성에 적합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추출하여 제시하자는 것이다.

물론 국어과의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국어 규범 교육의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려면 ‘국어 규범 교육 내용’에 대한 천착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어과의 각 영역에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두루 다루어졌을 때 국어 규범 교육의 효과성이 높다는 통계적 검증도 수반되어야 객관적으로 타당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시론적인 연구인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는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위상을 지녀야 함을 밝히며 이러한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국어과의 범 영역에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선정·배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각 영역별로 국어 규범 교육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진술한다.

둘째, 국어과 각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시에 각 영역의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선정·배치한다.

셋째, 문법영역을 제외한 국어과 각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문법적 지식이 깊은 수준에서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는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배치한다. 문법 영역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문법 교육의 단위(음운-단어-문장-담화-의미)에 각각 국어 규범 내용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선정·배치한다.

위의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국어과의 각 영역에 선정·배치할 때에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국어 규범에 대한 흥미나 지적 호기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과의 문법 영역에서만 위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위상을 갖고, 그에 따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때 국어 규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어 규범 교육이 어느 한 학교급에서만 한정되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교육과정에서부터 선택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각 학교급에 맞는 국어 규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방향

앞에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현황을 밝힌 2.2장에서 『독서와 문법』Ⅱ 교과서의 국어 규범 교육내용이 몇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밝혔다. 앞서 교과서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설명의 충실성, 설명 방식, 예시의 적정성

면에서 미흡한 구성을 보였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전에 연구자 나름대로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기준이 선행되지 않았음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소략한 분석임을 감안하더라도 현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국어 규범 교육 내용에 대한 수월한 이해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구성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어 규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가공한 형태로서의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⁸⁾

첫째,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는 중핵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구조화하여 구성해야 한다. 국어 규범 내용은 상당한 분량인 점에서 교과서에서 모든 국어 규범의 내용을 다룰 수 없다. 이에 국어 규범 내용 중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현 언어 실태를 고려하며 동시에 의사소통에 필수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중핵적인 내용을 선별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어 규범의 성격상 진술이 다소 딱딱하여 학습자가 어렵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국어 규범의 틀(장, 절, 조항)을 유지한 상태로 구조화하여 제시한 뒤 그에 따른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국어 규범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적 안목을 우선적으로 갖고, 각 세부 조항에 대해 문법적 지식을 적용하여 미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어 규범에 제시된 예시들을 풍부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어 규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필요한 문법적 지식은 학습자의 문법적 직관을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 교과서에서는 국어 규범의 조항만 제시하고 실제 국어 규범에 실려있는 예시들은 제시하지 않거나 소략하게 제시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물론 국어 규범의 조항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규범에 제시된 대표적인 예를 학습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국어 규범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선행적으로 습득한 문법적 지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이전에 모국어 화자로서 갖춘 직관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 한다.

셋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국어 규범의 유용성 및 효율성을 선행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는 국어 규범 교육이 단순히 규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어 규범 내용을 우선 제시하고 이후에 유용성과 효율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국어 규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의미한 학습 태세를 갖추 수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넷째, 다양한 담화 및 매체 자료를 활용하되 국어 규범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가치뿐 아니라 규범의 보수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언어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규범의 보완 점을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담화 및 매체 자료가 제시되었지만 국어 규범의 정확성 즉, 오류 양상을 밝히는 유형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언어 현상은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현상은 보수성을 띠는 국어 규범과 언어 현실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국어 규범을 적용하여 바르고 정확한 의사소통도 중요할 뿐 아니라 언어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국어 규범이 보완되어야 할 점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동시에 학습자의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제시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방향은 이 자체만으로 국어 규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규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규범능력의 구인이 무엇인지 이를 기반으로 문법 영역을 포함한 국어과의 각 영역에서 규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야하는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 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선정된 국어 규범의 내용 구성, 기술 방식, 학습활동의 다양화 등의 고민을 통한 개선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생략.

8) 본고는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위상을 지니고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방향도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의 방향을 제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이다. 그러나 2.2장에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현황을 현 문법교과서에서의 국어 규범 내용을 한 단원으로 다룬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어 규범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제안하는 이 장에서는 국어과의 '문법'영역에서 국어 규범에 관한 단원을 구현할 때의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어과의 범 영역에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 적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정평가원(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7-79).
- 교육과정평가원(2011),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1-362호).
- 박영목 외(2011), 『독서와 문법』 II, 천재교육.
- 윤여탁 외(2011),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 이남호 외(2011), 『독서와 문법』 II, 비상교육.
- 이삼형 외(2011), 『독서와 문법』 II, 지학사.
- 권재일(2009),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국어교육』 129, 한국어교육학회, 25~38쪽.
- 김유범(2010), ‘국어 음운론 교육의 새로운 방향 찾기를 위한 제언’-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말연구』 26, 우리말학회, 215~233쪽.
- 민현식(1999), ‘언어 규범 정책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71쪽.
- 성낙수(2011), 『국어와 국어학』 1·2, 채륜.
- 이관규·신호철(2011),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성격과 어휘 선정 원리’, 『문법교육』 14, 문법교육학회, 39~71쪽.
- 이관규(2011),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 한국어교육학회, 127~158쪽.
- 이승왕(2011), 초등학교 국어 규범 교육 내용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73쪽.
- 이창근(2008), ‘국어 발음 학습 교재 구성 방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37~356쪽.
- 이희승·안병희·한재영(1989), 『한글맞춤법강의』, 신구문화사.
- 전은주(2012), ‘중학교 어휘 교육의 위상과 개선 방향’, 『새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학회, 181~212쪽.
- 주세형(2011), ‘해암 선생이 남긴 국어 규범 교육의 원리’, 『선청어문』 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57~295쪽.
- 주세형·신호철(2010),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9, 85~111쪽.
- 정용호(2010), ‘발음 및 표기 오류의 음운 교육적 접근’,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48, 1~27쪽.
- (2010), ‘음운, 발음, 표기 교육의 연계 연구’,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7~50쪽.
- 정주리(2006), ‘문법 교과서의 내용 개발을 위한 연구’ -중학교 <생활 국어> ‘음운과 음절’단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177~205쪽.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한 토론편

신호철(경기대)

본 발표문은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현황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아가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국어교육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이나 내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 필요성이 무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학교 교육에서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재인식과 더불어 국어 규범 교육의 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적 문제점을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통해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설명적 충실성, 설명 방식, 예시의 적정성’의 면에서 미흡한 구성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있다. 교과서는 양적 제약, 구성 방식의 경향, 전통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식 내용에 대한 설명의 부족은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보완하고 있고, 수업을 통해 교과서 외의 다양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 국어 규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교과서 진술 방식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교육의 각 영역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할 수 있다. 그러나 <표6>과 같이 각 영역의 내용 범주를 추상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통합·실행할 수 있는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본 발표문이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시론적인 연구라는 제한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발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언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문에서 진술되었듯이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무일 것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발표자의 향후 연구에 기대하는 바이다.

【 4분과 발표 】

한국어 교사의 메타말 사용과 인식에 관한 소고

정대현(협성대학교)

<차례>

1. 서론
 2. 메타말의 개념
 3. 연구 방법
 4. 한국어 교사의 메타말 인식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한국어교육에서 교사는 문법을 교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것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문법과 관련한 대화, 즉 메타말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한다. 교사의 메타말은 한국어교실에서 매 수업 시간마다 학습자의 문법 학습을 위해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법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교사가 수업시간에 생산하는 메타말의 양도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말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교사의 메타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성과가 매우 드물다. 메타말 생성은 교사가 메타말에 접근하는 교수 원칙, 교수 신념, 교수 철학,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메타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교육 교실에서 생산되는 문법과 관련한 명시적인 대화, 즉 메타말¹⁾을 연구하는 데 있다. 메타말은 문법, 어휘, 단어, 철자, 담화와 같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대화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메타말의 범위를 ‘문법’에 관한 명시적 대화로 한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메타말의 개념은 ‘문법에 관한 명시적 대화’임을 밝힌다.

그런데 이 분야의 연구가 많지 않고 연구의 핵심도구라고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조차 완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분야를 실험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 분야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한국어교육 연구 영역에서 미진한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분야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메타말이 실재하는가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의 양적인 규모가 어떠한가와 관련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질적이 측면 즉, 메타말의 종류와 그 양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말의 실재를 먼저 검증하고자 한다. 메타말의 실재 여부는 두 명의 한국어교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사한 데이터가 기초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인터뷰는 교실에서 생산되는 담화 형태의 결과물을 모으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일어나는 문법과 관련한 대화는 담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메타말이 발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한 담화 형태의 결과물을 분석해 보면 메타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1) 교사와 학습자는 문법에 대한 대화(일방적인 입력이 아닌)를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적이며 민족지학적인 연구가 몹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교실에서 생성되는 문법과 관련된 대화, 즉 교사가 먼저 시작한 대화 혹은 학습자가 먼저 시작한 대화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구축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가 어떻게 특정한 문법에 대한 정보를 묻고 획득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Mitchell(1994:218-20).

대한다.

만일 이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다면 교사의 신념체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Clark & Peterson, 1986; Kagan, 1992; Pajares, 1992). 또한 교사가 메타말에 접근하는 신념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교사의 신념이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메타말의 개념

메타말이라는 용어는 Faerch(1985)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메타말은 첫째 비계 구조(scaffolded construction)가 활성화되어서 원활한 학습 활동의 전개에 유익하고 둘째 대화 내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언어 학습에서 메타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역할, 즉 '대화 내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증거'라는 관점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이 개념은 메타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을 한 차원 높은 곳에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타말은 이미 출력된 언어를 한 차원 높은 곳에서 관찰하는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 이때 관찰한다는 의미에는 감시, 설명, 확인과 같은 기능이 함의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관찰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될 때 언어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관찰의 기능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한편 정대현(2009)에서도 메타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말은 학습자의 상위 인지 언어를 활성화시켜 그들에 의해 산출된 언어의 통사적, 어휘적, 의미적, 철자, 담화의 정확성을 감시하고 확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메타'라는 말과 그것이 대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에는 수집 자료의 대상에는 교사가 배제되어 있으며 문법, 어휘, 발음, 담화를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어서 실재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메타말(문법과 관련된 명시적 대화)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메타말과 메타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용어가 의미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말'과 '-언어'라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언어라는 용어는 사실 다양한 의미²⁾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언어를 기술하는 언어'라는 공통적인 개념을 가진다. '메타'의 개념을 '넘어서, 위에서'라고 해석할 때 대상이 되는 언어를 설명하는 언어이다. 대상이 되는 언어는 학습 목표가 되는 문법 항목일 수도 있고, 교사가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나 문장이 될 수도 있다(홍은실, 2005). 그러니까 메타언어는 다양한 범주(목표 문법에 대한 설명, 어휘에 대한 설명 등)를 아우른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명시적인 담화를 대상으로 연구하되 그 범주를 '문법'에 관한 대화로 한정한다. 교사가 자신이 생성한 문법에 대한 대화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에 있는 대학의 언어교육원 한국어수업(KFL)과 본과 수업(KAP)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언어교육원의 한국어수업은 특정한 교재 및 교안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해진 교수 요목들이 존재하며 교육 지침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본과 수업은 전문적인 훈련과 일정한 학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수업 내용과 목표를 정한다. 본과 수업의 특성은 일정하게 정해진 교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되 수업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수 자료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교사 '가'는 30대의 원어민 한국어교사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교원 자격 2급에 소지자로서 3년 정도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교사 '나'는 40대의 원어민 한국어교사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15년 정도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

2) 메타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메타언어적 기능(Jakobson, 1963: 코드가 담화에 나타나는 기능), 메타언어(Benveniste, 1974: 언어를 기술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 메타언어적 활동(Chaudon, 1983: 언어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메타언어적 지식(Ellis, 1994: 언어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지식)

다. 두 집단 모두 4급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1개 집단은 15명 ~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자료 수집

두 명³⁾의 교사의 데이터는 각각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과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수집하였으며 관찰 분량은 학부 수업 9시간, 일반목적은 16시간에 해당한다. 학부 수업 관찰은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언어교육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해당 날짜를 골라 4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⁴⁾. 관찰을 하는 동안 오디오 레코딩, 관찰지, 모든 그날 수업 분량에 해당하는 교재, 부교재 등의 교수 도구 복사본을 가지고 관찰에 임함으로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벤트의 상세한 부분까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사와의 인터뷰는 한국어 교실에서 메타말이 생산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에피소드가 형성될 때 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논리를 명확하게 기술할 것이다.

3.3 자료 분석의 방향

본 연구는 한국어교실에서 생산되는 메타말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가) 메타말 생산 전략 (나) 상호작용 모드 (다) 메타말의 구조 (라) 문법 용어 활용 (마) 메타말의 본질. 모든 자료에 대한 분석은 교사의 실제 수업에서 생산된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되 교사 자신의 실제 수업에 대한 교사의 반성(reflection) 즉 언급, 비평, 경험, 근거 등을 기반으로 분석할 것이다.

4. 한국어 교사의 메타말 인식

4.1 메타말 생산 전략

교사 ‘나’는 메타말을 형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특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피소드 1

“학습자에게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읽게 하기 전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새롭거나 잘 모르는 문법 구조에 표시하게 하고 이런 문법을 교사에게 한국어로 질문하거나 설명하도록 주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문법이 있다면 그곳에 의문표를 하거나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 문법에 대한 의미, 규칙 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학습자에게 주어진 텍스트를 읽게 할 때, 교사는 교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자가 제대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때 한 학생(S1)이 교사에게 ‘~(으)ㄴ들 ~겠어요?’의 용법에 대해 물어본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제기한 문제를 옆에 있는 학생(S2)에게 대답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주문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서로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는데 S2는 이 문법은 반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답한다(S1과 S2는 중국학생). 这语法的意思是, ‘有可能吗?’, 用疑问的形式来使用. 이러한 S2의 대답에 대하여 S1은 한편으로는 수긍을 하면서 ‘~(으)ㄴ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본다. 또한 두 문

3) 이 연구는 질적 연구(case study)로서 교사 2인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의 규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규모의 적정성은 Borg, 1998, 1999, Kagan:1992등의 문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4) 케이스 스터디라는 연구방법론은 연구 대상을 심도 있게 추적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일정한 시차를 두어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부 수업의 경우 3주차(수업이 본격적인 케도에 충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시점), 6(중간고사 전)주차, 8주차(중간고사 후)에 실시하였고, 언어교육원 수업의 경우는 2주차, 6주차, 8주차에 걸쳐 메타말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 이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아/어 봤자’를 지난 과에서 배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으)ㄴ들’이 ‘~아/어 봤자’와 유사한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이 문법은 어떤 문제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킬 때 ‘~(으)ㄴ들’과 ‘~겠어요?’를 같이 사용하면 유용한 문법이라는 점도 설명해 준다.

이 경우를 볼 때 교사 ‘나’는 학습자가 문법에 대한 질문에 먼저 정답을 제공하는 대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메타말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습자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예전에 들어 본적이 있는 어떤 것이든지 확실하기 어려웠던 것이나 혹은 혼란스러웠던 것 등이다. 그래서 학습자는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사 ‘나’ L45)

교사 ‘나’는 학습자중심 학습이라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 보이는데 이러한 믿음은 학습자가 메타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법을 선택하는 데 강력한 동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나’가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문법적 오류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범한 오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식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말하기 활동이 끝나고 학습자가 자신이 발화한 내용을 서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서 보듯이 메타말은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적 필요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교사 ‘나’의 접근법은 메타말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 ‘가’의 경우 메타말의 초점은 항상 교수 도구 속에서 특정된다. 교사 ‘가’는 먼저 메타말이 일어날 수 있는 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법이 설명되어야 하는지도 미리 계획되어 있다. 교사 ‘가’의 수업에서는 우연적으로 메타말이 발생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또한 교사 ‘가’의 접근법은 계획된 메타말이라는 점과 교사 ‘나’의 경우에는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인 것이라는 면에서 메타말의 본질이 다르다. 그리고 PPP 접근법이 교사 ‘가’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PPP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통제된 말하기 연습과 덜 통제된 말하기 활동을 순차적으로 학습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말하기 활동에 필요한 문법 항목에 학습자의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는 메타말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된다.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메타말을 선택한 교사 ‘나’의 결정에는 문법의 의미, 형태, 용법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쟁점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난다. 미리 계획된 교사 ‘가’의 메타말은 그러한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2 상호작용 모드

교사 ‘가’는 소그룹을 통하여 메타말을 생산하는 어떤 교수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업에서도 그런 예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교사 ‘가’에게 있어서 언어 교수의 목적은 유의미한 말하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고 소그룹을 활용한 메타말 생산이라는 도구를 말하기 상호작용 활동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교사 ‘가’가 자신의 교수 행위를 결정하는 형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타말에 대한 교사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 ‘가’가 가지고 있는 유창성에 대한 개념은 내용 중심의 상호작용을 암시하는 것이고 언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즉 교사 ‘가’가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 속에는 대화의 내용이 문법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에피소드 1을 보면, 소그룹을 통해서 메타말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 ‘나’는 문법에 관한 토론이 학습자 사이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교사 ‘나’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서로에게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인지는 확실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수법은 몇 가지 목표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데 먼저 교실 경영, 수업의 진도 조절, 수업의 중심 이동과 같은 것들이고 다음으로는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서로에게 질문을 하기

보다 오히려 어떤 의문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 형태는 당시에는 대답할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에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자체로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교사 ‘나’ L60)

교사 ‘나’는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수업의 진도를 조절한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말해서 메타말 생산 활동이 수업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한 메타말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언어 규칙 등을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문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교사 ‘나’는 또한 메타말 소그룹이 실제로 유창성에 중심을 두는 말하기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나’ 메타말 활동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메타말이 학습자가 한국어 문법을 의식할 수 있는 의식 고양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즉각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사 ‘나’의 교수 형태는 의사소통 접근 방식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교실에서 메타말 활동과 같은 교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에 더 나아가 학습자의 대화 그 자체가 문법을 주제로 하기도 한다.

4.3 문법 용어 활용

교사 ‘나’는 문법 용어 사용에 있어서 비교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록 사용한 문법 용어가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교사 ‘나’는 문법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문법 용어 사용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습자가 ‘~(으)ㄴ들’은 연결어미지요? 라고 묻는다면, 교사는 그 문법(연결어미)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단어는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면, 교사 ‘나’는 학습자가 말하기 활동을 할 때 ‘컴퓨터를 써서 그림을 그리고... 눈이 더 나쁠 것 같아’에서 나타난 ‘나쁠 것 같아’를 ‘나빠질 것 같아’로 수정해 주기 위하여 오류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에피소드2

T: 요즘 학기가 시작돼서 바쁘지요?

S: 응, 한국어도 어렵고 살기 힘들어요.

T: 전공 수업은 어때요?

S: 건축 설계가 제일 어려워요.

컴퓨터 써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보고 눈이 더 나쁠 것 같아요.

T: ‘나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눈이 좋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눈이 안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변할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면 형용사 또는 동사에 ‘무엇을’ 붙여야 해요?

S: ???...

T: 형용사, 동사 아/어, 아/어 지다. 그래서 ‘나쁠 것 같아요?’, 나빠~

S: 나빠질 것 같아요.

T: 그래요. 맞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에피소드2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메타말로 볼 수 있다. 이 대화의 특징은 교사가 학습자와 대화할 때 문법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법 용어 사용에 대한 교사 ‘나’의 관점은 학습자에 따라서 문법이라는 명시적 표지(label)를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만일 그렇다면 교사는 당연히 이러한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수 행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학습자가 언어의 규칙, 문법에 대해서 다시 숙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즉 정확하게는 문법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학생의 대다수가 그러한 토론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토론이 학습자에게 유익하다면 어떤 학습자도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교사 '나' L12)

교사 '나'는 문법에 관한 명시적인 토론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입의 필요성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사가 알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교사를 이 토론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교사가 이러한 교수 형태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교사는 메타말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문법 용어가 학습자에게 어떤 혼란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학습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표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교수할 것이다. (교사 '가' 1-2-L35)

학습자가 어떤 문법에 대한 용어를 언급했을 때 교사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교사 '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문법 용어 사용이 언어 학습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즉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이때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교사 '나'의 주장은 교사가 메타말이라는 교수 행위에 대한 이해 뒤에는, 수업이란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에피소드3

T: 어머니는 이번 추석에 뭐 하실까요?

S: 어머니는 추석에 꼭 너무 바빠요.

T: 지금 추석이 왔어요? 안 왔어요? 과거예요.

S: 안 왔어요.

T: 어머니는 추석에...

S: 어머니는 추석에 바쁘실 거예요.

교사 '가'의 수업에서도 메타언어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과거). 그러나 일반적인 교사 '가'의 수업은 문법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화 맥락으로 볼 때 앞에서 '과거'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 '미래시제'라는 문법 용어가 등장할 법한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사 '가'는 미래시제 혹은 문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도 간소화(simplify)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에피소드4

T: 이번 추석에 뭘 먹고 싶어요?

S: 이번 추석도 월병 못 먹게 되어요.

여기서 한 번도 못 찾았어요.

T: (무슨 뜻인지 잘 들어 보세요) 이번 추석에 뭘 먹고 싶어요?

월병?

S: 아~ 월병을 먹고 싶어요.

T: 월병을 먹고 싶어요. 하지만 먹을 수 없어요. 왜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해요?

S: ?

T: 여기서 한번도 보~ㄴ 적이 없어요.

S: 여기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T: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V-아/어 ㄴ적이 있다/없다'를 써요.

교사 '가'는 학습자의 잘못된 응대(월병 못 먹게 되어요)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질문은 자신이 묻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명료화(clarification)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질문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 '무슨 뜻인지 잘 들어 보세요'라는 메타말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교사 '가'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합한 의미에 맞는 문법을 학습자의 언어자원으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교사 '가'는 과거 경험이라는 메타말을 사용하고 있다. 교사 '가'는 의미 전달에 적합한 문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메타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러한 과정이 학습자의 불완전한 언어를 목표 언어에 가깝도록 이끌어가는 데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 '가'의 수업 단계. 즉 정확성 중심의 수업 단계에서만 메타말이 발견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에피소드4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문법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교사 '가'는 학습자에게 메타말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재생산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교사 '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어떤 문법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필요와 불필요로 나누어 교수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용어 사용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에게 문법 용어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언어를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다행히 이해했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문법 용어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한 용어를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학습자에게는 용어 자체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보이지 않는 장애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학습자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을 전혀 학습해 본 경험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가' L53)

문법용어 사용의 촉진은 교사 '가'가 중점을 두어 교수한 형태는 아니었다. 이는 문법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부재로 인하여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 '가'는 문법이 종종 용어라는 표지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정작 알아야 하는 것에는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교사와 학습자가 어떤 문법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문법을 언제 사용하는지, 왜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학습자가 그 문법의 명칭 이상을 더 알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학습자도 문법의 명칭을 알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수업에서 문법의 명칭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교사 '가' L47)

교사 '가'는 교사 '나'처럼 학습자가 문법 용어라는 표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두 교사의 차이점은 교사 '나'는 학습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 '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학습자의 기대에 반응하는 것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교사 '가'가 언급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구조중심적인 교수 방법보다는 의미중심의 교수법이 문법용어에 대한 교사 '가'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 '가'의 언어 교육관이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 교육관의 형성은 교사 '가'가 한국어 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은 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언어교육에 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모두 교수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강조하는 교육 내용과 교수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희 학교에서는 특히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조하되 의미중심의 언어교육이 강조되었고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 혹은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 행위를 삼가도록 교육 받았어요.(교사 '나' L125)

교사 '가'의 언어교육관은 비단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영향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학습 경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교사 '가'는 자신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했을 때를 예를 들어 말했다.

내가 영어를 공부했을 때 주로 문법 중심의 영어 교육을 받았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대명사, 관계절, to 부정사 같은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런 문법 용어들이 원어민과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큰 도움이 됐다거나 몰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같아요.(교사 '가' L133)

교사 '가'경험은 문법 용어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그것이 교사 '가'의 의사소통 목적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용어가 과연 언어학습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이 문법, 특히 문법용어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 혹은 이미지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교사 '가'가 수업에서 메타말 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4 메타말의 구조

메타말이 활성화된 대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두 명의 교사 모두 어떤 문법이 가지는 의미나 형태, 비슷한 문법과의 차이를 교수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메타말의 전형적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은 메타말 구조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에피소드5

교사: ㉠ '-더라도'와 '-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 봤어요.

학생1: ㉡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교사: ㉢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 양보(판서)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 그래서 항상 시험을 잘 봐요?

아니예요. ㉥ 시험을~?

학생: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에피소드6

교사: ㉦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학생: ㉧ 공부했어요.

교사: ㉨ 사실(판서)이에요. '공부하더라도'는 진짜로 공부한 거 아니예요.

가정한 거예요. ㉩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학생: ㉪ 시험을 못 봤어요.

교사: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못 봤어요.

뒤에 올 수 있는 문장의 의미가 달라요.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담화 구조가 존재하는 듯하다. 에피소드5의 메타말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사의 문제제기 ㉡ 학습자의 반응(정확한 대답, 근접한 대답, 오답) ㉢ 교사의 반응(칭찬, 격려, 부정) ㉣ 교사의 해석(메타말, 문법용어) ㉤ 교사의 재질문(학습자의 이해 확인) ㉥ 학습자의 반응

에피소드6의 메타말 구조를 분석해 보면 ㉦ 교사의 문제제기 ㉧ 학습자의 반응 ㉨ 교사의 해석 ㉩ 교사의 재질문

㉔ 학습자의 반응

에피소드 5, 6에서는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문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귀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법 규칙에 대한 정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교사와 학습자가 토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학습자 스스로 문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그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어 이를 귀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습자와의 대화는 정보를 귀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대화가 질문과 대답, 칭찬과 부정, 재질문과 재대답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교사들은 메타말을 귀납적으로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논리적 근거는 서로 유사하다. 교사 '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규칙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교사의 지도가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해 주는 것보다.....

교사 '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불완전한 언어를 목표언어에 가깝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언어 자체를 학습자에게 바로 제시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학습자에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언어에 근접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습자가 틀린 답을 제시했다고 해도 학습자에게 '틀린 답'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학습자가 제시한 답이 방향만 맞는다면 그것이 무가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향성만 맞는다면 학습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든지 목표언어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러한 두 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교사는 메타말이라는 교수법이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사 '가'가 말한 바와 같이 메타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교사가 하는 역할은 토의를 통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그 아이디어를 명료하게 하고 결국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4.5 메타말의 본질

두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서 생산된 메타말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교사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메타말의 문장 구조가 논문처럼 길거나 복잡한 형태를 띠지 않는다.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아주 단순한 문장구조로 제시하되 문법과 관련한 토의 주제로 한정된다. 또한 교사 '나'는 종종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 문법을 비교하는 교수법을 사용한다. 두 교사의 수업에서 메타말은 항상 문장 단위에서 다루어지며 담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사의 메타말은 계획된 메타말과 우연적으로 발생한 메타말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계획된 메타말과 우연적으로 발생한 메타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제시된 에피소드를 보면 교사 '나'는 학습자에게 구어의 유창성을 높이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교사는 'V-(으)ㄴ 전망이다'에 대한 문법 규칙을 설명한다.

에피소드 7

교사는 'V-(으)ㄴ 전망이다' 앞에 올 수 있는 의미를 한정시키기 위한 규칙을 칠판에 판서한다. '어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내용에는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격식체의 표현에 사용)'

교사: 'V-(으)ㄴ 전망이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학생3: 'V-(으)ㄴ 전망이다' 앞에 개관적인 내용만 와요?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내용은 오지 않아요?)

교사: 보통 객관적인 내용이 와요. 대부분 그렇게 사용해요.

이 에피소드에서 교사 '나'는 규칙이라고 제시하는 대신 '보통', '대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내가 제시한 내용이 100% 맞아 떨어지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문법 규칙에 예외가 없다고 확신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교사 '나' L156)

교사 '나'는 예외가 없는 규칙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문법에 관한 명시적인 대화가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험을 종종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에게 완벽한 지침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나'가 선택한 교수형태(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메타말)는 본질적으로 불명확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이 오히려 교사에게 연구의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불명확한 전달로 인하여 교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문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아야겠다고 하거나 혹은 전문 서적을 찾아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동기는 자신의 전문성을 되돌아보게 하고 연구의 지를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 '가'의 경우 계획된 메타말을 수행하기 때문에 메타말이 출현하는 곳을 고찰해 봐도 앞에서 나타났던 불명확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교사 '가'는 '보통' 혹은 '대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메타말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계획된 메타말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메타말보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교사 '나' 역시 메타말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학습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 '나'의 메타말에 대한 인식, 즉 비계획성으로 인해 메타말이 발생할 때 기꺼이 자신의 문법 지식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교사 '가'는 어떤 토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정교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에서 드러난 메타말의 본질은 교사의 메타말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연히 발생하는 메타말은 학습자에게 덜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획된 메타말은 분명한 규칙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특성화된다. 그러나 계획된 메타말의 이슈는 한정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개성, 예를 들면 불확실성을 관용하는 정도 혹은 학습자의 질문에 언제, 어느 정도까지 대답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교수 경력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교수 경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사의 경우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메타말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충분하지 않아도 메타말 생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충분한 교수 경험을 확신하고 있다면 교사는 즉흥적으로 생성되는 메타말 발생을 선호하고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어떤 문법에 대해 토의가 생성되었으나 교사가 이에 대하여 분명한 규칙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해도 그로 인해 교사가 받는 부담감은 크지 않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교사의 메타말에 대한 사용과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메타말 연구의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는 메타말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메타말의 생성, 발전, 다양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명의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메타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단지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며 한정

된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승혜(2009),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19차 국제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3-48
- 강현화(2002), “해외 한국어 교사 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논의-러시아 지역의 현지연수와 국내연수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38.
- 민현식(2005), “한국어 교사론”, 『한국어교육 제16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 168.
- 조향록(1997),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사 연수 :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어교육 제8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7-130.
- 정대현(2010), “한국어 경력 교사와 예비 교사의 교수 행위와 사고 행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8집』, 국어교육학회, 233-266.
- 정대현(2011), “한국어 경력교사의 교수 지식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41집』, 국어교육학회, 581-612.
- Borg, S.(1998), Talking About Grammar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Language Awareness*, 7-4.
- Borg, S. (1999). The use of grammatical terminology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s' practices and cognitions. *Applied Linguistics*, 20(1), 95-126.
- Clark, C.M. and Peterson, P.L.(1986) Teachers' thought processes. In M.C.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3rd edn) (pp. 255-96). New York: Macmillan.
- Faerch, C.(1985), Meta talk in FL classroom discours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7, 184-199.
- Kagan, D.M.(1992), Implications of research on teacher belief. *Educational Psychologist* 27, 65-90
- Mitchell, R.(1994)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the teaching of grammar. In M. Bygate, A. Tonkyn and E. Williams(eds)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pp.215-33). London: Prentice Hall.
- Pajares, M.F (1992), Teacher' beliefs and educational research: Cleaning up messy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07-332

“한국어 교사의 메타말 사용과 인식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심혜령(배재대)

이 발표에서는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메타말의 사용과 그 양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언어 내용 교수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언어 사용의 구조 및 방법이 학습자의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교사 언어 특히 그 중에서 메타언어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여 지향점을 파악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이 발표는 교사 메타말에 대한 어떤 결론이나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메타말의 중요성과 연구 필요성에 대해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딱히 토론자가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떤 반론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과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발표자의 보충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메타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의 언어 내용 교수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메타말’은 ‘도구적 차원에서의 교사 언어 전반’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즉 구체적인 어휘일 수도 있고, 문형일 수도 있고 대화 방향, 담화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실에서의 ‘메타언어’라고 할 때는 약속된 어휘와 정형화된 문형 정도로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의 ‘메타말’은 그보다는 훨씬 추상적으로 범주화한 일종의 ‘언어로 구현되는 교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메타말’의 함의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메타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메타말이 실재하는가, 메타말이 얼마나 사용되는가, 그리고 메타말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메타말이 가진 영향력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재하고 많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것이 그저 다양한 실재에 불과하다면 이는 오랜 천착과 변별적 분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실재와 질적·양적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적어도 문법 설명에 있어서 교사의 메타말이 가진 구체적인 효율성과 교육적 결과에 대한 실증적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의 메타말이 중요하다고 할 만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제시로부터 이 논의는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논문 내용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두 가지 정도의 ‘언어로 구현되는 교사의 교수 방법’으로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교수하고 있다라는 변별성의 이해와 교사의 인식 확인 정도만이 가능합니다. 교실에서의 교육적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연계된 각각의 학습자의 문법 이해도의 차이 및 학습자군 별 만족도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학습자의 이해도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다루거나 접한 바는 혹시 없는지 있다면 어땠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발표는 교사에 따라 상이한 교수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의 패턴을 구조화하고 그 패턴별로 구체적인 문법 설명을 위한 메타말 체계를 유형화하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특

성에 맞되 교육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표준적 교사 언어 구조화를 이끌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흥미롭고 유익한 후속 연구로 계속 이어지길 소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외 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고경민(안동대학교)

<차례>

1. 들어가기
 2. 분석 대상과 방법
 3. 국외 한국어교재의 특징과 변천 과정
 4. 마무리
- 참고문헌

1. 서론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처음 문을 열고 1960년 최초의 교육기관용 한국어교재인 '한국어교본'이 만들어진 이후 한국어교재는 그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학습자가 늘고, 1990년 이후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설립되면서 현재는 학문 목적의 학습자만 8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설립된 학교 및 정부 관련 기관이 늘면서 새로 편찬되는 교재의 수도 늘었으며, 이에 따라 교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교재론'도 한국어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교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재 개발이나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의 방향이 한쪽에 치우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외에서 편찬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 형태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배희임(1990), 간노(1991), 김영아(2000), 손정일(2008), 여학봉(2009), 진정란(2011)과 같이 교재 현황과 개발 방향을 논의한 연구부터 우인혜, 방성원(2008), 김순녀(2009), 후지이시다카요(2000), 장광군(2000), 오대환(2010)과 같이 현지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 교재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한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이용주(1980), 오고시(1994), 김영옥(2003), 노마 외(2008), 오상순(2010)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사의 범주 안에서 다룬 교재 변천의 경우 백봉자(2001), 이지영(2004), 조항록(2008) 민현식(2008), 고경민(2012)에서 다루고 있으나 주로 국내에서의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국외 교재의 변천을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의 경우 주로 교재 개발 방향과 개발의 필요성,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몇 권의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시적인 관점에서 교재를 살펴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교재 편찬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서 편찬된 한국어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특정 시기의 교재 변천 양상 및 과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90년대 이후 편찬된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편찬된 교재와 비교 고찰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외 한국어 교재의 발전사를 간략하게나마 기술할 것이다.

2. 분석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교재를 각각 90 여권씩 선정하여, 편찬 목적이나 학습 대상 등을 살폈으며,

한국어 교재의 변천과 그 과정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변천 과정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해서 교재를 분류했으며, 이 기준에 맞춰 170여 권의 교재¹⁾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초 자료의 수집과 정리이다. 한국어 교재 변천 과정에 대한 시대 구분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시대별 특성을 담고 있는 기초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각 국가별, 시대별 문헌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정리된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는 국가별, 시대별 교재의 외형적 특징과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교재의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교재의 편제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본문과 부록의 구성이나 목차, 단원의 체제, 각 단원의 구성 방식 등을 통해 교재의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재의 전반적인 형식과 편찬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교재의 체제와 더불어 내용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단원이 어떤 주제로 구성하고 있으며, 무엇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법이나 회화, 독본과 같은 학습 목적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저자의 의도와 교육 대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형적인 특징이나 내용과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문의 제시 방법이나 교육 항목의 제시 순서 등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살피고, ‘연습’이나 ‘과제’, ‘활동’ 등을 분석해 평가 방안도 부분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재의 내용 및 목적, 학습자의 수준 및 교재의 등급을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자료 해석의 단계이다. 국가별, 시대별 한국어 교재에 대한 해석 문제는 한국어 교육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시대별로 동일하지 않으며,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의 원리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가별, 시대별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각 문헌이 갖는 특성을 적절하게 해석해 내는 일은 국외 한국어 교재의 발전사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 및 목적’, ‘교재의 등급’이라는 기준을 정했으며,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분석 대상 교재 ²⁾		중국	일본
	분류		
학습 내용 및 목적	듣기	6	1
	읽기	5	2
	쓰기	2	0
	말하기	0	0
	문법	12	17
	어휘	2	4
	회화	22	18
	발음	0	1
	특화	4	0
	문화	2	0
	종합	31	25
	통합	1	0
	입문서	0	14
	수험서	5	1
	계	92	83
교재의 등급	초급	29	56
	초중급	28	16
	중급	29	9
	중고급	4	1
	고급	2	1
	계	92	83

<표 1>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1) 교재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첫째, 앞선 연구자의 논의 과정에서 당시에 주로 사용했다고 밝힌 교재들(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90년 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표준 한국어’)을 중심으로 교재를 수집하였다. 둘째, 특별한 인급이 없는 교재의 경우에도 교재로서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교재의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간혹 분량이나 주제, 내용면에서 교재로 보기 어려운 교재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셋째, 현지에서 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교재를 구해 대상에 포함시켰다.(현지 중고서점 등을 통해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한국어 학습자가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수집했다.)

<표1>에서 제시한 항목 중 연구의 객관성과 논리적인 근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설명이 더 필요하다. 먼저 학습 내용 및 목적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분권식 교재의 경우 분류 항목으로 큰 이견이 없으나 특화, 종합, 통합, 입문서에 대해서는 설정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화 교재’라는 용어는 고경민(2012)에서 차용하였으며, 의료나 영화, 드라마, 요리 등을 활용하거나 특수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업 등과 관련한 교재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특화 교재는 주로 직업 훈련이나 적응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재이다. 다음으로 ‘종합 교재’의 개념을 이 연구에서는 고경민(2012:136)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종합 교재’는 ‘통합 교재’ 이전의 물리적 통합 교재를 말하는 것으로 통합의 의미에 대해 고영근(1993:14)에서는 ‘통합’이란 두 개나 그 이상의 구성요소들이 하나로 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의 선결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피통합 요소가 그 나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은 물론, 기존의 큰 체계의 구성 요소에 의존하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구성 요소가 자율적이면서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성 요소로서의 분절’을 하긴 하되 분절했던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보고 있다. 또한 주세형(2005:36)에서도 통합의 개념을 실제 모여 화자가 언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여기서 실제 언어 수행 방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행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살펴볼 한국어교재에서의 통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영(1999:27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적으로 유의미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실제 생활이 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 학습은 실생활을 모방하여 실제의 담화 현장에의 적용성·전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제의 일관성과 과제의 실제성은 언어 기능의 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통합의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단순히 언어 기능을 함께 제시하고 연습 문제를 수록한다고 해서 ‘통합 교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자와 기관에서 ‘종합 교재’와 ‘통합 교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다. 각 기능간의 화학적인 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지고, 과제 중심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때 통합 교재³⁾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문서’의 경우 교재의 성격으로 규정해야 할 지 교재의 등급으로 규정해야 할 지 논의가 확실치 않으나 교재의 내용이 한글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발음과 음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중심이 된 교재를 이 연구에서는 ‘입문서’로 분류하였다. 특히나 ‘입문서’의 경우 일본에서 편찬한 교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초급에서 고급, 1급⁴⁾에서 6급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등급이 아닌 교재의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교재의 학습 내용 및 목적에 이어 살펴볼 부분은 교재의 등급에 대한 부분이다. 초급, 중급, 고급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초중급, 중고급의 경우 확실히 개념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기관에서 학습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수를 적용해 1급에서 6급으로 개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혹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거나 과거 교재 개발 여건에 따라 1-4로 구분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 편찬되는 통합

2)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교재에 대한 자세한 서지 정보는 참고 문헌 뒤에 제시하도록 한다.

3) ‘종합 교재’와 ‘통합 교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능 및 영역 간 통합의 정도이다. ‘종합 교재’의 경우 단원 구성이 ‘본문’, ‘발음’, ‘문법’, ‘연습’ 등으로 구성된 반면 통합 교재의 경우 ‘보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표현이 없어도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기능이나 영역 간 통합 활동이 주를 이룬다. 둘째, 과제 및 활동의 실제성 측면이다. ‘종합 교재’의 경우 단순한 문법 연습이 중심이 되는 반면 ‘통합 교재’의 경우 역할 카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연습을 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게시판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등 실제 담화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전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종합 교재’의 경우 ‘언어 지식’ 측면에서의 교육이 중심이 되는 반면 ‘통합 교재’는 ‘언어 사용’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통합 교재’에서 각 단원마다 다루고 있는 ‘문화’ 관련 활동과 자료는 ‘언어문화’라는 차원에서 한국어 및 한국의 실제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입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1급 반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급 과정에서 한글의 기초와 발음을 학습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 한글의 기초 과정을 학습한 후 입국한 학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회화 및 문형 표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연구에서 입문서로 분류한 교재는 분명 초급 수준의 교재인 것은 맞지만 교재의 절반 이상을 한글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문서’로 따로 분류하였다.

교재의 경우 대학 교육 기관의 수업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1-6으로 교재가 편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외에서 편찬되는 교재가 이런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초급에서 고급으로 교재를 분류하거나 1-3, 1-4 정도로 교재를 편찬하고 있다. 따라서 초급이라 밝힌 교재 중에서도 중반 이후에 다루는 문형이 현재 한국의 중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일이 많고⁵⁾, 중급이라 밝힌 교재 중에도 관용 표현이나 사자성어, 문학 텍스트 활용 등 5급 수준의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을 함께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경우 3급이나 5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초중급과 중고급으로 분류하였다.⁶⁾

다음으로 교재 변천 과정과 양상을 살피는 데 있어 특정 시기가 중심이 된 이유를 짚어 봐야 할 것 같다. ‘변천’을 살피면서 90년대 이후가 중심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경우 196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교재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언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 교재 개발이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⁷⁾ 특히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할 때 90년 이전의 교재를 살피는 일은 언어 학습 교재를 살피는 의미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⁸⁾ 둘째, 중국의 경우 1992년 한중 수교 이전까지 한국이 주체가 돼서 개발한 교재를 찾아볼 수 없다.⁹⁾ 일부의 교재를 수집하였으나 교육 목적이나 방법, 내용까지 완전히 다른 1990년 이전의 교재는 변천 과정을 살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국외 교재의 발전사와 변천 과정은 필히 국내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올림픽 이후 대학 교육 기관이 설립되고 자리를 잡은 90년 대 이후 상당수의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분명한 90년대 이후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것이다. 국외 교재의 변천 과정이나 양상을 살피는 일의 목적은 국내에서 간행된 교재와 비교하고, 더 나은 교재를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분명한 시기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분류한 교재 중 대표적인 교재를 중심으로 변천 배경과 양상을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3. 국외 한국어 교재의 특징과 변천 과정

3.1. 교재 편찬 배경

3.1.1. 국내 교재의 편찬 배경

90년대를 전후로 국내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이전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고경민(2012)에서는 이 시기의 특징을 ‘대외적 발전’과 ‘매체 교육의 강화’, ‘공식적인 한국어 평가의 시작’,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 ‘한국어 학습자의 변화’ 등으로 살피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이 시기는 백봉자(2001)의 발전기, 이지영(2003)의 3기, 조항록(2008)의 안정적 성장기, 민현식(2008)의 성장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특정국가에 머물렀던 한국어교육의 열기가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중국, 일본, 미국에 개설되었던 대학의 한국어 강좌들이 영국, 스페인, 베트남, 호주 등까지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살필 수 있다. 또한 매체를 통한 교육이 강화되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의 EBS의 지원을 받아 ‘기초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문체부 주관으

5) 이유 연결어미에 대한 설명 중 ‘-니까’, ‘-아/어/해서’를 다룬 후 뒤에서 ‘-기 때문에’, ‘-바람에’ 등을 다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6) 교재의 수준을 나누는 일은 아직까지 정확히 규정된 부분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1-6까지의 분류를 사용한 것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후이다. 즉, 한국어교재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분류했다기보다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급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후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편찬된 교재의 경우 자국의 한어수평고시(HSK)의 영향으로 기초(1-3급), 초중등(3-8급), 고등(9-11급)과 같은 등급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7) 물론 국외에서 편찬된 교재 중 ‘제외동포’대상 교재의 경우 이러한 이유와 관계없이 일찌감치 개발된 예를 살펴볼 수 있다.

8) 교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교재도 몇 종 수집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교재의 체계를 살피기에는 교재의 구성이 허술하거나 조악해서 국내 교재와 비교하기에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단편적인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교재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중국에서 간행된 90년 이전의 교재는 북한에서 제작된 교재가 다수 섞여 있어 한국어교육에 부적절한 내용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 ‘미제의 앞잡이’나 ‘친애하는 수령’ 등의 표현은 일반적인 언어 교수 목적의 교재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나 제외동포 대상의 교재가 중심이 되거나 일부 기관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교재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희임(1990)을 참고할 수 있다.

로 95년에는 CD-ROM 한국어 교재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어 관련 평가가 국내외에서 시행되었다는 점도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97년 SATⅡ에 한국어가 공식 채택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능력 평가가 97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되었다. 한국어교육의 발전기인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어교재에서도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200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변화는 두드러지게 된다. 고경민(2012)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어 교육의 특징을 다문화 중심 교육, 교육기관의 변화, 교육 매체의 변화, 제도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2000년 이후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커지면서 각 대학이나 지방 자체단체에서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다수 개설하였고, 이는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재의 편찬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 교육기관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특히 2000년 이후부터 각 대학의 해외 진출이 늘고 분교 형태의 언어교육기관을 설립해 국외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다음으로 교육매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용 홈페이지의 제작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등 TV나 책에 머물렀던 교육 매체의 변화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최근에는 휴대용 게임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¹⁰⁾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에 공포된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그동안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던 한국어교원의 지위나 자격에 대한 것은 물론 한국어의 국외 보급 조항 등이 명문화되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¹⁾

3.1.2. 중국에서의 편찬 배경

중국의 경우 1946년 난징동방어문전문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이래¹²⁾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1992년 이전까지는 한국어교육이라기보다는 조선어교육이라는 명칭¹³⁾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2007)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시기를 조선어 교육의 시기(1944-1992)와 한국어 교육의 시기(1993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1992년 전까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조선어 교육이었으며, 베이징 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뤼양외국어대학 등의 학교들은 북한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북한에서 파견한 교수들이 중요한 교수 업무를 담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1992년에 이루어진 한중수교는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설립하였으며, 이후의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40년부터 시작된 한국어 교육은 1950년대¹⁴⁾를 거치면서 학문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후 1992년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수교 이후부터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내 못지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그 결과는 교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1.3. 일본에서의 편찬 배경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관련 강좌는 198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도쿄 지방만 해도 도쿄대학, 도

10) 자세한 사항은 고경민(2013:519-5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조항록(2010:293)에서는 국어 기본법에는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면서 실제로 국어기본법에 한국어의 국외 보급 조항이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에 이를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법제화의 실현과 함께 정책 개발 및 시행의 근거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2) 김경선(2007:59)에서는 실제 개설 시기는 1945년 여름이지만 담당 교수의 부재로 1946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3) 손정일(2008:240)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부터 2005년까지 중국에서 공식 출판된 한국어교재 160종을 분석하면서 명칭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수교 이후 한국어라는 용어가 학자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중국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지칭할 때도 여전히 조선어라 지칭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선민족어 개념으로 ‘조선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14) 김순녀(2009:251)에서는 1950년대에는 이미 조선어 학과가 있는 북경대학교 외에 1952년에 북경대외경제무역학원과 1956년에 낙양(뤄양)외국어군사학원에서 각각 조선어 학과를 개설하였음을 기술하면서 이 시기 연변대학교에서도 북경대학교와 낙양외국어군사학원의 위탁으로 조선어 학과 학생들의 양성 임무를 담당했었는데 이것이 이어진 것은 문화대혁명 직전까지라고 한다.

교외국어대학, 간다외어대학 등을 비롯해 도쿄수도대학, 메이지대학, 주오대학 등 여러 대학이 한국어를 제 2 외국어로 지정한 상태이다. 특히 2002년 1월에 실시된 대학 입시센터의 시험에서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신설되면서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많아졌고, 90년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 역시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본과 중국의 차이점은 일본에서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요시다(2007)에 의하면 현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학회는 ‘조선학회’, ‘조선사 연구회’, ‘한국조선문화연구회’, ‘현대한국 조선 학회’, ‘조선어 연구회’ 등이 있으며, 특히 조선어 연구회의 경우 <조선어 연구>라는 학회지를 발행하고 월례 연구 발표회만 200회를 훨씬 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오고시(1994)에서는 1990년대 일본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일본 문부성의 지도하에 많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리큘럼 개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한국과의 인적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어학 학교들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늘고 있고 교육 기관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오대환(2010:209)에서는 현재 일본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관련 정책의 문제와 내적 역량의 문제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문제로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의 구분의 문제’를 꼽고 있고, 내적 역량의 문제로는 ‘한국어 담당 교원 문제’, ‘한국어 교실수업 형태’, ‘학습자 요구 및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의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90년 이후는 물론 1945년 이후의 한국어교육에 대해 기술한 노마 외(2008:202)에 의하면 1945년 이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는 몇몇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재일 교포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서 2003년 사이 개설된 702개의 대학 중 47.7%에 해당하는 대학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1991-2000년까지의 10년 동안 118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관이나 TV, 라디오, 잡지 등에서의 한국어교육까지 합친다면 그 열기가 대단하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실제 NHK TV 어학 부분의 텍스트 발행 부수가 1994년 5위에서 2004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에도 시대 최초인 한국어교육 기관인 ‘韓語司’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다른 국가에 비해(심지어 국내보다 더 빨리) 오랜 전통을 이어 왔지만 1945년 이후 1970년 중반¹⁵⁾까지 긴 시간 한국어교육의 암흑기를 거쳐야 했다. 이후 올림픽의 영향과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 등 학습자의 큰 폭의 증가는 지금의 활성화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3.2. 국외 한국어 교재의 특징 및 변화 양상

3.2.1. 국내 한국어교재의 변화 양상

1990년 이후 한국에서 편찬된 교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종합 교재’¹⁶⁾가 중심이 되어 발간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회화’나 ‘문법’ 중심의 교재에서 각 기능 및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는 ‘종합 교재’가 중심으로 편찬된 것은 대학 기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¹⁷⁾ 대학 기관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과 체계에 맞는 교육 교재가 필요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교재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 각 대학 기관의 이름을 건 교재가 상당수 간행되었다. 이 시기는 교재 편찬을

15) 노마 외(2008:203)에서는 1977년 약 50년 만에 한국어 학과가 부활한 ‘도쿄외국어대학’을 기점으로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6) 고경민(2012)에서는 ‘종합 교재’와 ‘통합 교재’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과제 중심의 각 기능별 통합이 아닌 각 기능과 영역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거나 혼용한 것을 ‘종합 교재’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 교재’는 ‘통합 교재’ 이전에 나왔던 교재를 말하는 것으로 본고에서 이를 구분해 사용하는 이유는 교재 변천 과정에서 ‘종합 교재’가 수정 보완되고 학습자의 요구 조사가 반영되면서 ‘통합 교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재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7) 1980년 후반을 기점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급증하였고 한국어 교원양성을 위한 전공으로서의 한국어 학과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설치되었다.

대학의 언어 교육기관에서 주도하면서, 해당 기관의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 편찬이 많았던 시대이다. 또한 각 기능간의 연계 및 통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교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재가 편찬되기 시작했다.¹⁸⁾ 따라서 1990년대는 한국어 수요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한국 대학 기관에서의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어 교재가 안정적인 발전기에 접어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교재가 간행되기 시작했으며, 각 교육 기관이 자신들의 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 맞춤 교재의 형태로 교재를 제작하였다. 또한 이 시대 교재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한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역시 이전 시대와 달리 쓰기와 말하기, 읽기와 듣기 등을 결합한 형태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어교재는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면 정부 산하 기관의 주도로 교재가 편찬되어 다양한 목적과 국적의 학습자에게 ‘범용 교재’를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199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0년과 2001년에 출판된 KLEAR¹⁹⁾의 『Integrated Korean』 시리즈가 있는데 백봉자(2001)에서는 이 교재가 통합 교수법을 표방했으며,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과제 해결 중심 교수법을 보임으로써 문법 중심의 청각구도 교수법에서 탈피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⁰⁾ 2000년 이후의 한국어교육이 세계화를 반영한 것이었다면, 교재의 대상 역시 이러한 목적에 맞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였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에 펴낸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의 경우 그동안 학문 목적 학습자에 가려져 있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본격적이고 특화된 교재라 할 수 있다. 또 전공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편찬하거나 다양한 언어권²¹⁾을 대상으로 교재를 펴낸 것도 2000년 이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교재의 편찬 목적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요리나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한 교재에서부터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기존의 문법, 통합교재, 회화 중심으로 편찬되었던 교재들이 문법, 어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이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2.1. 중국에서 간행된 한국어교재의 변화 양상

90년대 이후 중국에서 펴낸 한국어 교재에 대해 김경선(2007)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열악한 출판 여건이나 부족한 교수 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놀라운 성과로 기술하면서 특히 회화 교재의 활발한 출간과 그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90년대 이후 출간된 교재에 대해 2장에서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중국의 교재 편찬 역사에 대해 김순녀(2009:253)에서는 4단계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이고, 제2단계는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이다. 3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이며, 제4단계는 2000년 이후이다.²²⁾ 본고에서는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는 교재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중국에서 간행된 교재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교재는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에서 집필한 ‘한국어 1-4’와 북경대학을 비롯해 25개 대학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저술한 ‘표준한국어’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두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

18) 이전에 초급이나 중급으로 단순 구분되었던 교재들이 1급에서 6급까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개발되었다.

19) Korean Language Education & Research Center.

20)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초급 한국어』 시리즈와 『중급 한국어』 시리즈,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시리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역시 정부 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진 교재라고 할 수 있다.

21) 대표적으로 2008년에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초급 한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경우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 6개 언어로 간행되었고,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도 출간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펴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200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회화집』(2010)과 국립국어원의 『아자아자 한국어』(2005)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펴내거나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만든 『함께 배우는 한국어』(2006)와 같은 교재들도 다양한 교육대상을 반영한 교재라 할 수 있다.

22)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는 1단계를 문법-번역식의 교수 방법이 도입되어 한국어 교수법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2단계는 구조주의 이론과 듣고 말하기 교수법을 수용하여 편찬한 교재의 시기로 보았다. 특히 2단계 시기의 경우 총체적인 설계와 과학적인 지식배열이 부족하고 과목 내용 범위가 협소하고 내용이 단조롭다는 점, 언어 구조 형식을 강조하고 기능 훈련이 부족했다는 점, 교재의 언어가 사회화, 생활화 되지 못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3단계 시기는 수교 이후의 경제적인 교류와 합작에 힘입어 다수의 한국어교재가 편찬되었으며, 특히 북경대학교 등 25개 대학에서 공동 편찬한 『표준 한국어』를 중심 교재로 기술하고 있다. 다만 구조적 형식을 중시하고 언어 내용에 소홀히 한 점이나 읽기 기능 향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 시기 한국어 교재의 문제로 기술하고 있다.

하는 한국어교재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내용 및 목적

<표1>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서 1990년 이후 출간된 교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재는 ‘종합 교재’와 ‘회화 교재’이다. 종합 교재 중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교재는 북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제작한 『标准 韩国语』 시리즈와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에서 집필한 『韩国语』 시리즈이다.

『표준 한국어』는 1996년에 간행된 교재로 이전까지 중국에서 간행된 교재들이 회화나 문법 중심으로 간행되었다면 『표준 한국어』 이후 ‘종합 교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원 구성은 ‘본문’이 나오고 ‘발음’, ‘새단어’를 제시한 후 ‘기본문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연습’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형을 활용해 문장을 완성하거나 빈 칸을 채우는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 한국어』 이후의 교재는 대부분 『표준 한국어』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한국어』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표준 한국어』를 교재로 채택해 사용하였다. 2001년부터 간행된 『한국어』 시리즈는 『표준 한국어』에 비해 문법 설명이 자세하고, 연습에서도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문형과 단어를 함께 이용한다든지 연결형 연습 문항의 제시라든지 회화 연습, 번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조금 더 다채로운 기능 통합형 연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중국에서 편찬된 종합 교재들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대학기관용 종합교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재가 발달된 순서를 보면 단순 회화(어휘 대조)²³⁾에서 시작해서 문법 중심이나 회화 중심 교재²⁴⁾가 간행되고 이후 분권식 교재가 등장하면서 소위 독본류²⁵⁾(읽기 중심)가 등장을 하고, 독본의 형태에 간단한 문형을 제시하거나 연습을 추가한 종합 교재 형태가 나타난다. 종합 교재 이후에는 다양한 분권식 교재와 통합 교재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학습자의 전공이나 특성, 목적을 세분화한 특화 교재가 출간되고 있다. 회화 교재가 많이 간행된다는 것은 해당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나 학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교재가 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90년대에 간행된 회화 교재 역시 간단한 한국 소개 및 관광을 목적으로 제작된 내용이 많으며, 점차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거나 유학 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회화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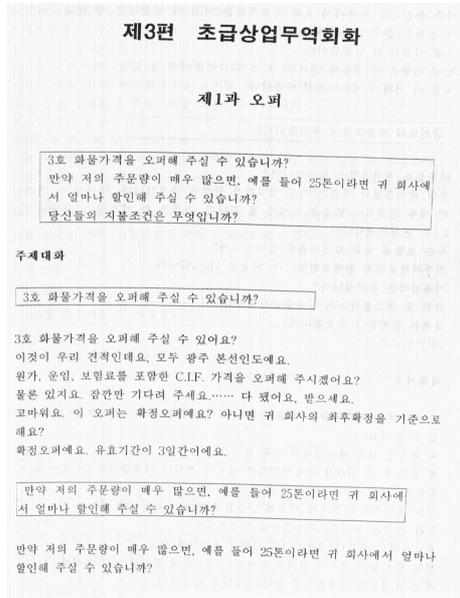
‘종합 교재’와 ‘회화 교재’ 이외에 중국에서 간행된 교재 중 눈여겨 볼 수 있는 교재로 ‘수험서’와 ‘특화 교재’를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학문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 유학생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수험서의 간행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대학의 입학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 들어간 이후 아예 중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입국하는 학생들이 생길 정도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중심이 되거나 모의고사 형태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묶은 교재가 간행되고 있어 한국에서 편찬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⁶⁾ ‘특화 교재’의 경우 ‘비즈니스’ 목적으로 간행된 교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韩国语 贸易通’처럼 무역이나 경제와 관련한 교재나 ‘韩中翻译教程’과 같이 번역을 배울 수 있도록 편찬된 교재가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 ‘특화 교재’가 편찬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본 언어 학습 이외에 학습자의 수요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최초의 한국어교재로 볼 수 있는 『교린수지』의 경우 표제어를 중심으로 간단한 회화문을 실고 있다.

24) 1945년 이전까지 간행된 한국어교재는 대부분 회화나 문법 중심으로 편제를 이루고 있다.

25)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펴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독본』(1970)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펴낸 『한국어 독본』(197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한국어독본』(1986)이 여기에 해당하는 교재로 볼 수 있다.

26) 현재 한국에서 간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 교재는 영역별, 수준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독학용 교재와 수업용 교재 등 학습 방법에 따라 출간되기도 한다.



<그림 1> 무역 중심으로 교재가 편찬된 ‘经贸韩国语’(2008)

이밖에 일본에서 간행된 교재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문화 교재’를 중국에서는 살펴볼 수 있다.²⁷⁾ 한국에서 간행되는 최근의 ‘통합 교재’의 경우 교재 안에 ‘문화’ 항목을 따로 설정해서 다루고 있지만 중국에서 간행된 ‘종합 교재’는 ‘문화’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교재의 간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법 교재의 경우 1995년에 간행된 ‘韩国语 实用语法’이 문법 교재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이후에 간행된 문법 교재들이 이 교재의 체제에 따라 품사별로 기술한 후 단어의 활용, 어미, 서법 중심으로 편제하고 있으며, 같은 방식에 용례를 더하거나 연습 문제를 심는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에 간행되는 문법 교재가 문형 간의 비교나 한국어능력시험에 기초해 제작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⁹⁾

기타 읽기, 쓰기, 듣기 등의 분권식 교재는 2000년 이전에 간행된 것을 찾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종합 교재가 자리를 잡은 시점인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교재가 출간된 것을 볼 수 있다.

2) 교재의 등급

90년 이후 한국에서 편찬된 한국어교재들이 1-6이나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교재를 편찬하는 것에 반해 분석한 교재 중 54권에 해당하는 교재가 초급 혹은 초중급 교재이다. 학습 대상에 따른 교재의 등급은 해당 교육의 역사 및 발전 정도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교육의 역사가 길고 해당 언어의 교육이 발달할수록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학습 대상의 수준과 함께 교재의 수준이나 등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는 해당 언어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교재의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92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어교재가 발간된 것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재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이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일본과

27) 일본 교재의 경우 본문이나 교재의 뒤에 문화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하다.

28) 1995년 간행된 이 교재에서 특별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나 편제 방식 등을 봤을 때 한국에서 1987년에 간행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임호빈 외)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1976년에 北京大學東語系 朝鮮語專業가 펴낸 『朝鮮語實用語法』과 상당 부분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29)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대학 기관을 비롯한 교육 기관에서의 문법 수업이 한국어능력 시험의 문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사를 비롯해 서법에 대한 수업을 따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비교해 봐도 중급 수준 이상의 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재 편찬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급 수준 이상의 교재가 다수 편찬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어능력 시험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학문 목적 입국자가 많은 중국의 경우 대학 입학에 위해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급 수준 이상의 교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중급 교재 편찬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후반에 나온 교재의 비율을 보면 초급만 다루고 있는 교재보다 중급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거나 중급 수준 이상의 내용만 다루고 있는 교재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교재의 수준이 변화한 원인에는 학습자 전체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도 될 수 있지만 학문 목적 학습자의 경우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가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에 유리하다는 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편찬된 교재의 문제점

80여 종의 교재를 살펴본 결과 국내의 교재 발달사와 여러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고, 전문적인 대학 교육기관이 중심인 국내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몇몇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 편찬된 교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다수의 교재가 짧은 기간 편찬되다보니 언어 교수법을 반영하거나 통일된 교수요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수법과 교수요목의 부재는 체계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없고,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순녀(2009:262)에서는 중국에서의 교재 편찬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 통일된 한국어 교수요목이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 한국어 교재편찬에 대한 이론연구에 소홀하다는 점 셋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 넷째, 현대화한 교재편찬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다섯째, 과목별과 급별에 따른 한국어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 교재의 저자 부분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 간행된 교재는 북경대학이나 대련이공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 저자가 많다는 점이다. 김경선(2008:172)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교재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교 이전까지 대학들이 평양을 기준으로 조선어 강의를 해온 것이나 한국어 교수 인력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가장 큰 이유로 개인 작업으로 책을 편찬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의 한국어교재가 숙련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편찬되는 것³⁰⁾에 반해 한국의 유학생이나 전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선족, 저자 불명 등 신뢰할 수 없는 저자에 의해 교재가 편찬된 경우를 다수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한국어교재가 개인이나 비전문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편찬되는 것에 반해 대만의 경우 오히려 교재 편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채련강(2008:189)에서는 현대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학생의 교재로는 적당하지 않고 교과학습의 목표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³¹⁾ 마지막으로 교재의 체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교수요목의 부재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대학 기관의 '종합 교재'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단원 간의 유기성이 떨어지거나 단원 구성이 제각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단원에 등장하는 대화문이나 본문의 오류³²⁾나 문법 교재에 등장하는 용어의 문제³³⁾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3.2.2.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 교재의 변화 양상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교재의 편찬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노마 외(2008:267-290)에서는 한국어교재의 편찬 방향을 시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1945년 이후부터 출간이 늘었으며, 주로 재일 교포들의 출판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1960년부터 덴리대학에서 간행한 교재를 비롯한 몇 권의 입문서와

30) 국내의 경우 통합 교재 편찬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부 분권식 교재나 특화 교재 중에는 비전문가에 의해 양산된 교재도 찾아볼 수 있다.

31) 이주화 외(2010:315)에서는 중국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만의 대학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

32) 중국의 한국어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화용론적 오류에 대한 연구는 손세모들(2009)을 참고할 수 있다.

33) 중국에서 간행된 한국어 문법교재의 품사 및 문법 용어에 대한 부분은 최윤곤(201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문법서 등이 편찬되었고, 1970년대의 기술주의적인 교재의 등장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어 입문』이 편찬되었고 이후 일본에서 간행되는 한국어교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책으로 서술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어 학습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음성 교재를 비롯해 만화를 이용한 한국어교재도 등장하게 되었고, 회화 중심 교과서의 도입과 성장을 이 시기의 주요 변화로 언급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한국어교재는 연예인이 저자³⁴⁾로 참여하는 등의 대중적인 외국어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간 초급 중심의 한국어교재 편찬에서 중급,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및 문화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재가 간행되었음을 이 시기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교재의 특징을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내용 및 목적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교재는 ‘종합 교재’와 ‘회화 교재’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과 다르지 않으며, 전체 비중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책이 간행된 장소와 저자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간행된 종합 교재의 경우 국내와 비슷하게 대학 교육기관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지만 일본의 경우 개인에 의한 편찬이 주를 이룬다. 일본에서 간행된 ‘종합 교재’는 모두 2000년을 전후해 간행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입문서와 회화 교재가 중심이 되었으며, 이후 ‘입문서’의 내용이 보완·보충되는 형태로 종합 교재가 편찬되었다. 일본의 경우 교재 편찬의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기관 보다는 개인 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90년대의 교재 양상은 유타니 유키토시[油谷幸利] 교수의 저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유타니 교수는 1996년 펴낸 『朝鮮語入門』 이후에 이를 조금 더 심화 발전시킨 대학 기관용 종합 교재인 『總合韓国語』 시리즈를 펴내게 된다. 『총합 한국어』는 전 4권으로 이루어진 종합 교재로 각 단원마다 발음, 문법, 읽기, 듣기 등 모든 영역을 고루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의 생활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살펴봐야 할 저자로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교수가 있다. 2000년 중반부터 간행된 『Viva 中級韓国語』(2004)와 『新・至福の朝鮮語』(2007), 『はばたけ! 韓国語 Campus Corean』(2008) 등은 국외에서 편찬된 교재에서 보기 드물게 일관된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간행되었으며, 모두 대학기관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간행된 교재이다. 특히 『Viva 中級韓国語』(2004) 경우 노마 외(2008:288)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격적인 중급용 교과서가 부족했던 상황에 나타난 새로운 스타일의 중급용 학습서라고 할 수 있다.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 과마다 동일한 기능의 다양한 표현을 배울 수 있으며, 문법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담화 분석에 기초한 연구 성과를 다뤘다는 점 등을 교재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회화 교재의 경우 주로 1990년대까지 한국인 저자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판형이 문고판(105*148) 형태로 편찬된 경우가 많다. 문고판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출판 사정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어 교재 중 회화 교재가 다수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회화’라는 교과목의 개념이나 어학용 교육 교재로 접근하기보다는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서적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회화 교재의 경우 내용면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교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여행이나 방문 중심의 생활 회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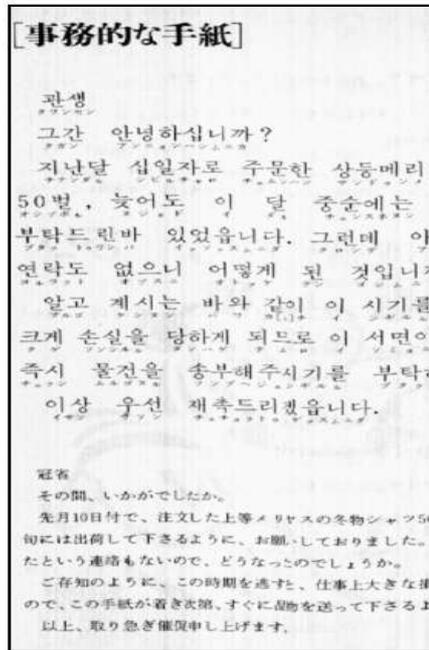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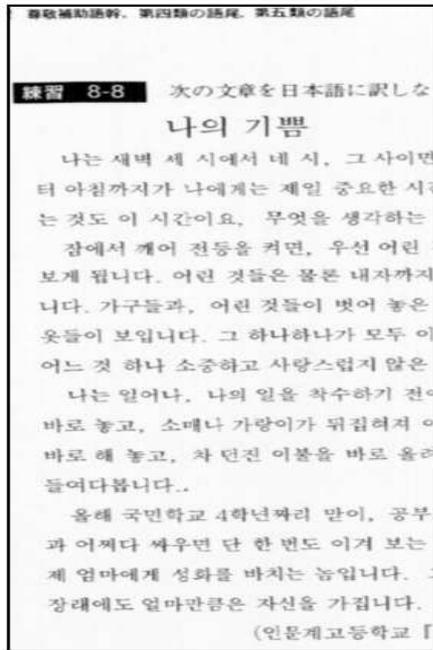
34) 분석 대상 교재 중에는 일본에서 활동했던 윤순하 씨가 참여한 『ユンソナ流超カンタン韓国語會話』(2002)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좌-95년 「ひとり歩きの 韓国語 自旅自在」 우-2000년 「やさしい 韓国語会話入門」

일본에서 간행된 교재 중에서 중국과는 또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입문서’로 분류된 13종의 교재이다. 교재 수준은 초급이면서 교재의 내용은 종합 교재에 가까운 성격의 ‘입문서’는 중국 교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교재이다. ‘처음 만나는’, ‘처음의 한국어’, ‘3일 만에 할 수 있는’과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입문서’는 문자를 익히고, 발음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둔 교재이다. 1996년에 간행된 『조선어 입문』의 단원 구성을 보면 ‘기본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설명’,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발음’, ‘인칭을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품사 설명’, ‘문장의 종결형’, ‘시제’ 등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입문서’를 ‘종합 교재’와 같은 성격으로 볼 때 ‘입문서’와 ‘종합 교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종합 교재’의 경우 두 권 이상으로 교재가 이루어졌을 때 보통 초급과 중급이나 초중급과 중급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입문서’와 ‘초급 종합 교재’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종합 교재’로 ‘초급 수준’이면서 단 권으로 나온 경우 ‘입문서’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저자의 의도나 제목이 아니면 구분이 어렵다.

간노(1991:149)에서는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의 기초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꼽고 있다. ㉠ 문자 전부 ㉡ 음성 전부 ㉢ 정서법의 규칙 전부 ㉣ 용언의 제1, 2 어기 ㉤ 용언의 선어말 어미 (-겠, -시, -ㅂ) ㉥ 용언의 자음 어간 ㉦ 어간, 모음 어간, ‘으’ 어간과 변격 용언의 차이 ㉧ 용언의 관형사형 전부 ㉨ 용언의 체언형 전부 ㉩ 용언의 종지형 중에서 -ㅂ니다, -ㅂ습니다, -ㅂ니까, -습니까, -십시오, -세요, -지요, -군요, -는군요, -ㄴ데요, -는데요, -요 등 ㉪ 격조사 거의 전부 ㉫ 특수조사, 병립조사의 대부분을 한국어의 기초 과정으로 보았다. 하지만 초급 종합 교재와 ‘입문서’ 모두 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입문서’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체계가 아닌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사람을 위해 흥미로운 학습 내용을 추가로 싣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은 90년대 출판된 2종의 ‘입문서’로 초급 수준에서 다루기 어려운 ‘일기’ 내용과 ‘고등학교 교과서’ 읽기 지문을 교재에 싣고 있다.



<그림 3> 좌- 『조선어입문』(1996), 우- 『10日間 ハングル』(1994)

‘회화 교재’와 ‘입문서’가 다른 교재에 비해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수준의 회화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목적으로 배우려는 학습자가 많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교재의 등급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교재를 등급 별로 분류한 결과 ‘초급 수준’의 교재가 55종이었고, 초중급의 교재가 16종이었다. 전체 교재의 90%가 초급 수준의 교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학습 목적이나 대상과 깊은 관련을 맺는 부분이다. 이희경(2005:129)에서는 일본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조사³⁵⁾를 실시한 적이 있다. 마쓰야마 대학의 학생들의 대답을 보면 한국어 선택 이유에 대해 43%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어와 언어 구조가 비슷해서 쉬워 보인다는 것도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 최근 한류의 영향이 35%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최종 학습 목표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다. 79%의 학생들이 여행 등에 도움이 될 정도의 간단한 회화 능력을 목표로 했으며, 36%의 학생들 역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회화 능력을 최종 학습 목표로 응답했다. 그렇다보니 말하기 중심의 회화 영역에 대한 희망도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쓰기나 읽기의 1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관련을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교재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급 교재에 비해 중급은 9종, 중고급 1종, 고급 1종이라는 결과는 지나치게 학습자의 수준이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 교육 측면이나 교재 개발 측면에서도 그리 반가운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은 해당 언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러한 결과는 교재의 수준이나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급 교재가 중심이 된다는 점은 학문 목적의 학습자가 많지 않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교재 편찬은 어디까지나 학습자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당 수준의 교재를 학습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준의 교재는 편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국적

35) 요구 분석을 위한 여섯 항목으로 1. 학습자는 학습 후 어떤 것에 한국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가 2.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수업에 대해 어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3. 학습자는 수업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가 4. 학습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 학습자는 수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6.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항이 사용되었다.

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편찬된 교재의 문제점

90년대 이후 편찬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재 80 여종을 살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수준의 교재가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초급에 집중돼 있는 교재를 개선하고자 중급 교재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편찬된 학습자의 수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 교재의 부재이다.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능 및 영역 간 통합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을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현재의 종합 교재가 대부분 내용 확인이나 문법 연습형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 기반형 활동을 온전히 담은 교재 편찬이 절실한 상황이다. 셋째, 다양한 영역의 분권식 교재가 부족하다. 앞서 <표1>에서 볼 수 있듯 간행된 교재가 대부분 ‘종합 교재’, ‘회화 교재’, ‘입문서’, ‘문법 교재’이며 읽기나 쓰기, 듣기, 말하기(발음) 교재나 어휘나 문화 영역을 다루는 교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물론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학문 목적 학습자가 증가하고 각 영역별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한국어교재가 비전문가나 개인에 의해 편찬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일본의 경우 저자의 대부분이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거나 학과의 교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니나 통합교재나 종합교재의 특성 상 다수의 공동저작이나 기관 중심의 편찬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관 중심의 공동 저작은 교재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실제 교재의 효율성이나 학습자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저작보다 유리하며, 교재 제작 후 일정 기간의 테스트를 거칠 수 있고, 재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도 이미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의 전공생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회화 전달이나 흥미 위주의 구성보다는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 전문가 집단에 의한 교재 편찬이 필요하다 하겠다.

4. 결론

지금까지 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한국어교재를 살펴보았는데 두 국가 모두 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교재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화나 문법 교재 중심의 이전 시기에서 벗어나 ‘종합 교재’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한 것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초급 중심의 교재 편찬에서 점차 초중급, 중급으로 학습 대상과 교재 수준이 변화한 것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학문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수준이나 내용에 국한된 편찬은 전반적인 교재의 발달, 더 나아가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연구자의 문제 제기와 방향 제시가 분명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외에서의 교재 편찬이 조금 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확한 교수요목과 교수법을 바탕으로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체계적인 교수요목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단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재 개발 전문가 집단에 의해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교재를 편찬하는 일은 단순히 자료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아니다. 교수 대상과 내용, 목적, 교수 방법 등이 하나의 형태로 녹아든 교육의 핵심 주제이다.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 방법은 물론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교재를 편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연구진과의 교류 및 협력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 교재의 경우 국내에서 간행된 교재를 현지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처음부터 현지 사정 및 현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재를 편찬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유익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교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재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재가 부족하고, 쓸 교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무분별한 교재 생산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한 교재 개발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간노 히로오미(1991),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수 방법", *교육한글* 4호 한글학회, pp.143-164.
- 고경민(2012),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살핀 한국어교육의 흐름", 『어문연구』 15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505-530.
- 고영근(1993), 『國語形態論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사.
- 권현주(2006), "논문 : 일본 내 한국어 교재의 명칭에 대한 실태 분석", *한국어 교육* 제17권(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0.
- 김경선(2007), "중국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구",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 _____ (2008), "중국의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론3』, 한국문화사.
- 김순녀(2009),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재 편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4권,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49-274.
- 김영옥(2003),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에 관한 고찰", *청람어문교육* 제26권, 청람어문교육학회, pp.253-272.
- 노마 히데키·나카지마 히토시(2008), "일본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_____ (2008), "일본의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론3』,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학 개관",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박소연(2011), "논문 : 일본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분석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2권(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99-121.
- 배희임(1990),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 연구", *이중언어학* 제7권(1), 이중언어학회, pp.71-92.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25 No.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11-31.
- 손세모듈(2009), "중국 출간 한국어교재의 화용론적 오류 분석", *국제어문* 제47권 국제어문학회, pp.129-171.
- 손정일(2008), "중국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여학봉(2009), "중국 내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연구", *高鳳論集* 제45권(-)慶熙大學校 大學院; pp.51-64.
- 오고시 나오키(1994), "일본에 있어서의 Korean language 교육의 실태 조사", 『한국말교육』 제5권, pp.271-284
- 오대환(2010),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이해", *국어학* 제57권(-)국어학회; pp.203-226.
- 오상순(2010),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어문교육* 제23권(-)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5-29.
- 우인혜·방성원(2008), "국외 한국어교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몽골 현지 한국어 교재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Vol.16 No.2, 국제비교한국학회. pp.373-416.
- 이주화 외(2010),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원리", 『중국어문학논집』 63호, 정국어문학연구회, pp.311-330.
- 이지영(2004),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Vol.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용주(1980),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교육", 『국어교육』 제36호, pp.21-35.
- 이혜영(1999), "통합성에 기초한 교재 제작의 원리와 실제", 『한국어 교육』 Vol. 10 No.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희경(2006),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한 일본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류",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25-151.
- 장광균(2000),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7권(1)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79-97.
- 조항록(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사",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_____ (2010), 『한국어 교육정책론』, 한국문화사.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정란(2011), "중국 대학기관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中國學研究* 제58권(-)중국학연구회,

pp.269-292.

채련강(2008), “대만의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론 3』, 한국문화사.

최윤곤(2011), “한국어교육 : 중국어권 한국어 문법의 교재 용어 분석(1) -품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89권(-)한국국어교육학회, pp.577-600.

후지이시다카요(2000),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7권(1)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61-77.

<부록> 분석 대상 교재 목록

1. 중국의 한국어교재 목록

저자	발행 시기	제목	출판사	학습 내용 및 목적	교재 수준
조령선 조령혜	1991	实用韩语会话	万里书店出版	회화	초급
강신도	1991	基础朝鲜语	对外贸易教育出版社	회화	초중급
안희진 주빈	1994	实用初级韩国语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회화	초급
위옥승 허동진	1995	韩国语实用语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문법	중급
김종현 박종금	1995	现代韩国语会话	旅游教育出版社	종합	초급
장민 황일선	1995	韩国语口语教程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초중급
위옥승허동진	1995	韩国语实用语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문법	초중급
한성대학교어학연구소	1996	韩国语	翰林出版社	종합	초급
북경대학, 복단대학, 대외경제연변대학 등 25개 대학	1996	标准韩国语 (第一册)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초급
북경대학, 복단대학, 대외경제연변대학 등 26개 대학	1996	标准韩国语 (第二册)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초중급
북경대학, 복단대학, 대외경제연변대학 등 27개 대학	1996	标准韩国语 (第三册)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중급
박숙자	2000	韩国报刊阅读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읽기	고급
이선한, 김경선 외	2001	韩国语1	民族出版社	종합	초급
이선한, 김경선 외	2001	韩国语2	民族出版社	종합	초급
유춘희	2002	初级韩国语会话 (上)	延边大学出版社	회화	초급
류소영	2003	韩语必备单词2000	广东世图出版社	어휘	초중급
묘춘매	2003	学韩语游韩国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회화	초중급
묘춘매, 배우척, 조남경	2003	韩国语入门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종합	초중급
유춘희	2003	初级韩国语会话 (下)	延边大学出版社	회화	초급
이선한, 김경선 외	2003	韩国语3	民族出版社	종합	중급
임종망 손린숙	2003	韩国语贸易通	世界图书出版公司	특화	중고급
정정덕	2003	无师自通韩国语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종합	초중급
김동한 장은영	2004	新韩国语基础教程 (上)	大连理工大学出版社	종합	초중급
김동한 장은영	2004	新韩国语基础教程 (下)	大连理工大学出版社	종합	초중급
리민덕	2004	한국문학작품선집	延边大学出版社	읽기	고급
방금숙, 김경화	2004	中级韩国语会话	延边大学出版社	회화	중급
심교 이순 이성응	2004	使用频率最高的韩国语生活口语	中国宇航出版社	회화	초중급
이선한, 김경선 외	2004	韩国语4	民族出版社	종합	중급
김충실	2005	韩国语能力考试词汇必备 (1~4级)	上海海文音像出版社	어휘	초중급
김충실 진염평	2005	韩国语能力考试语法词汇备考方案	北京大学出版社	수험서	중급

류명영 외	2005	边听边欣赏韩国风情小品文 244篇	中国宇航出版社	문화	중고급
박선희, 김정 임종망	2005	韩国语基础语法与练习	北京大学出版社	문법	초중급
박은숙, 이성도 외	2005	韩国语听力教程(初级①)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듣기	초급
우림걸, 박성봉	2005	大学韩国语(第一册)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초급
윤경애, 권혁철	2005	韩国语听力教程(上)	大连理工大学出版社	듣기	중급
장민, 박광해	2005	韩中翻译教程	北京大学出版社	특화	중급
강용택, 심교 김순영	2006	边说边记韩语最该掌握的句型 237个	中国宇航出版社	문법	중급
길호동	2006	实用营销韩国语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특화	중급
김중섭 외	2006	新标准韩国语(中级1)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통합	중급
김충실, 이명희	2006	韩国语能力考试听力备考方案	北京大学出版社	수험서	중급
노성화	2006	初级韩国语听说(上)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종합	초급
류소영, 소응효	2006	快速韩语自学45招	世界图书出版公司	종합	초급
박숙자, 우가경	2006	简明韩国语语法	中国宇航出版社	문법	중급
박은숙, 이성도 외	2006	韩国语听力教程(初级②)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듣기	초급
우림걸, 박성봉	2006	大学韩国语(第二册)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초급
우림걸, 박성봉	2006	大学韩国语(第三册)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중급
윤경애, 권혁철	2006	韩国语听力教程(下)	大连理工大学出版社	듣기	중급
윤윤진, 권혁률 이홍매	2006	中韩交流标准韩国语	人民教育出版社	종합	초급
이민, 왕소천	2006	韩国语会话上	大连理工大学出版社	회화	초급
이민, 왕소천	2006	韩国语会话下	大连理工大学出版社	회화	중급
전홍강	2006	说韩语	中国戏剧出版社	회화	초중급
조리, 장미영	2006	举一反三韩国语句型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문법	초중급
최옥산, 주기충 심교, 김순영	2006	边听边说韩语生活中最常说的900句	中国宇航出版社	회화	초중급
최옥산, 심교 김순영	2006	边听边说韩语流行口语极短句500个	中国宇航出版社	회화	중급
최희수, 유춘길	2006	初级韩国语(下)	遼寧民族出版社	종합	초급
최희수, 유춘길	2006	初级韩国语(上)	遼寧民族出版社	종합	초급
패리보로사	2006	生活用语必备韩国语	人民教育出版社	회화	초급
후문옥	2006	实用韩国语会话	安徽科学技术出版社	회화	초중급
강은국, 문영자	2007	韩国语泛读教程(下)	上海交通大学出版社	읽기	초중급
강은국, 문영자	2007	韩国语泛读教程(上)	上海交通大学出版社	읽기	초급
김재영	2007	韩国语能力考试模拟试卷(初级)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수험서	초급
김철	2007	实用韩语日常会话	世界图书出版公司	회화	초중급
방금숙, 장영미	2007	韩国语中级阅读	北京大学出版社	읽기	중급
연세대학한국어 학당 심정, 장광군	2007	韩国语教程4	世界图书出版公司	종합	중급
요덕재	2007	新编韩国语基础语法	东南大学出版社	문법	초중급
우림걸, 박성봉	2007	大学韩国语(第四册)	北京大学出版社	종합	중급
우인혜, 라혜민	2007	韩国语语法入门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문법	초급
윤경애	2007	韩国语听力教程中级下	大连理工大学出版社	듣기	중급
윤경애	2007	韩国语听力教程中级上	大连理工大学出版社	듣기	중급
이방, 신사명	2007	韩语会话词典	中山大学音像出版社	사전	초중급
이윤진, 진영평	2007	韩国语惯用型100例	北京大学出版社	문법	중급
임종강, 김룡	2007	韩国语写作	北京大学出版社	쓰기	중급
장광군, 임형재	2007	标准韩国语教程2	遼寧民族出版社	종합	초급
장광군, 임형재	2007	标准韩国语教程1	遼寧民族出版社	종합	초급

조혜정, 이동춘, 남정화	2007	韩国语能力考试实战模拟(中级)	上海交通大学出版社	수험서	중급
강은국, 채옥자	2008	中级韩国语(上)	上海交通大学出版社	종합	중급
곽일성	2008	韩国语能力考试真题精解及模拟800题(中级)	世界图书出版公司	수험서	중급
박금숙, 김진성	2008	经贸韩国语	世界图书出版公司	특화	중급
윤은진, 이주형	2008	中韩交流标准韩国语(中级1)	人民教育出版社	종합	중급
이상규, 김명실	2008	好说好听韩语口语	东南大学出版社	회화	초중급
임종강, 김삼곤	2008	新编旅游韩国语	北京大学出版社	회화	초급
임종강, 이명란	2008	精编实务韩国语	大连理工大学出版社	종합	초급
임종망, 손린숙	2008	韩国语贸易通	世界图书出版公司	회화	중고급
재효봉, 안인환	2008	基础韩国语初级写作教程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쓰기	초급
허유한	2008	实用现代韩国语语法	外文出版社	문법	초중급
반연매, 곽서생	2009	跟韩星学时尚韩语	大连理工大学出版社	회화	초중급
심정 이민성	2009	新时代韩语系统语法	北京出版集团公司	문법	초중급
윤경애, 권혁철	2009	标准韩国语同步练习册(第一册)	东南大学出版社	종합	초급
조윤 서가혜	2009	多媒体互动我的第一本韩语职场口语书	中国宇航出版社	회화	초중급
유연환오혜순	2010	我的第二堂韩语课基本句型232	中国文化大学韩国语文学系	문법	초중급
이민 안석주	2010	实用留学韩国语	大连出版社	회화	초중급
임경순	2011	韩国文化的理解	大连出版社	문화	중고급

2. 일본의 한국어교재 목록

저자	발행 시기	제목	출판사	학습 내 용 및 목적	교재 수준
우메다 히로유키	1991	スタンダード ハングル講座2文法・語彙	大修館書店	문법	초중급
유상희	1992	やさしい話す韓国語	第三書房	회화	초급
와타나베 기루용	1992	使いこなす ハングル レッスン	株式会社講談社	종합	초급
와카마츠 히로시	1993	韓国文手紙の書き方	高麗書林	읽기	중고급
한용무	1994	ハングル基本会話	白帝社	회화	초급
이시이 신지	1994	10日間 ハングル	株式会社	입문서	초급
임호빈, 홍경표, 장숙인	1995	外国人の ための 韓国語文法	延世大學校 出版部	문법	중급
구로사와 아키오	1995	ひとり歩きの韓国語自旅自在(改訂13版)	日本交通公社出版事業局	회화	초급
김유홍	1995	初めて 学ぶ韓国語Ⅱ基本句型編	語研	문법	초중급
츠카모토 히데키, 기시다 후미타카, 우에다 코지	1996	グローバル朝鮮語(GLOBALKOREAN)	くろしお出版	문법	초급
유타니 유키토시	1996	朝鮮語入門	ひつじ書房 (입문서	초급
유타니 유키토시	1997	朝鮮語の 入門2	ひつじ書房	문법	초급
김유홍	1997	金さんの 絵でわかる韓国語会話	明日香出版社	회화	초급
마츠바라 타카토시, 김연선, 황성원	1999	ポイントレッスン入門韓国語改訂版	東方書店	입문서	초급
김동한·장은영	1999	改訂版韓国語レッスン初級Ⅰ	スリーエーネットイワーク	종합	초급

김동한· 장은영	1999	改訂版韓国語レッスン初級Ⅱ	スリーエーネット イトワーク	종합	초중급
블루 해외 가이드 출판부	2000	韓国語+英語(わがまま歩き旅行会話)	ブルーガイド海 外版出版部	회화	초급
오영원	2000	はじめての 韓国語会話	新星出版社,	회화	초급
최관익	2000	[新裝版]朝鮮語読本—しっかり学ぶ基本から会話 まで	彩流社	문법	초중급
김유홍	2000	やさしい韓国語会話入門	金園社	회화	초중급
윤손하	2002	ユンソナ流超カンタン韓国語会話	学習研究社	회화	초급
하나자와야 스코,미야케 마나부	2002	個人旅行会話7 旅の韓国語	昭文社	회화	초급
한일청소년 친선교류연 구회	2002	韓国語を知らなくても 韓国人と友達になる	国書刊行会(회화	초급
이시다 미치요	2002	やさしい韓国語会話基本表現でくらくら話せる	高橋書店	회화	초급
이응수	2002	やさしい 韓国語講座	語研	종합	초중급
김순옥	2003	もっと知るうよ! ハングル1 あいさつと 文字	汐文社	회화	초급
유상희,오영 원	2003	これだけ覚える韓国語会話	成美堂出版	회화	초급
김순옥	2003	チャレンジ!韓国語	白水社	종합	초급
김순옥	2004	もっと知るうよ! ハングル2かそえ方と読音	汐文社	회화	초급
김순옥	2004	もっと知るうよ! ハングル3 くらしとあそび	汐文社	회화	초급
노마히데키 ·김진아	2004	Viva中級韓国語	朝日出版社	종합	초중급
쿠리하라 타쿠미	2004	楽しく!おもしろく!ゴロで覚える韓国語—超簡単 に身につく会話表現集	国際語学社	어휘	초급
김유홍	2004	トラベル韓国語会話手帖	大創出版	회화	초급
강봉식	2004	日本人のためのアンニヨンハセヨ アンニヨンハシムニカ韓国語入門	LanguagePLUS	입문서	초급
카나이 타카토시	2004	美しき日々」で始める韓国語	NHK出版	어휘	초급
강봉식	2004	日本人のためのアンニヨンハセヨ アンニヨンハシムニカ韓国語入門2	LanguagePLUS	입문서	초급
유타니 유키토시· 남상영	2004	總合韓国語4	白帝社	종합	중급
카와무라 미츠마사	2005	しっかり 身につく<中級>韓国語 トレーニングブック	べし出版	문법	중급
하세가와 유키코	2005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1	白帝社	회화	초급
카와무라 미츠마사	2005	しっかり 身につく韓国語 トレーニングブック	べし出版	문법	초급
오구라 기조	2005	小倉紀蔵のバズル韓国語	ナツメ社	문법	초급
유타니 유키토시· 남상영	2005	總合韓国語1	白帝社	종합	초급
시라카와유 타카·시라카 와하루코	2005	これならわかる! 朝鮮語	白水社	종합	초중급
이창규	2005	文型中心付テキスト 韓国語中級	白帝社	종합	중급
임종수·배 진영	2005	読める 書ける ハングル	LanguagePLUS	입문서	초급
유타니유키 토시,고영진	2005	實用韓国語	白帝社	문법	초급
유타니 유키토시· 남상영	2005	總合韓国語3	白帝社	종합	중급
임준대	2005	初級から上級まで 学べる 完全マスターハングル	DHC	문법	초중급
이시다 미치요	2005	あつという間に話せる韓国語	永岡書店	문법	초중급
하세가와 유키코	2006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読んで 書こう 1	白帝社	읽기	초급
한국교육재 단	2006	韓国語能力試験過去問題集	三修社	수험서	고급
기우치 아키라	2006	基礎から学ぶ 韓国語講座初級	国書刊行会	종합	초급
이창규	2006	文型中心付テキスト 韓国語初級	白帝社	종합	초급

소가유스케·지정희	2006	使える朝鮮語	白帝社	종합	초급
다카하시 요시로	2006	書いて覚える初級朝鮮語(改訂版 •CD付)	白帝社	종합	초급
유타니유키 토시·남상영	2006	總合韓国語2	白帝社	종합	초중급
조희철	2006	韓国語中級テキストウリマル •作文•講読 • 会話	白帝社	종합	중급
고등학교 한국교육	2006	好きやねんハングル	白水社	종합	초급
김경숙	2006	일본인을 위한 여보세요 한국어(2)	남두도서	회화	초급
은시오 게이코	2006	韓日辞典	大創出版	어휘	초중급
주식회사 자력스	2006	話す韓国語の単語力(改訂版)	語研	어휘	초중급
노마 히데키	2007	入門を終えたら直訳を超える！ 絶妙のハングル	NHK出版	문법	중급
오고시 나오키	2007	ことばの 架け橋	白帝社	종합	초급
나카무라 카츠야	2007	ひとりで学べる！ 韓国語中級 楽々ステップアップ	スリーエーネット イトワーク	종합	중급
칸노 히로미	2007	朝鮮語の 入門(조선어 입문)	白水社	입문서	초급
노마 히데키	2007	新•至福の朝鮮語	朝日出版社	종합	초급
오구라 기조	2007	最もツンプルな 韓国語マニュアル	アルク; 新装版	입문서	초급
쿠리하라 카게리	2007	日本語から始める 書き込み式韓国語BOOK	成美堂出版	입문서	초급
이시다 미치요	2007	「カムサハムニダ」から始める書き込み式韓国語会話BOOK	成美堂出版	문법	초급
기우치 아키라	2007	韓国語文法トレーニング	高橋書店	문법	초중급
이지영	2008	できる韓国語初級2	DEKIRU出版	종합	초중급
이지영	2008	できる韓国語初級 I	DEKIRU出版	종합	초급
쿠리하라 카게리	2008	1週間でできる初級 ハングル書き取り ノート	アルク	입문서	초급
쿠리하라 카게리	2008	3日でできる超入文ハングル書き取り ノート	アルク	입문서	초급
노마히데키, 무라다히로 시	2008	はばたけ! 韓国語 CampusCorean	한일출판사	종합	초급
김유홍	2008	はじめよう 韓国語	GUKEN	입문서	초급
현윤호	2008	日本人のためのはじめての韓国語	白帝社	입문서	초급
김경숙	2008	일본인을위한여보세요한국어(1)	남두도서	입문서	초급
강봉식	2008	なるほど韓国語 文字と読音	研究社	발음	초급
쿠리하라 카게리	2008	日本語から始める 書き込み式韓国語BOOK	成美堂出版社	문법	초급
이윤희	2008	韓国語の耳をつくる短期集中リスニングドリル	アルク	듣기	초급
이윤진	2008	韓国語表現文型	Hana	문법	초중급

“국외 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주희(경기대)

고경민 선생님의 논의는 이제까지 한국어교육에 관련된 교재 연구의 방향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던 통시적인 관점에서 교재를 살펴보려 한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교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논의거리를 덧붙입니다.

1. 이 발표는 통시적 관점에서 교재를 고찰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른 시기의 두 가지 이상의 공시적 연구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들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발표자께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90년대 이후 편찬된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편찬된 교재와 비교 고찰할 것이라 했습니다. 비교의 기준점이 각 나라의 다른 시대가 아니라 한국의 90년대 출간된 교재가 된 것은 국외의 한국어 교재의 발전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발표자는 정리된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본문의 제시나 교육 항목의 제시 순서나 연습, 과제, 활동 등의 분석을 통해 교수, 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안도 부분적으로 고찰하여 교재의 내용 및 목적, 학습자의 수준 및 교재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지나 부록 부분에서도 그 과정을 알 수 없어 어떤 기준으로 분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교재의 표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표1>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시적 관점에서 교재의 고찰이 있으려면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1>에서 궁금한 것은 학습자 수준 및 교재의 수준의 기준에서 각기 학습 내용 및 목적에 따른 분류로 나타난 특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진 교재가 많이 출간되었는지, 그것은 대학 출판사나 개인 출판사에 어느 정도 집중되었는지, 혹은 대학 출판사나 개인 저자의 한국어 교재 출간의 특징 등이 궁금하고 삽화나 문화 항목에 대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함으로 남습니다.

3. 교재의 변천 과정에서 종합 교재가 발전된 부분이 통합 교재라고 제시하면서 교재가 수정·보완된 점과 학습자의 요구 조사가 반영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보통 교재가 출간되고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출간될 때는 학습자의 요구와 함께 수정이나 보완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종합 교재와 통합 교재를 분류하는 것이 본 연구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국외의 교재들이 발전된 방향, 즉 통합 교재로 나아간다는 근거가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외에서 출간된 많은 교재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교재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일시 : 2013년 7월 19일 (금요일)

장소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103호, 2층 국제회의실

주제 : 남북한 언어 통합

주최 : 한말연구학회, 경기북부지연 통일교육센터

후원 : 대진대학교